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 2005-2015
성남문화재단 백서

05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 2005-2015
성남문화재단 백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형도를
바꾸다

15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 2005-2015

성남문화재단 백서

05-15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형도를 바꾸다

목차
CONTENTS

발간사 004
이재명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005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축하의 글 006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김영실 성남예총 회장
임인출 성남민예총 회장

SECTION 1
문화의 시작, 예술의 태동

설립 현황 012
연혁 014
CI/BI 016
비전과 미션 017
조직 현황 018
예산과 재원 019
주요 공간 020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갤러리808·큐브미술관
성남미디어센터·세계악기전시관·큐브플라자
책테마파크·중앙공원 야외공연장·성남시민회관

SECTION 2
10년의 예술, 10년의 성과

오버뷰 028
10年 10色 032

공연사업 043
오케스트라
고음악·리사이틀
자체제작
무용
브랜드·시민친화
교육
연극
탄천페스티벌
전문가 기고 070
인터뷰 김철주 공연기획부장 077
공연사업 연보 078
인포그래픽 082

전시사업 083
기획전시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어린이 교육·체험전
전문가 기고 098
인터뷰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107
전시사업 연보 108
인포그래픽 110

문화정책사업 11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전문가 기고 130
인터뷰 이영진 문화기획부장 141
문화정책사업 연보 142
인포그래픽 144

문화예술교육사업 145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성남어울리오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성남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
영상콘텐츠 공모전
성남 독립영화제작지원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성남미디어센터 설립 이야기 158
전문가 기고 164
문화예술교육사업 연보 174
인포그래픽 176
인터뷰 이상훈 문화사업부장 177

SECTION 3
10년을 바라보는 10개의 시선

10년을 바라보는 10개의 시선 180
마티네 콘서트 관객 | 김은희
성남아트센터 유료회원 최다 예매자 | 오경현
성남미디어센터 실버영상제작단 | 김윤종
아카데미 강사 | 이연정
성남아트센터 블로그 기자단 | 최정호
성남아트센터 자원봉사자 | 윤희경
사랑방문화클럽 활동가 | 정길선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 권경희
마티네 콘서트 지휘자 | 최수열
책테마파크와 함께한 조각가 | 기쿠치 다카시
전·현직 대표이사 인터뷰 190
이종덕 前 대표이사
안인기 前 대표이사
신선희 前 대표이사
정은숙 대표이사
특별 좌담
예술사업 10년 200
문화정책사업 10년 206

SECTION 4
미래를 위한 상생과 소통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214
유료회원제 218
월간 <아트뷰> 219
문화기획부 발간 도서 220
사회공헌 222
온라인 소통 223
화보 성남아트센터 10년 224
성남문화재단 사람들 230
직원 명단 238
역대 이사회 명단 240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1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242

Facilities 246
Overview 250
A Decade of Art 254
Performance Projects 260
Exhibition Projects 274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280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jects 284
History 289

목차
CONTENTS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성남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늘 정진하는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창립 이후 2005년 10월 설렘 가득한 첫 걸음을 내딛은 성남아트센터와 함께한 지난 1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이 선보인 다양한 콘텐츠와 수준 높은 기획물,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국적인 롤 모델로 주목받는 문화정책 등은 성남아트센터가 단시간에 수도권의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전국 지역문화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문화수준이 높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늘 열과 성을 다한 성남문화재단 임직원과 많은 예술인, 지역 안팎에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남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질에 얼마나 큰 힘을 미치는지는 굳이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문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백서는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이 걸어온 발걸음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와 예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국내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제2의 도약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이재명

이 재 명

문화예술의 미래,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가슴 벅찬 시작을 알린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가능성이다"라는 영국의 시인 새뮤얼 존슨의 말처럼, 지난 10년간 성남아트센터가 보여준 성과와 가능성은 성남아트센터 직원들은 물론, 성남아트센터를 사랑하는 많은 분의 열망이 함께 일궈온 꿈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성남문화재단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남문화재단이 걸어온 발자취, 다양한 프로그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성남문화재단의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많은 문화예술기관과 예술인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페이지마다 진심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제 성남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차별화된 콘텐츠로 국내 문화예술계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꿈꾸는 성남시와 발맞추어 문화지수를 높이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느껴지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빛내주신 많은 예술인분, 꾸준한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도 당부드립니다.

열정으로 함께한 10년, 앞으로 더 많은 이와 소통하며 더 큰 꿈을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

정 은 숙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견인차가 되어주길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 성남문화재단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성남아트센터가 어느새 개관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과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훌륭한 공간으로, 이러한 훌륭한 공간이 우리 성남시에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개관 1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서 그동안 문화예술로 성남시민의 행복지수와 성남의 도시 경쟁력 향상에 힘써온 문화재단의 발자취들을 담은 백서가 발간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기록이 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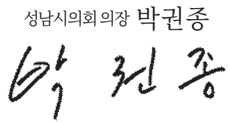
품격 있는 문화예술로 세계적 문화허브로 웅비하는 성남아트센터의 모습과 더불어, 아직도 문화예술이 어렵다고 느끼는 많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의 견인차 역할도 함께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을 성남문화재단 가족들과 많은 예술인에게 진심 어린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이제 새로운 10년을 꿈꾸는 성남아트센터의 미래에 항상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 성남문화재단 백서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힘차게 도약하고 전진하는 성남문화재단을 위해 성남시의회도 늘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성남의 문화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가을,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과 성남문화재단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아트센터의 탄생부터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성남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을 맞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성남아트센터는 국내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면서 안으로는 지역의 정서를 보듬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사업 등을 선보이며 그 어느 공연장보다 빠른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내일을 내다볼 시점입니다. 역사에는 영광도 있고 비극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정신이며, 그 정신은 바로 문화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과 지역 곳곳의 문화자산들은 성남아트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거름이 될 것이며, 이는 성남이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문화원 역시 성남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성남아트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맞잡고 늘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정은숙 대표이사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늘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열정으로 성남의 문화진흥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성남문화원장 김대진

지역과 호흡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성남아트센터가 중부권 문화공간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기까지 애써주신 시 행정기관과 의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성남아트센터의 지난 세월에 깃든 수많은 긴장과 환희, 감동, 그리고 그 속에서 고뇌와 좌절을 딛고 예술정신으로 함께하며 10년의 성상을 쌓아온 이름 모를 수많은 예술인과 스태프에게도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다른 어느 복지보다도 우리 삶의 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 달려가는 성남시의 시정 목표와 시민의 염원을 이룩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재단의 노력 역시 생활예술로 대표되는 사랑방문화클럽의 활성화 등 크고 작은 성과들로 도시에 활기를 주고 예술계 저변 확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정책 방향의 치우침이 지역의 전문 기초예술인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넓은 시선으로 조화로운 지원 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머무르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고 보면, 성과나 결과 역시 결국 또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성과와 뿌려진 씨앗들이 잘 가꿔지고 풍성히 자라나, 알차게 열매를 맺는 도약의 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성남문화재단이 한국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선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길에 성남예총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예총 회장 김영실

문화의 힘을 키우는 뿌리 깊은 나무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개관 당시 지역의 풍물패들과 함께 개관 축하 지신밟기를 하던 기억이 눈에 선한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훌륭한 공연들을 선보인 것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문화역량을 결집해내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성남미디어센터 개관 등 시민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여러 사업들은 성남문화재단이 이룬 훌륭한 성과라고 봅니다. 성남아트센터 역시 이제는 문화의 전당으로,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글로벌한 극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개관 10년이 흐른 지금, 이제부터가 성남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문화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의 힘은 그 도시의 정체성과 자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남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은 부족한 소통과 믿음이, 뚝심 있는 문화정책과 장기적인 문화대계가 아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진정성 있는 허심한 마음으로 성남의 힘을 결집하고 문화의 힘을 키워나가는 뿌리 깊은 나무와 숲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가까이 계셔주시는 정은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성남의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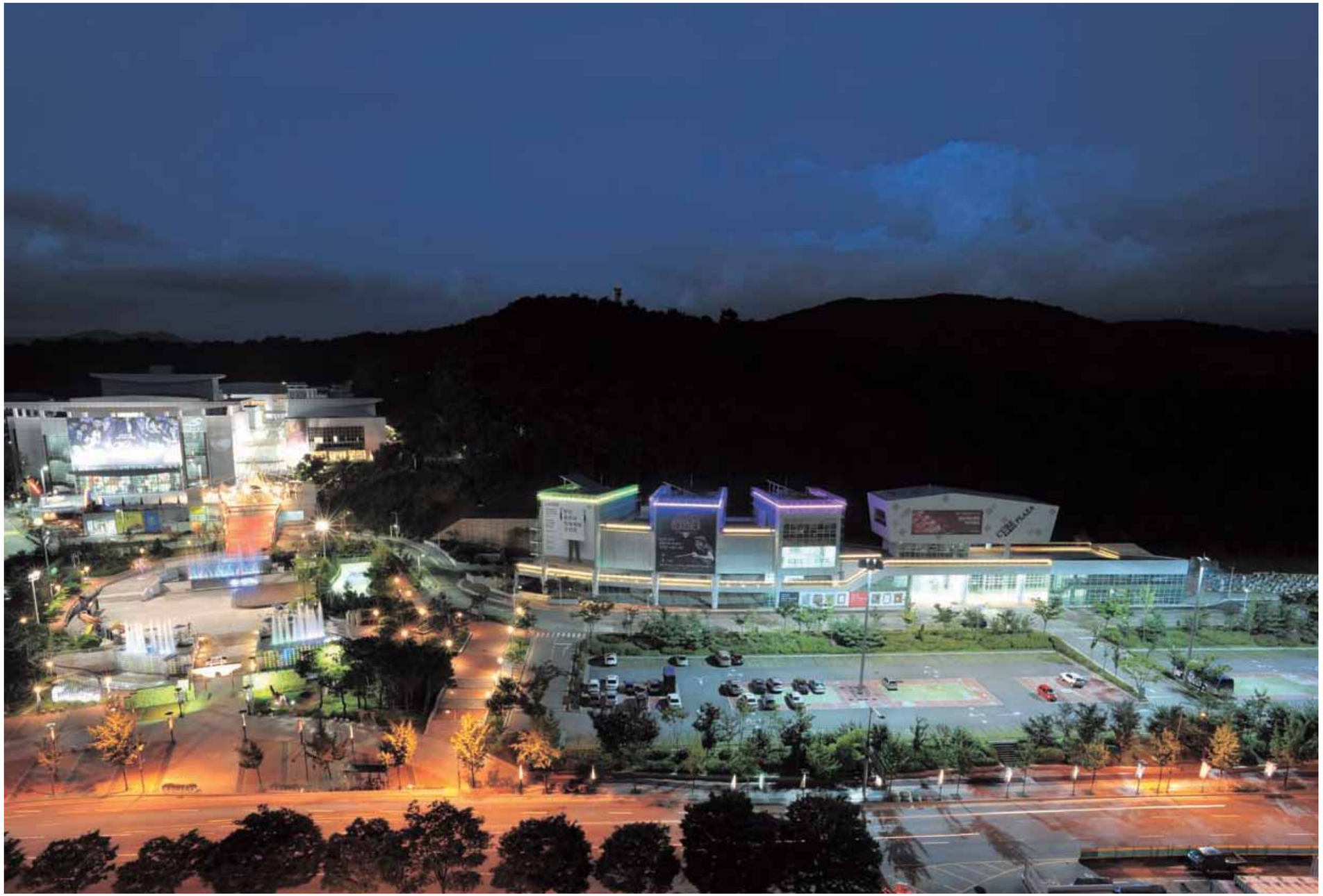
성남민예총 회장 임인출

SECTION 1

문화의 시작

예술의 태동

2004년 12월 22일,
문화도시 성남의 부푼 꿈을 안고
성남문화재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4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우뚝 서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합니다.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성남의 곳곳에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 그 눈부신 미래의
전주곡이 시작됩니다.



설립 현황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을 향한 출발

설립일
2004.12.1(설립등기일)

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설립 근거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4.6.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설립 목적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

주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성남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설립발기인

이대엽	성남시장
홍양일	성남시의회 의장
양인권	성남시 부시장
윤광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
한창구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성남시 문화복지국장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방영기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주익성	워싱턴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박조신	아름방송 대표이사

연혁

성남아트센터의 설계부터 오늘까지

1994
- 7. 4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건교부)
- 12. 31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999
- 12. 6 설계 완료

2000
- 1. 19 시설공사 입찰 공고
- 3. 13 시설공사 입찰
- 5. 1 시설공사 착공

2002
- 3. 19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 6. 14 건축음향 설계용역
- 10. 10 건축음향 설계용역 완료
- 11. 4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완료

2003
- 8. 11 건축음향 및 지하주차장 착수
- 9. 22 성남아트센터 B·I 용역
- 10. 9 성남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

2004
- 5. 24 문화재단 개관 준비팀 발족(팀장 1, 주사보 2)
- 6. 7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7. 15 성남아트센터 B·I 용역 완료
- 7. 23 성남문화재단 발기인 구성(10명)
- 12. 1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정(2국 6팀)
  제1대 이종덕 상임이사 취임
- 12. 22 성남문화재단 출범

2005
- 1. 21 조직 개편(2국6팀 餐 1단2국9팀)
  (축제추진단 신설)
- 2. 1 성남시와 성남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 6. 27 조직 개편(1단2국9팀 餐 3국1단1실10부)
  (문화사업국 신설, 팀 餐 부서로 개편)
- 9. 20 성남아트센터 준공
- 10. 7 성남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 10. 14 성남아트센터 개관
  개관페스티벌(10. 14~12. 31) | 43개 기획공연 개최

2006
- 4. 28 성남시와 책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 10. 24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
- 10. 25 전문예술법인 지정(경기도)
- 12. 1 제2대 이종덕 상임이사 연임
- 12. 22 조직 개편(3국1단1실10부 餐 1감독3국1실11부1검사역)
  축제추진단 餐 예술감독/축제추진부로 신설, 극장운영부 삭제 및 사업운영부 신설

2007
- 12. 7 성남시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2008
- 4. 23 조직 개편(1감독3국1실11부1검사역 餐 부서 명칭 변경)
  (홍보실 餐 홍보마케팅실, 사업운영부 餐 경영사업부, 축제추진부 餐 축제기획부)
- 12. 1 제3대 이종덕 상임이사 연임
- 12. 23 조직 개편(1감독3국1실11부1검사역 餐 1감독1실2본부9부1검사역)
  (3국을 2본부 체계로 개편 : 조직 통·폐합)

2010
- 1. 6 정관 개정(상임이사 餐 대표이사)
  (이종덕 상임이사 餐 제1대 이종덕 대표이사)
- 8. 5 큐브플라자 증축
- 11. 30 조직 개편(1감독1실2본부9부1검사역 餐 1실3국10부)
  (2본부를 3국으로 개편, 문화진흥국 신설, 홍보마케팅실 餐 홍보미디어실, 검사역 삭제)
- 12. 2 「사랑방문화클럽」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2011
- 11. 1 제2대 안인기 대표이사 취임

2012
- 2. 21 조직 개편(1실3국10부 餐 1실3국9부)
  (사업운영부, 시설관리부 餐 시설운영부, 무대기술부 餐 무대운영부)
- 9. 5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등록(큐브미술관)
- 11. 30 「사랑방문화클럽」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12. 27 성남미디어센터 개관(큐브플라자 1층)

2013
- 1. 14 제3대 신선희 대표이사 취임
- 11. 25 세계악기전시관 오픈(오페라하우스 2층)

2014
- 7. 11 조직 개편(1실3국9부 餐 1실3국10부)
  (고객지원부 신설, 시설운영부 餐 안전시설부)
- 12. 1 제4대 정은숙 대표이사 취임

2015
- 6. 30 성남의료원 건립에 따른 성남시민회관 운영 중단

CI/BI

조화로운 어울림으로 성남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한 상징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문화재단의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그니처이다.
심볼마크는 성남문화재단 CI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끊임없이 진보하려는 성남문화재단의 정신과 철학을 시의 새인 '까치'와 시화인 '철쭉'에 담아 영문 이니셜 'S'로 표현했다. 부드러운 곡선의 이어짐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그리고 동서양의 조화, 고전과 현대 예술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상징한다. 다양한 사업 활동을 효율적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재단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역재단의 이미지와 인식을 제고하고, 더욱 새롭고 확장된 운영기술을 개발해 쾌적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는 의식을 전달하고자 개발되었다.

로고타입은 성남문화재단의 공식명칭을 표기하기 위해 디자인된 문자이다. 심볼마크와의 조형적 통일성 및 조화를 고려해 균형과 비례를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성남아트센터의 BI는 성남아트센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로, 성남아트센터의 사업과 공간을 대표하고 있다.

비전과 미션

성남문화재단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비전

품격 있는 예술, 참여하는 생활문화

미션

역동적 기획과 문화콘텐츠 다양화
시민의 지혜로 여는 성남형 생활예술

경영방침

공연·전시 활성화와 생활문화 확대

함께하는 감동예술

1 창의적 역동성 강화
2 지역성의 세계화
3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제공
4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확대
5 노력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문화재단 정체성 강화로 생활문화 으뜸도시 구축

1 주민과 마을 속으로
2 주민커뮤니티 확산 및 생활문화공동체 구현
3 전국 최초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4 전문 인력 발굴·양성 및 생활예술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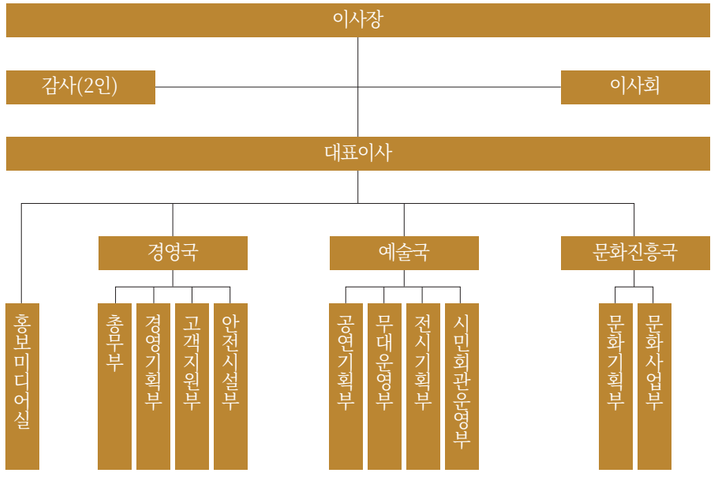
생동감 있는 조직, 감동 주는 서비스

1 소통과 참여로 공감행정 수행
2 합리적 예산 운영으로 효과 극대화
3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4 감성 서비스로 고객 감동
5 선택과 집중이 있는 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조직 현황

성남문화재단의 조직 구성과 인원

1실 3국 10부
(2015.8.31 기준)



인원

구분	계	홍보 미디어	총무	경영 기획	고객 지원	안전 시설	공연 기획	무대 운영	전시 기획	시민 회관	문화 기획	문화 사업
정원	101	8	9	7	6	6	13	22	6	3	10	11
현원	99	9	9	6	6	7	14	23	5	1	8	11

예산과 재원

평균 240억 원 예산 운영

성남문화재단은 2005년 설립 이래 평균적으로 연간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및 시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 당위성을 입증하면서 평균 연간 149억 원 규모의 재단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의 평균 수입 구조를 보면 공공지원이 79.5퍼센트, 자체 수입이 20.5퍼센트이다.

(단위 : 천 원)

연도	총예산	일반 출연금	목적 출연금	민간 위탁금	국도비 보조금	자체 수입	이월금
2005	17,482,998	15,685,264	0	0	0	1,797,734	0
2006	23,523,265	16,315,677	0	0	0	5,267,548	1,940,040
2007	25,349,829	17,189,286	0	0	0	5,058,476	3,102,067
2008	29,327,630	17,799,048	1,222,872	645,477	0	5,534,036	4,126,197
2009	28,746,050	10,780,587	7,220,500	1,259,177	28,000	5,610,481	3,847,305
2010	23,851,631	11,702,294	5,220,500	585,204	0	5,486,948	856,685
2011	21,974,620	13,492,937	2,000,000	617,251	134,000	4,881,007	749,425
2012	22,664,576	13,908,394	400,000	731,890	173,530	4,790,250	2,560,512
2013	23,170,472	14,401,521	60,000	793,513	338,130	5,267,174	2,310,134
2014	23,786,982	17,130,713	0	30,000	222,282	5,134,753	1,269,234
2015	24,582,259	18,231,081	200,000	0	59,000	5,325,772	766,406

세상의 모든 예술을 만나다

오페라하우스

1,854석 규모의 첨단 무대 시설을 갖춘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를 수용하는 다목적 복합 공연장이다. 대편성 오케스트라 공연부터 오페라, 발레, 뮤지컬, 콘서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예술을 최상의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홀의 음향은 본 잔향 1.4초를 기준으로 음향 보정 장치를 이용해 최대 3초까지 잔향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객석 위 천장에 설치된 8조의 배너 커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1.2초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백스테이지 공간에는 10개의 분장실(VIP, 개인, 그룹) 및 출연자 대기실, 지휘자실, 악장실이 있으며 지상 3층에는 오페라·국악·연극·무용 등 장르별 중소 연습실이 자리 잡고 있다.

- 1,854석(1층 1,128석, 2층 404석, 3층 272석, OP석 50석)
- 연면적 16,933.58m^2, 주무대 240m^2(16×15m), 후무대 240m^2(16×15m)
- 세계악기전시관(2층), 어린이 놀이방·수유실(1층), 갤러리808
- 분장실, 장르별 연습실, 출연자 대기실, 지휘자실 외

가장 완벽한 감동의 무대

콘서트홀

콘서트홀은 합창석을 갖춘 994석의 어쿠스틱 홀이다. 정통 클래식 공연에 최적인 탁월한 음향이 특징으로 개관 이후 리사이틀과 실내악, 고음악과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르기까지 품격 있는 클래식 무대를 선사해왔다.

홀의 외관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랜드 피아노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무대막이 없는 아레나형 무대로 객석 어디에서나 안락한 감상이 가능하다. 사운드는 콘서트 전용 홀의 특성을 살려 잔향 1.8초로 설계되었고 객석 조명은 은은한 빛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간접 반사를 이용해 클래식 전용 홀에 걸맞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SPG(Special Project Glazing) 시스템으로 제작된 외벽 유리는 개방감과 채광성을 극대화, 콘서트홀 건축물과 주변 자연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는 뛰어난 채광 효과로 아름다운 로비 공간을 제공한다. 백스테이지 공간에는 6개의 분장실과 악기 보관실, 관현악단 연습실을 포함한 13개의 연습실이 있다.

- 994석(1층 650석, 2층 344석)
- 연면적 10,783.19m^2, 주무대 257m^2(23×11.2m)
- 분장실, 연습실, 성남시립예술단 사무실 외

눈앞에서 호흡하는 복합예술

앙상블시어터

성남아트센터의 세 극장 가운데 가장 아담한 규모인 378석의 복합공연장으로 연극과 리사이틀, 실험적 퍼포먼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예술을 담아내고 있다. 소규모 극장이지만 전면 무대와 객석으로 돌출된 T자형 무대 장치, 주무대의 회전 장치 등 첨단 무대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폭넓은 상상력을 풀어내는 입체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공간의 특징을 살려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교감하고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금요일 밤의 콘서트였던 '수아레 콘서트', 관객 밀착형 해설과 연출로 수준 높은 예술 강좌에 목말랐던 관객을 사로잡은 '박종호의 오페라글라스', 대학로 소극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온 '연극만원' 등이 앙상블시어터에서 사랑받은 시리즈들이다. 백스테이지 공간에는 대기실, 분장실, 연습실, 도구 반입실 등이 위치해 있다.

- 378석(가변 운영 시 340석)
- 연면적 3,964.29m^2, 주무대 176m^2(16×11m)
- 아카데미, 카페

시민과 호흡하는 문화의 산실

갤러리808·큐브미술관

성남아트센터의 전시공간은 오페라하우스 지하의 갤러리808(구 미술관 본관), 큐브플라자 2층에 위치한 큐브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갤러리808은 천장 높이 3.3m, 831m^2 규모의 전시실과 수장고, 항온 및 항습 시설, 조명 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제1·2·3 전시실로 구성되어 전체 대관은 물론 다양한 구획별 전시가 가능하다. 2010년 8월 개관한 단일전시공간인 큐브미술관은 개관 기념 특별전 <영국현대회화 - 존무어상 수상작가전>을 시작으로 성남아트센터만의 특색 있는 기획전시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미술관 모두 다양한 해외·국내 기획전시, 지역예술 육성을 위한 전시,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산책하듯 방문해 최고의 전시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작품과 직접적인 교감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 갤러리808 총 831m^2(제1전시실 300m^2, 제2전시실300m^2, 제3전시실 231m^2), 수장고 65m^2
- 큐브미술관 759m^2, 수장고 165m^2, 준비실 50m^2, 창고 50m^2

성남미디어센터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 위치한 성남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성남시가 설립을 지원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다목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 미디어도서관, 편집실, 디지털교육실, 미디어홀(상영관) 등의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 관련 강좌와 교육,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라는 비전처럼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배우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세계악기전시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에 위치한 세계악기전시관은 아시아·오세아니아관, 아프리카·남북아메리카·유럽관 등 2개의 전시관, 그리고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악기·관악기·타악기·건반악기 등 45개국 152점의 다양한 세계악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관 중앙에 자리한 모니터 터치스크린을 통해 악기별 설명과 악기 분포 지도, 실제 연주 동영상 등을 확인하며 악기별 나라의 문화사까지 조망할 수 있다.

큐브플라자

정육면체가 이어진 독특한 외관의 큐브플라자는 성남미디어센터와 큐브미술관, 미디어홀, 반달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미디어를 통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 성남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으로도 손색없는 미디어홀의 영화 상영회와 강좌, 큐브미술관과 반달갤러리의 전시, 레스토랑과 카페 등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책테마파크

분당구 율동공원에 자리 잡은 책테마파크는 책을 주제로 자연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2005년 11월 준공, 이듬해인 2006년 1월부터 성남문화재단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 전시행사를 통해 자연 속에서 책과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책을 상징하는 각국 문자가 어우러진 조형물 진입로 '바람의 책', 훈민정음 판본과 필사본을 담은 '한글의 책', 미로와도 같은 야트막한 비탈길에 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0여 개의 부조가 놓인 '시간의 책', 아늑한 도서관 열람실을 연상시키는 '공간의 책' 등 드넓은 하늘과 풀밭 사이로 다채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분당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이다. 비가 와도 공연 관람이 가능한 480석의 원형 객석과 최대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드넓은 잔디 객석, 최상의 음향과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다. 파크콘서트,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해 수도권의 '아트 파크'로 자리매김했다.

성남시민회관

수정구 태평동의 옛 성남시청 자리에 위치한 성남시민회관은 1981년 6월 준공 이후 오랫동안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의 문화요람으로 자리해 온 공간이다. 2층 구조의 대극장과 288석의 소극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성남문화재단이 2005년부터 위탁 운영해왔다. 이후 본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기획·대관 공연, 실버 세대를 위한 고전영화 상영회 '청춘시네마' 등을 선보여왔으나, 시립의료원 설립과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로 인해 2015년 6월 철거되었다. 새로운 시민회관은 같은 자리에 신축되어 2018년 초 준공 예정이다.

SECTION 2

10년의 예술 10년의 성과

성남문화재단 출범, 성남아트센터 개관과 함께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성남시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남문화재단이 펼쳐온 사업들은 성남을 상징하는 문화 브랜드로 발전했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지형도를 새롭게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공연과 전시사업,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 생활문화 창조도시 성남을 만들어갑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형도를 바꾸다

글 10주년 백서 편집팀

사통팔달 문화예술 신경망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성남시 분당구청 앞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파크 콘서트>를 1시간 30분 앞두고 잔디석 절반이 인파로 들어찼다. 목요일부터 전망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밤을 새우려는 중고교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느라 야외공연장 직원들은 진땀을 흘렸다.

공연을 30분 앞두고 너른 잔디석이 가득 찼다.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 온 치킨, 맥주, 피자, 와인을 나누는 가족과 연인, 유모차와 애견을 앞세운 시민, 간이식탁 펴고 마주 앉은 엄마와 아들…. 하늘에는 누군가 띄운 드론이 날고, 공연 전 이벤트로 촬영팀이 소녀와 은발 할머니를 차례로 카메라에 잡아 톡톡 튀는 멘트 자막과 함께 큼지막한 전광판에 띄우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어림잡아 1만2,000명이 관람한 이날 공연은 빈지노, 도끼, 더 콰이엇, 기리보이, 바스코, 씨잼이 출연한 힙합 콘서트. 2015년 성남문화재단 <파크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였다.

성남에서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이 문화예술이 숨쉬는 '아트 파크Art Park'로 변모한 사례는 중앙공원 외에도 또 있다. 율동공원 책테마파크다. 경기도가 책을 주제로 조성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취雅趣 가득한 공원에서 한글날축제, 세계책의날 축제, 어린이 프로그램, 시민강좌가 연중 열린다.

성남에선 이렇듯 공원 하나도 밋밋하지 않다. 단순 휴식처가 아니다. 문화의 색채가 덧칠되고 예술의 숨결이 흐르면서, 표정 있고 끼 넘치는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성남에서 문화예술은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촉수를 뻗는다. 주민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에서는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이 꽃피는 마을> 콘서트가, 지하철 역사와 야탑역 광장에선 사랑방문화클럽 공연이 흐드러진다. 정기물인가 하면 게릴라성도 있고, 백화제방百花齊放에 난분분이다. 공원이 아트 파크로, 골목이 아트 앨리로…, 성남 구석구석에 문화예술이 모세혈관처럼 뻗는다.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무대를 공연장 울타리를 넘어 시민들 일상생활 속으로 확장시켰다. 앉아서 시민 관객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나서며 가로지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문화예술의 온기와 숨결이 실핏줄처럼 흐르게 한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이 구축한 문화예술 사통팔달 신경망이다.

문화정책 선도 - 명실상부 복합문화공간

성남문화재단은 예술(공연·전시)사업과 문화정책사업을 양수겸장으로 펼치는 한국 최초 모델이다. 공연장과 문화재단이 각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합쳐놓은, 명실상부 복합문화공간이다. 성남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원과 격려 속에 2004년 12월 출범한 성남문화재단이 이듬해 10월 14일 개관한 성남아트센터는 수준 높은 공연물을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을 선도하면서, 다양한 예술과 신개념 무대언어를 담아내는 용광로를 자임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특화> <개성화> 전략으로 개관 정체성을 확보했다. '세계를 겨누며 지역을 보듬는' 기획물에 우리 시대의 따끈따끈한 첨단 예술사조와 지역정서를 버무려 녹여냈다. 길버트 카플란(지휘), 마티아스 괴르네(바리톤), 안네 소피 폰 오터(메조소프라노), 나이젤 케네디(바이올린),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앤드루 맨츠(바이올린)가 성남아트센터에서 최초 내한 무대를 펼쳤다. 첼리스트 장한나는 성남문화재단 기획무대에서 지휘자로 데뷔, 센세이셔널한 화제를 국내외에 뿌렸다.

유럽 현대무용의 신화 에미오 그레코의 <비욘드Beyond>는 역사적 세계 초연을 성남아트센터에서 펼쳤고, 영화 거장 장이모우가 연출한 중국국립발레단의 <홍등紅燈> 한국 초연 무대도 성남아트센터였다. 성남아트센터가 제작한 오페라 <파우스트>(2005, KBS 선정 최고 공연),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2006, KBS 선정 최고 공연), 몬테카를로발레단의 <신데렐라>(2005, 중앙일보 선정 최고 공연), <라벨르> 한국 초연은 최고 완성도로 찬사를 받았다.

성남문화재단의 <특화> <개성화> 전략은 예술사업에서 문화정책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갔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문화재단이 쏘아올린 대박 브랜드. 성남발發 사랑방문화클럽이 생활예술·시민

예술의 아이콘icon이 되면서 문화관광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롤모델로 삼았고, 성남은 대한민국 '생활예술 1번지' '생활예술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2010년 민관협력우수사례발표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0대 트렌드 중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성남미디어센터,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등 문화정책 프로그램도 사업의 양과 질에서 독보적 성과를 기록하면서 전국적 울림을 획득하고 있다.

콘텐츠의 힘

성남문화재단은 창의적 기획물과 우수한 맨파워로, 서울로 쏠린 문화의 무게중심을 성남으로, 수도권으로 분산시켰다.

<성남아트센터, 카플란 한국 초연 단독 유치… 성남발發 특종 해냈다>(서울신문, 2005.12.13), <성남아트센터, 한국공연예술계 콜럼버스 달걀 역할 기대>(조선일보, 2005.10.29), <말러 마니아 전설 카플란 센세이션>(연합뉴스, 2006.6.29), <성남아트센터 단독 유치·최초 내한 공연 줄이어… 특화된 공연 큰 관심>(CBS, 노컷뉴스), <역대 신데렐라 중 가장 성공… 얄미울 정도로 성공>(한국일보, 2005.10.28)….

성남문화재단 10년 성과는 '콘텐츠의 힘'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선도적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창의적 문화진흥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문화정책 발전소로 떠올랐다.

신생 공연장의 난제를 콘텐츠로 돌파하면서, 성남아트센터는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공연장에 단기 안착했다.

돌풍은 관객 유인으로 나타났다. 성남문화재단은 출범 1년 3개월 만인 2007년 1월 공연·전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08년 5월 네덜란드 댄스시어터 공연을 기점으로 공연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공연·전시·시민회관·책테마파크를 포괄한 누적 관객 수는 2015년 7월 31일 현재 867만4,658명. 이 숫자엔 2012년 개관후 전국적 모범으로 떠오른 성남미디어센터 이용객과 세계악기전시관 방문객을 비롯해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에서 성남문화재단이 펼치는 파크 콘서트·피크닉 콘서트의 관객 수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1천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관객이 성남문화재단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성남시민의 최소 10배수 이상이 성남문화재단을 찾았다는 의미다.

특화·차별화 콘텐츠를 통해 공연장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성과를 평가받아, 성남아트센터는 2009년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선정되었다.

성남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스터(좌)와 2005년 10월 14일 개관 불꽃놀이 풍경. 수많은 시민과 문화예술계 인사가 한데 모여 새로운 복합예술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성남의 표정을 바꾸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표정을 만든다. 문화예술의 인프라와 내용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은 매년 7~8월 한 달간 바그너 음악제를 연다. 바그너의 악극을 공연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55,000장 티켓을 두고 음악 애호가들이 벌이는 매표 경쟁률은 10대1을 상회한다. 표를 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결성된 바그너 협회가 단체로 움직인다.

바이로이트 시의 인구는 10만 명 수준. 하지만 이 소도시의 문화적 함의는 인구 1천만 명 메트로를 훌쩍 뛰어넘는다. 바이로이트에서 공연되는 <니벨룽의 반지> 4부작(라인골트, 발퀴레, 지그프리트, 괴테뎀메룽. 해마다 공연하며 5년마다 새 프러덕션을 제작한다), <파르지팔> <트리스탄과 이졸데> <로엔그린> <탄호이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방황하는 네덜란드 인>은 오직 바이로이트 브랜드로만 배타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 바이로이트만의 '독점적 특화' 문화상품이 도시의 브랜드로 유통되는 것이다. 1976년 딱 한 차례 있었던 일본 원정공연을 제외하면 '바이로이트 프로덕션'이 통째로 외국으로 투어를 나간 적도 없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 음악제와 축제극장을 찾아 세계 각국에서 당대 음악인과 명사, 음악 팬들이 바이로이트로 몰려든다. 바이로이트 브랜드 파워다.

성남문화재단의 향후 10년, 100년은 '지역local'이 '세계global'가 되는, '주변periphery'이 '중심center'이 되는 바이로이트에서 함의와 추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남은 서울과 몸을 맞댄 범汎메트로이면서, 본시가지(중원구·수정구)와 신시가지(분당구)가 혼재된 역동적 사회 구성을 이룬다. 판교 신시가지가 합류했고, 위례신도시도 일부 성남시에 편입됐다. 경제·사회 인프라와 생활기반을 서울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고유의 정서를 간직한 역동적 커뮤니티 성남. 다면적 다층적 스탠스를 잡으며 '세계global'와 '지역local', '보편global'과 '특수local' 두 방향을 바라보기란 간단치 않다. 성남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현재 24.1% 수준. 상향의 과제는 여전히 숙제지만, 개관 초기부터 2009년까지 평균자립도 20.6%에 비해서 3.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 대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비 지출도 4.3%에서 7.8%로 크게 늘었다. 창의적 콘텐츠와 우수한 맨파워, 차별화·특화 전략으로 신생 복합문화공간의 한계를 돌파해온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성남문화재단의 향후 10년, 100년에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이유다.

10年 10色

성남아트센터 10년 성남문화재단 10색

성남문화재단의 설립,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10년의 시간은 문화예술의 창조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아가 국내 문화예술계에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긴 세월이었다.
10년의 마디마다 깃든 열 가지 키워드를 통해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의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해본다.

'성남發' 기획공연이 보여준 콘텐츠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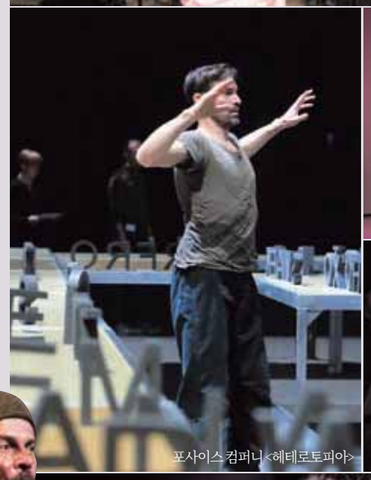
한국 초연의 보고

2005년 10월 14일, 성남아트센터는 화려한 개막과 함께 국내 공연예술계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 모은 기획 프로그램들을 내놓았다. '세계 최고의 공연을 처음 만나는 곳'이라는 과감한 캐치프레이즈 아래 선보인 개관 페스티벌 라인업은 '성남 단독' '한국 초연' '자체 제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여타 수도권 공연장이 시도하지 못했던 기획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 서울 주요 복합예술공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성남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경쟁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관객을 확보하고자 수립한 혁신적 차별화 전략이었다. 지휘자 길버트 카플란의 말러 교향곡 2번 연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리사이틀,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 등이 모두 국내 초연이자 성남 단독으로 이루어진 화제작이다. 당시 성남아트센터는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선보이지 못했던 화제의 콘텐츠를 '성남發' 기획공연으로 집중 편성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계에 획기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동시에 공연장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콘텐츠의 힘'으로 압축되는 성남아트센터의 행보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우선 음악 분야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결과물을 기록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뮌헨 필하모닉, 로저 노링턴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오케스트라), 톤 쿠프만과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고음악), 아르카디 볼로도스-폴 루이스-장에프랑 바부제로 이어진 최정상 피아니스트들의 리사이틀이 모두 한국 최초로 이루어졌다. 특히 성남 무대에서 이들의 진가를 확인한 애호가들에 의해 연주자들의 위상 역시 높아지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등은 성남 무대에서의 호평에 이어 이후 내한 역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무용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 발레 뒤 노르의 <비극> 등 당대 가장 혁신적인 화제작으로 꼽히는 작품을 선택하며 공연예술의 첨단사조를 이끌어나가는 면모를 증명했다. 수도권은 물론 각 지자체별 공연장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성남아트센터가 고유의 독창성을 성공적으로 지속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위와 같은 화제작들을 선보인 '기획의 힘'이었다.

길버트 카플란의 말러 교향곡 2번


포사이스 컴퍼니 <헤테로토피아>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연극 <1,000프랑의 보상>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연습 풍경

2 '성남發' 개성을 살린 특화 브랜드 창조
자체제작

성남문화재단은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지역극장의 특성과 책임감을 살려 개관 초기부터 꾸준한 자체 제작 기획물을 선보였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한국 초연으로 선보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대중성이나 흥행성에만 연연하는 기획이 아닌, 국내 제작 오페라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과감하고 선구적인 시도였다. '하룻밤에 오페라 두 편'이라는 강렬한 카피를 내건 소극장 오페라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 초연 또한 단순한 발췌나 오페라 갈라가 아닌, 작곡가들이 그 시대의 살롱 오페라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소극장 오페라로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관 10주년 제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오페라와 대중의 거리를 좁히면서도 성남만의 색깔과 해석을 담아낸 수준 높은 창작물로 탄생할 채비를 마쳤다.

제작 오페라 외에도 성남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도전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소설가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 성남시를 대표하는 향토 브랜드 모란시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퓨전 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장>은 지역의 정체성과 개성을 작품 속에 성공리에 녹여낸 창작 콘텐츠로 꼽힌다. 성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탄천을 중심에 내건 탄천페스티벌 역시 연속성의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지역의 개성을 살린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재단의 책임감을 담아낸 의미 있는 시도였다.

3 마에스트라, 성남에서 탄생하다
지휘자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신동 출신 국민 첼리스트' 장한나의 지휘자 데뷔 무대라는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2007년 성남에서 이루어졌다. 성남아트센터가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기획한 <제1회 성남 국제청소년관현악 페스티벌>에서 연합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지휘자로 포디엄에 오른 것이다. 당시 해외 음악계에서 '첼로의 젊은 거장'으로 꼽히며 첼리스트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장한나는 지휘라는 더 큰 음악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의욕으로 넘치던 시점이었고, 청소년 음악 교육을 위한 중장기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구상하던 성남아트센터는 '미래의 지휘 거장' 장한나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그녀의 재능에 과감히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장한나의 재능과 성남아트센터의 혜안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장한나가 지휘와 예술감독을 맡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앱솔루트 클래식> 시리즈이다. '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모토 아래 2009년부터 매년 여름 6년간 이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장한나는 뜨겁고 열정적인 지휘로 '첼로 신동'의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내고 차세대 마에스트라의 탄생을 국내외에 확고하게 각인시켰다. 장한나의 이름을 내건 <앱솔루트 클래식>이라는 브랜드가 회를 더해갈수록, 세계 음악계에서 '지휘자 장한나'의 활동 반경 또한 눈부신 성장을 더해갔음은 물론이다. 6년의 시간 동안 장한나를, 젊은 음악도들을 묵묵히 응원한 성남아트센터의 노력과 응원이 있었기에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성과이다.

4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과 밤의 음악
마티네 콘서트 | 수아레 콘서트

프랑스 어로 '마티네'는 아침나절을, '수아레'는 오후를 뜻한다. 성남아트센터는 '마티네 콘서트'(오전 11시)와 '수아레 콘서트'(밤 9시)라는 특화된 시간대의 브랜드 콘서트를 정착시키며 아침에는 커피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금요일 밤에는 와인과 함께 감미로운 재즈를 듣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냈다. 개관 직후인 2006년부터 시작,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마티네 콘서트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해설이 가미된 클래식 음악과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간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지휘자 금난새, 음악평론가 장일범, 성악가 김동규, 팝페라 가수 카이가 마티네의 진행자로 관객과 교감해왔고, 2015년부터는 배우 김석훈이 진행을 맡았다. 오전 시간대의 브런치 콘서트는 가벼운 레퍼토리 위주로 진행된다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심도 있는 기획과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연을 통해 공연의 품격을 높인 것이 성남아트센터 마티네가 '믿고 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안착한 이유이다.

금요일 밤을 만끽하고 싶은 연인들, 퇴근 후 8시까지 공연장에 숨 가쁘게 달려오기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탄생한 수아레 콘서트는 매년 가수 김현철, 정재형, 이정에 이르기까지 실력파 뮤지션들이 진행을 맡아 대중음악과 팝, 재즈, 월드 등 다양한 장르를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로 사랑받았다. 두 시리즈 모두 기존 공연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성화가 미비했던 콘셉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대표 사례이자 성남아트센터를 대표하는 브랜드 콘서트이다.

5 어느 곳에도 없다, 성남에서만 가능하다
파크 콘서트 | 피크닉 콘서트

매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격주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아오는 '파크 콘서트'는 그동안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발상의 야외 콘서트이다. 2012년 5월 첫 선을 보인 이래 도심 속 자연 공간에서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발레 등 다양한 무대를 무료로 선사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파크 콘서트는 이제 성남아트센터뿐 아니라 성남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야외 공연 혹은 무료 공연들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정상 뮤지션들의 공연을 격주 시리즈로, 심지어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어느 공연장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기획이었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 장한나, 가수 이승환, 씨스타, 빈지노, 김건모, 들국화, 김창완, 최백호 등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뮤지션들이 모두 파크 콘서트를 거쳐 간 스타이다. 특히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자연환경과 시설을 갖춘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유료공연 이상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모두 파크 콘서트가 성남을 대표하는 야외 공연의 메카로 자리 잡은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일등공신이다.

파크 콘서트의 뒤를 이어 탄생한 '피크닉 콘서트'는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본시가지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피크닉을 즐기듯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콘서트이다. 을지대학교와 신구대학교 등 본시가지에서 이루어진 이 시리즈는 전영록, 구창모, 최성수 등 7080 명가수부터 에일리, 휘성, DJ DOC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중 콘서트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파크 콘서트

6 책을 주제로 조성한 국내 최초 테마공간
책테마파크

분당구 율동공원에 위치한 책테마파크는 국내 최초로 책을 주제로 조성한 이색 테마 공간이다. 기존 도서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창조적 구성의 공간 속에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2005년 11월 준공, 2006년 1월부터 성남문화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책테마파크는 설계 당시부터 업계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화가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이 기획 총괄과 조형을, 승효상(이로재 대표)이 건축을, 김인수(그린바우 대표)가 조경을 맡았고 시인 김정환이 '책, 세상의 배꼽'이라는 콘셉트를 잡았다. 이들은 '대지 위에 쓰고 그린 한 권의 책, 하나의 그림' '건축과 미술의 경계를 넘는 유목주의Nomadism'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땅이 세상의 캔버스라는 생각으로, 대지 위 한 점의 그림과 같은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설계 콘셉트였다.

전시실과 열람실, 시청각실로 구성된 실내 공간 주변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진 조형물 진입로(바람의 책), 책의 역사를 그린 미로 형상의 벽화 산책로(시간의 책),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밑바닥에 깔린 야외공연장(하늘의 책), 책 모양의 연못을 갖춘 명상 공간(물의 책) 등 책을 중심으로 사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진다. 이렇듯 탁월한 입지 환경과 시설을 바탕으로 책테마파크에서는 그동안 책과 문화를 결합시킨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입체와 설치 분야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한 개관기념전 <Art in Library>, 한국과 일본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자연과 하나 되다 - 숲의 멜로디>2007 등의 전시예술은 물론, 책을 주제로 다양한 북아트 초대전과 국제북아트페어, 문화 프로그램, 한글과 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벤트를 꾸준히 펼쳐왔다.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 책의 영역을 조망하기 위해 개최한 국내 최초 국제북아트페어가 '2008 대한민국 관광문화서비스대상'의 혁신관광진흥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 역시 책테마파크의 성과이다. 현재 책테마파크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과 인문학, 세상과의 소통을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7 쉬운 미디어, 재미있는 미디어, 누구나의 미디어
성남미디어센터

누구나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곳, 모두가 미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곳. 성남미디어센터는 딱딱한 공공시설이 아닌,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새로운 문화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라는 비전처럼 누구나 미디어를 배우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다. 일상을 기록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을 다루며, 소통할 수 있도록 사진, 영상, 라디오, 뉴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펼쳐진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소통을 배우는 매체별·수준별 정규 강좌는 물론, 주말과 방학 시즌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미디어 교실이 열린다. 라디오 DJ부터 아나운서, 카메라맨, 기자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기다리고 있다. 직접 만든 미디어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실버 세대와 대학생, 라디오를 사랑하는 주부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지역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1,000여 종의 DVD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도서관, 미디어와 예술이 만나는 미디어 갤러리 같은 시설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각종 미디어 기자재가 시민을 기다린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정기 상영회, 장애인을 위한 담장 없는 영화관 등을 통해 성남의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8 음악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창
성남아트센터 세계악기전시관

2013년 11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에 개관한 세계악기전시관은 음악과 문화, 교육, 생활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소통이자 창조의 공간이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회원들이 기부한 2억 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세계악기전시관은 미얀마, 체코, 베트남, 조지아 등 세계 각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의 대표 악기를 기부받는 한편, 음악과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기부까지 더해 뜻깊은 콘텐츠를 확충했다. 대규모 시설은 아니지만 수도권 공연장 중 보기 드물게 세계의 민속 악기를 모은 악기전시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계악기전시관은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시민과 관객들이 관람과 연주 체험을 통해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악기와 별도로 체험 악기를 구비한 체험관을 운영한다. 오페라하우스 백스테이지 투어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전시된 악기를 이용한 정기 연주 및 해설 프로그램, 사계절 음악회 등을 운영하며 호평받고 있다.

소박하지만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성남의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교육 현장으로서 성남아트센터 세계악기전시관은 음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열어줄 것이다.

9 시민생활예술의 국민 브랜드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에서는 1,000개가 넘는 시민 문화예술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클럽들이 상호 교류하고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이 만드는 문화창조도시 성남의 토대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남문화재단의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프로젝트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다. 현재 음악·미술·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클럽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은 클럽들이 자생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협력하는 시스템과 연습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클럽들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활예술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문화도시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재단의 목표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중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내 생활예술 실천의 대표적 모델로, 착한 문화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고품격 평생교육기관

아카데미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 강좌를 선보이고 있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음악, 미술, 무용, 인문학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성인 강좌, '어린이 창의예술놀이 - 통(通)', 가족이 함께하는 '스낵데이' 등 알찬 프로그램과 우수한 전문 강사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배움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으며, 단순 예술 강좌를 넘어선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성남문화재단의 창의문화예술교육을 대표하는 사업인 동시에, 10년간 축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의 노하우, 성남아트센터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교육 환경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능 중심의 강좌뿐 아니라 수강생의 창의력 계발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돕는 내용 등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창의적 시민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기제 운영을 통한 철저한 커리큘럼 관리로 강좌의 깊이와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감상(이론)·인문 아카데미, 음악 아카데미, 미술·사진 아카데미, 무용 아카데미와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프로젝트로 나뉘어 학기별 100~120개의 강좌를 운영 중이다.

공연사업

오르고 싶은 무대 찾고 싶은 공연

오케스트라
고음악·리사이틀
자체제작
무용
브랜드·시민친화
교육
연극
탄천페스티벌

연극 <1,000프랑의 보상> ©Polo Garat-Odessa

오케스트라

성남에서 만난 실연의 감동

개관 이후 성남아트센터에서 선보인 관현악 공연은 '세계 최고의 사운드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는 수식이 적절하다. 매년 수많은 오케스트라들의 내한공연이 펼쳐지지만, 성남아트센터는 자신만의 고유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탄탄한 명성을 쌓아온 일급 오케스트라, 그중에서도 음반으로만 접하며 애호가들의 갈증을 더해왔던 유럽의 유서 깊은 악단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등 유구한 전통을 지닌 독일 정상의 방송교향악단, 동유럽의 보석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체코 필하모닉 등의 무대를 잇달아 선보이며 이들의 실연에 목말랐던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1, 2, 3
말러 전문가 길버트 카플란의 공연은 카플란이 직접 진행하는 프리 콘서트 렉처까지 더해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4
카플란의 사인회에 몰려든 인파
5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리허설 모습. 그는 뮌헨 필하모닉과 함께 성남을 찾았다

우리 시대 최고의 말러 전문가, 카플란 최초 내한

가장 먼저 주목할 이슈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의 최고 해석가인 지휘자 길버트 카플란의 첫 내한이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출판되는 경제지 <Institutional Investor>의 발행인이자 금융인이었던 카플란은 1965년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2번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후 지휘자로서의 훈련을 거듭, 결국 빈 필하모닉과 음반까지 녹음해 대호평을 받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말러의 악보·편지·유품·자료를 수집해 카플란 재단까지 설립한 그는 세계 50여 개 메이저 오케스트라를 무려 100여 회에 걸쳐 지휘했는데, 연주한 곡은 단 한 곡, 말러의 교향곡 2번이었다.

KBS교향악단과 함께한 오페라하우스 공연 당일, 카플란은 연주에 앞서 60분간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의 모든 것을 직접 해설하는 프리 콘서트 렉처를 편성해, 진정한 말러리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마에스트로 쿠르트 마주어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시아 각국 교향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아시아연합오케스트라와 정명훈, 지휘자 이반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풍성한 교향악 주간을 선사했다.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은 동유럽의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악단의 사운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유진 오먼디에서 조지 셀, 게오르그 솔티로 이어지는 헝가리 마에스트로의 계보를 잇는 피셔는 당시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함께 브람스의 교향곡 2번, 피아노 협주곡 1번 등 올 브람스 프로그램을 꾸몄고, 프로그램과 연주력 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피셔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2010년 다시 한 번 성남아트센터를 방문, 여전히 탁월한 연주로 개관 페스티벌 당시의 감동이 살아 있음을 증명했다.

전통의 유럽 강호를 만나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 BBC 프롬스의 상주 오케스트라인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무대2006는 당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전격 발탁된 마에스트로 이르지 벨로흘라베크와의 앙상블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 영국 오케스트라의 자존심을 건 엘가의 첼로 협주곡(지안 왕 협연), 그리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으로 악단의 특색을 제대로 살린 레퍼토리를 보여주었다.

오페라와 발레,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2007는 지휘자 엘리아후 인발과 함께 성남을 찾았다. 이 공연은 몬테카를로 발레단과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내한해 선보이는 발레 <라벨르> 공연과 함께 선보이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애호가들 사이에서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극찬받아온 인발의 말러 교향곡 5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무대였다.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2007는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에 지휘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함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죽음과 변용>,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라는 묵직한 레퍼토리를 선사했고, 정명훈이 지휘한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중국의 슈퍼스타 랑랑2008, 캐나다 빅 3 오케스트라에 꼽히는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2008의 공연 역시 성남아트센터의 초창기 오케스트라 라인업에 풍요로운 한 획을 더해주었다.

동유럽의 자존심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4년 체코 음악의 해를 맞아 13년 만의 내한 무대를 가졌다. 2014년은 체코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인 스메타나의 탄생 190주년, 야나체크 탄생 160주년, 드보르자크 서거 11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인 만큼, 이들의 내한 자체로 이슈를 모으기 충분했다. 스메타나의 <몰다우>와 드보르자크 교향곡 6번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자국 음악만큼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음을 증명하며 보헤미아의 아련한 정취를 선사했다. 당시 공연을 지켜본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형은 "카를 교 저 너머에서 그리움이 피어오르는 듯했던 1악장, 평화로운 보헤미아의 노을 진 초원 같았던 2악장, 체코의 민중들이 퓨리안트 리듬에 맞춰 격정적으로 돌고 도는 모습을 연상시킨 3악장 스케르초, 웅장하면서도 들꽃을 보는 듯 풋풋했던 4악장의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딴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파보 예르비와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힐러리 한

이르지 벨로흘라베크와 체코 필하모닉

로저 노링턴과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다니엘 호프

독일 방송교향악단이 들려준 '진정한 본토 사운드'

성남아트센터가 기획한 오케스트라 공연 중 가장 큰 특징은 독일의 명망 높은 방송교향악단들이 집중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첫 순서는 로저 노링턴 경이 이끄는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2010이다. 1998년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노링턴 경은 작곡가가 의도한 원곡 그대로의 연주 방식에 현대적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조합, 악단에 새로운 개성을 부여한 것으로 정평이 난 지휘자이다. 당시 노링턴 경은 오케스트라의 배열, 기악 편성,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작곡가가 의도한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꾸준히 시도했고, 바로 이런 노력이 평단으로부터 "슈투트가르트 사운드"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하이든의 교향곡 1번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로 구성된 이날 공연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벽한 앙상블을 일구어낸 노링턴과 슈투트가르트, 협연자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의 멋진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음으로 성남을 찾은 독일 오케스트라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이다. 1929년 설립, 독일 헤센 방송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은 그동안 10년 단위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정통파 지휘자들을 영입해 악단 특유의 기능에 독특한 개성을 첨가해온 정통파 오케스트라이다. 음악감독 파보 예르비는 당시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외에도 신시내티 심포니, 브레멘 도이체 캄머필, 파리 오케스트라 감독직을 맡으며 각계의 러브콜을 받는 스타였다.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과 함께 냉철하면서도 견고한 해석을 보여준 예르비는 이후에도 수차례 국내 무대를 찾으며 팬층을 더해가고 있다.

오는 10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찾아오는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최초 내한은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단연 주목받는 순서이다. 그동안 해외 교향악단이 브람스 전곡 사이클을 한자리에서 들려준 사례가 없었다는 점, 독일 정통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가을날의 브람스라는 점에서 다시 만나기 힘든 기회임이 분명하다.

차세대 지휘자들과의 만남

차세대 지휘자들과의 만남 역시 지나칠 수 없다. 세계 지휘계의 2030 세대 지휘자 중 가장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2명, 야닉 네제세갱과 로빈 티차티가 2013년과 2014년 잇따라 성남을 찾았다.

네제세갱과 함께한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유럽의 유구한 항구도시로 손꼽히는 로테르담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오케스트라로, 그간 로열 콘세르트헤보 오케스트라의 명성에 가려진 네덜란드 악단의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2008년부터 로테르담 필과 함께한 네제세갱은 그동안 여러 공연과 음반에서 탁월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는데, 성남 공연 역시 베일에 가려진 로테르담 필과 재능 넘치는 젊은 지휘자가 함께 빚어낸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지휘자' 로빈 티차티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문화대사 스코티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투명한 피아니즘의 거장 마리아 주앙 피르스와 함께 성남 초연 무대에 섰다. 두 공연 모두 젊은 지휘자들의 카리스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실력파 오케스트라들의 실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순서였다.

고음악 · 리사이틀

레코딩 이상의 실연,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구현하다

성남아트센터의 세 극장 중 콘서트홀은 클래식 음악에 가장 최적화된 전용홀이다. 연주자의 마지막 피아니시모까지 생생히 전달되는 이곳은 모든 장르의 클래식 공연, 특히 독주자들의 리사이틀과 고음악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던 악기에 비해 조율이 까다롭고 음량이 작은 고악기들은 공연장 컨디션과 음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은 제3의 연주자로 공연의 완성도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앤드루 맨츠부터 조반니 안토니니에 이르는 당대음악의 대가들, 아르카디 볼로도스부터 장에프랑 바부제까지 우리 시대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들의 초연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앤드루 맨츠와 잉글리시 콘서트

안네 소피 폰 오터

성남아트센터 개관 1주년을 맞는 2006년을 여는 화제작이자, 성남아트센터 고음악 시리즈의 포문을 연 주인공은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장 앤드루 맨츠Andrew Manze와 그가 이끄는 실내악단 잉글리시 콘서트The English Concert였다. 맨츠는 1980년대 후반 고음악계의 거장 톤 쿠프만이 이끄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거쳐 1996년 고음악 아카데미The Academy of Ancient Music의 악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잉글리시 콘서트의 음악감독으로 옮겨오며 영국 고음악계의 간판스타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고음악 공연 자체가 국내에서 큰 흥행성을 보장하는 장르가 아닌 까닭에 공연장에서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성남아트센터의 특화된 기획으로 당시 가장 돋보이는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날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였다. 맨츠는 이날 '바흐 패밀리Bach Family - A Musical Dynasty'라는 타이틀로 대 바흐J.S.Bach와 그의 아들들이 남긴 작품들을 선보였다.

하이든 서거 200주년과 헨델 서거 250주년을 맞이한 2009년에는 이들 작곡가의 음악을 당대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마련되었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지휘자, 음악학자인 톤 쿠프만Ton Koopman과 그가 이끄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이다. "옛 건축물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당시의 건축기법과 자재를 사용해야 하듯, 고음악은 그 시대의 악기와 양식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쿠프만은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창단한 이후 자신의 신념대로 음악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간 오르간과 하프시코드 연주, 지휘자로서 쌓아온 쿠프만의 독창적인 음악관은 탄탄한 학문적 기반과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연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쿠프만의 최초 내한 공연에서는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과 하이든 교향곡 83번 '암탉', 라모의 오페라 <다르다뉘Dardanus>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을 들려주었다. <다르다뉘>에서는 바로크 춤곡에 대한 쿠프만의 세련된 감각을, 하이든의 교향곡에서는 고전 교향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파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의 내한은 바로크 음악 애호가와 성악 애호가 모두에게 반가운 순서였다. 세상의 모든 비발디 <사계> 중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계>를 들려주던 바로크 앙상블,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의 등장은 그 자체로 현대 음악사의 혁명이었다. 세 번째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스리 테너>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보

스트리지의 음반 <Three Baroque Tenors>(EMI) 수록곡과 더불어 에우로파 갈란테의 코렐리, 비발디, 텔레만을 만나는 음악의 성찬이 펼쳐졌다. 보스트리지는 헨델, 비발디, 스카를라티 등이 바로크 시대의 스리 테너인 보로시니F. Borosini, 파브리A. Fabri, 비어드J. Beard를 위해 작곡한 아리아를 선보이며 낯선 음악일지라도 연주자들의 해석에 따라 충분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는 그가 이끄는 루브르의 음악가들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과 함께 한국 초연 무대를 가졌다.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당대악기로 바로크 음악뿐 아니라 고전과 낭만주의, 19세기 프랑스 음악까지 탁월한 해석을 들려주는 연주자들이다. 1982년 19세의 나이로 루브르의 음악가들을 결성한 민코프스키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평단과 애호가들의 극찬을 받아왔으며, 오페라 무대에서의 활약도 뛰어나다. 민코프스키는 자신이 직접 11편의 라모 오페라 중 발췌한 춤곡과 관현악곡을 모은 <상상교향곡Une Symphonie Imaginaire>, 글루크의 발레 음악 <돈 주앙의 향연>을 프로그램으로 선택했다. 두 작품 모두 국내 무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곡이 아니라는 점, 다채롭고 화려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국내 청중에게 들려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귀한 무대였다. 음악 평론가 이준형은 "청중은 이날 왜 라모가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점이자 근대적 관현악 어법의 선구자라 불리는지를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명료하면서도 균형 잡힌 음색을 들을 수 있었던 연주회장의 음향 역시 탁월했다"며 공연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리코더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조반니 안토니니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당대연주 앙상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도 성남을 최초 내한 무대로 선택했다. '조화로운 정원'이라는 이들의 단체명처럼, 이날 연주회장을 찾은 관객들은 바로크 음악으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정원의 풍광과 마주했을 것이다. 특히 안토니니는 자신이 독주를 맡은 텔레만의 리코더 협주곡 C장조에서 여전히 눈부시게 현란한 비르투오시티를 보여주었다. 흔히 듣기 힘들었던 옛 목관악기 샬뤼모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었던 텔레만의 <두 대의 샬뤼모를 위한 협주곡 D장조>에서는 곡 중간에 아리랑 선율을 삽입하는 재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성남에서 탄생한 스타들

성남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이 낳은 스타 연주자를 꼽으라면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일 것이다. 내한 이전까지 애호가들의 소리없는 지지를 받고 있던 이들은 성남 무대에서 그 예술성의 정점을 보여주며 많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북유럽 최고의 디바' 안네 소피 폰 오터는 바로크부터 현대 음악, 오페라와 종교 음악, 독일 리트와 프랑스 가곡, 뮤지컬과 크로스오버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정확한 딕션과 지적인 해석,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그녀의 노래는 바흐부터 엘비스 코스텔로, 클래식에서 컨템퍼러리 팝을 경계없이 넘나든다. 성남에서 성사된 오터의 한국 초연 무대2006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상의 오터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레이날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조반니 안토니니 &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도 앙과 드뷔시, 브람스, 코른골트의 아름다운 가곡들에 이어 오터가 들려준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프로그램의 완성도, 연주자가 보여준 완성도가 더할 나위 없는 조화를 이뤘다. 오터는 2년 뒤 <안네 소피 폰 오터의 크리스마스 콘서트>2008로 성남을 찾아, 담백한 반주로 고향 스웨덴의 성탄곡을 비롯한 편안한 겨울 음악을 들려주었다.

독일 리트의 신세대 선봉장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는 성남아트센터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이다. 2005년 10월 개관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청년이 10년 뒤인 올해 9월, 10주년을 맞이한 성남아트센터 무대로 귀환한 것이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뒤를 잇는 리트의 적자로 그간 애호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쌓아왔던 괴르네는 성남 초연 무대에서 독일 리트의 묵직한 감동을 남기고 떠났다.

'클래식계의 이단아'로 불리던 파격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는 재즈 퀸텟과 함께 성남을 찾아 특유의 자유로움과 창의성으로 가득한 재즈 무대를 보여주었다. 리사이틀로는 사실상 최초 내한 무대라는 점, 재즈 뮤지션들과의 내한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던 무대였다.

폴 루이스

가장 감동적인 비르투오시티를 만나다

성남아트센터의 클래식 공연 중 고음악과 더불어 첫손에 꼽히는 것은 인터내셔널 피아니스트 시리즈이다. 눈부신 음악성으로 절대적인 마니아층을 형성한 피아니스트, 세계 음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내 무대를 밟지 않은 연주자들을 차례로 초청하며 화제를 모았다. 러시아의 강철 비르투오소 아르카디 볼로도스2010, 지성파 연주자 폴 루이스2011, 초절기교의 난곡을 가볍게 주무르기로 유명한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2012, 현대 프랑스 피아니즘의 정수를 들려주는 장에프랑 바부제2013가 차례로 성남을 찾았다.

아르카디 볼로도스는 데뷔 이후부터 '제2의 호로비츠' '예브게니 키신의 대항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피아니스트이다. 많은 거장 연주자들이 어릴 적부터 신동의 탄생을 알리며 탄탄대로를 걸어온 데 비해, 볼로도스는 16세가 되어서야 늦깎이로 피아노로 전향한 연주자였다. 그러나 호로비츠와 리스트의 편곡작, 자신이 직접 편곡한 라흐마니노프의 성악곡을 담은 데뷔 앨범1997은 그 자체로 범상치 않은 대형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소니 클래식에서 발매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볼로도스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입소문을 타게 된 결정반이다. 폭발적인 파워와 스피드, 그 안에 살아 있는 세련된 디테일은 새로운 러시아 피아니즘을 제시한다는 극찬을 받았다. 성남아트센터 초연에서는 스크랴빈과 리스트, 슈만, 알베니스 등 이전 음반 수록곡과 자신이 즐겨 연주하는 레퍼토리를 선곡했는데, 음반으로만 접하던 그의 놀라운 기교와 음악성에 관객 역시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영국의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는 젊은 신예의 데뷔 음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슈베르트의 후기 소나타를 선택하고, 거장들 역시 무게감에 도전

장에프랑 바부제

아르카디 볼로도스

성남에서 열린 볼로도스의 한국 초연 무대. 눈부신 비르투오시티에 관객 모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을 꺼리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을 소화한 지성파 피아니스트이다. 첫 내한 리사이틀에서도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5번 D840과 17번 D850, <3개의 소품, D946>으로 꾸민 올 슈베르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슈베르트 해석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었다. 음악 평론가 박제성은 "오랫동안 국내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회자될 현대적 피아니즘의 이정표로 인식될 것"이라는 극찬을 남겼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 극한의 초절기교, 기발하고 현란한 편곡으로 극찬받아온 아티스트이다. 희귀 레퍼토리를 발굴해 이를 철저히 소화해 녹음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그는 단순한 기교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감성적으로 구현하는 능력 역시 탁월하다. 2004년 첫 내한에서 관객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은 아믈랭은 2012년 성남아트센터 인터내셔널 피아니스트 시리즈로 내한, 베르크와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와 드뷔시의 <영상> 2권 발췌, 자신이 직접 작곡한 12개의 단조 연습곡집으로 다시 한 번 눈부신 비르투오시티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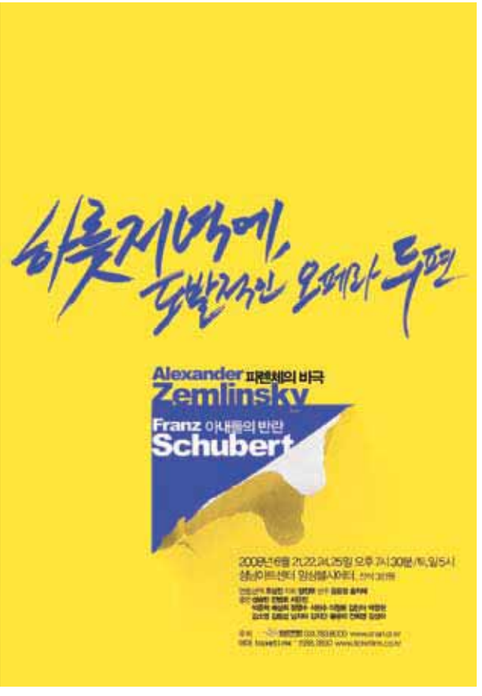
대기만성형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장에프랑 바부제는 오늘날 프랑스 피아니스트 계보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연주자로, 성남아트센터에서 최초로 한국 관객들과 만났다. 프로그램은 호평 속에서 사이클을 진행 중인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중 <소나타 C단조, Op.33 Hob XVI:20>, 프랑스 피아니즘의 다채롭고 신비한 음향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와 드뷔시의 전주곡 1집, 버르토크의 소나타로 꾸몄다. 장에프랑 바부제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올려놓은 레퍼토리, 프랑스 피아니즘의 환상적인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탁월한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

자 체 제 작

차별화된 제작극장으로서의 가능성

개관 이후 성남아트센터가 선보인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제작극장으로서의 가능성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들이다. <파우스트>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아내들의 반란> 등 국내 극장에서도 드물었던 작품들을 과감히 선택하며 타 공연장과의 차별화는 물론 국내 오페라 제작사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고,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을 통해 지역의 역사유적을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빚어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7년 만의 자체제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다시 한 번 수준 높은 제작극장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페라 <파우스트>



성남이기에 가능했던 오페라

개관 첫해, 성남아트센터가 선보인 오페라는 구노의 대작 <파우스트>였다. 전막 프랑스 어 원어 초연, 5막 3시간 30분 규모의 그랜드 오페라였던 이 공연은 연출가 이소영의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무대, 바이로이트 주역가수 베이스 사무엘 윤과 테너 김석철 등 국내 최고 성악가들의 열연에 힘입어 높은 완성도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파우스트를 유혹해 타락시키고, 순결한 마르그리트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마적 캐릭터인 메피스토펠레스로 분한 사무엘 윤은 격렬한 카리스마로 관객이 결코 잊지 못할 메피스토펠레스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당시 언론에서는 "<파우스트>는 공연예술에서 자주 맛보기 어려운 총체적 전율을 선사했다. 어느 성악가 한 사람의 뛰어난 기량이나 어느 한 장면의 이채로운 무대 디자인에서 잠시 엄습하는 전율이 아닌, 세 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 내내 관객의 가슴을 사로잡는 전율의, 결코 잊지 못할 공연"(연합뉴스, 이용숙 오페라 평론가)이라는 극찬이 이어졌고, 각종 언론사 및 방송사가 선정한 그해의 국내 제작 오페라로 꼽히는 성과를 이뤘다.

<파우스트>의 성공에 이어, 이듬해 성남아트센터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제작 오페라 <마술 피리>를 선보였다. 지휘자 프랑크 크라머, 모차르트 오페라 전문 연출가 조성진, 테너 이원준·최상호, 소프라노 이세진·한명성, 베이스 전승현 등 드림팀이 모차르트를 위해 뭉쳤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노래는 원어로, 대사는 한국어로 이루어졌고, 판타지처럼 펼쳐지는 동화의 세계 속에 휴머니스트였던 모차르트의 의도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다.

2007년의 제작 오페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였다. 희극적인 요소가 강한 단순명쾌한 현대 오페라이자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에서 사랑받는 레퍼토리를 성남아트센터가 국내 초연으로 선보였다. 그리스 출신의 여성 지휘자 리사 크산토풀르와 TIMF 앙상블, 현대적인 연출력의 독일 출신 연출가 안스가르 하그, 차세대 디바를 예고하는 김은주와 신윤정 등이 19세기 낭만 오페라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오페라, 그중에서도 독일 현대 오페라가 낯설게 느껴지는 관객들을 위해 공연 한 달 전 프리 콘서트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본 공연의 주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형식이 아닌, '슬픔과 신화의 패러디'라는 테마 아래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의 아리아와 칸타타를 소개하며 전반적인 작품의 배경과 음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파우스트>에 이어 또다시 KBS가 선정한 그해의 공연에 등극하며 다시 한 번 제작극장으로서의 기획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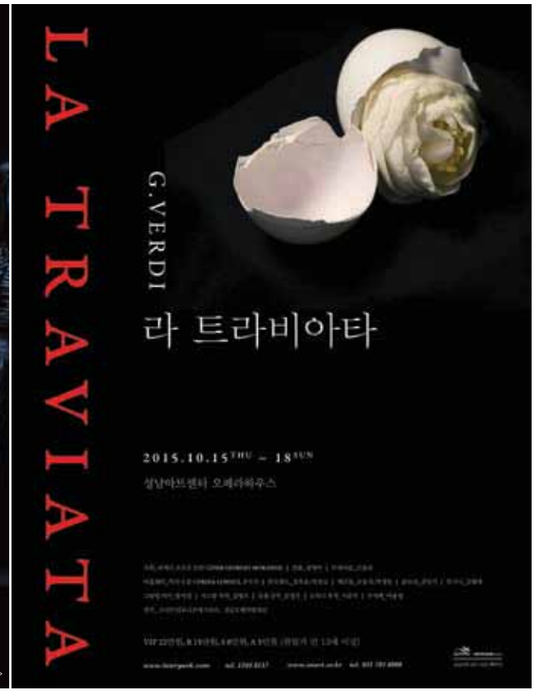
'오페라는 대극장 무대에서 비싼 티켓 가격을 지불하며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내용을 감상한다'는 선입관을 떨치기 위해 소극장인 앙상블시어터 무대를 활용한 오페라도 선보였다. '하룻밤에 오페라 두 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선보인 첨린스키의 <피렌체의 비극>과 슈베르트의 유쾌한 희극 <아내들의 반란>은 오케스트라 대신 피아노 반주, 각각 1시간 남짓한 단막 러닝타임으로 부담 없는 오페라 입문을 이끈 작품이다. 대규모 오페라의 아리아만 발췌해 약식으로 선보이는 무대가 아닌, 창작 당시부터 소극장과 살롱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골라 극의 분위기와 극장의 특성을 제대로 살렸다. 특히 첨린스키의 <피렌체의 비극>은 단 세 명의 배우만으로도 꽉 찬 무대를 만들어내며 소극장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 남한산성

성남아트센터는 제작 오페라로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뮤지컬에도 도전했다.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개관 4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을 통해 세계적 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알리는 창작 문화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지역의 역사유적을 문화아이콘으로 승화시켜 지역특화 브랜드 문화상품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 작품은 성남아트센터와 한국 뮤지컬의 드림팀이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조광화(연출)·고선웅(각본)·정승호(무대 디자인)·이유선(의상 디자인)·김방근(기술감독)·김병희(무대감독) 등 국내 최정상 제작진을 중심으로 이필모·김수용·그룹 슈퍼주니어의 예성·이정열·배혜선·서범석·강신일·성기윤 등 정상의 배우와 탤런트, 아이돌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청의 공격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민초들의 어두운 역사,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담아낸 이 작품은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걸맞게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성공적으로 풀어냈다. 30억 원의 제작비, 과감한 무대 분할과 스펙터클한 특수효과가 가미된 연출, 역동적인 음악, 오페라하우스 무대를 드라마틱하게 활용한 군무 등이 기존 시대극과는 다른 대규모 블록버스터의 느낌을 선사하며 총 25회의 초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당시 국내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남한산성은 초연의 성공에 힘입어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앙코르 공연까지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듬해 2010년 무대는 대중이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음악과 가사, 안무, 인물 구조를 새롭게 각색, 극적인 재미를 한층 강력하게 살렸다.

뮤지컬 <남한산성>



오페라
<아내들의 반란>

지역민의 삶을 문화브랜드로

2011년 선보인 제작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장>은 <남한산성>에 이은 두 번째 지역특화 문화브랜드이다. 국내 최대 민속5일장이자 오늘날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남의 고유한 문화인 모란시장을 소재로 선택, 성남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했다. 개관 6년차를 맞아 '시민행복센터'를 슬로건으로 내건 성남아트센터가 지역민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장르 역시 현재는 기세가 약해졌지만 오랜 세월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던 고유한 무대예술 장르인 악극을 선택했다. 악극의 장점을 기반으로 연극과 뮤지컬의 요소를 도입해 더 많은 관객층이 공감할 수 있는 퓨전 악극으로 탄생한 <모란이 꽃피는 시장>은 성남의 얼굴이자 긴 세월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온 모란시장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공연 1주일 전에는 연기자 박준규, 송용태 등 주요 배우들이 직접 모란시장을 방문, 시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작품의 주요 삽입곡들을 노래하는 이색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장터를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모란개척단원으로 시작해 벌써 50여 년간 모란시장에서 청국장집을 꾸려온 주인공 김범구, 젊은 날 범구와 사랑했지만 맺어지지 못한 시장 한복집의 순례 등 평범한 우리 이웃의 웃음과 눈물이 모란시장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새로운 <라 트라비아타>

중기 이후 주춤했던 성남아트센터의 제작 프러덕션은 2015년 10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7년 만의 부활을 알린다. 오페라 지휘에 탁월한 피에르 조르조 모란디가 지휘를, 2010년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연출상 수상자인 장영아가 연출을, 상명대학교 오윤균 교수가 무대와 의상 디자인을 맡았다. 비올레타 역은 소프라노 이리나 룽구와 오미선, 알프레도는 한국인 최초 빈슈타츠오퍼 전속가수인 테너 정호윤과 박성규, 제르몽은 바리톤 유동직이 연기한다.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비극적인 생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화류계 여성들의 굴레와 이를 이용한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가 신랄하게 표현된다. 현대의 어느 시점으로도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한 가상의 어느 공간,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의상으로 새롭고 현대적인 감각의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파우스트> 등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초기 선보인 제작 오페라들이 국내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무게감의 작품들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7년 만에 선보이는 제작 오페라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대중적인 오페라로 관객에게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무용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파격

성남아트센터의 무용 공연은 '선택과 집중'으로 집약된다. 공연을 선보이는 횟수가 적은 대신 단 한 편을 선택할지라도 문화예술계의 집중 조명이 쏟아지는 예술적인 완성도의 화제작을 골랐다.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 <라벨르>, 중국국립발레단 <홍등>,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 발레 뒤 노르 컴퍼니의 <비극> 등이 모두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되며 화제를 모은 공연들이다.

마츠 에크의 <지젤>

에미오 그레코 <Hell>

장크리스토프 마이요의 파격, 고전의 재해석은 계속된다

모나코 왕실이 후원하는 최정상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안무가 장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전막 발레 <신데렐라>를 한국 초연2005으로 선보였다. 고전발레 레퍼토리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공연 횟수가 적은 작품이지만, 마이요의 기발하면서도 우아한 상상력으로 태어난 버전은 1999년 파리 초연 이후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받으며 새로운 <신데렐라>를 창조해냈다. 요정 대신 관능미 가득한 죽은 생모의 등장, 유리구두 대신 맨발에 금가루를 묻힌 채 춤추는 신데렐라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2년 뒤 다시 성남을 찾아 <라벨르>를 초연했다. 차이콥스키의 고전발레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해석으로 탄생한 한 이 작품은 고전의 텍스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내는 마이요와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00년간 잠들었던 공주가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 이후 동화의 행복한 상상은 여지없이 깨어진다. 공주는 왕자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대신 식인귀인 시어머니에게 잡혀 두꺼비 솥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다. 2001년 초연 당시 니진스키 어워드의 최고 안무상 수상작다운 안무 또한 시선을 붙잡았다.

<라벨르>가 더욱 특별한 까닭은 오케스트라의 존재감 때문이다. 개관 초청작이었던 <신데렐라>는 아쉽게도 레코딩 음원을 사용했지만, 이 공연에서는 발레단과 더불어 모나코 예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 엘리아후 인발이 함께 내한, 무용수의 스텝 하나까지 음악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다.

발레리나 강수진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안무가 존 크랑코의 명작 <말괄량이 길들이기>2006 한국 초연으로 성남아트센터 개관 1주년 축하무대를 빛냈다. 그동안 비극 연기로 정평을 얻어온 강수진의 첫 희극 도전으로, 강수진 역시 자신의 캐릭터와 결과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을 만큼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준 작품이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일삼는 왈가닥 카테리나를 사랑스럽게 소화해낸 강수진의 표현력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중국국립발레단의 <홍등> 한국 초연2008은 중국국립발레단의 첫 내한인 동시에, 세계적 영화감독이자 연출가인 장이모우의 무용극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이모우의 영화를 발레극으로 연출한 <홍등>은 중국 정부가 주도해 만든 작품인 만큼 여러 까다로운 조건으로 그간 내한이 불발된 사연이 있었다. 성남아트센터는 국립극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고양문화재단 등 국내 5개 주요 극장과 연합해 국내 초연을 성사시켰다. 단순한 발레 초연을 넘어서 중국과 문화 아이템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 수도권 경기 지역의 공연장이 서울 지역 유수의 공연장 못지않게 높은 안목으로 공연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뜻깊은 공연이기도 하다. 서양의 발레에 경극, 그림자극 등 중국의 색채를 절묘하게 녹여낸 <홍등>은 장이모우 감독 특유의 강렬한 붉은색이 작품 전반에 걸쳐 시선을 사로잡았다.

낭만발레의 걸작 <지젤>은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고전에 대한 공격인가, 도전적인 창조인가?'라는 카피를 내걸었던 이 공연은 스웨덴 쿨베리 발레단을 세계적인 무용단으로 성장시킨 현대무용의 이단아, 안무가 마츠 에크의 작품이다. 마츠 에크와 리옹 국립발레단은 지젤을 밧줄에 묶여 통제되는 모자란 소녀로 설정했다. 알브레히트에게 버림받은 지젤은 미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지젤>을 '발레 블랑'의 대명사로 만들어준 윌리들의 춤은 하얀 환자복을 입은 정신병동 환자들이 바닥을 구르는 장면으로 표현하며 충격을 던졌다.

현대무용의 신화, 성남에서 꽃피다

유럽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 에미오 그레코는 2009년 4월, 성남아트센터에서 자신의 대표작 <Hell>(한국 초연),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공동 프로젝트로 제작 중인 <비욘드Beyond>(세계 초연)를 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포사이스 컴퍼니 <헤테로토피아>

보였다. 연극 연출가 피터 숄튼과 함께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Hell>은 2007년 유럽 비평가와 프로듀서가 선정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 무용이다. 무대 위를 전라로 누비는 무용수들은 지옥을 천국이나 파라다이스의 반대 개념이 아닌,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표현한다. 무용과 뉴미디어가 연계된 <비욘드>는 오디션을 통해 네덜란드·인도·중국·일본·싱가포르·한국의 남자 무용수를 각각 2명씩 선발해 주역으로 세우고, 참여 인원 역시 공동으로 제작 전반에 참여하게 했다. 에미오 그레코는 워크숍과 <비욘드> 제작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 제작 과정을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실험정신과 혁신으로 뭉친 무용단, 세계 정상의 무용수들이 선망하는 무용단이라는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는 17~22세의 젊은 단원으로 구성된 'NDT II'의 내한으로 성남 땅을 밟았다. 이들은 한스 판 마넌의 <Simple Things>, 지리 킬리안의 <Sleepless>, 오하드 나하린의 <Minus 16> 등 세 편을 선보이며 젊은 무용수들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Minus 16>은 스윙을 추던 15명의 남성 무용수가 관객을 무대 위로 데려와 함께 춤을 추는 후반부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낯선 공간, 낯선 의식

현대무용의 거장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는 자신의 무용단 포사이스 컴퍼니The Forsythe Company와 함께 현대무용 <헤테로토피아>로 처음 한국을 찾았다. 포사이스의 작품이 유니버설 발레단에 의해 국내 소개된 적은 있으나 포사이스와 무용단의 내한은 성남 공연이 최초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철학자 미셸 푸코의 논문 <다른 공간들>의 '다른, 낯선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작품이다.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연 역시 이질적이고 생소하다.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 공연은 객석을 막고 마치 방과 같은 두 개의 무대만을 설치, 회당 300명의 관객만이 스탠딩으로 관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헤테로토피아>를 지켜보는 동안 기존 무용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은 불필요하다. 신체, 음악, 언어, 구성, 공간, 심지어 관람법에 이르기까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펼쳐졌다. 무용수들은 양쪽 방을 오가며 제각각의 기이한 몸짓과 함께 알 수 없는 언어로 끊임없이 말을 토해내고, 뜻 모를 알파벳을 나열한다. 피아노 앞에 앉은 무용수는 연주 대신 음메 하는 염소 소리만 반복한다. 관객들 역시 두 방을 부지런히 오가며 무용수들의 기이한 뒤틀림, 몸짓과 소리에 집중해야 했다. 마치 무용 같기도, 연극 같기도 한 이 작품은 '보고, 웃고, 즐겨라'라는 포사이스의 조언처럼 규정되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흥을 안겨주었다.

성남아트센터가 무용계에 던진 충격은 <헤테로토피아>로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 발레 뒤 노르 컴퍼니의 <비극>은 2015년 상반기 공연계를 강타한 화제작이다. 2012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남녀 무용수 18명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90분간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이 작품은 22세부터 51세까지의 다양한 성별, 나이, 체형을 지닌 무용수들이 실제 우리 삶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상징한다. 뒤부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히 인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류의 비극"이라고 강조한다. "나체는 선정성이 아닌 인간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의 몸에는 세상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그의 설명에서 왜 모든 무용수가 전라로 등장하는지 알 수 있다. 공연 전반부 내내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다양한 스텝의 워킹을 반복하던 무용수들은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다양한 대열과 행위로 점점 격렬해져가는 제의의 한 장면을 연출한다. 번쩍이는 현란한 조명, 귀를 찢는 듯한 강렬한 효과음이 광란의 제의와 어우러지며 절정으로 치닫는다.

예술과 시민의 화합을 꿈꾸다, 성남국제무용제

성남문화재단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성남국제무용제는 국내외 유수의 무용단들이 펼치는 공연,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적인 공연, 일반인을 위한 대중적인 공연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무용축제이다. '환경과 춤'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6년 제1회 무용제, 2007년 제2회 무용제 이후 격년으로 변경되어 2008년 제3회 무용제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와 앙상블시어터, 춤의광장, 빛의 계단 등 기존 공연장뿐만 아니라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탄천 등 성남 전역, 특히 성남의 대표 랜드마크인 남한산성과 모란시장까지 무대로 활용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이 대본과 안무를 맡은 창작무용극 <남한산성에 피는 꽃 - 이화>는 제2회 성남국제무용제 폐막작으로 선보이며 무용 분야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고, 제3회 무용제에서는 발레리나 강수진·원진영·박세은 등 해외무대에서 활약 중인 무용수들의 월드스타 갈라 공연을 통해 한국 무용수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펼쳐졌다. 3회 축제의 폐막 이후 더 이상 지속사업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세 번의 페스티벌을 통해 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상기시키고 폭넓은 교류를 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행사였다.

브랜드 · 시민친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성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은 기존 공연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성화가 미비했던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성남만의 브랜드로 발전시켰다. 마티네 콘서트, 수아레 콘서트, 연극만원, 파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공연의 타이틀만으로도 성남아트센터를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10년의 역사 속에서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가장 친숙한 시리즈이다.
합리적인 티켓 가격과 알찬 콘텐츠를 겸비한 브랜드 콘서트 외에도 성남시민회관을 중심축으로 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성남아트센터가 2015년 가을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콘서트는 '앙트레 콘서트'이다. 프랑스 어Entrée로 '시작' '들어가기'를 의미하는 공연의 타이틀대로, 순수예술 입문자들이 쉽고 편안하게 공연에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에 걸쳐 발레와 클래식, 오페라에 입문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 즐거운 접근법을 알려준다.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선 앙상블 디토 등 국내 정상의 예술가들이 예술에 입문하는 가장 쉽고 즐거운 방법을 제시한다. 성남아트센터는 앞으로도 '앙트레 콘서트'의 수준과 장르를 세분화해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마티네 콘서트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해설이 가미된 클래식 음악과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간판 프로그램이다. 개관 직후인 2006년 첫 탄생을 알린 이후 10년간 성남아트센터의 목요일 오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아왔다. 많은 공연장이 주부들을 위한 오전 음악회 시리즈를 다수 선보이고 있지만,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는 선곡과 협연자 등 프로그램 완성도 측면에서 일반 저녁 공연 이상의 심도 깊은 기획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2015년은 '슈베르트와 거닐다'라는 테마 아래 국내 어느 공연장이나 교향악단도 시도하지 않은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진행 중이다. 진행자 역시 지휘자 금난새, 음악평론가 장일범, 성악가 김동규, 팝페라 가수 카이까지 풍부한 예술적 역량과 전달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이 마티네의 사회를 맡아 관객과 교감해왔고, 2015년부터는 배우 김석훈이 목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다.
밤 8시라는 공연 시작 시각이 촉박한 회사원들, 금요일 밤을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연인과 친구들을 위해 탄생한 수아레 콘서트는 밤 9시라는 여유로운 공연 시작 시각, 공연 전 로비에서 와인과 스낵을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2006년 첫 시작 당시 오페라 평론가 박종호의 해설과 함께하는 '달콤한 화요일의 음악회'로 첫발을 내딛은 수아레 콘서트는 이후 가수 김현철, 정재형, 이정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진행을 맡아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피크닉 콘서트

2012년 이후 매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격주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아오는 파크 콘서트는 자연과 음악, 관객이 어우러지는 야외 콘서트이다. 특히 공원 내부에 자리한 야외공연장은 세계 어느 야외 페스티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자연과 수준 높은 시설이 돋보인다. 무대 앞 스탠드 뒤편으로 펼쳐진 넓고 푸른 잔디밭의 완만한 경사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며,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장점이다.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발레 등 다양한 무대를 무료로 선보여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파크 콘서트는 이제 성남아트센터뿐 아니라 성남시를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시켰다.
'피크닉 콘서트'는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피크닉처럼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이다. 을지대학교와 신구대학교 운동장 등 인근 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한 이 시리즈는 7080 명가수부터 신세대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출연진의 대중 콘서트로 큰 사랑을 받았다.

지역주민과 어우러진 성남시민회관

파크 콘서트와 피크닉 콘서트에서 선보인 여러 대중음악 뮤지션 외에도, 성남아트센터에서는 폭넓은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민친화 공연으로 관객을 찾았다. 국악인 김영임, 조용필, 김건모, 바비킴, 장윤정, 박정현, 이적, 김동률, 팝가수 내추럴리 7 등 대중 콘서트, 공동제작 뮤지컬 <아이다> <모차르트!> <삼총사> <맘마미아!> 등의 작품들이 모두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공연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 주역으로 성남시민회관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민회관은 성남아트센터 개관 전까지 성남시의 유일무이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된 장소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민회관의 운영을 맡은 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 아이들을 위한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쉼터로 다시금 그 위상을 정립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조지 윈스턴 내한 공연2006,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2006, 2014, 빈소년합창단 내한 공연2010, 2012,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2013, 추억의 청개구리 포크 가수들이 뭉친 <아름다운 친구들> 등의 공연이 성남시민회관을 찾았다. 특히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성남시민회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시민회관을 찾아온 이 공연은 착한 티켓 가격과 금난새의 친근한 해설로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 지역주민들이 클래식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교 육

문화예술도시 성남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성남문화재단은 교육과 공연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청중 개발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정서 함양, 나아가 문화예술도시 성남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독주자 중심의 국내 음악교육을 보완하고 합주를 통한 인성 함양을 추구하는 다양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꾸준히 기획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첼리스트 장한나를 지휘자로 각인시킨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이다. 성남문화재단이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모토로 시작한 <앱솔루트 클래식>은 그 자체로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앱솔루트 클래식>으로 청소년 음악교육 프로젝트에 탄탄한 노하우를 쌓은 재단은 2015년 <뮤직 알프스 in 성남>을 기획, 음악교육을 바탕으로 한 국제문화교류까지 지향하고 있다.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뮤직 알프스 in 성남>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초기부터 청소년 음악교육을 위한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중 제1회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2007은 첼리스트 장한나의 지휘자 데뷔 무대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장한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독일의 3개국 청소년들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새로운 마에스트라의 탄생을 알렸다. 장한나의 성공적인 지휘자 데뷔 무대를 펼쳤던 성남아트센터는 이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모토 아래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앱솔루트 클래식>을 내놓았다.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거듭난 장한나와 성남아트센터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티스트와 도시가 협업해 성남을 음악도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매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0여 명의 실력 있는 젊은 음악도들이 마에스트라 장한나와 함께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며 음악 안에서 소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장한나는 매해 유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서는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는 대작들을 과감히 프로그래밍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원들을 리드하며 최대치로 역량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 클래식과 가까워지고 싶은 관객들과 함께하는 <장한나와의 대화의 시간>, 공연 전 장한나가 직접 해설을 곁들이는 프리 콘서트 렉처 등은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관객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던 프로그램이다.
<앱솔루트 클래식>은 로린 마젤과 미샤 마이스키 등 당대의 거장들이 게스트로 참석하며 국제 수준에도 손색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했다. 2010년에는 장한나의 멘토를 자처하는 거장 고 로린 마젤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뮤지컬 어드바이저로 참석, 리허설 참관과 특별 지휘 등 아낌없는 가르침으로 스승의 무한사랑을 보여주었다. 2012년에는 장한나의 첼로 스승이자 한국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협연자로 출연하며 사제 간의 따뜻한 앙상블을 선사했다.
한편 재단은 <앱솔루트 클래식>과는 별개로 2012년 성남청소년교향악축제를 기획해, 전국 각지의 청소년 교향악단 8팀(국내 7팀, 해외 1팀)이 한자리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예술경영 전문가 1세대로 잘 알려진 홍승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가 축제의 예술감독을 맡아 학생들이 마음껏 역량을 꽃피우고 음악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6년간 지속된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이 2014년 막을 내린 후 성남아트센터는 한층 진일보한 차기작을 선보였다. 성남시와 스위스 취리히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소통하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뮤직 알프스 in 성남>이다. 취리히음악원 부총장인 허승연 교수를 비롯해 취리히음악원 교수진들과 톤할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워크숍과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고, 마지막 피날레 콘서트는 엘 시스테마 출신의 차세대 지휘자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를 맡아 한국의 청년들과 새로운 음악의 감동을 빚어냈다. 올해 <뮤직 알프스 in 성남>에는 취리히 청소년 5명이 한국을 홈스테이로 방문, 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했으며, 내년에는 성남의 청소년들이 취리히를 교차방문하며 현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극

작은 무대에서 피어나는 큰 감동

성남아트센터는 소극장 무대 연출에 최적화된 앙상블시어터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연극 무대를 소개해왔다. 개관 초기 연희단거리패와 극단 목화 등 국내 간판 극단과 연출가들의 오랜 명작을 선보였다면, 중반기부터는 '연극만원' 시리즈를 통해 대학로의 흥행 연극을 성남에서 단돈 1만 원에 감상하는 시민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도 프랑스 툴루즈 국립극장의 <1,000프랑의 보상>과 같은 해외 명작 연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극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

<한국 사람들>

<로미오와 줄리엣>

국내 정상의 연출가들이 빚어낸 명작

개관 첫해 성남아트센터의 선택은 한국 연극사에 한 획을 그은 전통의 명작들이었다. 연출가 이윤택과 연희단거리패, 국민배우 강부자가 뭉친 <오구 - 죽음의 형식>은 당시 15년간 롱런하며 평균 객석 점유율 97%라는 경이적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죽음이라는 비극적 소재를 한국적인 제의 형식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세계 연극계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작품으로 꼽히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귀신 붙은 연극'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한국적 해학과 흥으로 풀어내며 극찬받은 오태석 연출과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 김광보 연출의 <에쿠우스>가 모두 개관 첫해 앙상블시어터에서 선보인 한국 연극계의 명작들이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연극도 선을 보였다. 제14회 서울어린이연극상 4개 부문 수상에 빛나는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은 독일의 동화작가 엘리자베트 슈티메르트의 원작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배우 박정자의 첫 어린이 연극으로도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어린이문화예술학교와 연출가 한태숙, 박정자, 성남아트센터가 힘을 합쳐 가족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을 선사했다. 어린이 소설 <모모>의 작가 미하엘 엔데가 꾸며낸 환상적인 동화 무대 어린이극 <오필리어의 그림자 극장> 역시 어린이 관객들에게 인생의 희극과 비극을 함께 알려주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 작품이다.

제작극장으로서의 면모를 함께 보여준 작품으로는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극단 우투리와 작업한 합작 연극 <한국 사람들>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최고의 극작가로 꼽히는 미셸 비나베르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집필한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프랑스 작가가 한국전쟁에 관해 쓴 이야기를 한국의 극단이 국내 초연2006으로 선보인다는 점, 프랑스와 한국의 연출가 2인이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점, 공연 당시 비나베르가 직접 내한해 작품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점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희곡 출간 이후 프랑스 현지에서 크게 보도되며 주목받았던 원작을 한국어로 표현한 이 작품은 전쟁을 둘러싼 이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에 얽히게 된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 삶과 현실이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드라마로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었다. 특히 공연 당시 작자인 미셸 비나베르와 프랑스 관계자가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해 극찬을 보냈고, 이듬해 프랑스 현지 공연에서도 프랑스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호평을 받음으로써 향후 성남문화재단 제작공연이 프랑스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후에도 제6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공식 초청작인 <경숙이, 경숙 아버지>2007, '화제의 연극' 시리즈로 선보인 <늙은 부부 이야기>2008를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을 선보였고, 에밀리 브론테의 고전을 무대로 옮긴 송현옥 연출의 <폭풍의 언덕>2008은 대학로에서의 성공에 이어 성남아트센터에 입성, 섬세한 스펙터클의 무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학로를 고스란히 옮겨 오다, '연극만원'

성남아트센터의 연극 공연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2011년 첫선을 보인 '연극만원' 시리즈이다. 대학로에서 화제를 모은 인기작을 고스란히 앙상블시어터 무대로 옮겨 온 이 공연은 평일 낮 시간이라는 틈새 시간대, 전석 1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 멀리 대학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까지 더해져 현재까지 성남아트센터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매년 분기별로 4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연극만원'은 그동안 <라이어> <늙은 자전거> <아버지> <그와 그녀의 목요일> <스캔들> 등 재미와 작품성을 검증받은 대학로 흥행작은 물론, 성남의 전문극단인 동선의 창단 27주년 기념작 <꽃마차는 달려간다>를 소개하며 지역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연극만원'은 2015년에도 <취미의 방> <유도소년> <늘근도둑 이야기> <작업의 정석> 등 검증받은 우수작들을 통해 흥행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연극만원 <화가 나혜석>

<1,000프랑의 보상>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전해준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감동

최근 선보인 연극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성남문화재단이 2014년 세계 명작 시리즈로 초청한 <1,000프랑의 보상>이다. 세계가 사랑하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숨겨진 희곡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오페라계와 연극계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스타 연출가 로랑 펠리, 프랑스 툴루즈 국립극장 오리지널 팀으로 국내 초연되었다. 위고가 대표작 <레 미제라블> 완성 4년 후인 1866년, 망명지 건지 섬에서 집필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생전 진정한 자유가 올 때까지 상연하고 싶지 않다"며 수많은 극단의 공연 제안을 거절했을 정도로 신념과 애정을 담은 작품이다. 돈이 가진 권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과 애환, 물질만능시대의 권력과 횡포에 휴머니즘으로 맞선 서민들의 승리를 다룬 이 이야기는 2010년 프랑스 초연 이후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로랑 펠리의 현대적인 연출과 재해석 역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위고가 살았던 1860년대 프랑스의 모습에서 21세기 한국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개관 이후 처음으로 소개한 해외 대작 연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작품이다.

특히 오페라 연출가로 현재 최고의 상승세에 있는 펠리의 감각이 녹아든 무대 연출은 그 자체로 색다른 감흥을 선사했다. 빛과 그림자의 명암 대비를 사용해 마치 그림자나 흑백영화를 연상시키는 연출, 각 막마다 특정한 색깔을 부여한 무대, 무용에 가까운 배우들의 동선 등은 시각적으로도 풍부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한편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았던 위고의 원작 희곡 역시 공연에 맞추어 열화당에서 출간, 문학계와 공연계를 아우르는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탄천페스티벌

탄천, 문화, 사람이 어우러진 대표축제의 초석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의 젖줄 탄천을 무대로 한 종합문화예술 축제인 탄천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성남 대표축제 만들기를 시도했다. 전통 문화유산이나 지역 특산물 중심의 지역축제가 아닌, 성남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탄천, 환경, 시민, IT산업)를 활용한 자생력 있는 도시문화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연장과 야외 공간(탄천 둔치, 율동공원, 분당구청 광장 등)의 조화 속에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예술과 부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 서울로 집중된 문화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과 어린이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했다.

해외 10개국 민속예술공연단의 예술무대, 영국 루미나리움 컴퍼니의 <공기로 만든 빛의 집> 퍼포먼스, 성남 예술단체들이 꾸미는 프린지 페스티벌 등으로 꾸며진 2005년 제1회 페스티벌에 이어, 2006 탄천 페스티벌은 '타악'을 주제로 5일에 걸쳐 성남시 전역에서 시민을 만났다. 탄천 야외무대에서는 브라질과 쿠바 등 세계 유명 타악공연단과 무용단의 퍼레이드가, 성남아트센터에서는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화제작 <곤두와나>와 영국 바비칸센터 초청작 <한여름 밤의 꿈>이 공연되었고, 성남시민회관에서는 해외에서 호평받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어린이 공연예술제가 펼쳐졌다. 공연 외에도 '시민 대화합 탄천걷기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축제 기간 하루 평균 1만5,000~2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다. 2007년 페스티벌은 당시 국내 봉사단체의 아프간 피랍사태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피랍자 무사귀환에 대한 염원을 함께 담았고, '빛'을 주제로 꾸민 2008년 페스티벌은 성남시립예술단과 성남예총 산하 예술인의 공연, 다채로운 야외 퍼포먼스와 카니발, '성남의 빛과 미래'라는 테마의 불꽃놀이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막을 내렸다.

4년 동안 이어진 탄천페스티벌은 축제의 정체성 부족, 시민 참여 부족 등 여러 지적 속에 예산이 삭감되며 아쉽게 종료되었다. 축제의 지속에는 실패했으나,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도시문화형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일반인이 문화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남 대표축제의 전신前身으로 의미 깊은 행보를 보여준 행사였다.

공연사업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성남시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때

글 노승림
영국 워릭대학교
문화정책학 박사과정

'문화예술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영국의 예술평론가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이다. 오늘날 '문화'라 하면 1차적으로 미적인 예술 활동을 떠올리지만, 그의 문화론은 보다 복잡했다. 그는 문화란 심미적 가치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 및 사회적 판단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았다. 즉 예술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 및 의식 수준의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는 감각은 부富의 창조로 이어지는데, 이때 '부'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감성적, 정신적 풍요도 의미하며, 이렇듯 인간의 심미적 향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러스킨의 문화관은 그의 조국 영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관점에서 보건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심미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은 심미적 활동의 수혜자가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뿐 아니라 그렇게 생산된 예술을 감상하는 관객을 포괄한다. 때문에 예술 정책은 시민들이 그들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원하는 예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심미적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남아트센터의 입지를 바라보자. 시립 운영기관인 성남아트센터의 역할을 올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원을 시민으로 섬기고 있는 성남시의 정체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선 첫째,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태어났다. 성남시는 1960~1970년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인해 얻은 결과물이다. 극단적인 수도권 중심주의 산업발전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을 모도시로 한 여러 위성도시가 건설되었고 성남시는 그중 하나였다. 서울과 성남시의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여전히 서울에 직장을 두고 통근하는 다수의 시 구성원으로 인해 성남의 여러 문화 및 복지 시설은 서울시의 그것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인구 분산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위성도시들은 신개발 구역과 기존 지역 간의 괴리를 형성했다. 성남시의 경우 새롭게 세워진 분당구와 기존의 중원구·수정구는 같은 자치 단체에 속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패턴, 주거 환경에 있어 많은 격차를 보였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격차는 경제 수익의 차이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성남시의 본·신시가지 사이의 격차는 곧 경제적 격차와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남시의 특징을 바탕으로, 성남아트센터가 지난 10년간 일구어낸 성취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❶ 서울 예술의전당 및 세종문화회관과 경쟁하는 '국내 3대 공연장 입지 구축'
❷ 문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다양한 계층의 조화
❸ 성남시 고유의 공연문화 브랜드 형성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 과제를 성남아트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왔는지, 공연사업을 중심으로 재고해보자.

❶ 서울 예술의전당 및 세종문화회관과 경쟁하는 '국내 3대 공연장 입지 구축'

2005년 화려한 개막과 함께 세 개의 공연장을 장식했던 개관 프로그램들은 성남지역 언론은 물론 서울로부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알차고 풍요로웠다. 개관 초기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0여 개의 해외 유명단체가 성남을 찾았다. 그중 2005년 지휘자 길버트 카플란,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가 성남아트센터에서 한국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이후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앤드루 맨츠 & 잉글리시 콘서트, 몽탈보-에르뷰 댄스 컴퍼니이상 2006,

퓨전 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장>

중국국립발레단 <홍등>

뮤지컬 <남한산성>의 연습 풍경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나이젤 케네디 퀸텟, 틸레만 &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라벨르>이상 2007, 힐러리 한 & 밴쿠버 심포니, 중국 국립발레단 <홍등>이상 2008, 톤 쿠프만 &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2009,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 로저 노링턴 &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이상 2010,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2011, 피아니스트 장에프랑 바부제, 고음악 연주단체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이상 2013, 프랑스 툴루즈 국립극장 연극 <1,000프랑의 보상>2014 등이 성남아트센터 단독 무대로 한국 초연을 이루었다. 프로그램 면면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공연을 처음 만나는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어색하지 않다. 각 기획공연들에 대한 서울로부터의 관객 유입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윌리엄 포사이스 <헤테로토피아>의 경우 64%를 기록, 서울 관객이 지역 관객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2011년 폴 루이스 리사이틀 | 서울 관객 35%
2013년 헤테로토피아 | 서울 관객 64%
2013년 장에프랑 바부제 | 서울 관객 36%
2014년 1,000프랑의 보상 | 서울 관객 30%

이러한 해외 초청 공연작과는 별도의 자체 프러덕션에도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2005년 개관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이소영 연출의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를 비롯해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2007가 안스가르 하그의 연출로 성남 오페라하우스에 올랐으며, 이어 첼린스키의 오페라 <피렌체의 비극>과 슈베르트의 <아내들의 반란>이 함께 앙상블시어터에서 국내 초연2008되었다. 특히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의 경우, 난해한 오페라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리 콘서트를 따로 마련하는 등 디테일이 돋보였으며, 첼린스키와 슈베르트의 오페라는 소극장인 앙상블시어터의 공간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실험적인 공연이었다. 클래식과 오페라 이외에 뮤지컬 <남한산성>2009, 2010,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단막극 시리즈'2009, 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장>2011은 성남아트센터가 한국 공연예술계에 선사하는, 동시대를 기록하는 창작물이었다. 이처럼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레퍼토리를 답습하는 과거 지자체 공연장들과 차별화된 것으로, 성남아트센터처럼 규모가 있는 공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할 문화적 덕목이자 한국 공연예술계를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이러한 하이 퀄리티 프로그래밍의 결과, 성남아트센터는 짧은 시간 안에 서울의 메이저 공연장과 대등한 수준의 입지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성남에 뒤이어 개관한 용인, 강동 등 서울 및 수도권 내 지자체 공연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었다.

❷ 문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다양한 계층의 조화

관객 개발을 위해, 그리고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성남아트센터는 교육과 공연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질적과 양적, 그리고 지명도의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역시 2009년부터 6회에 걸쳐 진행된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을 꼽을 수 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전 세계 젊은 음악도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로린 마젤을 멘토로 영입하고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첼리스트 장한나를 지휘자로 데뷔시킨 이 화제의 프로젝트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정체성에 더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오

성남아트센터는 2008년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공연에서 순수 공연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 수도권의 새로운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2007년 선보인 뮤지컬 <맘마미아!>를 위해 성남아트센터를 찾은 관객들. 성남문화재단은 이처럼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무대를 통해 다양한 관객층의 취향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디션은 성남시가 전 세계와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폐쇄적인 공연장에서 탈피해 중앙공원에서 파크 콘서트를 진행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무대를 선사해 성남문화재단과 주민들의 공감도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성남시만의 차별성을 이용한 훌륭한 시도였다.

이 밖에도 공연장을 이용해 성남문화재단은 '마티네 콘서트'2006년 시작, '박종호의 오페라 글라스'2011, 2013, '수아레 콘서트'2006년 시작 등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특히 매표 현황을 살펴보면, 수아레 콘서트의 경우 지명도 높은 엔터테이너를 영입, 서울 관객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수아레 콘서트의 시리즈 중 하나로 기획되었던 '정재형의 avec piano'는 유료관객 중 서울 관객이 평균 35%를 꾸준히 웃돌았다. 어린이를 위한 국악 나들이2007,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 페스티벌2007~2010, 스쿨 클래식2007, 스쿨 오브 뮤직2011, 2012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양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인재의 육성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향수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향수에 대한 교육적 경험은 학문적 교육보다는 이렇듯 지방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남다른 독창성을 가진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과 달리, 이들 프로그램은 서울이나 여타 지역의 공연장과 비교해 차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역 관객들의 구성이다. 통계를 얻지 못해 알 수 없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꾸준히 찾는 단골 관객의 상당수는 신시가지에서 찾아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성남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시가지 혹은 본시가지 시민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때부터 지니고 있던 숙제인 '본·신시가지 정서적 조화'와 연관되어 있다. 성남아트센터가 위치한 이매동은 분당구와 수정구의 경계 지점으로 성남아트센터가 본·신시가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허브가 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위치이다. 하지만 숙제는 역시 쉽지 않았다. 양쪽 지역의 문화적 성향은 매우 차이가 심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개관 초기에는 서로에게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2005년 1월 성남문화재단이 출범하고 10월 아트센터 개관 직전까지 10여 개월 동안 재단과 시청에 쏟아졌던 수많은 민원이 이를 증명한다. 공연기획에 있어 분당 신시가지와 중원·수정의 요구는 상당히 엇갈렸다. 대다수 분당 주민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본시가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들은 성남아트센터 또한 자신들의 세금으로 세우는 기관 중 하나이므로 공연장 운영에 있어 신시가지 주민들의 취향과 의견이 더 많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본시가지 주민들은 같은 성남시의 일원이면서도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있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러한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고급 예술보다는 대중성 있는 무대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성과 예술성의 분배 측면에서도 성남아트센터의 공연기획은 하자가 없어 보인다. 공동 투자한 뮤지컬 프로덕션들 - 맘마미아!2007, 2012, 돈주앙/시카고2009, 아이다2010, 모차르트/삼총사2011, 조로2014 - 을 비롯해 조용필/봄여름가을겨울2007, 장윤정2008, 김건모/바비킴2010, 심수봉2009, 박정현/파이널판타지2011, 김동률2013, 이적2014 등은 여러 경제 계층의 선호도를 고루 반영한 대중 예술무대들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두 지역은 문화적, 계층적으로 이질적이다. 지역 격차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정서적인 조화이다. 향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역적 이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 양쪽 모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각각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문화적 취향에 부합하는 공연을 분배해 프로그래밍하면서, 대관 사업에 있어서도 (서울 등 다른 지역 예술 단체를 제외하고) 본·신시가지 양쪽 지역의 예술 단체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역 간의 정서적 조화는 이런 지역 간의 공평한 분배보다는 양쪽 지역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연 개발을 통해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관련 조사뿐 아니라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지역별 관객 성향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아주 작은 지방 공연

장조차 외부 연구 용역을 고용해 잠재 관객들의 성향을 연구 조사한다. 반면 한국은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관객 성향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 관객들의 성향이 곧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성향이며, 이러한 조사는 더욱 많은 지역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간의 정서적 화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일회적인 지원이나 참여를 넘어서 장기간에 걸쳐 양쪽 지역의 문화교류를 주도하여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자체 문화기관의 역할이다.

❸ 특화된 공연예술문화 형성을 통한 도시 문화 브랜딩

성남아트센터의 공연들이 서울 메이저 공연장과 겨룰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이미 언급했다. 하지만 성남은 서울이 아니다. 성남시가 서울과 문화적으로 진정 동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이 하는 것을 성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서울과 차별된 성남시만의 문화'를 내세워야 한다. 대도시의 모방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비단 성남아트센터만이 아닌 성남시와 같은 위성도시들의 공통된 숙제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인위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도시 공간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변화한 케이스이다. 이로 인해 인구만 급증했을 뿐 독립된 도시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문화는 언제나 그렇듯 오랜 시간 계승이 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기도 한다. 재단의 TF 연구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일본 사이타마 예술극장이 바로 새롭게 문화적 정체성을 개발한 좋은 사례이다. 도쿄 근교의 작은 위성 도시에 불과한 사이타마 시의 예술극장은 니나가와 유키오라는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 고유의 셰익스피어 문화를 일구어 내 지역문화로 내세우는 경지에 이르렀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경제력,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공연장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숙제는 아니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본·신시가지 주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압도하는,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정체성은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로도 연결될 수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 이러한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성남아트센터는 10여 년에 걸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해소했으며, 더 나아가 서울의 주요 공연장과 긍정적인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남이라는 지역 내부를 살펴볼 때, 본·신시가지 사이의 문화적 격차 해소, 그리고 서울과 다른 성남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성남아트센터의 어깨는 아직도 다소 무거워 보인다.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연예술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종교적 제의'에서 비롯되었다. 하나의 공동체가 공통의 소원을 비는 엄숙한 의식의 자리에 노래와 춤과 연극이 동원된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배경은 공연예술이 단순한 여가나 여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 통합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아트센터는 문화 복지 시설이라는 도구적 역할 이상의 중요한 공공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서울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이 검증된 이 시점에서, 명분과 트렌드를 좇는 데 급급한 단발적인 프로그래밍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성남시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개발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성남아트센터에 요청된다.

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공연사업"

성남아트센터는 대작과 화제작을 넘나드는 기획, 때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단기간에 공연예술계가 주목하는 공연장이 되었다. 동시에 수준 높은 무료공연과 대중을 위한 시리즈 공연까지, 시민을 위한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왔다.

성남아트센터 공연에 대해 시민과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높습니다. 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특히 보람을 느낄 때가 있나요?

공연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느냐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연이든, 문화예술계의 호평을 받아 성남의 이름을 높이든 말이지요. 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대중성에 클래식을 가미한 파크 콘서트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간 10만 명 내외의 관객을 모으는 공연인데 공연 내용에 대해서도 신뢰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작년에는 힙합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주요 출연진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남문화재단이라면 믿을 만하니까 무조건 가서 본다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1만3,000명 정도 대규모 관객이 찾아주셨어요.

공연기획 방향의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단기간에 성남아트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뮤지션을 초청한다든지, 대작을 기획한다든지요. 이후 공연 관련 예산이 줄어든 상황인데 주어진 예산 내에서 품격 있는 공연, 시민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는 무료공연을 선보이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에요. 오페라는 1년에 한두 편, 세계적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한 편 정도, 무용은 성남이라는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혁신적 작품으로 선별해서 진행합니다.

해외 문화예술계와의 교류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국제교류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해외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하거나 해외 주요 음악도시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에는 스위스 톤할레 오케스트라, 취리히 음악원과 협력해 성남시와 스위스의 청소년들이 만나는 <뮤직 알프스 in 성남>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워크숍과 합동공연을 통해 교류하는 행사예요. 성남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열어 단원을 뽑았고 내년에는 우리 단원들이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연 분야의 이런 국제교류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베트남, 중국 등지와의 교류와 맞물려 성남시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공연

공연사업 10년의 발자취

2005

10 길버트 카플란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10.15 | 오페라하우스
연극 <오구 - 죽음의 형식>
10.15~10.16 | 앙상블시어터
이반 피셔, 백건우,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17 | 콘서트홀
모슈 봉테 컴퍼니 <Twin Houses>
10.18 | 앙상블시어터
시크릿 가든 & 카운터테너 이동규
10.18 | 오페라하우스
쿠르트 마주어, 사라 장,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19 | 오페라하우스
금노상 & 성남시립교향악단
10.20 | 오페라하우스
황병기의 음악세계
10.21 | 콘서트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10.21 | 앙상블시어터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리사이틀
10.22 | 콘서트홀
공명 콘서트
10.23 | 앙상블시어터
성남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10.27 | 콘서트홀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10.27~10.29 | 오페라하우스

가족연극 <우당탕탕 할머니의 방>
10.27~10.30 | 앙상블시어터
11 성남아트센터 개관 기념 '성남 예술인 한마당'
11.01~11.21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안숙선의 소리세계
11.02 | 콘서트홀
연극 <에쿠우스>
11.02~11.03 | 앙상블시어터
히사이시 조의 음악세계
11.03 | 오페라하우스
토마추 스탄코 재즈 콰르텟 초청공연
11.03 | 콘서트홀
황인용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올드팝 & 포크
11.05 | 오페라하우스
정명훈과 아시아연합오케스트라
11.06 | 오페라하우스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11.07 | 콘서트홀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원
11.08 | 콘서트홀
어린이 연극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
11.09~11.10 | 앙상블시어터
아크로바틱 서커스 <디아볼로>
11.09~11.13 | 오페라하우스
손열음 피아노 독주회
11.11 | 콘서트홀
TIMF 앙상블 - 윤이상 10주기 음악회
11.12 | 콘서트홀
여성 국극 <황진이>
11.15 |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파우스트>
11.24~11.27 | 오페라하우스
12 성남시립국악단 창단 기념 연주회
12.08 | 오페라하우스
어린이 체험 콘서트 <시리동동 거미동동>
12.19~12.25 | 앙상블시어터
All that jazz in 성남 - 래리 칼튼 & 밥 제임스
12.20~12.21 | 콘서트홀
유키 구라모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5 | 콘서트홀

2006

02 앤드루 맨츠 & 잉글리시 콘서트
02.11 | 콘서트홀

04 안네 소피 폰 오터 리사이틀
04.03 | 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
04.20~05.11 | 콘서트홀
뮤지컬 <요덕스토리>
04.18~04.19 | 오페라하우스
제작 오페라 <마술 피리>
04.25~04.30 | 오페라하우스
05 조수미 데뷔 20년 기념 독창회
05.16 | 오페라하우스
06 몽탈보 - 에르비유 댄스 컴퍼니 <on dance>
06.02~06.03 | 오페라하우스
뮤지컬 <미스 사이공>
06.28~08.20 | 오페라하우스
08 포 오브 어 카인드 트롬본 콰르텟
08.04 | 콘서트홀
정명훈과 서울시향 <앱솔루트 베토벤!>
08.23 | 콘서트홀
고란 브레고비치와 웨딩 & 퓨너럴 밴드
08.31 | 오페라하우스
09 제1회 성남국제무용제 '환경과 춤'
09.05~09.10 |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탄천
10 피아니스트 니나 코간 & 수원시향
10.10 | 오페라하우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10.14~10.15 | 오페라하우스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0.21 | 오페라하우스
11 디아볼로 2
11.16~11.19 | 오페라하우스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11.22 | 오페라하우스
12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내한공연
12.09 | 콘서트홀
수아레 콘서트
12.16
벨로루시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21~12.25 | 오페라하우스
제야 음악회
12.31 | 오페라하우스

2007

01 베를린 필하모닉 옥텟 내한 공연
01.16 | 콘서트홀
뮤지컬 <맘마미아!>
01.18~03.25 | 오페라하우스
02 마티네 콘서트
02.~12. | 콘서트홀
03 <앙상블시어터 페스티벌>
03.02~04.01 | 앙상블시어터
이동규 & 임선혜 러브 듀엣 콘서트
03.03 | 콘서트홀
04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04.01 | 콘서트홀
수아레 콘서트
04.24~11.27 | 앙상블시어터
05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5.04 | 오페라하우스
나이젤 케네디 콰르텟
05.09 | 오페라하우스
제1회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축제
05.22~05.27 |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이블린 글레니 콘서트
05.23 | 오페라하우스
06 사무엘 윤 리사이틀
06.16 | 콘서트홀
기돈 크레머 & 크레마라타 발티카
06.22 | 콘서트홀
07 화제의 연극 <경숙이, 경숙 아버지>
07.12~07.15 | 앙상블시어터
09 제2회 성남국제무용제
09.06~09.10 | 오페라하우스, 앙상블시어터, 야외무대
더 파이브 브라운즈
09.07 | 콘서트홀
10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10.11~10.14 | 오페라하우스

몬테카를로 발레단 <라 벨르>
10.17~10.18 | 오페라하우스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엘리아후 인발
10.19 | 오페라하우스
화제의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
10.18~10.21 | 앙상블시어터
11 크리스티안 틸레만 &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11 | 오페라하우스
안은미컴퍼니 <정원사>
11.21 | 오페라하우스
12 서울발레시어터와 함께하는 <호두까기인형>
12.21~12.25 | 오페라하우스

2008

01 신년음악회
01.11 | 콘서트홀
빈 소년 합창단
01.13 | 콘서트홀
02 수아레 콘서트
02.~11. | 앙상블시어터
마티네 콘서트
02.~12. | 콘서트홀
05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
<MINUS 16> <SLEEPLESS>
05.17~05.18 | 오페라하우스
제2회 성남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05.23~06.01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06 화제의 연극 <폭풍의 언덕>
06.05~06.15 | 앙상블시어터
소극장 오페라 <피렌체의 비극> <아내들의 반란>
06.21~06.22, 06.24~06.25 | 앙상블시어터

09 정명훈 &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랑랑
09.09 | 오페라하우스

10 힐러리 한 &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10.11 | 오페라하우스
중국 국립발레단 <홍등>
10.17~10.19 | 오페라하우스
11 장한나 & 런던 체임버 오케스트라
11.05 | 오페라하우스
화제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11.06~11.16 | 앙상블시어터
12 안네 소피 폰 오터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4 | 콘서트홀
서울발레시어터 <호두까기인형>
12.19~12.25 | 오페라하우스
제야 음악회
12.31 | 오페라하우스, 야외광장

2009

01 신년음악회
01.10 | 오페라하우스
02 마티네 콘서트
02.~12. | 콘서트홀
수아레 콘서트 '김현철의 해피아워'
02.~12. | 앙상블시어터
03 톤 쿠프만 &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03.06 | 콘서트홀
04 에미오 그레코 & 피터 솔텐 프로젝트 <Hell>
04.04~04.05 | 오페라하우스
에미오 그레코 & 피터 솔텐 프로젝트 <BEYOND>
04.10 | 오페라하우스
제3회 성남국제무용제
04.25~05.02 | 오페라하우스
05 남한산성에 피는 꽃 - 이화
05.02 | 오페라하우스
제12회 성남창작무용제
05.27 | 앙상블시어터
06 뮤지컬 <시카고>
06.05~06.29 | 오페라하우스
08 클래지콰이 프로젝트 콘서트
08.21~08.22 | 오페라하우스
09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09.11~09.12 | 콘서트홀
10 뮤지컬 <남한산성>
10.09~11.04 | 오페라하우스

12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 <호두까기인형>
12.22~12.26 | 오페라하우스
제야 음악회
12.31 | 오페라하우스

2010

02 아르카디 블로도스 피아노 리사이틀
02.27 | 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
02.~12.(6월 제외) | 콘서트홀

05 로저 노링턴 &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05.06 | 오페라하우스

08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II
08.14~08.16 | 오페라하우스/08.18~08.21 | 콘서트홀/08.25~08.28 | 야외공연장

10 이반 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08 | 콘서트홀
프랑스 리옹 국립오페라발레단 <지젤>
10.29~10.30 | 콘서트홀

12 뮤지컬 <아이다>
12.14~2011.03.27 | 오페라하우스
송구영신 음악회 - 박칼린의 <goodbye & hello>
12.31 | 오페라하우스

2011

02 마티네 콘서트
02.~12.(7월 제외) | 콘서트홀
수아레 콘서트
02.~12.(7월 제외) | 앙상블시어터

03 박종호의 오페라글라스
03.~12.(7, 8월 제외) | 앙상블시어터

04 연극만원
04.07~04.09, 6.10~06.12, 10.06~10.08, 11.10~11.12 | 앙상블시어터
청소년음악회 <스쿨 오브 뮤직>
04.07, 04.28, 06.09, 08.17, 09.08, 11.10, 12.08 |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장>
04.15~04.17, 04.20~04.24 | 오페라하우스

폴 루이스 피아노 리사이틀
04.23 | 콘서트홀

05 뮤지컬 <모차르트!>
05.24~07.03 | 오페라하우스

08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III
08.13, 08.15, 08.20, 08.28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야외공연장

10 파이널판타지
10.22~10.23 | 오페라하우스

11 뮤지컬 <삼총사>
11.03~12.18 | 오페라하우스
이언 보스트리지 & 에우로파 갈란테
11.06 | 콘서트홀

12 바비의 호두까기인형
12.24~12.25 | 오페라하우스
송구영신 음악회
12.31 | 오페라하우스

2012

02 어쿠스틱 카페 내한공연
02.10~02.11 | 콘서트홀
수아레 콘서트 - 이정의 Soul Stage
02.~12. | 앙상블시어터
박종호의 낭만시대
02.07, 03.13, 04.10, 05.08, 06.12, 07.10, 09.11, 10.16, 11.13, 12.11 | 앙상블시어터

03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 피아노 리사이틀
03.12 | 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
03.~12. | 콘서트홀

04 연극만원
04.06~04.08, 06.08~06.10, 10.05~10.07, 11.09~11.11 | 앙상블시어터
청소년음악회
04.05, 05.24, 06.07, 09.13, 10.25, 11.22 | 콘서트홀

05 내추럴리 7 내한공연
05.11~05.12 | 오페라하우스

06 파보 예르비 &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06.10 | 오페라하우스
김영순 댄스컴퍼니 <화이트웨이브>
06.27 | 앙상블시어터

07 성남클래식페스티벌 '청소년 교향악 축제'
07.10~07.14 |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
파크 콘서트
07.07, 07.21, 08.04, 08.18 | 중앙공원

08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IV
08.18, 08.25, 09.01 |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

09 서혜경 피아노 리사이틀
09.15 | 콘서트홀

10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0.19~10.20 | 오페라하우스
김동률 콘서트
10.26~10.27, 12.01~12.02 | 오페라하우스

12 송구영신 음악회
12.31 | 오페라 광장, 야탑광장, 모란오거리
임재범 콘서트
12.01~12.02 | 오페라하우스

2013

02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02.23~02.24 | 앙상블시어터
박종호의 낭만시대
02.~12. | 앙상블시어터

03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03.05 | 콘서트홀

뮤지컬 <맘마미아!>
03.08~03.16 | 오페라하우스
수아레 콘서트
03.19~12.20 | 앙상블시어터
마티네 콘서트
03.21~12.19 | 콘서트홀

04 포사이스 컴퍼니 <헤테로토피아>
04.10~04.14 | 오페라하우스

연극만원
04.06~04.07, 06.14~06.16, 10.04~10.06, 11.08~11.10, 12.06~12.08 | 앙상블시어터

05 파크 콘서트
05.05~08.31 | 야외공연장
명창과의 산책
05.08~05.10 | 앙상블시어터

06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닉 네제세갱 & 장 기엔 케라스
06.09 | 콘서트홀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작곡제전
06.16~06.17 | 콘서트홀

08 피크닉 콘서트
08.03, 09.07 | 을지대
킹스 컬리지 합창단, 캠브리지
08.08 | 콘서트홀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V
08.17, 08.24, 08.31 |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

10 장에프랑 바부제 피아노 리사이틀
10.19 | 콘서트홀

12 제야 음악회 - 윤한 콘서트
12.31 | 콘서트홀

2014

02 이적 콘서트
02.22~02.23 | 오페라하우스
로빈 티차티 & 스코티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마리아 주앙 피르스
02.23 | 콘서트홀

03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03.12 | 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
03.~12.(8회 종료/연 10회) | 콘서트홀
수아레 콘서트
03.14, 05.17, 11.22, 11.23 | 오페라하우스

04 연극만원
04.12~04.14, 12.12~12.14 | 앙상블시어터
내추럴리 7
04.18~04.19 | 오페라하우스
어린이 예술극장 <배고픈 애벌레>
04.22~04.27 | 오페라하우스

05 손숙의 <어머니>
05.08~05.09 | 오페라하우스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폴 루이스
05.27 | 오페라하우스

06 피크닉 콘서트
06.21 | 을지대
08.23 | 신구대

08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VI
08.02, 08.09, 08.16 |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
국립발레단 <왕자 호동>
08.29~08.30 | 오페라하우스

파크 콘서트
08.09, 08.30 | 중앙공원

10 프랑스 툴루즈 국립극장 <1,000프랑의 보상>
10.25~10.26 | 오페라하우스

2015

02 신년음악회
02.06 | 콘서트홀
휘성 밸런타인 콘서트
02.14~02.15 | 오페라하우스

03 마티네 콘서트
03.~12.(총 10회) | 콘서트홀

04 연극만원
04.17~04.19, 05.29~05.31, 09.18~09.20, 12.11~12.13 | 앙상블 시어터
발레 뒤 노르 컴퍼니 <비극>
04.10~04.11 | 오페라하우스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
04.22~04.25 | 앙상블시어터

08 <뮤직 알프스 in 성남>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08. | 콘서트홀

09 앙트레 콘서트
09.12 | 오페라하우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리사이틀
09.19 | 콘서트홀

10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15~10.18 | 오페라하우스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10.22~10.23 | 오페라하우스

파크 콘서트
중앙공원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성남문화재단

공연사업 10년의 자취와 성과

1

누적 기록으로 보는 공연사업

지역 내 문화향수 기회와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총 관람객 수

4,784,600 명

총 기획공연 수

2015년 8월 말 현재

300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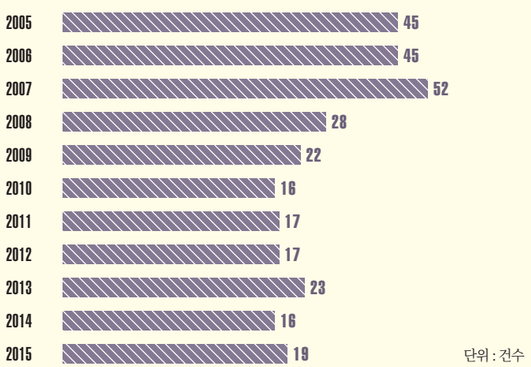
*2015년 8월 말 기준, 관람객 수는 기획·대관공연, 성남시민회관 공연 포함, 파크 콘서트 제외

2

기획공연 건수와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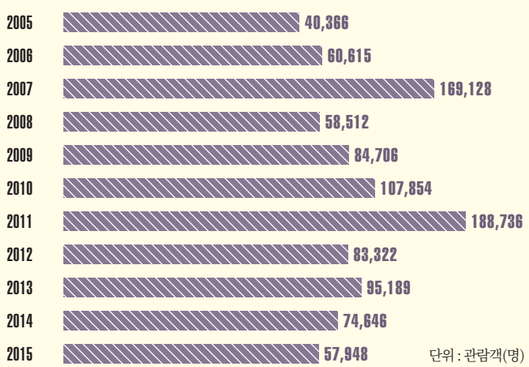
우수한 기획공연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단기간에 입지 구축,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토대로 한 최근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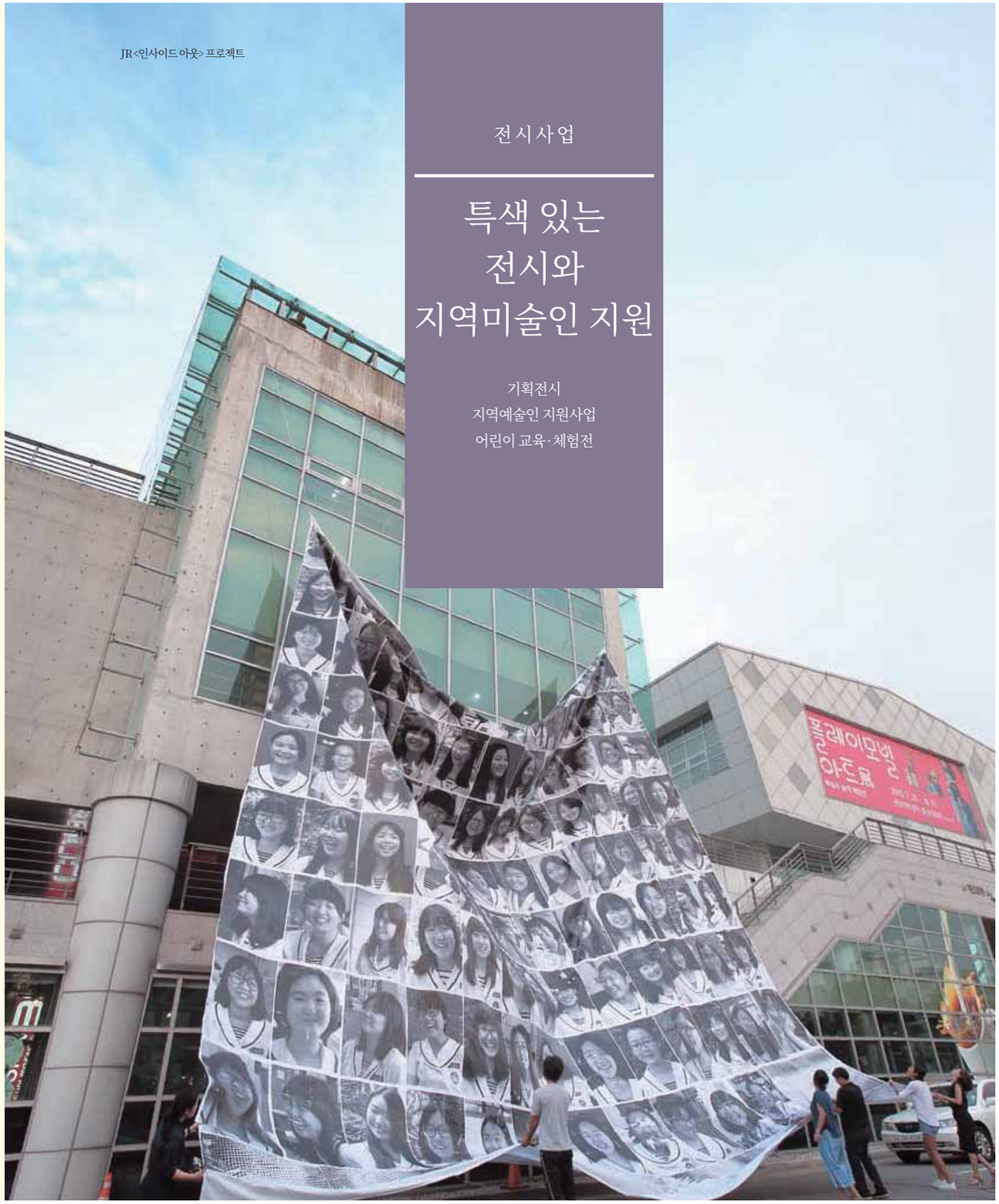
연도별 기획공연 건수



연도별 기획공연 총 관람객 수

2015 : 브랜드 시리즈 제외





전시사업

특색 있는 전시와 지역미술인 지원

기획전시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어린이 교육·체험전

기획 전시

새로운 시선으로 국내외 미술의 흐름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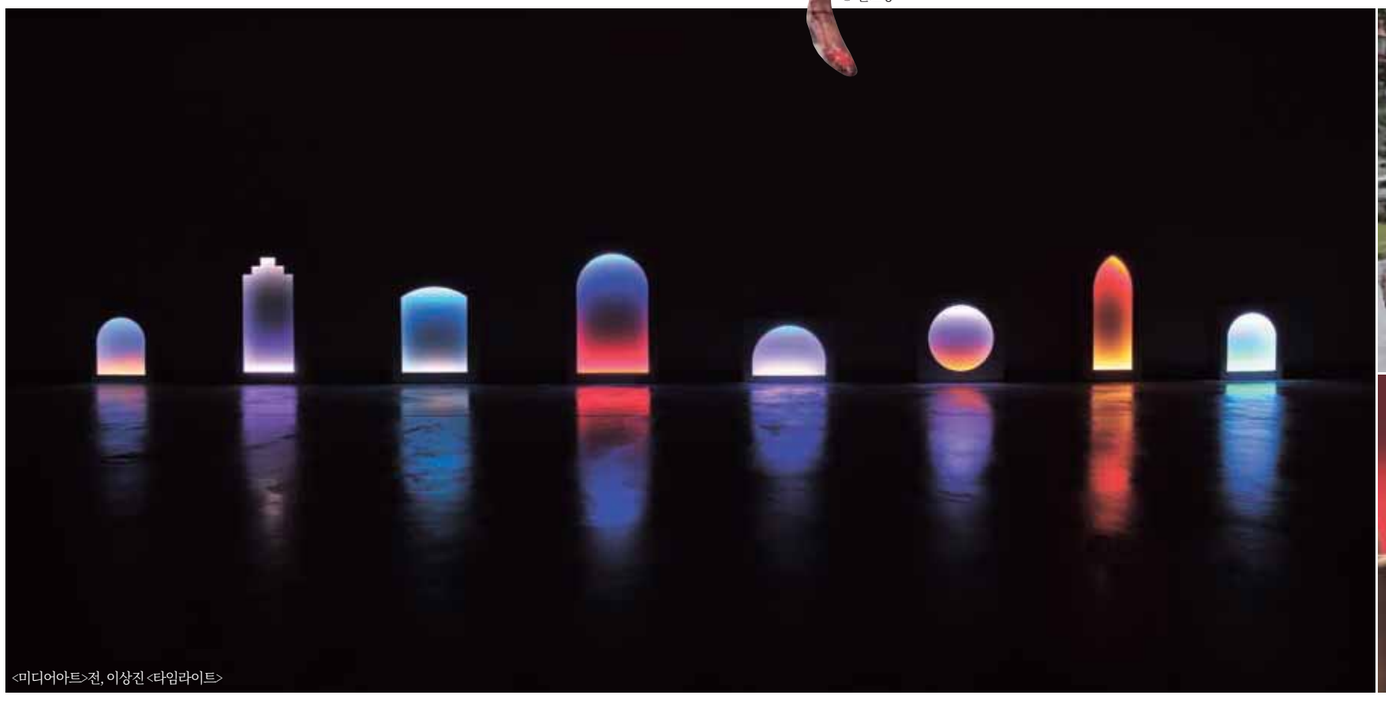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다양한 양질의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국내외 미술문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한편, 서울 중심의 전시문화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영국 - 독일 - 스페인 - 프랑스로 이어지며 유럽 현대미술의 흐름을 짚어본 일련의 해외미술전, 팝아트·미디어아트·극사실주의·패션까지 오늘날 국내 미술계에 화두를 던지는 장르의 조망,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야외전시와 조각전 등 관람객과 소통하는 동시에 지역 안팎으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고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 권오상

개관 초기에는 지역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활반경에서 예술을 즐기고 성남아트센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야외전시, 피카소·로댕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거장들의 전시로 시민과 미술관이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예가 개관 첫해 진행된 <세계바다사진전>으로, 프랑스 출신의 바다 사진작가 필립 플리송의 주요 작품 76점을 성남 중앙공원과 남한산성 등 야외 곳곳에 전시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인권운동가이자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인 세바스티앙 살가도Sebastiao Salgado의 전시는 1977년부터 24년간 촬영한 173점의 사진을 통해 세계의 기아와 난민,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지역 미술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전시 20일 만에 관객 1만 명 돌파의 흥행을 기록한 <피카소, 로댕과 떠나는 유럽 여행>2006, 피카소·미로·샤갈 등 유럽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유럽현대미술의 위대한 유산>2008전 역시 당대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을 확고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성남아트센터는 <유럽현대미술의 위대한 유산>을 위해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이자 소르본 대학 미술사 교수인 필립 다장Pilippe Dagen을 유럽 커미셔너로 선임, 작품 선정부터 전시 진행까지 전문성과 대중성, 교육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거장 호안 미로의 판화 103점을 공개한 <호안 미로, 최후의 열정>2009 역시 미로가 전속 작가로 활동했던 프랑스 매그 재단의 첫 아시아 전시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개관 이후 익히 알려진 거장들의 예술세계를 소개해온 성남아트센터는 2010년 큐브미술관의 개관과 함께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만의 특색 있는 현대미술 기획에 주력하게 된다.



<미디어아트>전, 이상진 <타임라이트>

<세계바다사진전>

<피카소, 로댕과 떠나는 유럽 여행>

<유럽현대미술전 - 친애하는 당신에게>

<독일현대미술전 - German Now>

유럽 현대미술의 오늘을 보여주는 기획전

2010년 성남아트센터는 기존 미술관 본관(현 갤러리808)외에 추가로 큐브미술관 공간을 오픈, 서울 중심의 전시문화를 지역으로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2010년 새롭게 문을 연 큐브미술관의 개관 기념전은 영국 현대미술계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작가들을 소개한 <영국현대회화전>이다.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국 회화상인 '존 무어 현대회화상' 수상 작가전으로 꾸며진 이 전시는 데이비드 호크니, 리처드 해밀턴, 피터 도이그, 이언 데븐포트 등 역대 수상작가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30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거의 매년 유럽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데, 2011년 <영국 로열 아카데미 대표 작가전> 역시 회화, 조각, 건축 등 각 부문에서 영국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로열 아카데미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1768년 설립 이후 영국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예술가들을 대거 배출해낸 로열 아카데미의 명성에 걸맞게, 전시 작가들의 면면 역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리사 말로이, 앤서니 곰리 등 영국을 넘어서 세계 현대미술의 주축을 이뤄가는 작가들로 꾸며졌다.

유럽 현대미술에 대한 성남아트센터의 올곧은 기획은 이듬해 <독일현대미술전 - German Now>로 이어졌다. 이 전시는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통제로 가득한 동독에서 외부 미술사조의 유입이 차단된 채 자신들만의 전통을 이어온 독일 라이프치히 화파를 집중 조명, 라이프치히 화파의 태동부터 전개까지 구동독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면모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설치작품까지 60여 점의 작품을 소개했으며, 그동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독일 컨템퍼러리 아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론서와 같은 컬렉션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스페인 근현대미술전 - 올라 스페인!>2013 은 그동안 특정 작가의 개인전이나 그룹전으로 소개되어온 스페인 근현대 미술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최초의 전시였다. 20세기의 1세대 거장인 피카소·달리·미로를 시작으로, 스페인 엥포르멜Informel 예술을 이끈 안토니 타피에스, 공공예술로 국제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를 비롯한 21세기 스페인 현대미술 작가들을 3세대로 분류해 선보였다. 회화·판화·사진·설치·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담긴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세계 미술을 주도해온 스페인 미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프랑스의 예술 철학을 한자리에 담아내는 전시 <유럽현대미술전 - 친애하는 당신에게>2015는 프랑스 현대미술의 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개념미술가 소피 칼Sophie Calle, 소외된 지역주민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제이알JR,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각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등 프랑스의 중견과 신진 작가 22명을 통해 프랑스의 현대 미술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이들의 작품들이 프랑스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를 내었는지를 조명했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단순히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미술관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성남시민과 호흡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차원에서, 성남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JR과 함께하는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화제를 모았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성남여중의 장현옥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성남여중 학생들이 촬영한 자신들의 사진을 JR스튜디오에서 출력했고, 학생들이 직접 힘을 모아 각각의 현수막을 하나의 거대한 현수막으로 이어 붙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미술계의 생생한 흐름을 읽다

팝아트, 극사실주의, 미디어아트 등 국내 미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한국현대미술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담아내는 기획전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관 1주년 기념전으로 진행된 <현대매체미술 - Light>전은 빛을 매체로 사용하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했다.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 이 전시는 강정완, 남궁원, 안말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성남시민들의 삶 속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표현했고, IT와 예술을 접목한 콘셉트 아래 IT 산업도시로서의 성남과 문화도시 성남의 만남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팝아트의 세계 - Pop N Pop>2008은 당시 계속 진화 중이던 한국 팝아트의 역사와 현황, 한국적인 팝아트의 개념에 대해 돌아보는 자리였다. <한국 팝아트의 다양성 - 일상과의 소통>, 팝아트의 기반인 대중문화가 미술과 결합된 흐름을 보여주는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기>, 해외 유명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쇼케이스 - 해외 팝아트 작품>으로 꾸며진 이 전시는 팝아트의 다양한 모습, 팝아트라고 지칭하기는 힘들지만 대중문화적인 요소가 스며든 작품들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일면을 조명했다.

팝아트전에 이어서 사진보다 더 현실 같은 그림을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일상 - 극사실회화의 어제와 오늘>2009은 해외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1970~2000년대 국내 극사실회화의 개념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후반 탄생 이래 하이퍼리얼리즘, 포토리얼리즘, 슈퍼리얼리즘 등으로 불리는 '극사실주의'가 국내 미술계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화의 재발견>2011은 1950년대부터 이어진 현대 한국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침체된 한국화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950년대부터 태동한 현대 한국화를 중심으로 원로작가부터 현재 활동 중인 젊은 작가까지 2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는 해방 이후 식민지 미술에서 벗어나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며 새로운 한국화의 변신을 보여준 1950~1960년대, 전통 한국화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현대적 변용을 보여준 1970~1980년대, 그리고 현재 활약 중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 침체된 한국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시 취지대로 미술 전문가들이 모인 세미나를 함께 개최, 전시의 기획 의도를 깊이 생각하고 한국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한국현대미술 - 시간의 풍경들>2012은 정연두와 권오상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21명의 작가가 사진으로 담아낸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사진예술을 집중 조명했다. 역시 전시와 더불어 한국 현대사진에 대한 미술사적인 의미와 현 주소를 알아보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 전시의 완성도를 높였다.

<미디어아트 - 감각의 확장>2014은 우리에게는 일상화된 디지털 미디어라는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작품과 관객의 소통에 관한 다양한 확장성을 보여준 전시이다. 일상생활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랜덤웍스(민세희, 김성훈), 작품과 관객이 상호작용하는 짧은 순간의 긴장감을 설계하는 에브리웨어(방현우, 허윤실), 독창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산업영역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하이브(한창민, 유선웅), 다양한 디지털 아트 및 넷아트 관련 국제 어워드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화려한 이력을 쌓고 있는 양민하, 사물을 지각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빛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이상진 모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아트의 대표 작가들로, 관객이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장르가 주는 참신함과 새로움을 부여했다.

<미디어아트>전, 하이브 <Light Tree>

<현대미술과 패션>

<현대미술과 패션>2014은 현대미술을 통해 패션의 즐거움을, 패션을 통해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전시이다. 국내외 현대미술과 패션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 11명(김용호, 김정현, 김준, 낸시랭, 박문희, 성연주, 안현곤, 이준, 임주연, 장승효, 전미래), 패션디자이너 7명(계한희, 김영진, 김수진, 이보현, 이상봉, 이석태, 채규인)이 참여한 이 전시는 두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자극과 영감의 교환을 통해 서로의 영역으로 진입, 그 경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작가와 디자이너가 만나 미술과 패션이 만나는 지점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거나, 현대미술과 패션 각 영역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의 대중화, 패션의 예술화를 동시에 구현하며 새로움을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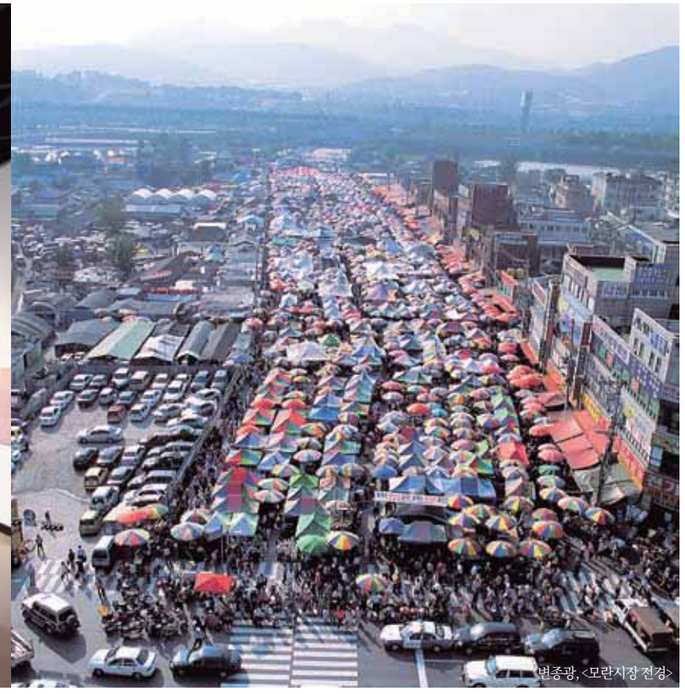
일상 속에서 즐기는 미술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시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예술을 친숙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전시와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야외광장에서 매년 진행된 MBC 구상조각대전, 개관 초기 분기별로 선보인 야외설치 미술전인 <아트 & 파크>전 역시 성남아트센터가 가진 자연환경과 야외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일조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아야 만날 수 있던 작품들을 관람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 속으로 찾아간 <찾아가는 전시관>은 분당구청과 남한산성, 중원도서관 등 성남시 곳곳을 찾아가며 시민과 예술로 교감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주말 성남아트센터 야외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경매시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아트마켓 역시 일반 시민과 예술 입문자들에게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선사했다. 특히 아트마켓의 경우 지역 미술작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관람객과 작가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몄다.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공간에서 펼쳐진 <성남국제북아트페어>2007, 2008는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북아트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국내외 초청작가들의 북아트 작품 전시, 해외의 북 아티스트들에게서 직접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까지 함께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북아트라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지역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지역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책임을 살려 지역예술인과 지역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남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해온 <성남의 얼굴>전, 젊고 참신한 지역작가들을 발굴·지원하며 창작활동을 육성하는 <신진작가 공모전>, <신진작가 공모전>의 주요 입상 작가들에게 지속적인 작품 활동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신진작가 공모전 당선작가 개인전>이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변종광, <모란시장 전경>

지난 2006년, 지역을 주제로 한 참여형 전시로 탄생한 <성남의 얼굴>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성남의 다양한 모습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되었다. 성남의 지역·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성남이라는 도시를 예술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성남의 면면을 알리고 있다.

성남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다

기획 첫해였던 2006년은 성남시 승격 33주년을 기념한 <삶의 시간 - 시간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남의 옛 자취와 문화,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성남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전 공간, 광주대단지 이주민의 삶과 성남의 정체성을 평면 작품으로 구현한 공간, 성남시민의 삶의 현장인 모란시장의 활기찬 현장을 구현한 공간, 입체 작품과 영상을 통해 창조적 문화도시 성남의 미래를 구현한 공간 등으로 꾸며진 1회 전시는 관객들이 각각의 전시공간을 살펴보는 동안 여러 지역작가의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성남의 역사와 정체성, 비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성남의 얼굴>전은 이듬해에도 '성남이야기'라는 주제로 첫해의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했다. 탄천을 상징하는 설치작품을 나무다리로 건너면서 전시실에 입장하는 섹션, 초창기 이주민들의 정착지역인 태평동과 신흥동 삶의 현장을 다룬 '성남 속의 성남' 공간을 통해 성남의 젖줄인 탄천을 중심으로 성남인들의 삶과 역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를 빚어냈다.

<성남의 얼굴>전은 이후에도 '남한산성'2009, '모란시장'2011, '탄천'2012 등을 주제로 지역과 호흡해 왔으며, 지역작가들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성남의 모습들은 단순한 작품 이상의 따뜻한 정취로 매해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흥을 선사했다. 2009년 '남한산성의 흔적의 흔적 + 생성의 빛'은 성남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과거 남한산성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에 착안, 신진부터 원로까지 80여 명의 지역작가가 대거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채로운 성남의 면면을 표현했다. 2012년 '시간을 넘어 탄천을 만나다'는 성남시민의 삶의 공간 속에서 묵묵히 흐르는 탄천의 모습, 탄천과 함께 흘러간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며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6월 진행된 제10회 전시 '도시락樂 + Rock'에서는 개관 10주년과 전시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 그동안 '지역'에 한정한 주제와 참여 작가로 꾸며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반경인 '도시'로 나아가 타 지역의 작가까지 참여했다는 점이다. <성남의 얼굴>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이에게 공감의 여운을 선사할 수 있는, 성남을 대표하는 의미의 '얼굴'로 자리 잡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청년작가를 위한 한마당, 신진작가 공모전

<성남의 얼굴>전이 지역 중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신진작가 공모전>은 성남 지역을 연고로 활동 중인 20대에서 30대 후반 청년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공모전은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객 역시 역량 있는 청년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에 감동을 받고 지역미술계에 관심을 갖는 선순환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고, 수상작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성남시 거주자 또는 성남시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성남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 중인 작가 등이라면 공모 가능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입상자는 이듬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열리는 <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기회를 부여받는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작가들을 육성하는 공모전이라는 점, 참가비나 작품 운송, 보험 등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 단순한 수상에 그치지 않고 개인전이라는 실질적인 작품 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가들이 온전히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 참여 작가들의 호응도가 특히 높다. 이상섭·김민희·임선희(2013년 입상자, 2014년 개인전), 한상아·최양희·박종호(2012년 입상자, 2013년 개인전) 등의 신진작가들이 이 개인전을 통해 공모전에서 미처 선보이지 못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폭넓게 펼쳐 보였다.

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비고
전시기간	2011.6.6~ 6.15(11일간)	2012.11.15~ 11.28(12일간)	2013.3.19~ 3.31(12일간)	2014.9.19~ 28(9일간)	총 47일
	2011.6.21~ 6.25(5일간)	2012.11.1~ 11.7(7일간)			
전시장소	미술관 본관(성남)	미술관 본관(성남)	큐브미술관	미술관 본관	-
	UNC갤러리(서울)	UNC갤러리(서울)			
전시작가	박현배, 김은정, 유한주	강효진, 송하나, 이현정	한상아, 박종호, 최양희	이상섭, 김민정, 임선희	총 12명
전시작품	110여 점(소품 포함)	64여 점	60여 점	60여 점	약 294점
관람객(성남)	1,091명	1,730명	620명	1,094명	총 4,535명
관람객(서울)	404명(박현배 개인전)	326명(강효진 개인전)	-	-	총 730명

신진작가 공모전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비고
전시기간	2010.3.2~ 3.28(24일간)	2011.6.6~ 6.15(11일간)	2012.12.6~ 12.19(14일간)	2013.10.18~ 11.3(15일간)	2014.10.11~ 10.22(10일간)	총 74일
전시장소	미술관 본관	큐브미술관	큐브미술관	미술관 본관	큐브미술관	-
입장료	유료(1,0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공모접수	44명	42명	47명	42명	33명	총 208명
전시작가	32명	30명	25명	20명	21명	총 128명
수상인원	18명	30명	25명	20명	21명	총 114명
전시작품	64점	60점	50점	40점	42점	총 256점
관람객	1,575명	1,128명	2,122명	2,221명	1,717명	총 8,763명
1일 평균 관람객	약 66명	약 103명	약 177명	약 148명	171.7명	-

성남문화재단은 아쉽게 수상을 놓친 젊은 작가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우수상과 입선 작가들을 위해서는 상설전시장에서 <청년작가전>이라는 타이틀의 단체전을 진행, 더 많은 젊은 작가가 지역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전체 주요 수상작가들을 위해서는 2013년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에서 <2013 Young & New>를 마련, 역대 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12명의 최근작을 소개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신진작가 공모전 입상 작가들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전시에는 2010년 신진작가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박현배,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은정·유한주를 비롯해 2011년 우수상을 수상한 조준태, 김순태, 이현배 등 2012년 신진작가 공모전 수상작가 등 총 12명이 참여, 차세대 예술인들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펼쳐 보였다. 성남문화재단은 이와 같은 지역예술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전시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더욱 개방하고, 시민들이 지역미술 발전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육·체험전

미술과 친해지기, 미술관과 가까워지기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어린이 전시를 진행 중이다. 놀이·교육·예술이 결합된 전시, 아이뿐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체험전, 저마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등 다양한 구성의 전시기획을 통해 꿈나무들의 문화감성 발달을 돕고 있다.

미술 꿈나무를 발굴한 실기대회

개관 초기에 참신한 콘셉트로 주목받았던 어린이 전시는 일본 하마다 시 세계어린이미술관의 소장품을 소개한 <세계 어린이 화가 EQ 이야기>2006이다. 이 전시는 30여 개국 어린이들의 작품 500여 점을 소개, 세계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로 주목받았다. 성남문화재단은 전시와 함께 제1회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를 개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술축제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당시 제1회 어린이미술실기대회는 성남과 서울 등 수도권 어린이 980여 명이 대거 참여해 가족 관람객들의 관심을 자아냈으며, 대회 수상작 10점은 하마다 시 세계어린이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후 2014년까지 이어진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는 미래의 문화주역으로 자라날 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였다. 매해 여름마다 찾아온 어린이 미술대회는 수상작들을 오페라하우스 지하 특별전시공간 등 곳곳에 전시, 아이들에게 예술 꿈나무로서의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캐릭터의 향연

헬로 키티, 미피, 플레이모빌 등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한 전시도 다수 선보였다. 2009년에는 글로벌 캐릭터로 사랑받는 헬로 키티와 미피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렸다. 다양한 국내외 작가 40여 명이 각자의 시선으로 헬로 키티를 재해석한 <인사이드 키티>는 키티를 탄생시킨 산리오 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내한해 관객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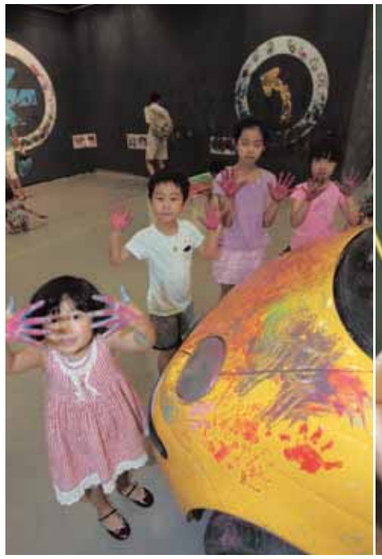
주인공으로 친숙한 캐릭터 미피를 주제로 한 <미술관에 가요!>전은 미술관 속 미피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미술관을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미피의 아버지인 네덜란드 디자이너 딕 브루나의 주요 작품 소개는 물론, 단순한 색상과 선으로 꾸며진 '미피'가 색채와 형체의 단순화로 모던 아트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 도슨트가 된 미피의 쉬운 설명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기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인형극으로 꾸민 미피의 동화책 속 이야기, 미피 블록놀이 등의 플레이 존,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나만의 미피를 디자인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독일 브란트슈테터Brandstätter 그룹이 만든 7.5cm 크기의 사람 모형 피겨 플레이모빌을 테마로 한 <플레이모빌 아트전>2015은 플레이모빌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전 세계 작가들이 펼치는 기발한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아이들이 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은 물론, 3040 키덜트 세대까지 매혹시킬 다채로운 구성을 펼쳐 보이며 아이와 어른 모두 각기 다른 시선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창의력 발달을 위한 알록달록 체험전

빛, 색, 종이, 모래, 흙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전들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 발달을 위한 전시로 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과학탐험관 엑스플로러토리움exploratorium의 아시아 순회전으로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과학체험전>2006은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와 물리 체험, 3차원의 원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학습의 장으로 꾸며졌다.

<머리가 좋아지는 색깔놀이터>2010는 유아동기의 다양한 색채 체험이 감성 자극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 다양한 테마와 존으로 구성된 색깔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색채에 친밀감을 품을 수 있는 놀이터가 펼쳐졌다. <와글와글 미술관>2010은 미술의 기본 요소인 빛과 색이라는 주제를



그림책 작가 모 윌렘스의 동화 구연 현장

연극·퍼포먼스·체험 등과 결합시켜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 빛과 색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아동극 공연 '모네 씨 안녕하세요', 만지고 느끼며 직접 그려보는 '명화 놀이터', 빛에 의해 변하는 색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빛과 색의 놀이터'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는 전시였다. 당시 전시된 30여 점의 작품은 세계 유명 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인상파 명작을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똑같이 재현한 제2의 원작들로, 아이들이 마음껏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품 이상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흙, 나무, 자연

플라스틱 장난감과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에만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연친화적 체험전들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미술관 사파리>2011는 대자연의 신비가 담겨 있는 사파리를 미술관에 꾸민 전시이다. 아프리카와 정글의 생태를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재해석해 현대적인 이미지로 연출한 전시 체험 공간, 디지털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체험공간인 미디어 사파리, 크고 작은 동물 인형과 함께 놀아보는 동물 놀이터 등 사파리와 자연을 콘셉트로 한 흥미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와 함께 모래와 빛으로 꾸며진 세 가지 마을을 누비며 샌드 드로잉과 라이트 드로잉을 체험한 <모래랑 빛이랑>2013, 나무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어린이들을 위해 친환경 소재의 나무 블록과 장난감, 도미노 놀이, 종이로 만든 눈밭에서 뛰어노는 <나무야 나무야>2014 역시 자연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교육 효과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전시였다.

전 세계 아이들의 베스트셀러,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나다

<에릭 칼 한국특별전>2012은 세계 55개국 언어로 번역된 인기 동화 <배고픈 애벌레>The Very Hungry Caterpillar의 작가이자 살아 있는 현대동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에릭 칼Eric Carle의 원화 작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전시이다. 45년간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에릭 칼의 작품들은 독특한 화법인 티슈페이퍼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이 특징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반할 만한 매력과 독창성으로 긴 세월 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에릭 칼 한국특별전>은 칼의 동화책에 실린 원화 작품과 파인아트 작품 등 총 99점을 소개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전문 가이드의 전시 해설, 어린이들이 전시 관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공하는 등 에릭 칼만의 다양한 색채와 독특한 화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꾸몄다. 특히 전시의 완성도를 위해 미국 에릭 칼 그림책 미술관The Eric Carle Museum of Picture Book Art과 전시 관련 디자인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의견을 나누며 차별화된 완성도를 보여주었는데, 전시 기간에 알렉산드라 케네디 관장이 직접 내한해 한국 전시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동화 속 애벌레와 갈색 곰 캐릭터에 빠지고, 함께 온 부모와 일반 관객들은 에릭 칼의 독특한 색채로 완성된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에릭 칼에 이어 또 다른 그림책의 거장이 2014년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왔다. 에릭 칼 그림책 미술관이 수집한 현대 그림책 100년사가 담긴 작품 120점이 큐브미술관에 소개된 것이다.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 세계 그림책 100년 & 모 윌렘스 월드>라는 타이틀의 전시를 통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로라 잉걸스 와일더 상, 칼데콧 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그림책 거장 28인의 작품들이 국내 최초로 한자리에서 전시되었다. 특히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방송작가이자 미국 아동문학의 인기 작가로 꼽히는 모 윌렘스가 특별 내한해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구연과 사인회를 하며,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아름다운 그림과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미술관이 어렵거나 딱딱한 공간이 아닌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 전시였다.

전시사업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새로운 문화소비 방식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재정비

성남아트센터는 지난 10년간 전시와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대관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신진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창작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전시사업은 자체기획전시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에 의해 진행하는 공동주최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대관전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고 교육과 관련된 전시로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를 진행했다. 또 전시와 별도로 학생이나 일반 교양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글 하계훈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우수한 기획전시

2005년 9월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알리는 전시로 '바다의 화가'라 불리는 프랑스 사진작가 필립 플리송의 <세계바다사진전>이 열린 이래 성남문화재단은 연간 최소 5회에서 최대 11회의 전시를 기획해 오고 있다. 개관 이듬해인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성남의 얼굴>전은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을 대표하는 장기 전시사업으로 기관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술관 야외광장에서 매년 개최해온 MBC조각대전도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전시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작가 전시로는 <세바스티앙 살가도 사진전>부터 <영국현대미술전 - 존무어수상작가> <독일현대미술전 - German Now> <스페인근현대미술전 - 올라 스페인!> 등의 전시가 거의 매년 진행되었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지역의 미술문화 진흥과 함께 세계 미술문화를 지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신진작가 공모전>이나 방학 기간에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체험형 전시를 꾸준히 시행한 것도 미래의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로서 긍정적이며, 지속 사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우수한 내용의 기획전을 중심으로 전시사업을 영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기획력 이외에 현실적 요소를 보면 재정지원이 얼마나 뒷받침되는가가 성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의 포럼자료에 의하면 2014년까지 10년간 지출 57억5,059만3,000원, 수입은 17억8,012만1,000원으로 3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총 164만8,089명의 관람객 중 유료관람객은 39만9,237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24.2%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미술관의 재정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 문화예술기관들이 처한 환경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민들의 문화소비력을 고려하면 그 수치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보다 나은 재정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기획과 더불어 더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투자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미술관과 성남아트센터

지난 10년간의 성남문화재단 전시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한 오늘날의 미술관이 처한 상황을 보자. 서구의 미술관 전성기였던 19~20세기의 미술관들은 소장품 보존과 해석 중심의 운영을 중시했다. 반면 오늘날 미술관은 소장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해서 더욱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고 관람객의 친근감을 높이는 가에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속에서 미술관은 관람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공간의 물리적, 지리적 제한성이 완화된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양과 질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미술관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람객의 기대 수준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19~20세기의 미술관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기술, 지식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미술관은 더 이상 이전처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이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산업사회와 달리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시각예술의 쓰임새가 다각화되고 미술관 역시 더욱 폭넓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과거처럼 유물의 보존과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학습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미술관 운영도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미술관도 문화산업의 구도 안에 편입되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확장된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과 같은 현대의 미술관은 새로운 가치체계와 문화소비 방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팎으로 재정비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기획전시사업

지난 10년간의 기획전시 사업을 살펴보면 최근에 가까울수록 연간 평균 10회 정도의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해외미술전시와 국내미술전시가 혼재해 있는 가운데 <성남의 얼굴>전이 연례적으로 진행되어 지역과의 교감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른 유사 공간과 비교할 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조각전시가 비교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공간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지만 조각전시를 특화된 분야의 사업으로 채택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나 전문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해온 데 대해서는 사업성과의 득실을 따져보아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전시기획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내부적으로 양성하거나 신규 영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매년 실시해왔던 것처럼 해외미술을 소개하는 기획전은 인력 제한 때문에 외부 기획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기획단계 이전에 협업기관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업 개시 이전에 양자 간의

기획전시 사업 가운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전시는 상대적으로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고 입장료 수입 면에서도 다른 전시에 비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2012년 <에릭 칼 한국특별전> 전경

역할과 책임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각 나라마다 미술관 전시 기획과 관련된 절차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연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전시장 가동률은 평균 90%가 넘는데 이는 유사 기관의 공간 가동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동률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산술적 성과 이외에 좀 더 의미 있는 문화적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현재 미술관 전문 인력구조에서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전시사업 내용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간 가동률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단일 기획전시 기간을 늘림으로써 예산 절감이나 전문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같은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요구하는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관일수는 최소 연간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이다.

2011년부터 진행해온 작가공모전이나 성남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전시 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그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획전시 사업은 전시장의 규모에 어울리는 국제적 성격의 전시와 지역미술 진흥 성격의 사업을 병행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하되, 사업성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기획전시 사업을 지속하고 평가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특히 공간의 특성과 조각전시의 전문성을 제고해 국내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획전시 사업 가운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전시는 상대적으로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고 입장료 수입 면에서도 다른 전시에 비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미술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거나 전시와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사업을 늘릴 경우 질적 저하를 대비해야 한다. 내부 인력 이외에 뮤지엄교육연구소나 헬로우뮤지엄과 같이 아동미술 교육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외부 전문기관들과의 협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대관전시사업

대관전시는 미술관 입장료와 함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공간 가동률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미술관의 성격을 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영리적 성격의 대관사업을 장기적으로도 비중 있게 수행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관료 수입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의 우수 콘텐츠를 유치하거나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2010년 11월 대관료 세칙을 개정해 성남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기본대관료의 30%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성남미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미술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미술인으로서 감면받는 경우가 개정 이전 평균 7.95%에서 개정 이후 80.9%로 수직 상승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방증한다.

미술관 전시에 있어서 대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기획사업과 달리 전시 내용과 수준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대관사업은 그 콘텐츠의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획전시 사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 관람객이 대관전시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기획전시와 혼동해 전시의 질이 떨어졌다고 평가할 일도 우려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공간 중 한 곳을 대관 전용으로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2015 <성남의 얼굴>전

<청년작가전>

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은 2014년 후반에 30억 원을 들여 전시장을 리노베이션하고 향후 블록버스터형 전시 유치에 주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지하의 제7전시장을 대관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미술관 기획전시 내용이나 주제, 소장품과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에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전시 콘텐츠나 소장자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성남아트센터 전체에 대한 신뢰,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관람객의 증가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잠재적 기부자·기증자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공 학생이나 연구자 등과 같은 전문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로써 미술관은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구성할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전시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시민아카데미나 CEO 과정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CEO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은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재정 후원자를 모으는 사업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미술관 학예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외부 강사를 교육 내용에 맞게 섭외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운영 목표와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에는 몇 가지 사전 고려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발간한 박물관/미술관 교육 담당자 매뉴얼에 의하면 박물관/미술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1) 미술관 교육의 사명과 미션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2) 미술관 교육의 인력 구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3)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중이 적절한가. 4) 교육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이 적정한가. 5) 학습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

현재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교육 및 홍보사업은 성남아트센터 전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홍보미디어실)에서 공연·전시를 통합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미술관 성격에 맞으면서 소장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전문 인력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 미술관의 사업 비중을 보면 고유의 전시와 교육 사업만큼이나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하고, 홍보와 마케팅의 성공이 자료의 기증과 기탁, 기부금 모집과 회원제 운영 등에서 좋은 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역미술 진흥과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성남지역의 작가나 예술인 단체에 대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이제까지 시행해온 것처럼 미술관 공간의 일정 부분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과 관련 없이 무작정 문호를 개방할 수는 없는 만큼 개방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미술관 대관 내규 등에 미술관 학예인력 같은 전문가 의견과 판단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전시장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이용을 원하는 성남지역 예술가들 간 건전한 경쟁의식을 부추겨서 예술적 역량과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 개관 이듬해인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성남의 얼굴>전은 대표적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으로서, 성남지역 중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전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획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순서에서도 선순위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2011년부터 시작한 <신진작가 공모전>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미술단체에서 활동 중인 젊고 참신한 신진작가들을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작가를 발굴하는 성격을 가진 기획전시는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획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기획전시가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바, 그 전시들과 차별화할 전략이 필요하다. 작가 발굴 이후 단지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작가가 국내외에서 약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좀 더 상위의 기획이 필요하다.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작가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 가운데 지역작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획들, 공모전 같은 행사는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국가적 차원이나 국제적 수준의 미술관을 지향하는 행보와는 별도로 지역미술관으로서 지역예술인 지원과 지역미술 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성남의 얼굴>전 전시 현황

전시기간	주제명	전시 장소	작가 수	관람객 수
2006.7.10~7.27	삶의 시간, 시간의 얼굴	미술관 본관 및 별관	27명	5,477명
2006.8.15~8.27	야외조각	탄천 둔치	21명	59,600명
2007.6.22~7.7	성남이야기	미술관 본관 및 별관	25명	3,003명
2008.3.10~3.30	공간의 생산	미술관 본관 및 별관, 야외광장	60명	19,332명
2009.3.11~3.24	남한산성의 흔적 + 생성의 빛	미술관 본관 및 별관, 야외광장	80명	8,926명
2010.3.2~3.28	2010 신진작가 공모전	미술관 본관	33명	1,575명
2011.3.19~4.3	모란시장	미술관 본관	34명	16,476명
2012.9.11~9.26	시간을 넘어 탄천을 만나다	큐브미술관	27명	1,230명
2013.3.19~4.3	조각 상상하다	큐브미술관, 야외광장	41명	9,948명
2014.6.17~7.3	평면과 입체의 동행	큐브미술관, 야외광장	45명	44,854명
2015.6.19~7.12	도시락 - 도시를 두드리고 즐기다	큐브미술관, 야외광장, 책테마파크	34명	37,575명
계			427명	207,996명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홍보 및 마케팅

미술관 전시나 교육에 관한 이제까지의 홍보사업은 주로 포스터나 도록 같은 인쇄매체, TV 등의 방송매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홍보 마케팅 흐름을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SNS를 통한 정보의 유통이 다른 매체들보다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홍보 영역을 확장하고 매체 활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관 홍보와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업무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홍보 마케팅 분야의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거나 유사기관과의 교환홍보, 비영리적 재능기부 활동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홍보와 마케팅의 방향은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생산된 콘텐츠를 개별 사업마다 활용하는 단기적 방법, 미술관의 장기적 목표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거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술관이 생산한 콘텐츠는 전문 기획자의 눈높이로 만들어지므로 이러한 콘텐츠가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가공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홍보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홍보효과를 측정할 때 언론보도 횟수, 방문객 숫자 등 정량적 평가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전시에 의해 담론이 형성되는 정도, 전문가의 비평적 평가와 같은 정성적 성과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예를 들어 카셀시가 도큐멘타 행사에서 시도했던, 버스 래핑wrapping을 통한 움직이는 광고 같은 것들이 있다. 대림미술관의 <핀율전>에서 보았던 유사한 버스광고,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에서 실시한 적이 있는 팟캐스팅, 부산비엔날레 등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 미술전시 관련 플래시몹flashmob 행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자료에 의하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현재 75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59점은 구입한 것, 16점은 기증받은 것이며 아트센터 내 설치 조형물 4점이 있다. 이러한 수량은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공간이나 사업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모자라는 수량이며 예술적 가치 면에서도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설문화재단을 제외한 모든 미술관이 소장품 확보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거나 소요되는 재원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소장품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술관에서 기획사업에 필요한 작품들을 구입하는 것 이외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박물관위원회ICOM에서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와 처분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미술관의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얼굴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도 미술관의 성격과 이미지를 형성할 대표적인 소장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국내외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 소장품은 예산을 책정해 구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구입 이외의 방법으로는 지역사회나 작가로부터 기증받거나 공모전 수상작가 작품을 매입 형식으로 포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증의 경우에는 순수 기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기증이나 조건부 기증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재의 빈약한 소장품을 고려해 기탁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기증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기증이나 기탁이 발생하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는 기증자 및 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미리 수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증자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소장품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소장품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면 기획전시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성남지역 미술인과 지역주민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그러나 소장품 확보는 단기적으로 달성될 성격의 사업이 아닌 만큼 꾸준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동안 경기도 지역, 나아가 전국 유사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

고 있는 미술은행 사업에서 미술품 대여가 가능하다).

소장품 확보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진위를 판별하거나 적정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활용하기 힘들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경기도 지역의 다른 공공미술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독일현대미술전 - German Now>

늘어나는 소장품을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미술관이 소장품들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수장고에 보관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앞으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소장품이 증가한다면 런던 내셔널갤러리처럼 전시되지 않는 소장품을 지하에 따로 모아 전시함으로써 소장 비용을 줄이고 소장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장품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의 활용도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입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한편 기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소장자나 작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작품을 기획전시에 포함시키거나 소장자와 작가가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심리적 유착을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 기증이나 기탁을 결심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 인력을 위한 투자와 미래 설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은 기획전시와 교육사업, 지역예술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공생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노력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이 한 단계 도약해 새로운 10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관을 이끌어가는 전문 인력에 대해 근무 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전시에 있어서는 담당 학예부서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 미술관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전문 인력 역시 더욱 높은 차원에서 양성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소장품이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 외부 전문기관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포함된다.

19세기 유럽 산업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미술관 운영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이르러 어떻게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성남아트센터도 이러한 현대 미술관의 고민에 동참하면서 한 차원 높은 환경과 의식의 바탕 위에 새로운 10년을 설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문제의 전시를 기획하는, 지속 가능한 미술관"

지역의 공공미술관은 많은 짐을 지고 있다. 블록버스터에 몰리는 대중의 취향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작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도, 그렇다고 도외시하기도 힘든 입장이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이 생각하는 대중성과 전문성의 균형, 미술관다운 미술관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지속 가능한 성남아트센터와 관련해 전시기획부가 추구하는 미술관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성남문화재단의 전시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남시라는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지역성을 전시에 어떻게 삼투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해외미술을 소개하더라도 당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루고,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주제의식을 갖고 기획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한 점을 가져오더라도 이유가 있는, 입체적인 전시를 하자는 거지요. 화제의 전시가 아니라 문제의 전시입니다. 그런 기획으로 관객이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미술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생력을 키우고, 나아가 우리 성남의 작가를 세계적으로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역작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도 더 활발해질까요?

유행이라는 것은 하나가 유행하면 다른 것은 소외되게 만드는 맹점이 있지요. 상업화랑은 유행을 따를 수 있어도 공공미술관이라면 소외된 작가들, 그 작가의 고민과 상처, 비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젊은 작가는 민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중진 작가는 그 지원에서조차 소외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작가정신을 추구하기보다 팔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지요. 그렇게 소외된 작가, 장르, 형식을 우리 미술관이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은 유행을 선호하고 미술관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는 문제의 전시, 소외된 미술을 조명하는 작업이 시대의 유행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감한 이슈나 미감을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보여줄 수 있어요. 대중성과 전문성의 균형 속에서 대중에게 양질의 전시문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당연히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문제의 전시를 하면 작가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주시고 관심과 조언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전시

전시사업 10년의 발자취

2005

- 09 세계바다사진전
  09.13~09.25 | SBS 아트리움
  09.18~09.25 | 남한산성
  09.29~10.16 | 중앙공원

- 10 야외조각전 - 내 안의 블루
  10.01~11.30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한국현대미술전 - 열정
  10.14~11.30 | 미술관 본관
  성남미술인초대전 - 플랫폼
  10.14~12.10 | 미술관 본관
- 11 세바스티앙 살가도 사진전
  11.23~12.11 | 미술관 본관

2006

- 01 피카소, 로댕과 떠나는 유럽 여행
  01.05~03.05 | 미술관 본관, 별관

- 03 아트 & 파크 - 봄의 축제
  03.25~04.23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5 세계어린이화가EQ이야기
  05.05~05.28 | 미술관 본관
- 06 2006 독일월드컵축구회화전
  06.01~06.30 | 미술관 본관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06.30~07.28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7 성남의 얼굴전
  07.10~07.27 | 미술관 본관, 별관
  08.15~08.27 | 탄천 둔치
- 09 현대매체라이트전
  09.30~10.20 | 미술관 본관, 별관
  아트 & 파크 - 休
  09.30~10.20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미술세계수상기념 - 강정완 화업 50년
  09.30~10.22 | 미술관 본관
- 12 아트 & 파크 - 야외조각전 3
  12.23~01.28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샌프란시스코 과학체험전
  12.20~02.25 | 미술관 본관

2007

- 04 한국여성미술작가전
  04.03~04.09 | 미술관 본관
- 05 성남의 얼굴전
  05.03~05.25 | 미술관 본관, 별관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찾아가는 미술관
  05.27~10.18 |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아트마켓 - 미술시장
  05.31~10.2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7 팝아트의 세계 - 팝 앤 팝
  07.04~08.28 | 미술관 본관, 별관
- 09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09.06~09.29 | 미술관 본관, 야외광장
- 10 미디어월드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아트
  10.11~11.16 | 미술관 본관
- 12 호안 미로 <최후의 열정>
  12.20~02.22 | 미술관 본관, 별관
  아트 & 파크 - 야외조각전
  12.22~02.15 | 미술관 본관, 별관

2008

- 04 아트 & 파크 - 봄의 왈츠
  04.14~05.13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6 아트마켓 - 미술시장
  06.09~10.28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성남의 얼굴전
  06.21~07.06 | 미술관 본관, 별관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06.29~07.1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8 아트 & 파크 - 자연의 소리
  08.01~08.30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어린이미술 창작놀이전
  08.01~08.26 | 미술관 본관, 별관
- 10 현대미술국제교류전
  10.05~10.15 | 미술관 본관, 별관
  아트 & 파크 - 시간과 기억
  10.13~11.11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12 아트 & 파크 - 판타스틱
  12.22~02.10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유럽현대미술의 위대한 유산전
  12.29~02.28 | 미술관 본관, 별관

2009

- 03 성남의 얼굴전
  03.11~03.24 | 미술관 본관, 별관
- 04 오로라와 자연의 하모니
  04.07~04.14 | 미술관 본관
  아트 & 파크 - 봄나들이전
  04.07~05.06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7 하이퍼리얼리즘의 세계
  07.14~08.27 | 미술관 본관
- 10 아트 & 파크 - 야외설치(남한산성)
  10.17~11.08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10.17~11.16 | 미술관 본관, 야외광장
- 12 아트 & 파크 - 호랑이 복주머니전
  12.08~02.28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미술관에 가요
  12.12~02.21 | 미술관 본관, 야외광장

2010

- 03 성남의 얼굴전
  03.02~03.28 | 미술관 본관
- 04 로봇아트와 놀이의 세계
  04.21~05.24 | 미술관 본관, 별관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7 색깔 놀이터전
  07.07~08.29 | 미술관 본관, 별관
- 08 영국현대미술전 - 존무어 수상작가
  08.06~10.14 | 큐브미술관

- 10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10.08~10.24 | 미술관 본관, 야외광장
  아트위트전
  10.21~11.10 | 큐브미술관

2011

- 01 와글와글미술관
  01.01~02.27 | 미술관 본관, 별관
- 03 성남의 얼굴 - 모란시장
  03.19~04.03 | 미술관 본관
- 04 아트풀키즈데이 - 미술관 사파리전
  04.05~05.29 | 큐브미술관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6 신진작가공모전
  06.03~06.15 | 큐브미술관
  신진작가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06.03~06.15 | 미술관 본관
- 07 명화 속 과학체험전
  07.01~08.23 | 미술관 본관, 별관
  영국현대미술전 - 영국 로열 아카데미
  07.01~09.25 | 큐브미술관

- 10 한국현대미술전 - 한국화의 재발견
  10.05~12.18 | 큐브미술관

2012

- 01 마티스와 춤추는 색종이전
  01.01~03.04 | 미술관 본관, 별관, 큐브미술관
- 04 에릭 칼 한국특별전
  04.13~09.02 | 큐브미술관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7 독일현대미술전 - GERMAN NOW
  07.06~09.02 | 미술관 본관

- 09 성남의 얼굴 - 시간을 넘어 탄천을 만나다
  09.11~09.26 | 큐브미술관
- 10 한국현대미술전 - 시간의 풍경
  10.09~11.25 | 미술관 본관
- 11 신진작가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11.15~11.28 | 미술관 본관
- 12 신진작가공모전
  12.06~12.19 | 큐브미술관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12.02~12.09 | 미술관 본관

2013

- 02 YOUNG & NEW전
  02.19~03.08 | 큐브미술관
- 03 신진작가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03.19~03.31 | 큐브미술관
- 0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비눗방울 체험전
  04.23~06.23 | 큐브미술관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 07 스페인근현대미술전 - 올라 스페인!
  07.02~09.01 | 큐브미술관, 미술관 본관

- 09 성남의 얼굴전
  09.24~10.05 | 큐브미술관, 야외광장
- 10 신진작가공모전
  10.18~11.03 | 미술관 본관
  박진아의 모래랑 빛이랑
  10.26~01.26 | 큐브미술관
- 12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12.14~12.21 | 미술관 본관, 야외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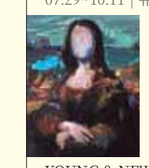
2014

- 02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02.07~06.08 | 큐브미술관
- 03 세계유명공연포스터전
  03.15~04.04 | 미술관 본관
- 05 성남어린이미술실기대회
  05.05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미디어아트 - 감각의 확장전
  05.13~07.08 | 미술관 본관
- 06 성남의 얼굴전
  06.17~07.03 | 큐브미술관, 야외광장

- 08 현대미술과 패션
  08.05~09.28 | 큐브미술관
- 09 신진작가공모전 수상작가 개인전
  09.19~09.28 | 미술관 본관
- 10 신진작가공모전
  10.11~10.22 | 큐브미술관
  나무야 나무야
  10.31~02.01 | 큐브미술관
- 12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12.09~12.16 | 미술관 본관, 야외광장

2015

- 06 성남의 얼굴전
  06.19~07.12 | 큐브미술관
- 07 플레이모빌 아트전
  07.25~10.11 | 갤러리808
  유럽현대미술전
  07.29~10.11 | 큐브미술관



  YOUNG & NEW(수상작가전)
  큐브미술관
- 10 아트마켓 - 아트로드
  10.02~11.01 | 반달갤러리

* 미술관 본관은 2015년 하반기부터 갤러리808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성남문화재단

전시사업 10년의 자취와 성과

1

누적 기록으로 보는 전시사업

예술사업, 지역사업, 교육사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기획

예술사업 **45**건, 지역사업 **30**건, 교육사업 **24**건 등 총 **99**건 기획

총 전시 관람객 수	개관 이후 역대 총 기획전시 수
1,717,094명	**9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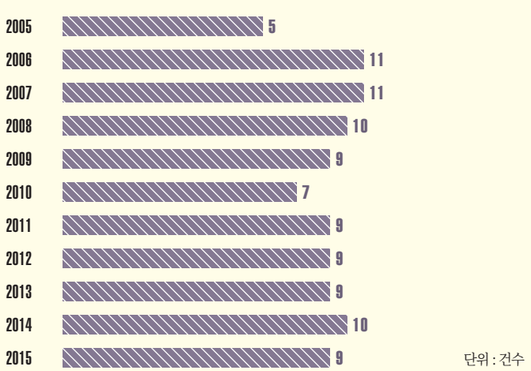
*2015년 8월 말 기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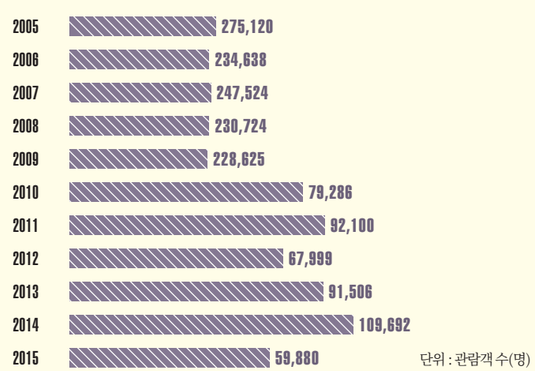
전시 건수와 관람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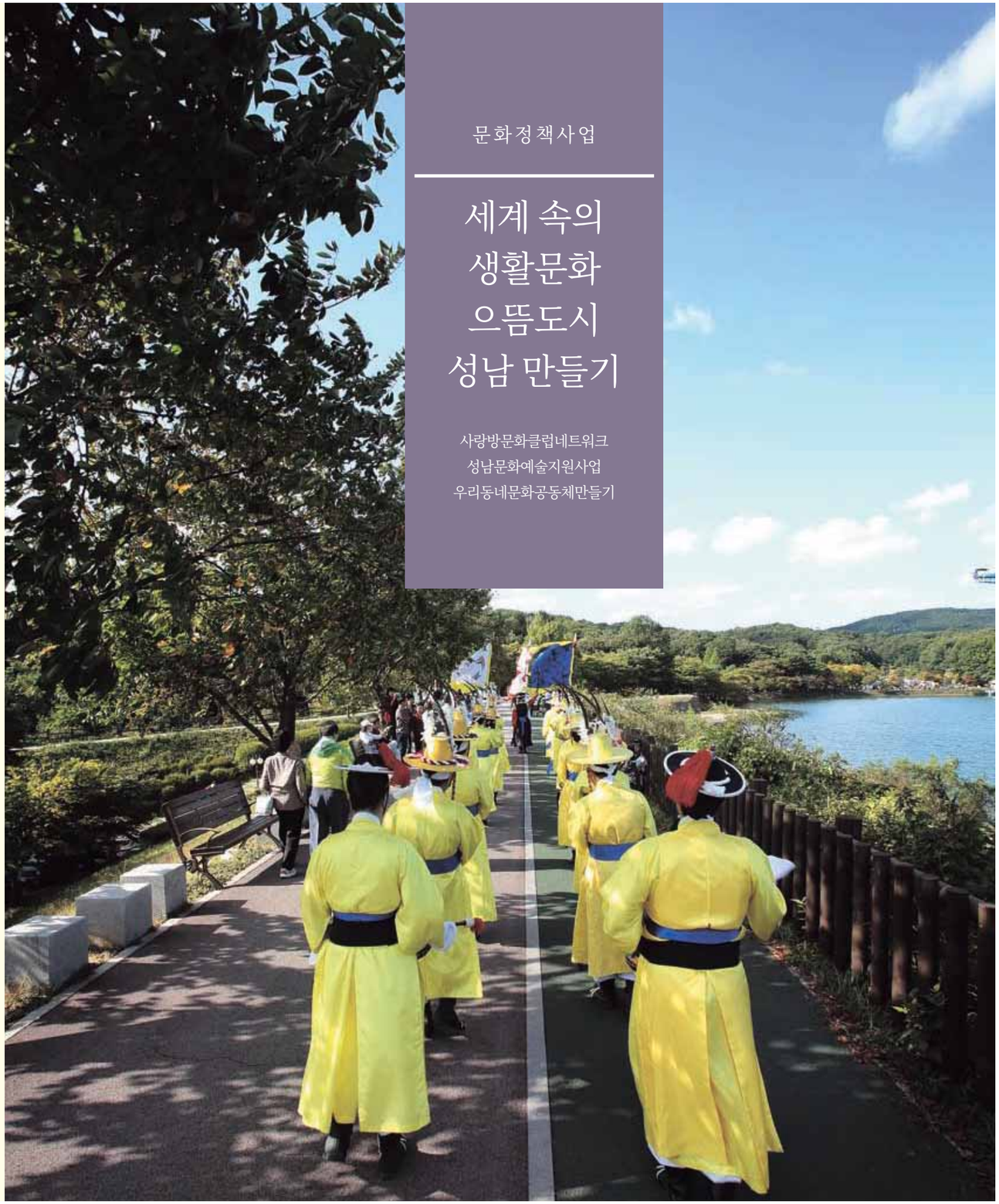
다양한 계층, 연령별 선호도를 고려한 전시기획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미술관 입지 구축

연도별 기획전시 건수



연도별 전시사업 총 관람객 수





문화정책사업

세계 속의 생활문화 으뜸도시 성남 만들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함께 호흡하고 꽃피우는 시민 생활예술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조자로서 생활문화 으뜸도시 성남 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사업을 수행해왔다. 그 문화정책의 초기부터 시도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영위하는 동호회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헌을 이끌고 시민에 의해 꽃피우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생활예술 시대의 중심으로서 시민 생활예술클럽의 전국단위 교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수도 성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생과 일상을 신명나는 가락으로 풀다

매주 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 일주일에 두 번 주민센터에 모여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방문화클럽 '아라리오 품바'의 단원들,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품바 가락에 이끌려 찾아온 사람들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싶어서, 재미있는 운동을 하듯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등등, 찾아오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꽹과리, 북, 장구 같은 악기를 배우고 춤사위를 익히며 인생의 희로애락과 일상의 소소한 감흥을 품바 장단에 풀어낸다.

단원들이 말하는 품바의 매력은 공연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연을 보는 관객도 하나로 어우러져 흥에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잘 꾸민 무대뿐만 아니라 거리나 공원 같은 광장에서 그 매력은 더욱 빛난다. 공원에서 마당놀이처럼 공연을 진행한 어떤 날에는 휠체어에 앉은 나이 지긋한 관람객이 단원들 앞까지 다가와 함께 춤을 추었다. 관객과 함께 즐기며 무대를 완성해나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언제나 두근거리는 일이다. 복지관이나 양로원 위문공연은 물론이고 성남과 경기도 각 지역의 노인잔치에도 부지런히 찾아간다. 찾아가야 할 곳이 많아질수록 배우고 익혀 실력을 키우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아라리오 품바는 지난 2월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2015 재능나눔봉사자 발굴을 위한 재능콩쿠르'에서 심사위원과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며 금상을 거머쥐었다.

시민문화예술을 공동체 발전의 동력으로

성남에서는 1,000여 개의 시민문화예술클럽이 활동 중이다. 이 클럽들이 상호 교류하고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이 만드는 문화창조도시 성남의 토대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은 클럽 간 정보를 나누고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생활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만난다.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가을 사랑방문화클럽축

제를 개최하는 등 생활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생활예술이 무너져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생활예술 활성화와 문화공동체 육성을 위한 5대 정책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3단계 15개년에 걸쳐 추진해온 5대 정책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배경에는 2006년에 진행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 조사>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가 있다.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문화예술 동호회는 약 1,100여 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동호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 지원, 둘째 공간 지원, 셋째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어려움으로 공연이나 전시 등을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문제, 연습이나 모임을 진행할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실태 조사를 통해 활발한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했고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개인의 문화예술향유는 사적 취미활동에 해당하며 문화예술 동호회는 개인의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이 같은 동호회 활동에 공적 의미와 공공성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사적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공적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문화적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즉 문화예술을 즐기고 실행하는 시민들이 클럽 형태의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 활동과 클럽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단계	시기	목표	핵심추진과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2006~2008	시민 주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문화클럽 발굴 및 교류 활동 네트워크 구축 ●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동네 유형별 커뮤니티 육성 모델 개발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2009~2013	문화공동체 활성화	● 동네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 활동 확산 ●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공동체 발전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2014~2020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실현	● 전체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확대 및 발전 네트워크 확대 ●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출범과 문화공헌

2007년부터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단계별 발전계획과 궤를 같이해 3단계 15개년에 걸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기초 다지기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은 문화클럽 발굴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다. 2007년에는 각 클럽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사랑방문화클럽지기 모임과 워크숍, 클럽파티 등 클럽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모임을 거쳐 제1기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를 발족했고 클럽 간 친목도모와 정보 교환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성남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개별 클럽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는데 2006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총 37개 클럽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 악기 임차, 강사료, 행사비 등을 지원했다. 2007년 10월에는 '제1회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 성남아트센터와 율동공원에서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8년에는 공공예산으로 개별 클럽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운영위원회와 성남문화재단은 논의를 거쳐 개별 지원을 팀별 지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팀별 문화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사랑방문화클럽에 소속된 서로 다른 장르의 클럽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한 해의 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재단이 이를 심사해 적합한 팀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5~6개의 클럽으로 구성된 팀이 복지시설, 병원, 공원, 동네, 시장 등을 찾아가 연간 5~6회의 행사를 진행한다. 2008년에는 67개 클럽이 참여해 7개 팀을 구성하고 총 46회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재단이 참여를 희망하는 클럽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사회공헌활동을 늘려나갔다.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클럽네트워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친 2단계 사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확산은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규모로도 확인할 수 있다. 38개 클럽, 710여 명이 참여했던 제1회 축제에 비해 제2회 축제는 78개 클럽, 1,271명의 참여로 두 배가량의 성장을 기록했다. 신종플루로 행사가 축소된 2009년을 제외하고 이 같은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2010년 제4회 축제에는 157개 클럽, 1,800명이 참가했다.

이 시기에는 클럽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시민예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도했다. 장르별 클럽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해 2010년 사랑방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2011년에는 미술, 공예, 사진 등 여러 장르의 클럽이 함께하는 사랑방전시유닛 활동을 시작했다. 또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등에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한 연습실을 열었다.

2012년에는 사회공헌활동 외에 클럽 고유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늘리고 새로운 클럽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도했다. 공헌활동 위주로 진행했던 팀별 프로젝트는 클럽이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팀을 이룰 때 2~3개의 신규 클럽과 함께 구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2012년부터 사랑방문화클럽은 재단과 지역을 넘어서는 규모로 네트워크를 본격 확장해나갔다.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에서는 부대행사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을 개최했는데 의정부, 부천, 익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19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참가 규모가 크게 늘어 대구, 강릉 등 18개 지역에서 48개 단체가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에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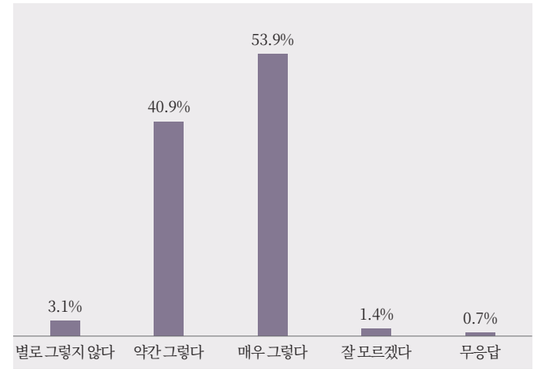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이주민 문화예술프로그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늘려나갔다. 성남문화재단은 부천·화성문화재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사랑방문화클럽은 미술, 합창,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맡았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아트매칭펀'의 경우 공예, 사진,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사랑방문화클럽이 참여해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시대를 열다

해마다 가을이면 시민들의 기대 속에 성대한 막을 올리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사랑방 퍼레이드'는 시민 모두가 생활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한마당을 재현한다. 2014년 축제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테마로 사랑방문화클럽들과 시민 참여단이 함께 대규모 퍼레이드를 펼쳤다. 퍼레이드 행렬을 발견하고 즉석에서 참여한 시민들까지 800여 명이 함께해 시민참여예술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시민들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같은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 이웃 형성과 교류의 빈도가 늘었고 지역과 도시에 대한 자긍심 또한 높아졌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한 <커뮤니티와 아트> 중 '사랑방문화클럽은 왜 주목되었나'(김세훈, 2011)에 따르면

생활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도시 긍정 인식 정도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이웃을 형성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성남문화재단이 2013년 실시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개인적 발전과 공적 영역에서의 효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과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한 기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생활예술을 매개로 시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을 형성하며 수많은 개인의 사적인 취미활동을 공적활동으로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잊혀가는 공동체정신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체문화가 해체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자발적인 시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더욱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내 생활예술 실천의 대표적 모델로, 착한 문화예술의 전국적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중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대표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듯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남시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 문화 브랜드로 발전해왔다.

세계 속 생활문화수도 성남을 향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자생력을 갖고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1,000여 개의 동아리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 바탕을 토대로 철저한 연구에 입각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성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즉 시민이 주도하는 명확한 정책모델을 제시하고 민관협력에 있어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이 성공의 주된 동력이라는 평가이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책이 일반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협력의 의의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에는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생활예술정책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1, 2단계의 추진과정을 통해 진화해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친 3단계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기초를 다지고 구조를 세워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단위 사업과 연계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워크숍이나 클럽데이 같은 기획사업을 활성화해 생활예술활동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나아가 전국 단위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3단계의 사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남문화재단의 발전계획 3단계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 대한민국 생활예술 수도로서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일상 속 예술 활동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일상 곳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는 도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예술을 실천하고 창조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랑방문화클럽이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들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예술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생활예술을 기획하고 실천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생활예술의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의 다문화를 한데 비비는 생활예술축제

2015년 8월 마지막 토요일, 성남시청 광장에서는 나라별로 꾸민 문화예술 체험관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미얀마 등의 세계 악기를 체험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수묵화를 그리고, 아이들은 세계 각국의 국기를 이용해 만든 바람개비를 들고 광장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는 '세계문화비빔축제' 개회 선언에 이어 각국 전통무용을 소개하는 무대와 네팔 민속공연이 펼쳐졌다. 세계문화비빔축제는 이렇게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성남지역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분당사랑 A&C를 비롯해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수정구 어린이집,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는 축제로 어느덧 3년째를 맞았다.

이주민 강사진이 유치원을 찾아가 각 나라의 전래놀이와 무용 같은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그 결과를 축제날 무대에 올리는 일, 광장에서 열리는 각종 부대행사나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커다란 비빔밥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특별하거나 참신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이 축제의 진정한 특별함은 이주민과 원주민, 아이들과 학부모, 문화재단과 지역주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데에 있다. 시민이 축제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는 것, 정확히는 주인과 손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간다는 점이 이 축제의 특별함인 동시에, 진정한 공동체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과 밀착해 펼치는 커뮤니티 아트

도시 곳곳에서, 주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일상적으로 펼쳐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남문화재단이 예술가를 고용해 예술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 예술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기존 지원사업은 실제로 단순히 예산을 분배하는 형식에 가까웠다. 지원의 뚜렷한 목적이나 관리 체계가 부족해 일회성 사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예술이 일상에 뿌리내리려면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기획인력을 양성해서 자발적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모색해왔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문화재단과 연계한 일반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주요 목적이었다. 동시에 성남문화재단은 커뮤니티 아트를 활성화하는 기획지원사업을 시작해 '색깔 있는 골목, 컬러대문' '판Story교' '어린이 창의예술교육프로그램 -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실버미디어교육 -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 '중앙시장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프로젝트'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 등 6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공공미술과 시장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성격의 프로젝트들이었다.

이후 일반지원과 기획지원의 두 갈래로 이어오던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커뮤니티 아트 지원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커뮤니티 아트 지원에 해당하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에 인프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사업'을 추가해 체계를 정리했다. 현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일반지원과 상생협력지원,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의 세 축으로 진행 중이다.

서로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상생협력지원사업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이 예술가에게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인적 토대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단순히 예산을 분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사업을 지양하며, 지원 목표를 지역성, 예술의 공공성, 생활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체계를 정립했다. 특히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기획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상생협력지원사업은 그간의 지원사업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이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과 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기존 기금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생단체나 예술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사업 선정 기준으로 단체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활동 매개자나 예술가를 육성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의나 사례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기는 어렵고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실무를 익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상생협력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기획력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단체들이 경험을 가진 단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동네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 신청자는 커뮤니티 아트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신청하되, 주관단체가 사업 실행 과정에 신규단체를 참여시키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단체의 능력과 네트워크를 사업에 충분히 활용하면서 상호 협력 속에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생협력지원사업은 지역단체의 기획력과 동네 밀착형 사업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며,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는 시스템의 단초를 마련하는 기획이다. 2012년 첫 선정되어 2014년까지 세 해를 이어온 '수정남로 아트 프로젝트', 2013년 모니터링 결과 최고점을 받은 '성호시장 활력 프로젝트',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지원하는 '세계문화비빔축제' 등이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1, 2
상생협력사업으로 3년간 지속되며 꾸준한 변화를 일구어온 수정남로 아트 프로젝트

3, 4
지역의 젊은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

지역의 젊은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행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은 생활예술 활동가들과 문화예술단체의 기획자들을 지역의 문화기획자로 성장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화기획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과 감성 개발,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며 우수한 문화기획인력을 양성해 문화예술단체에 공급함으로써 단체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기획인력 육성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항상 지역에서 길러낸 문화기획자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2013년의 시범사업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 성남시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성남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했다. 일반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특강도 진행했다. 성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운 성남 인문학특강, 문화기획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한 공개특강 등이 큰 관심을 모았다. 전년도 대비 교육프로그램과 방식을 크게 개선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듣는 강좌를 지양하고 함께 과제를 설정, 해결하는 워크숍 형태의 학습공동체(CoP)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공연기획, 축제경영, 커뮤니티 아트 등 3개 분과로 교육과정을 나누어 4개월에 걸친 현장 워크숍과 멘토링 워크숍, 팀 과제 수행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했다.

2015년의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도 학습공동체 중심의 실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2014년 입문과정에 이어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했다. 심화과정에서는 전문적인 기획 워크숍을 강화·진행하고 교육생들이 실제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해 현장에서 실행하는 '실행 워크숍'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은 기존의 강의와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적 교육으로 지역 문화예술 프로젝트 활성화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시민이 사업을 점검하고 배우는 시민모니터링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금만 분배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와 지역 문화인력의 성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향해왔다. 이러한 방향 아래 마련한 또 다른 간접지원 제도로는 시민모니터링단과 심사관 참여지원제도가 있다.

먼저 지원사업 시행 첫해부터 도입한 시민모니터링단은 시민이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함께 참여하는 제도이다. 성남문화재단은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단체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사업의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는 모니터링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시민 관점에서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균형을 잡으며, 동시에 시민을 지역문화예술활동가로 교육, 육성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모니터링 제도는 모니터 교육으로 시작된다. 재단의 정책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전반,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해 3~4회의 교육을 실시한 후 조를 편성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모니터들은 세부 사업내용을 숙지하고 지원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 담당자와 몇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수행 당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월 1회 네트워크 파티를 열고 모니터링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은 후 모니터 평가지를 작성한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모니터들에게 도움이 될 문화강의를 진행하는 등 관심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모니터 활동은 시민들이 지역 문제와 문화사업을 이해하는 배경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활동가로 나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모니터로 활동했던 주부 이상민 씨는 2013년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이상민 씨는 더 좋은 학군으로 전학 가는 학생들로 인해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예산과 지원이 부족해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와 지역에 관한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학부모들과 함께 '꿈을 그리는 어린 화가들'이라는 사업명으로 일반 지원사업에 신청, 선정되었고 모니터링 경험을 충분히 살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심사관참여지원제도

2012년 상생협력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된 후 주관단체와 협력단체의 원활한 파트너십 형성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심사관참여지원제도를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심사관참여지원제도는 심사위원이 지원단체를 밀착 컨설팅하는 제도이다.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위원이자 멘토로서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수행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심사관은 담당 프로젝트의 주관단체와 협력단체의 회의에 참여해 기획, 운영, 활동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한다. 다른 심사관과 회의를 갖고 프로젝트 수행내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재단에 제출한다. 주관단체와 협력단체는 심사관을 통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례들을 다수 접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점검,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청사진을 그린다.

심사관참여지원제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호응을 얻었고 사업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이듬해인 2014년부터 일반지원사업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윤성진 심사관, 경상현 심사관, 김만석 심사관이 3건의 상생협력지원사업을 각각 담당해 함께했고 2014년에는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 대표, 피쉬아이의 최은희 대표,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의 심한기 대표, 성미산동네연극축제의 남동훈 예술감독이 가세해 일반지원사업의 컨설팅까지 확장 수행했다. 2015년에는 기존에 함께하고 있는 권순석·심한기 대표와 감자꽃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 놀장의 최정한 대표,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의 송경희 연구위원이 심사관으로 활동 중이다.

지원, 육성, 참여, 평가가 통합된 사업체계

지원단체의 활동, 시민 모니터링을 포함한 평가 내용, 심사관의 컨설팅 수행 내용 등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진행과 결과 전반을 공유하는 자리가 활동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단체는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내용·성과를,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내용을 발표하고 사업을 선정한 심사위원들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추진된 내용을 함께 평가하며 전문가들은 지원사업 1년을 총평한다. 활동보고회를 통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참여 주체들이 교류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며, 지원단체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 단체의 성장과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전에는 그해의 지원사업 중 잘된 사례를 중심으로 활동보고회를 진행했다. 상생협력지원사업 3건과 일반지원사업 중 우수사례 2건을 선정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사업 종료 시점에 연 1회 개최했다. 2014년부터는 연 3회로 활동보고회 횟수를 늘렸다. 일반지원단체 2회와 연말에 열리는 1회는 모든 지원단체가 활동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며 사업평가와 발전방향 논의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는 보고회로 운영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업을 수행한 단체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모두 참여해 전문가와 인터뷰할 기회를 갖는다. 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상담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셈이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기획지원으로 추진되는 상생협력지원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은 물론이고 시민모니터링, 심사관참여지원제도 같은 간접지원까지 다각도로 추구해온 것이 특징이다. 지원, 육성, 참여, 평가가 통합된 문화예술지원체계로서 예술가와 매개자, 주민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예술로 하나 되어 발전하는 마을공동체

성남문화재단이 꿈꾸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는 시민이 문화예술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도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마을 속에서 문화예술을 생활화하고 그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때 '마을'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파편화된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결국은 지역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을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문화를 매개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현대사회에서 시민이 살아가는 동네란 집값이나 학군을 의미하고 사는 곳의 위치를 설명할 때 언급하는 행정구역의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 시대에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삶의 고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문제의 상당수는 각자가 모래알처럼 분리되어 살아가는 시대상, 공동체 기능이 사라진 시대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일정한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라는 또 하나의 정책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동네에 장이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장터에서 한바탕 왁자지껄한 수다와 놀이판을 벌이듯, 문화예술활동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소통하고 교류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재단이 동네에 문화예술 놀이터를 열어주는 방식을 넘어 각 동네가 스스로 놀이마당을 열어 문화예술활동을 즐기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나아가 동네의 문화예술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골목길과 아파트를 바꾼 1단계 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1단계 3개년, 2단계 5개년, 3단계 7개년 사업의 로드맵을 그리고 출발했다. 사업 초기에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건들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마을공동체 형성에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민, 그리고 예술가와 행정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동 단위로 생활 속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초기 사업의 주안점이었다. 즉 1단계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 등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5개 유형에 대한 시범사업이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태평4동에서 진행한 골목길 유형이었다. 쉼터 조성, 골목길 꾸미기, 화단 시상식 같은 프로젝트로 환경 개선을 시도했고 문화상징 만들기, 어린이창작기획단, 예술장터 등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주민센터 공터와 태평동갤러리에서는 작은 영화제, 독거노인을 위한 영정사진 촬영과 전시 같은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2~3년 차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아파트와 공단, 시장 등으로 유형을 확대했다. 2007년 은행주공아파트와 상대원공단에서는 벽화, 목공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2008년에는 상대원시장에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 한마당 문화예술 배움터를 시작했다. 아파트와 공단에서 문화공동체 모델 두 유형 개발을 시도한 2008년의 경우 문화공동체 만들기 컨설팅과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실무자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2009년에는 상가와 시장 지역의 문화공동체 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 시기에는 문화공동체의 매뉴얼을 보급하고 45개 동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준비해나갔다.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 운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2단계 사업은 개별 동네마다 진행했던 사업들을 통합지원하고 연결해나갔다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 3개년 사업이 개별 동네,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곳

을 집중 지원하는 '사랑방' 수준의 활성화를 시도했다면 2단계 5개년 사업은 사랑방에서 마루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사랑마루'라고 이름 붙인 동네만들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동네만들기지원센터는 동네와 동네를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재단, 행정, 전문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기획되었다. 동네클럽 네트워크, 우리동네 생활이야기, 공공(커뮤니티) 예술, 계층별 프로그램 등 네 가지 날개사업을 중심으로 동네만들기지원센터를 추진했다. 2009년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도촌동 등 5개 동네에서 도입한 사랑마루는 2010년 삼평동, 2011년 정자동 등 순차적으로 운영지역을 늘려갔다.

2단계 5개년 사업 기간에는 사랑마루와 함께 1단계의 지속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은행동의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상대원시장의 상대원 라디오방송국 사업 등을 지속하는 한편 수진동 도자기 벽화전, 동네만들기 페스티벌, 숲속캠프, 프로젝트북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의 문화예술 매개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2012년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는데 삼평동 봇들마을6단지 주민들과 함께한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주민들과 책장 디자인, 목공, 종이접기, 벽화 등을 함께 진행하며 꿈너비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은행주공아파트 내의 풀장환상, 상대원시장의 원다방, 도촌동 섬마을5단지의 섬말사랑방, 삼평동 봇들마을2단지의 하늘꿈터 등이 2단계의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태평4동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쉼터 조성, 골목길 꾸미기, 화단 시상식 같은 환경 개선을 시도했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2, 3, 4
봇들마을6단지에서는 주민과 함께 목공, 종이접기, 벽화 등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꿈너비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커뮤니티 활동 지원

2011년까지 추진했던 동네만들기지원센터가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예산도 문제지만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를 추진하는 동안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이 주체가 되기보다 대상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술가나 기획자가 사업을 기획해서 마을에 들어가 실행하면 주민은 이에 호응하고 참여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민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는데 각 마을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일환이었다. 또 마을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매개자 워크숍, 각 마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작은 발표회 등 마을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했다.

2단계의 마지막 해인 2013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동네의 개별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공간조성, 교육 등을 시도했던 이전과 달리 2013년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사업실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가 공공미술, 마을축제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면 재단은 이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되 마을커뮤니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대동 마을커뮤니티는 공공미술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과 마을축제를 진행했고 판교동에서는 목공과 옷 수선 등을 위주로 하는 마을재활용센터를 운영했다.

주민공동체의 자생성과 지속성 확보

2014년부터 3단계 7개년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며 출발했다. 주민주도형 문화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문화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욕구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문화공동체가 형성된 경우에도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후속 활동으로 연계되지 않거나 마을 활동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더불어 예산 문제로 2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동네만들기지원센터를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선 단계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3단계 사업은 재단이 마을에 개입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주민 조직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계획하고 재단에 협력을 요청하는 자발적 노력을 해나갈 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 추진 중이다.

즉 3단계 사업은 재단이 예술가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기존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이 기획하면 재단과 예술가가 지원하며 참여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주민, 재단, 관련기관과 단체 등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컨설팅, 지역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는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 주민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엄마들이 시작하고 이어가는 태평동 마을만들기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에는 2013년 지원사업과 같이 자생적인 주민 조직의 문화공동체 활동을 중점 지원했다.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 2년차에 접어든 단대동 논골을 지속 지원하고 신규로 태평동의 마을커뮤니티 따숨, 금광1동의 꿈광리 마을센터, 도촌동의 섬마을 사랑하는 모임을 지원했다.

태평동의 따숨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키우는 다섯 명의 엄마가 뭉쳐서 시작한 커뮤니티이다. 태평동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를 통해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들을 경험한 곳이었다. 예술가들이 찾아와 벽화를 그리며 마을을 바꾸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신문이나 방송국을 만들기도 했다. 이 사업들은 태평동의 일상 풍경을 바꾸고 활력을 가져다주었지만 사업 기간이 끝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중단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짙은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 아쉬움을 공유하는 다섯 명의 여성이 뭉쳐 마을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예술가들처럼 전문적인 작업이나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평동 마을커뮤니티 따숨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골목골목 웃음소리 들리는 태평동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기획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생명 있는 마을,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마을, 자투리 공간의 환경을 활용해 정보 공유와 교류가 일어나는 마을 등 이들이 만들고 싶은 마을의 청사진을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의 교육을 통해 세부사업 계획을 완성했다. 숲 체험과 놀이, 가족소통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벼룩시장, 마을 환경 개선 같은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가 남긴 것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는 향후 6년간 더 많은 사업과 과제를 수행해가겠지만 이미 적지 않은 성과와 의미를 남기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성남문화재단, 2013)는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의 성과를 사랑방 단계-사랑마루 단계-사랑마당 단계로 나누어 다각도로 짚고 있다.

먼저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사랑방 단계에서는 문화환경이 열악한 동네에 문화예술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이 사업을 진행한 곳은 주로 문화적으로 열악한 곳이었고 주민들이 자신과 자녀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는 기대감을 통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201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의 일환으로 선보인 골목길 생태학교. 동네 골목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식, 이웃 간의 소통을 선사했다

계층이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문화예술 활동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간 꾸미기는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형성했고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또 동네에 대해 애정을 갖는 계기를 제공했다.

사랑방에서 사랑마루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은 지역단위 내외로 관계망을 확장하는 성과를 남겼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우선 지역단위 내에서 문화를 매개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2단계에서는 동네만들기지원센터라는 허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여러 지역단위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마루를 넘어 사랑마당 단계에 이르면 사랑방클럽 등과 연계된 지역 문화공헌 활동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 주민들이 동네라는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도시 전체의 공동체 형성에 공헌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와 연계해 주민들이 동네 강좌나 모임에서 갈고닦은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지역행사나 축제를 열기도 했다. 마을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처럼 지속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의 의미가 확장된다.

이렇게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는 자아실현과 네트워크 형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수많은 기획과 사업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주민이 주도하는 모델로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을 중심에 둔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성남시, 나아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확산시킨 것 또한 중요한 성과이다.

문화정책사업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지역문화사업을 통한 기초문화재단의 위상 정립

글 나도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를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만들고자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9년 전국 문화예술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기초문화재단으로서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초문화재단 역사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위상은 매우 높다. 성남문화재단이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이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으나, 성남문화재단의 지역문화산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자 각 기초문화재단들 또한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는 지역문화사업 자체를 목표로 한 기초문화재단 설립도 이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성남문화재단이 지역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록 기간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성남문화예술 창조도시, 어떻게 만들어왔나?

1.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시행한 결과 2020년 '세계 속 예술시민 도시 실현'을 목표로,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를 위한 3단계 구상을 추진하게 된다. 1단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시민이 문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단계이다. 시민을 문화의 대상이나 관람자로 간주해 접근성을 강조하는 일반적 관점과는 달리 시민의 문화적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 내 문화 주체로 만드는 것이 성남문화재단의 접근법이었다. 이른바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성남문화재단의 목표이자 전략이었다.

그 결과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동아리, 즉 문화클럽에 주목하게 된다. 다양한 동아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지역 내 문화 주체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문화클럽 발굴 및 지역사회 내 활동 기회 제공에 주력한다.

2단계 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성남 자체를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남지역 전체로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외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성남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시행 방안 기획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5대 정책사업을 기획한다. ① 각 시민의 문화클럽을 발굴하고 모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② 문화를 통한 지역혁신 사업인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③ 문화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 ④ 성남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성남시민 창작 활동 진흥사업' ⑤ 이상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이미지를 문화창조 도시로 만드는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이 그것이다.

3. 각 단계별 사업 계획과 추진 내용

1단계2006~2008 사업 계획 및 추진 내용

2006년 계획 수립 이후 성남문화재단은 기본 계획 단계에 맞추어 5대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3단계 계획

1단계 : '3개년 계획'	2006년	● 기초연구 -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연구
	2007년	● 정체성 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 사업 ● 기본계획(안)수립 - 문화기반시설 및 도시기반조성 모델(안) 제시 - 문화산업기본인프라 조성(안)제시 ● 제도정비 -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례 준비를 위한 사례조사 및 조례(안)개발
	2008년	● 정체성 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 사업(시민홍보, 공청회 등) ● 연차별 실시계획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구축(안) 확정 ● 전문 인력 양성 방안 ● 제도정비 -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례 제정
2단계 : '5개년 계획'	2009~2013년	● 문화산업인프라조성 ● 문화산업모델 개발 ● 지역문화브랜드 개발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시작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작 ● 관련 조례 정비
3단계 : '7개년 계획'	2014~2020년	● 도시리모델링 사업 추진 : 기능중심도시계획 ⇨ 문화중심도시계획으로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 문화도시 이미지 조사 및 정체성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2006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2007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정비2007하고 정체성을 위한 실질적 사업을 추진2008하는 것으로 1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2006년에는 성남지역 내 문화클럽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2007년에는 조사된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사랑방클럽네트워크를 만드는 한편, 클럽주간 등 발표의 장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08년에는 사랑방문화클럽페스티벌을 개최해 문화클럽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06년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를 실행했으며, 2007년 37개 문화클럽의 활동을 지원했고, 제1회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했다. 2008년에는 사랑방문화클럽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헌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사랑방클럽축제를 계속 개최하는 한편, 사랑방클럽네트워크를 운영했다.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사업 문화통화시스템은 클럽 활동과 시민문화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이다. 시민동아리 회원이나 예술인들이 공적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여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듦으로써, 동아리 회원 및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이들의 작업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06년에는 문화통화 시스템 조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2007년에는 실행모델을 만들며, 2008년부터 본격적인 통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06년 '문화통화 모델 제안 및 실행 전략 연구'를 실행했다. 또한 일본의 지역통화를 살펴봄으로써 성남시에 적합한 문화통화 모델을 발굴하고자 했다. 2007년에는 문화통화의 실질적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화통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나눔 사업을 추진, 2007년에는 4호점을, 2008년에는 6호점을 지정했다. 2008년에는 문화통화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성남지역 내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문화적으로 혁신 또는 치유하는 사업으로, 성남지역의 문화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6년 태평4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매년 2개씩의 모델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태평4동을 대상으로 '골목길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2007년 은행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동양공업사 등을 대상으로 '공단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2008년 상대원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나눔 사업과 '시장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민의 창작 활동 진흥사업 성남지역 시민의 창작활동을 진흥하는 사업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등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동 지역 내 시민갤러리를 개선하는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영상사업을 통해 시민의 창의성을 끌어내고자 했다. 2006년에는 '시화갤러리 사업'과 '영화속의 영화제'가, 2007년에는 퍼포밍 아트 지원사업과 '영화 속의 영화제'가 시행되었다.

2단계2009~2013 사업 계획 및 추진 내용

1단계 계획 기간 종료를 앞두고 2단계 계획 추진을 위한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2008를 수행한 결과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5대 정책목표의 사업계획이 새롭게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5대 정책목표 중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이 성과 미흡 및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시민육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사업 2009년, 문화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고 '문화도시 기획자 아카데미'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이어 2010~2012년 성남 문화도시 전략의 핵심이

었던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2013년 3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와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개최해온 '문화정책 대화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2단계 사랑방문화클럽의 핵심 목표는 지역사회와의 결합이었다. 이에 각 동네마다 사랑방문화클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하는 한편, 국내외 클럽들과 연계해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2009~2011년에는 문화공헌프로젝트를 강화한다. 그 결과 2008년 67개였던 문화공헌프로젝트 참여 클럽이 2009년 102개로 늘어났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각 105개 클럽으로 확장된다. 사랑방클럽축제도 매년 열어 2013년 제7회 대회를 개최했고, 2012년부터는 별도로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을 개최했다. 다른 한편, 사랑방 클럽의 지역 내 활동도 강화해 2012년부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사랑방 정오콘서트'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우리동네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골목과 시장, 공단 모델을 개발한 성과를 이어받아 2단계에서는 동네별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동네별 '동네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네만들기 매뉴얼을 개발하고, 세계 주요 도시들의 동네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시민육성사업 이 사업은 '성남시민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대체한 사업이다. 사업 성과가 미진하고 타 부서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평가 하에 2007년도부터 시민 문화역량을 강화

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시민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2007년 '시민인문강좌', 2008년 '생활인문학강좌', 2009년 '커뮤니티인문학 강좌' 등이 시행되었다.

3단계2014~2020 추진 계획 수립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1~2단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3단계 사업을 계획하는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첫째,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는 △클럽의 재단 의존성과 관료화된 협력관계 △사업 정형화에 따른 사랑방클럽의 재미와 기대 하락 △클럽 간 네트워크 친밀성 저하 △지역과 연계한 협력 활동 감소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모델 부재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 구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수립된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주요 사업의 방향을 재설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게 된다.
우선, 2006년 기본계획에서 3단계 목표로 제시된 '몸체만들기'는 '구조강화하기'로 변경되었다. '세계 속의 예술시민도시'로 나아가는 외적 확산보다는 '생활예술공동체'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이에 3단계는 문화공동체 시스템 구축 강화 및 시민 참여 영역의 확대, 자생적 기반 조성,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주요 목표로 설계되었다.
세부 추진 목표 또한 조정되었다. 기존 5대 정책사업에서 7개 목표로 조정되었는데, 새롭게 조정된 목표는 ① 시민 생활예술을 통한 사회적 창의성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 ② 취향공동체와 지역기반 생활공동체들의 협력과 교류 강화 ③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활동의 시민참여영역 확대·강화 ④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활동의 자발성 강화 및 자생성 기반 조성 ⑤ 기존 5대 정책사업의 정비와 조정 ⑥

전국 단위 생활예술 교류 확대 ⑦ 국제 생활예술 교류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소곤소곤 논골 꿈길 만들기>. 낙후된 좁은 골목길에 화사한 꽃들이 내려앉았다

추진성과

성남문화재단의 1~2단계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은 크게 보면 사랑방문화클럽을 중심으로 시민이 문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과 각 지역을 문화로 치유하고 혁신하는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요약된다. 문화통화 사업은 이 둘을 연결하는 동시에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었고, 문화도시로서 포지셔닝하고 브랜딩하는 사업은 목표보다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에 1~2단계에서 이루어진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성과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추진성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를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을 말한다. 활동목적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다. 주요한 활동은 클럽들을 모으고, 이들을 중심으로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며, 자율적인 운영체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성남문화재단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랑방문화클럽 활성화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 조사'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했다. 그리고 2010~2012년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만족도 조사', 2013년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및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등 다각도의 연구사업을 시행했다.

활동 클럽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7년 56개이던 클럽 수가 2013년 209개 클럽으로, 참여 회원수는 1,567명에서 4,044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역시 분당구가 가장 많고, 공연에 있어서는 대중음악·국악·클래식이, 전시에 있어서는 회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술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표로 한다. 2008년부터 일반시민 및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헌' 사업을 실행해왔으며, 재단은 전체 사랑방문화클럽 예산 중 1/3에 가까운 비용을 문화공헌 사업에 투자해왔다. 그 결과 시민의 주체적인 문화활동 측면에서, 또 시민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화 측면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로 인해 2008년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주관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2012년 문화부가 시행한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클럽에 대한 성남시민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한 이웃 형성'과 '다른 사람의 입장·관점·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등이 모두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재단 의존성으로 인한 자율성 상실과 관료화 △사업 정형화에 따른 참여동기와 기대 하락 △클럽 간 친밀성과 긴밀함의 저하 △동네와의 연계·협력 활동의 감소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후에 있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탈출구를 모색하게 된다.[1]

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성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주체형 동네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동네가치의 재발견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공동체로 발전 및 문화마을 조성 △주민자치적 문화역량 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성남 문화예술창조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한 사업은 5개 유형(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동네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사업, 주민주도형의 마을축제나 마을가꾸기를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은 태평동과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도촌동, 정자동, 삼평동, 판교동, 단대동 등 9개 지역이었다. 2006년 태평동을 대상으로 처음 사업을 시도했고, 2007~2008년에는 은행동과 상대원동, 2009년에는 수진동과 도촌동, 2010년에는 삼평동, 2011년에는 정자동으로 확대했으며, 2012년에는 삼평동에 집중하고, 2013년엔 단대동과 판교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다른 한편, 각 지역 내 '동네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드는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 2013년 현재 총 5개의 공간을 조성했다. 동네만들기지원센터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동네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환경 조성, 문화매개자 양성교육, 동네만들기 페스티벌 등 동네를 연결해 주민과 재단, 행정, 전문가 등의 협력체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2006년 초기 사업추진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작가들의 기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 주민이 대상화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본격적으로 주민 중심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① 체계적인 사업 모델의 부재 ②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③ 가시적 성과 창출이 힘든 사업 구성 등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2] '체계적인 사업 모델의 부재'에 있어서는 마을 내에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조성만 제시되어 이상적인 담론이 현실의 상태를 압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에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시적 성과 창출이 힘든 사업 구성' 측면에서는 문화예술만으로 공동체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마을사업과 결합되지 못한 채, 독립적 사업구조로 추진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향후 방향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등은 성남문화재단이 만들어

1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방안 연구』, 2013.12., p.57 - 58

2
성남문화재단, 『문화공동체사업 발전방안 연구』, 2013.12., p.14

간 독특한 방식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을 대변한다. 전자는 시민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클럽을 대상으로 잠재적 문화 DNA를 이끌어내고, 후자는 각 지역별 문화혁신과 공동체 형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게 성남문화재단의 고유한 전략이자 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모두 한계에 봉착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전자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방안 연구'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나 지역과의 결합 동기가 많이 사라졌으며, 후자 또한 문화예술이 과연 지역사회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 성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주민 스스로 추진한다는 '주민자율적' 추진 논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그 결과 성남문화재단은 2013년 제3단계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시행한 한편, 사랑방클럽네트워크 혁신을 위해 '사랑방 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방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위해 '문화공동체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추진과제

연번	정책	추진과제
1	자발성 촉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 간의 소통 강화 방안	①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예산제 시행 ②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운영
2	창작 행위의 활성화/ 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 사회공헌 활동 방안	③ 장르별 네트워크 활성화 ④ 선택적 클럽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⑤ 구별 네트워크 구축 ⑥ 전국 단위 클럽 교류 추진 ⑦ 국제 생활예술 교류 추진 ⑧ 클럽네트워크활동의 사회성 여가적 활동 확대
3	문화매개자로서의 재단 상근자와 역할 증진 방안	⑨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 육성 ⑩ 사랑방 생활예술 학교
4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 확보	⑪ 구별 거점 공간 확보 및 운영 :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화 운영
5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⑫ 생활예술 지원 조례 제정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방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3단계 7개년 계획사업 방향으로 총 7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① 자발성 촉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 부여 ②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 간 민주적 소통 ③ 매개자로서 재단 상근자 ④ 사랑방문화클럽의 공간 확보 ⑤ 창작행위 활성화 ⑥ 클럽 간 교류 활성화 ⑦ 사랑방문화클럽의 사회공헌 활동 등이 그것이다. 요약하면, 사랑방문화클럽에 더욱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이 봉착하고 있는 한계를 활동의 자율성과 자생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되살리라는 것이 주요한 방향이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자율적 예산 부여'를 위해 참여예산제 시행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별도의 독립된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창작활성화와 클럽 간 교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르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선택적 클럽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구별 네트워크 구축, 전국 단위 클럽과의 교류 추진, 클럽네트워크 활동의 사회성 여가적 활동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매개자로서 재단의 역할 증진'을 위해서는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활동가 육성,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등이 제안되었고, '생활예술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생활예술 지원조례 제정 등이 제시되었다. 재단 내에 더욱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고, 조례 등 법적인 안정성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정책별 추진 과제(2014~2020)

연번	추진과제
1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와 성남문화재단 사업과의 차별성 및 바람직한 이해 제고
2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3	마을만들기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주체와의 연대 강화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상호 협력
5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6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계획 및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7	성남문화재단의 마을만들기 사회자원의 활용
8	문화에 대한 역할 확장

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발전방안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①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영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 추진 ②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③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④ 지역단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⑤ 대외적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와 연대 강화 ⑥ 사랑방문화클럽과의 연계 강화 ⑦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인식 전환 및 접근방식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민중심성을 강화하되, 지역단위 마을네트워크와 결합해 사업의 성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향일 것이며, 이를 위한 사랑방문화클럽과의 연계 강화, 행정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보고서는 ①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성남문화재단 사업과의 사업 차별성 확보 ②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③ 마을만들기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주체와의 연대 강화 ④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상호협력 ⑤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⑥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 계획 및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⑦ 성남문화재단의 마을만들기 사회자원의 활용 ⑧ 문화에 대한 역할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을만들기 조직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마을만들기 과정으로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이상의 사업 방향 및 성남문화재단의 과제를 바탕으로 2014년 이후 3단계의 목표는 △주민 주도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강화 △효율적인 주민공동체의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주민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된다.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주요 성과 정리(2011~2013)

연번	성과	주요내용
1	지역 내 타 기금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규 지원영역의 창출과 공공성 제고	● 타 기금지원사업과 차별화 ● 기금지원사업의 공공성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2	지역 내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	●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및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추진
3	단순 기금 분배방식에서 벗어나 각 참여주체별로 다층적인 지원방식을 추진함	● 우수사례의 공유 및 전파를 통한 지원단체 사업 개선 노력 동기 부여 ●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세부 정보 제공 ● 심사관참여지원제도의 전문 컨설팅을 통한 단체 역량 강화 ●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통한 신규 단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 체계적인 전문 모니터링 교육과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활동가 발굴, 육성 ●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내 단체 및 시민의 문화기획력 제고

마치며

다른 지역과 달리 성남문화재단이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해온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 방향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여타의 도시가 지역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산업 유치, 창작공간의 개설, 시민의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사업에 주목했다면,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지니고 있는 잠재성과 가치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사랑방문화클럽으로 구체화했으며, 시민의 다양한 창의성 하에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만들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둘째, 철저한 설계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계획 수립 단계인 2006년 3개년, 5개년, 7개년을 매개로 한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매 계획 단계에 앞서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방향을 새롭게 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기존의 통상적인 지원제도를 혁신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통상적인 경우 예술지원 사업은 광역단체가 주관이 되어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그치고 마나, 성남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일반지원사업'과 성남문화재단 자체의 '기획지원사업'을 활용해 '상생협력지원사업'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에는 경기문화재단과의 매칭을 통해 처음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일반지원사업보다는 기획지원사업을 늘려 사업을 추진했고, 2013년에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와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문화기획인력양성사업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책임심의관제 도입, 결과보고대회 개최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선도한 참신한 사업 방향과 철저한 계획 하의 사업 추진, 지속적인 혁신 사업 추진 등이 성남문화재단이 지역문화사업을 주도해온 이유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향 설계 및 계획적 추진과 더불어 핵심사업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통화' 등 실질적 사업을 혁신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도시로서 성남시를 브랜딩하고 '포지셔닝'함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와 교류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보듯, 성남문화재단 내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사업으로 여타 기관들과 협력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내외적인 차원에서 사업 구조를 혁신하는 2단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문화기획부장 이영진

'마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문화정책'

시민예술이라는 용어는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화두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마을 속으로, 주민 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생활예술의 도시 성남'을 만드는 문화정책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을 만나 시민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의 의의와 전망을 들어보았다.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문화정책사업의 의의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통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이끈 사례는 성남문화재단이 처음이고, 정책연구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정책사업을 통해 문화공간 운영과 지역의 문화정책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갖게 된 아쉬움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이 두 개의 축이 쌍두마차로서 문화창조도시를 실현해야 하는데 지금은 마을과 예술동호회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 속으로, 주민 속으로'라는 기치를 걸고 생활문화공동체의 지역거점 구축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통화사업은 현재 답보 상태지만 클럽에 부족한 요소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풀어보자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이 마을과 주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의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두 주체의 자발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마을 활성화가 왜 어려운지 생각하다 보면 항상 결론은 '사람'입니다. 마을의 중심에서 활동할 사랑방문화클럽 리더들과 회원들, 재단이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랑방문화클럽 리더들이 의식,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거점을 구마다 마련하는 식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문화정책 주요 사업

문화정책사업 10년의 발자취

- 사랑방문화클럽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 문화통화

2006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 조사’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태평4동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골목길 유형)

- <문화통화 모델제안 및 실행 전략 연구> 실시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실시
- 시범모델 ‘1318 해피존 나눔 라디오’ 운영

2007

- 클럽지기모임 창립,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발족
- 제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개최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운영 (워크숍, 사업설명회, 클럽파티 등)
-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 오픈, 문화공헌 프로젝트 공모사업 (42개 개별 클럽 직접 지원)
- 은행주공 ‘풀장환(丸)상’(아파트 유형), 상대원공단 ‘쿵닥쿵닥 예술공단’(공단 유형)
- 은행주공 풀장 문화공간 조성
- 사랑방공간 나눔 캠페인 시작
- 문화통화 회원 교육 및 회원 가입 시작
- 문화통화 품앗이 활동 (교육/공연 및 전시) 시작

2008

- 제2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개최
- 문화공헌프로젝트 간접지원 (67개 클럽, 7개 팀, 46회 행사)
- 상대원시장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시장·상가 유형)
- 상대원 원다방 라디오 방송국 조성 및 개국

2009

- 세계문화클럽포럼(WCCF) 개최 (한국, 독일, 미국, 불가리아, 영국, 일본)
-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 사업 시작

2010

- 장르별 축제 (기네스 도전 1,000명 색소폰 연주)를 통한 소아암 환자 돕기 행사

- 사랑방연합오케스트라 창단
-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국무총리상)
-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2’
- ‘섬말사랑방’ 공간 조성 (도촌동 섬마을5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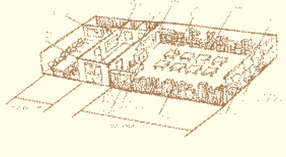
201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대표사례 선정
- 사랑방전시유니트 구성
-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성남시 ‘지역협력사업’으로 이관
- 일반지원사업 23건, 기획지원사업 6건 지원
- 시민모니터링단 도입, 운영 시작
- 활동보고회 실시 시작
-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3’
- ‘하늘꿈터’ 공간 조성 (이지더원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옥상)

2012

-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시작(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 청소년 연계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 ‘아트매칭펀’ 시작(6개 수련관, 6개 프로그램 진행)
- 판교테크노밸리 ‘사랑방정오콘서트’ 개최 (4월~12월, 28개 팀 14회 공연)
-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남시 출연금 확대
- 상생협력지원사업 시작
- 일반지원사업 12건, 기획지원사업 5건 지원
- 마을미술프로젝트 ‘꿈너비 도서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2013

- 사랑방문화공간 운영 (큐브사랑방, 앙상블사랑방, 시민사랑방)
- 사랑방합창단 출범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사업, 195명 참여)
- 상명대 인턴 프로그램 진행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사업 체험 및 교육)
-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 시작
- 일반지원사업 10건, 상생협력지원사업 3건,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4건, 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 1건 지원
- 심사관참여지원제도 시작
-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 시작(단대동, 판교동)

- 사랑방 전용공간 ‘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 운영(큐브플라자/시민회관)

2014

- 제8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개최 (전국생활예술클럽 한마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 시상)

- 일반지원사업 10건, 상생협력지원사업 3건,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 1건 지원
- 마을커뮤니티 지속 지원(단대동), 신규 지원(태평동, 금광1동, 도촌동)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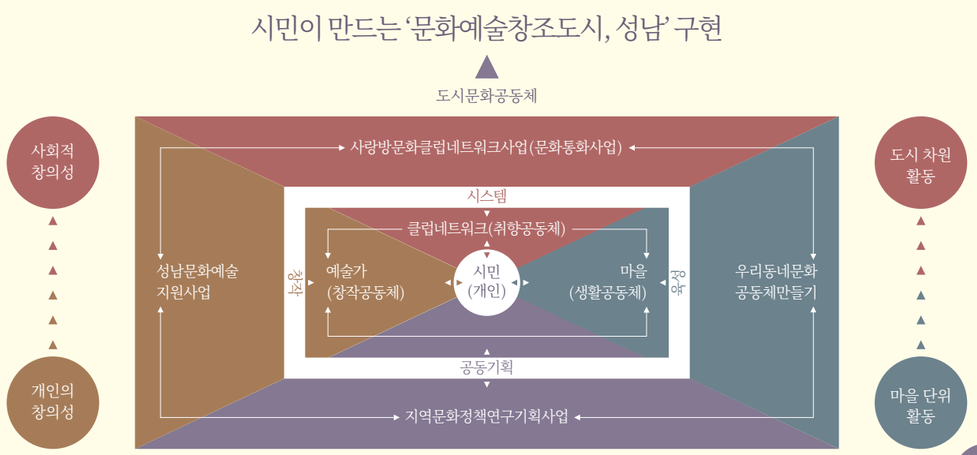
- 성남시자원봉사센터 MOU 체결
-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개최(전시 오픈 & 개막 퍼포먼스, 사랑방 퍼레이드 진행)
- 일반지원사업 9건, 상생협력지원사업 2건,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 1건 지원
- 마을커뮤니티 지속 지원 (태평동, 금광1동, 도촌동), 신규 지원 (서현1동, 금광2동, 상대원동)
- 마을공간 조성 지원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 10년의 자취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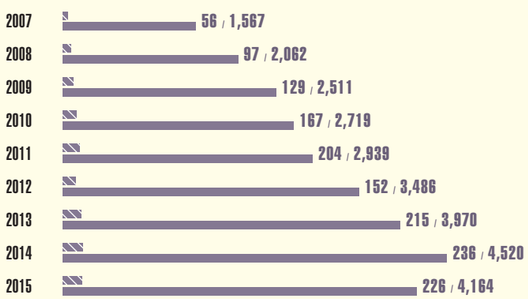
1 문화정책사업 구조

지역 내 문화향수 기회와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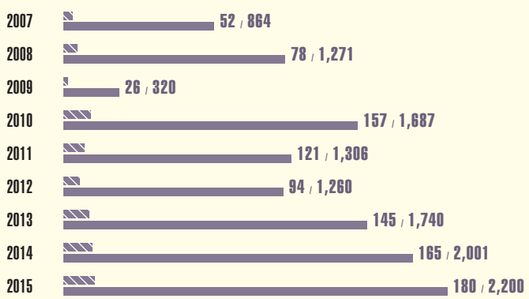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현황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 클럽 및 회원 수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참여 클럽 수



* 2009년은 신종플루로 인한 축제 취소, 전시팀의 사랑방클럽전만 개최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토대 예술시민 육성

창의문화예술교육
시민예술창작지원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성남미디어센터 설립 이야기

성남어울리오 오케스트라

창의문화예술교육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품격 있는 문화예술 배움터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창조 역량을 키우는 사업으로 크게 창의문화예술교육, 시민예술창작지원, 영화 상영과 같은 세부사업이 있다. 창의문화예술교육을 대표하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수준 높은 예술강좌를 다양하게 선보이며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고품격 평생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우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성남의 토대이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창의적 시민 양성

2005년 12월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관 기념 무료특강이 열렸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총 54개 강좌에 몰린 인원은 무려 5,655명.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호응이었다. 성남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기대 속에 출발한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이후 10년간 해마다 약 200개의 강좌를 꾸준히 선보이며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알리고 공연과 전시를 찾아올 잠재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출발한 아카데미는 이후 성남문화재단의 연구와 고민들,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아카데미 수강생인 성남시민과의 소통 속에 진화해왔다. 초기의 아카데미는 시민의 문화예술 학습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명 강사 위주로 강좌를 진행했으며 2010년 무렵까지 음악, 미술, 사진, 무용, 감상 등 장르별 기능 습득을 위한 강좌가 주류를 이루었다. 2011년부터 아카데미는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단순 예술강좌를 넘어선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능 중심의 강좌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창의력 계발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돕는 내용 등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창의적 시민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로 채워나가고 있다.

현재 아카데미는 크게 감상(이론)·인문 아카데미, 음악 아카데미, 미술·사진 아카데미, 무용 아카데미와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프로젝트로 나뉘어 학기별 100~120개의 강좌를 운영 중이다. 개관 초기에 분기별로 운영했던 제도를 2009년부터 학기제로 바꾸며 교육의 깊이와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교육 발표회를 열어 수강생이 배우고 습득한 기량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2012년부터 축제로 발전시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아카데미 회원 축제는 회원과 강사가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서 연 1회 개최된다.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역량 향상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성남문화재단의 창의문화예술교육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그 운영 규모와 교육 내용의 수준은 물론이고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확대를 주도해왔다. 지난 10년간 아카데미에 참여한 3만여 성남시민, 50여 명의 문화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와 10여 명의 전담인력으로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었다. 미디어홀과 음악실, 미술실 등 수준 높은 예술강좌를 진행하는 데 최적화된 아카데미 시설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 또한 한층 확충되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왔다. 연간 2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교육의 결과물을 후속사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연말의 음악 아카데미 축제, 미술 아카데미 상설 전시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정착시켰다. 지역 내외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 중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참가하면서 창의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준비 중이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감상과 이론, 실기에 이르는 다양한 강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풀어주는 한편, 정책과 인프라, 시스템 등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역량 그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창의문화예술교육 :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가 더 즐거워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성남시에는 150개가 넘는 초·중·고교에 11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는 가운데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모든 학생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그림, 악기, 무용 같은 매체 중심 교육의 틀을 벗어나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개발,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진화를 모색해왔다.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교육에 적용할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역할, 둘째, 교육을 실행할 예술강사를 발굴, 육성하는 일, 셋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전문 예술강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실행커뮤니티를 구성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한편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사, 성남형 교육지원단 등과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교육 성남문화재단의 전문 예술강사진이 학교로 찾아가 미술, 음악, 공예, 미디어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성남 오리초등학교, 백현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교사 문화예술교육 주중 저녁과 방학기간을 활용해 교사를 위한 힐링 혹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의 학교 영화와 뮤지컬 등을 직접 제작하는 단기집중 프로그램. 학생들은 약 7~10일간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리 고장 성남' 연계 프로그램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우리 고장 성남'에 소개된 성남아트센터 및 봉국사, 망경암 등 성남시내 유물유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작가, 기획자, 무대기술자, 예술교육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직업을 탐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진로 코칭을 실시한다.

창작 공연 프로그램 단순한 감상 교육을 넘어 교육 대상, 학년별 특성에 따라 지식과 재미, 감동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 운영한다.

창의문화예술교육 : 성남어울리오

오케스트라로 배우는 소통과 화합

음악교육을 통해 달라지는 아이들은 여러 영화에 등장했던 소재이다. 성남시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 성남어울리오'라는 제목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지역아동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악기를 배우고 음악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다. 그중 누군가는 미래의 어느 날 명연주자가 되어 자신의 첫 오케스트라 수업을 회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재능도 관심사도 제각각인 아이들이 한곳에 모이면 여지없이 불협화음을 빚어낸다. 이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뀌는 기적, 성남어울리오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기적을 만드는 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단원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완성하면서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워나간다.

음악교육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

성남어울리오는 성남문화재단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중원구 도촌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첫 단원 모집을 시작했다. 30명으로 출발한 도촌오케스트라는 점차 참여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현재 59명 규모의 중원오케스트라로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수정구 윈드오케스트라, 2013년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오케스트라를 추가로 결성했는데 수정구 윈드오케스트라는 2012년 36명에서 2014년 46명으로, 가족오케스트라는 2013년 56명에서 2014년 71명으로 참여인원이 늘었다.

2014년 12월 16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는 성남어울리오 합동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성남어울리오는 주 2회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정기연주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마을축제나 시민행사를 찾아가는 공연으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청계광장에서 열린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참가해 서울시민에게 성남어울리오의 이름을 알리는 뿌듯한 경험도 했다. 교육 수혜자에게 재능 발굴과 나눔의 기회를,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성남어울리오는 예술, 교육, 복지, 기부가 조화롭게 결합된 아동청소년육성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창의문화예술교육 :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배우기

2012년 성남미디어센터 개관과 함께 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이 시작되었다. 예술이 몇몇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듯, 미디어 역시 누구나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 미디어교육의 출발이다.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은 시민이 미디어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계기로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돕는다.

2012년, 찾아가는 공동체미디어교육

성남미디어센터 개관을 앞둔 2012년 미디어교육은 공동체미디어교육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작은도서관, 시민사회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찾아가 공동체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다.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개 모집을 통해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상반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하반기에는 학교,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미디어교육은 그전까지 전국 미디어센터들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형태로 진행해온 사업이었고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의 공동체미디어교육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로 그 범위와 성격을 확장시켰고, 이 경험을 통해 이후 전개할 미디어교육의 시스템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미디어교육

2012년 12월 성남미디어센터가 문을 열면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강좌가 열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미디어교육사업 첫해에는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교육 목적과 가치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전개했다. 성남시민의 미디어교육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특강과 단기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신청률과 만족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미디어 활용 교육, 매체와 장르를 결합시킨 통합미디어교육을 선보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1강좌, 1,041회의 교육을 통해 2,700여 명의 수강인원을 기록했으며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9.0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으로서 2013년에 기틀을 세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미디어강좌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강좌 주로 성인 대상. 미디어 이해와 활용, 소통을 배우는 매체별, 수준별 강좌
미디어스쿨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토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영상, 라디오 제작을 체험하는 일일 프로그램
공동체미디어교육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찾아가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교육의 질을 담보할 강사진

성남미디어센터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강사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관 이전부터 미디어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구축하기 위해 강사 인력풀 제도를 준비했는데 성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미디어영역 확장과 뉴미디어 등장에 대응할 세분화된 강사 인력풀을 갖추고자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모집하고 영화, 방송, 사진 등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특히 미디어아트, 컴퓨터 코딩, 비주얼 싱킹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전문가들의 강의도 다양하게 편성했다.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강사풀에 등록된 전문강사들과 협의하면서 강좌를 개설한다. 또 수강생의 평가를 강좌 진행에 반영하는 운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성과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성남미디어센터는 강사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규정, 강좌 운영 프로세스 등 시스템을 정립해왔다. 이로써 미디어교육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미디어를 통한 배움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시민예술창작지원 : 성남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로 더 풍요로운 성남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또 다른 카테고리인 시민예술창작지원은 성남미디어센터를 통해 뉴스, 라디오, 영화, 기타 영상콘텐츠 등 미디어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시민제작단은 시민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고 성남을 이야기하며 그 결과물을 시민과 공유한다. 시민제작단은 시민이 미디어의 소비자에 머물기보다 생산자로 활약하는 시대 흐름을 대변하며 성남미디어센터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낮은 미디어, 더 많은 소통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동네 작은 골목의 역사와 풍경들, 평범해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시민에 의해 미디어로 제작되어 전파된다.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로 더 풍성해지는 성남의 이야기는 마을공동체를 더 활기차게 만들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시민이 미디어의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표현, 창작 욕구 충족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성남미디어센터는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커뮤니티 미디어의 보급, 확산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커뮤니티 미디어는 누구나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더 낮은 미디어', 그리고 동네 안으로,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더 많은 소통'을 지향한다. 시민제작단은 바로 커뮤니티 미디어를 지원하는 핵심사업으로서 성남미디어센터 개관과 함께 출발했다.

시민제작단은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를 구현할 장비와 시설, 함께 고민하고 나눌 동료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매체별, 세대별로 구성된 미디어 제작자 모임으로서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포함해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교육과정을 거친 후 시민제작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기획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영상제작단

시민제작단 활동분야 및 모집대상

분야	모집대상
시민영상제작단	영상제작 활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
실버영상제작단	영상제작 활동이 가능한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시민라디오제작단	시민라디오제작단 양성과정 수료자
대학생영상제작단	성남시 소재/인근 대학생 또는 성남시 거주 대학생

시민의 시선으로 만드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2012년 성남미디어센터 개관에 앞서 시민영상제작단과 대학생기자단으로 구성된 시민제작단 1기가 출범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성남미디어센터 개관에 맞추어 기념영상을 선보였고 성남시민에게 개관 소식을 전했다. 2013년에는 시민라디오제작단과 실버영상제작단이 가세했다. 현재 시민제작단은 매체로 보면 영상과 라디오, 세대별로는 시민, 대학생, 실버로 나뉜 제작단이 활동 중이다.

2013년부터는 시민영상제작단, 시민라디오제작단, 실버영상제작단, 대학생기자단(현 대학생영상제작단) 등 네 개의 시민제작단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결과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총 31편의 영상콘텐츠와 20편의 라디오콘텐츠를 제작했고 2014년에는 영상 32편, 라디오 52편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지역방송과 인터넷, 발표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되었다. 2013년 9월에는 원더풀성남 라디오가 팟캐스트를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성남지역 종합유선 ABN아름방송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시민제작단의 콘텐츠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이며 세밀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지역밀착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성남시민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다. 미디어를 배우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사람들, 시민제작단은 오늘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성남 곳곳을 찾아간다.

실버영상제작단

시민영상제작단의 촬영 현장

시민예술창작지원 : 영상콘텐츠 공모전

성남, 삶, 창작을 향한 열정의 향연

성남시를 향한 애정, 삶에 대한 열정을 영상 창작으로 풀어내는 축제 속 작은 축제,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성남미디어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시작되었다. 시민의 미디어 창작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성남미디어센터의 수강생, 시민제작단, 주민모임 등 센터 고객을 포함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성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성남, 시민에 의해 기록되는 성남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발굴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모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거나 성남시의 역사, 문화, 인물, 생활상을 담은 영상이다. 성남지역에서 80% 이상 촬영을 진행한 영상이 응모 대상이다. 장르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 영화, 공익광고,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모든 영상콘텐츠를 응모할 수 있다. 15초부터 30분까지, 제작자의 기획과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분량과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작하면 된다.

응모 영상의 다양성과 높은 완성도

공모전 수상작품은 전문가와 일반 관객의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예선과 본선의 사전 심사에서는 전문가가 응모 작품의 작품성과 기술성을 평가한다. 예선의 경우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모자가 속한 세대별로 심사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본선까지 통과한 작품들은 미디어페스티벌 기간에 열리는 상영회를 통해 관객들의 평가를 받는다. 관객심사와 전문가심사를 종합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을 결정하고 시상식을 가진다. 대상은 상장과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 원 등이 시상되며 관객의 갈채와 더불어 수상자를 찾아간다.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처음 열린 2013년에는 39편이 출품된 가운데 대상 <나는 아직 사랑을 꿈꾼다>(김윤종, 64세) 외 8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2014년에는 더 다양한 기획과 높은 완성도를 가진 31편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가와 관객들은 어려웠던 심사 끝에 <황혼의 로맨스>(조석종, 78세) 외 9편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시민예술창작지원 : 성남 독립영화제작지원

좋은 독립영화가 탄생하는 도시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일반 시민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이라면 전문 창작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성남을 소재로 한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제작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장편 및 단편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전문 창작자, 성남시나 성남시민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 전체 분량의 60% 이상을 성남시에서 촬영하는 영화이다.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통한 시민 창작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끌어낸다는 취지에서이다. 지원 부문은 순제작비 5,000만~3억 원 이하의 장편, 순제작비 300만~1,000만 원 이하의 단편으로 구분한다. 심사를 거쳐 순제작비의 7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촬영 분량의 50% 미만까지 진행되었거나 기획 단계에 있는 작품을 신청할 수 있다.

독립영화제작지원 첫 시사회를 향한 호평

2014년에는 총 28편의 지원신청작 중에서 장편은 김수정 감독의 <파란 입이 달린 얼굴>, 단편은 문명환 감독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지원했다. 특히 장편 지원작 <파란 입이 달린 얼굴>은 2015년 4월 17일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시사회도 가졌다. 2015년에는 첫 사업 추진에 대한 호평과 독립영화 제작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늘렸다. 공모를 통해 71편의 신청작이 접수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4편의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단편영화 부문에 윤부희의 <달인>과 윤다희의 <궁극의 기술>, 장편 부문에 신동일의 <컴투게더>와 최헌규의 <소은이의 무릎>이다. 2015년 제작지원 작품들은 2016년 초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사업

더 다양한 영화를, 더 많은 이에게

비슷한 시설에서 비슷한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시스템만으로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성남미디어센터의 상영사업에 주목할 만하다. 성남미디어센터는 독립예술영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다시 보고 싶은 고전영화, 시민이 선정하고 같이 감상하는 영화 등 다양한 색깔의 상영사업을 통해 멀티플렉스 이상의 다채로움과 감동을 시민과 나누고 있다.

성남시에서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과 삶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삶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 영화라는 미디어라면 지금 우리가 영화관을 통해 만나는 주류 상업영화는 얼마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성남미디어센터는 주요 역할 중 하나를 '독립영화 상영 활성화'로 설정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다양한 영화들이 더 많은 관객을 만난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양질의 다양성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성남미디어센터 상영회를 통해 더 많은 성남시민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보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활동의 목적도 있다. 성남미디어센터의 상영회는 국내외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하는 '독립예술영화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담장없는 영화관', 시민이 직접 선정한 명작을 상영하는 '큐브 영화관', 실버 세대를 위한 고전영화 상영회 '청춘시네마'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예술영화관 국내외의 우수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소개하는 상영회로 2012년 9월 시작했다. 다양성 영화를 소개하는 많은 미디어센터가 그렇듯 초기에는 관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성남시의 여러 단체와 협력해 회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공동주최와 홍보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는 독립예술영화를 만날 기회를 갖기 쉽지 않은 성남시에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상영회가 되었다.

담장없는 영화관 청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정작 청각장애인은 볼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담장없는 영화관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2012년 10월 처음 문을 열었다. 시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를 상영한다.

큐브 영화관 성남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 동호회 '영화읽기 모임'이 직접 기획하는 무료상영회이다. 2013년 4월부터 월 1회 정기 상영회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미디어센터가 보유 중인 아카이브 자료 중 상영작을 선정하며, 주로 지난 명작을 상영한다.

청춘 시네마 실버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획한 상영회.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영화를 1,000원의 관람료로 감상할 수 있다. 영화 상영 전 재능기부에 의한 공연이 간단하게 열리기도 한다.

찾아가는 영화관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 진행하는 상영회. 놀이방, 청소년 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영화를 상영할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간다. 상영작은 신청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 일부 독립영화에 대해 신청단체가 상영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이다.

야외 상영회/패밀리 영화관 더욱 많은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율동공원 등에서 진행해온 야외 상영회와 2015년 큐브플라자 야외 공간에서 진행한 '패밀리 영화관' 등이 있다.

성남미디어센터,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남시민, 전국미디어센터와 함께한 건립 과정

2012년 12월 성남시민의 미디어 향유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성남미디어센터가 개관했다. 우리는 미디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꿈꾸었고, 그 꿈을 미디어센터에 담고자 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국 각지의 미디어센터와 성남시민의 관심과 협력은 우리가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었다.

글 이상훈
문화사업부장

'사람'을 중심에 둔 미디어센터 건립

201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공고가 나왔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지역 미디어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성남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10억, 경기도 3억, 성남시 7억 등 총 20억 원의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이 수립되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전국 각지의 미디어센터 건립 과정과 운영을 살펴보며 미디어센터 건립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이다. 기존 영상미디어센터의 인재 채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건립된 시설에 맞춰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 또 하나는 운영할 주체가 먼저 채용된 후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공간과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후자에 속하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례가 더 효과적이라 판단했고, 성남에서도 미디어교육 및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먼저 채용해 건립을 추진했다.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미디어센터는 2~3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미디어센터 운영 주체에 따라 운영 내용과 추진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위탁 결정 시기부터 잡음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고 사업과 인력 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단절이 생겨 혼란을 빚기도 했다. 채용과 관련해서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많은 미디어센터의 사례를 검토했다. 적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채용 구조는 미디어센터 운영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갖추기에 문제가 많았다. 성남문화재단은 위탁 대신 직접 사업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성남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재단 직원으로 채용해 활동의 안정성을 갖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미디어센터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건립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웠다. 미디어센터의 기능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복잡하고 어려운 장비를 구축하거나 시설이 너무 엄숙하고 딱딱한 강의실 분위기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국 미디어센터의 경험과 교훈을 찾아

성남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사업부는 위에 언급한 원칙에 따라 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기본 조사 작업을 마치고 미디어정책과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 직원들은 가장 먼저 전국 각 지역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교훈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미디어센터협의회(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 미디어센터의 활동자료를 모으고 천안, 익산, 광주, 김해 등의 미디어센터를 직접 방문해 공간과 시설, 시민 활동내용, 문제점과 성과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비롯해 성남지역에서 미디어교육 및 창작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와 방송사들을 방문해 지역의 미디어 활동실태와 욕구 조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쾌적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NHN 라이브러리, 성미산마을극장 등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답사하며 공간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약 3개월간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미디어센터의 밑그림을 그리고, 전국 각지의 미디어센터 운영자와 미디어 관련 단체 및 활동가, 성남시의회,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 모임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미디어센터에 대해 이해가 깊은 성남지역 내외의 전문가들로 건축과 장비, 홈페이지 관련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수차례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관을 함께 준비한 시민들의 참여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동체미디어교육, 노인미디어교육, 시민제작단, 예술인과 함께하는 영화읽기 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미디어센터 개관을 함께 준비했다. 개관 전에 미디어교육, 커뮤니티 미디어, 상영사업 등을 진행한 덕분에 미디어센터 개관식은 성남문화재단 관계자와 내빈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이 중심에 선 행사로 진행할 수 있었다. 시민제작단은 개관식 축하영상을 만들고 대학생기자단은 행사장 안내와 행사촬영 등을 맡았다. 이외에도 여러 교육 성과물을 전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개관식을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

개관 준비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명칭이다. 다른 미디어센터들은 대부분 영상미디어센터로 불리고 있었고 성남 역시 이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영상만이 아닌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남미디어센터'로 이름을 결정했다.

우리는 단순히 기능을 배우고 제작하는 미디어센터가 아니라, 미디어로 시민이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길을 찾는 커뮤니티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는 미디어센터를 만들고 싶었다. 특히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인 '마을'에 주목해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삶과 생활문화의 변화를 꿈꾸며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네 가지 목표를 수립했다.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활동 지원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이다. 각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시민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제작활동을 지원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미디어 향유 사업을 확대하고자 했다. 둘째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동네 방송국과 시민 참여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소통공간을 확장하는 일이다. 셋째는 성남지역에 공공미디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 강사, 커뮤니티 미디어 매개자와 리더, 독립영화 제작자 등을 양성하는 일이다. 나아가 미디어 제작을 통한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학교, 단체, 시설, 방송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 • 미디어 학습,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동네에서 하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커뮤니티 실현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누구나 배우고 창조하며 누릴 수 있는 미디어 활동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방향을 수립했다. 이를 구체화할 핵심 사업으로 ① 미디어 문화 향유 ② 미디어교육 ③ 커뮤니티 미디어 ④ 퍼블릭 액세스 ⑤ 미디어 인력 양성 ⑥ 미디어 네트워크 등 여섯 가지 사업을 설정했다.

공간 조성과 장비 구축 원칙

미디어센터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로 결정했다. 첫째는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본·신시가지 모든 주민의 접근이 쉽다는 이유였다. 둘째는 성남아트센터의 상징성, 미디어센터와 아트센터 간 연계 때문이었다. 성남아트센터는 공연이나 전시를 찾는 방문객이 많지만 한편으로 일반 시민들이 찾기에 문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미디어센터가 아트센터와 같이 있으면 미디어센터는 홍보효과를 얻고 아트센터는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미디어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상영사업, 공동체미디어 활동 등을 집

중적으로 추진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센터 건립 위치를 큐브플라자 무대창고로 결정한 후 몇 가지 공간조성 원칙을 세웠다. 먼저 미디어센터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보고 '활기'와 '교류'가 있는 소통 공간으로서 개방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성'을 갖게 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미디어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만드는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지며 시민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네 번째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다. 끝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 조성은 물론 리프트, 경사로, 문턱, 출입문 개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개방형 로비와 통로를 조성하고, 놀이공간으로 미디어도서관과 갤러리, 모임공간으로 동아리방, 소통공간과 다목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고자 했다.

장비 구축에도 미디어센터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먼저 시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이면서 HD 환경에 맞는 신형 장비로 구축하고자 했다. '찾아가는 미디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포터블 장비와 스마트 미디어 장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샌드아트 장비를 각 공간 특성에 맞게 구축하고자 했다. 미디어센터에 구축하지 못한 장비들, 특히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고급 장비는 지역 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공간과 장비에 어떻게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공간 조성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한번 조성된 공간은 변화를 주기 쉽지 않지만 구입하지 못한 장비는 시민이 필요로 할 경우 추후 구입해도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착공 1주일 만에 공사를 멈추다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지을지와 관련해 오래 고민했던 문제 중 하나는 입찰과 계약 방식이다. 다른 미디어센터 사례를 공부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나갔다. 설계, 시설공사, 시설장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이동 가능한 카메라나 노트북, 사무실 집기 같은 장비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개별 발주로 진행했다.

2012년 7월 4일, 큐브플라자 무대 창고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여러 이유로 준공이 지연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도 난관이 많았다. 당시 큐브미술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에릭 칼 한국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공사 중 일어나는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이어졌다. 개장 시간을 피하느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철야 작업을 해야 했고 이 때문에 인건비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공사를 진행한 지 1주일 만에 다급한 연락이 왔다.

무대창고 바닥에 물이 고인다는 이야기였다. 전문 진단기관에 의뢰해 기초 바닥 방수시공 상태를 점검했고 기존 큐브플라자 시공업체가 방수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습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전기전자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바닥 습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했다.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닥공사를 보강하고 애초 계획보다 바닥을 20cm가량 높이기로 했다. 보수공사에 따른 계약기간과 설계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9월 15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착공으로부터 약 6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사를 재개한 후로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철골작업을 마치자 공간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간마다 장비들도 들어와 제자리를 찾아갔다. 미디어센터를 표현할 로고와 각 공간을 안내할 표식을 만들어야 할 일이 남았다. 출입구와 각 공간 위치, 작은 것들 하나도 세세히 고민하고 실행해나갔다.

12월에는 다목적 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에 장비를 들였고 디지털교육실에 컴퓨터, 일반강의실에 샌드아트 장비를 설치했다. 미디어홀 로비 공간을 새롭게 인테리어해서 좀 더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었다. 12월 7일, 마무리 청소를 하고 드디어 공사를 완료했다.

시민과 함께한 미디어센터 개관식

미디어센터 개관은 시설과 공간, 장비 구축뿐만 아니라 미디어센터의 주체로 참여할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지역작가가 '예술인과 함께하는 영화읽기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고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격주로 6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미디어홀을 상영관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만나 성남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 4월에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와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체미디어교육 시범사업을, 5월부터 9월까지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노인미디어교실을 진행했다. 7월에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설과 장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제작단과 함께 커뮤니티 미디어 사업을 시작하고 공동체미디어교육과 마을미디어사업을 이어갔다. 또 독립예술영화관, 담장없는 영화관, 야외상영회, 찾아가는 영화관 등 상영사업을 진행하며 미디어센터 개관을 알려나갔다.

드디어 찾아온 2012년 12월 27일, 미디어센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개관식이 열렸다. 소리스튜디오에서 개관 기념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고 미디어갤러리에 미디어교육 결과물을 전시했다. 다목적 스튜디오에서는 영상체험을 진행했다. 오후 3시, 성남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지역미디어센터, 성남문화재단과 개관식을 함께 준비해온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관식을 시작했다.

미디어센터가 개관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시민제작단이 담은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상영했다. 내외빈 축사에 이어 테이프를 잘랐다. 참석자들은 미디어센터 곳곳을 돌아보고 소리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하기도 했다.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멋지게 모습을 드러낸 미디어센터 탄생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미디어센터의 활약을 기대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행사 진행으로 분주한 직원들, 개관을 함께 준비한 시민들의 얼굴에는 예술가가 창작의 기쁨을 만끽할 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2년 넘는 준비를 거쳐 마침내 성남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고 우리는 새로운 대지를 향해 출항하는 개척자처럼 흥분과 기대 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문화예술교육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시스템 만들기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의 잠재적 고객 확대와 성남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 성남문화재단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지역화와 확장, 사회적 인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출현했으며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어떤 활동을 전개해왔는지, 나아가 성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글 백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창조성을 가진 사회와 문화예술교육

미래학자들은 농업에서 공장 산업으로, 다시 금융 산업으로 온 과정을 설명하며 21세기 창조 산업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창조성creativity을 가진 사회'로의 진입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영국과 미국의 문화 정책인 창조 영국Creative Britain과 창조 미국Creative America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세기에 필요한 3C는 소통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 창조성creativity이며 이것을 키우고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롤프 옌센Rolf Jensen과 대니얼 핑크Daniel Fink 같은 미래학자는 접근성, 전문성, 상상력, 감성,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등 여섯 가지를 주요 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법, 제도, 조직, 전문기관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적 팽창은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게 하고 사회적 위상과 인식을 높여주었다. 이제 그동안의 인프라와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성남시의 경우 학교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기반이 마련되었고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추진된 공공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은 대략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90년대 중반 이전, 학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공교육을 통한 음악, 미술수업 등이 문화예술교육의 대부분이었으며, 정규수업과 함께 교내에서 밴드부, 미술부, 합창부 등 부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2단계는 1990년대 말부터 2004년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설치되고 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공공시설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늘었다.

3단계는 성남문화재단 설립 후부터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4년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되고 2005년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하면서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었다. 아카데미는 연간 약 200개의 강좌를 개설해 수많은 시민의 문화예술 학습 욕구를 충족시켰다. 2006년 등장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문화예술 동호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 교류의 장을 열었다.

성남어울리오
가족 오케스트라 수업
풍경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체계화

4단계는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를 추진 중이다. 성남문화재단은 2011년 실시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를 토대로 2012년에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2013년 성남시평생학습망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문화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4년에는 성남시문화예술교육 중장기발전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2011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사업으로 '성남어울리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강좌의 새로운 방향 설정, 성남미디어센터 설립 이후의 미디어교육 등 성남문화재단을 통한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점차 체계를 갖춰가며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에 미친 영향은 교육의 다양화, 체계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된 200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성남아트센터 개관 무료특

강과 70개의 겨울학기 정기강좌로 아카데미가 진행되어 성남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2010년까지 아카데미는 음악, 미술, 사진, 무용, 감상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시민의 문화예술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2009년부터는 분기제에서 학기제로 변경해서 운영하면서 교육의 지속성과 깊이를 보강했고, 2010년부터 무료 피아노 교실 '칸타빌레'를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했다.

2011년에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카데미는 기능 중심의 기존 강좌에 더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인문학 강좌, 토요가족프로그램 '스낵데이' 등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왔다.

2011년 이후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하면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창의교육 지원단회의, 방과후학교 추진단 등에 참가하면서 창의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원, 청소년재단 등과 연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남문화재단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기여해온 바는 적지 않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축적해온 경험과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술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향후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한 지금까지 수행해온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를 추구해온 현재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성남문화재단의 위상은 아카데미 운영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성과,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방향,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하면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및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등 실제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 문화예술강사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 예술강사, 운영인력, 매개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은 지난 10년에 걸쳐 아카데미를 운영해온 경험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또 문화예술교육이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 계발로 이어지도록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아카데미와 미디어교육을 통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장르 간의 통합과 인문학, 한국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창의, 통섭교육을 기획, 추진해야 한다.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기대되는 또 다른 역할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예술교육 실현이다. 계층, 수준, 목적에 따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구성하고 있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문화예술교육 공간, 우리마을 창작소, 악기도서관 등 생활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남은 과제이다.

셋째,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제가 있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앞에서 제시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즉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조사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발굴과 양성, 전문 공간 운영 같은 역할을 수행할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예술강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준비

성남문화재단이 중앙-광역-기초의 관계 속에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보자. 먼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진 의지를 집대성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추진과제를 설정한다. 시민, 학교, 전문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기초조사를 진행해 SWOT 분석을 실시한다. 성남의 문화욕구, 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의 비전, 미션과 동일한 맥락에서 센터의 비전, 미션, 가치를 설정하고 아카데미 운영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센터 준비기, 단기,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센터를 대표할 아카데미 운영 전략,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면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재단의 비전, 미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의 전략과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방향과 과정을 마련하는 일은 재단과 센터의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위해 필수이며 이는 사업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몇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재단과 연계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강사진을 구성해 진행하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의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역할 간 충돌을 피하고 순환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 사업 운영이 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센터의 공공성과 무료교육 대상자 선정 문제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공공지원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선착순으로 등록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의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련된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변별력 확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교육운영의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2014년 연구에서는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으로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에 둔 랑시에르의 철학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방법을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과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은 '왜 하느냐?'는 질문이다. '왜?' 라는 질문의 답은 센터의 목적과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식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한다.

2014년 연구에서는 성남의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로서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자율적 행복 추구, 지역사회 기여, 창조경제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의 주요 사업을 생애주기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핵심가치는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성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변별력을 부여할 것이다.

'왜'를 통해 변별력을 갖게 되면 차별성은 유사 기관의 프로그램 조사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2013년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의 분류체계(실용예술, 순수예술, 여가 스포츠, 예술교양강

좌, 예술직업능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별성 확보에 장애가 된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여가 교육, 진로 교육 등을 문화예술교육에 포함하면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역 특성과 문화예술교육 추세 이해

성남문화재단은 2011년 이후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역을 읽고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술단체, 예술가, 시설 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비롯해 지역의 이슈를 파악하고 예술을 접목할 다양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지역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장소이다. 인간은 특정 환경과의 연계로 감정적이며 경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위치에서 벌어지는 문화와 사회 맥락이 복잡하게 상호 교차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지역 혹은 장소 내의 흔적을 찾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삶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표현, 양식, 가치, 자본으로서의 예술을 매개로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인 만큼 개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진정성, 다양성, 복잡성, 유연성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공학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에 대한 소셜 맵핑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파악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개발의 근간을 삼을 수 있다. 또한 소셜 맵핑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네트워크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 이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추세와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눈도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그 개념과 방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형성, 문화 다양성 확보, 예술교육의 공교육 속 위상 제고, 예술의 적극적 참여, 창조적 삶 프로젝트 사업 등이 문화예술교육의 추세로 나타난다.

문화예술교육에 나타나는 이러한 추세는 사회 현상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제조자, 생산자가 되는 현상이다.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는 제조자로 전환하고 있다. 사람들은 예술 속 영감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한다. 개인이 타인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공동체 구성, 공동 작업이 늘고 있는 사회 현상도 관계가 있다. 개인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연결되어 더 큰 아이디어로, 집단 프로젝트로 성장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근대 이성주의가 소외시킨 인간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성찰,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주도할 상상력에 대한 접근, 지식을 넘어 정서와 심리적 경험을 강조하는 논의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센터의 영역 확장과 인력 확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센터의 새로운 영역 확장을 미리 고민하고

2015년 추진 중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장

대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센터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다. 창의인성교육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성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청의 창의인성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만나는 새로운 지점을 찾아야 한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확장을 가져온다. 자유학기제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강사가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도록 하는 연수, CoP, 지원 및 관리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센터를 만들어갈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획, 행정, 강사 인력을 비롯해 재단과 센터의 연계 속에서 교육 방향과 전략을 검토, 확인, 자문하는 외부 인력 등이 요구된다. 센터의 인력은 조직 내에서 단독 부서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를 겸한다면 재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과 결합할 수도 있다. 홍보마케팅, 문화사업 등과 연결이 가능하고 기획, 연구와 연계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센터에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춘 인력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기초 역량과 학습능력이 뛰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실행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교육 담당자는 거시적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 미시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가지고 사회와 공감하면서 사업의 출발부터 성장까지 함께하는 동안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정리하고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재단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입체적으로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이로써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성남시를 진정한 문화창조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남문화재단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남미디어센터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주체적 시민집단과 더불어 성남미디어센터만의 차별성 확보

성남미디어센터는 2012년 12월 개관한 이래 세 돌이 채 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이다. 전국 미디어센터 중에서도 막내 축에 든다. 10년이 지난 성남문화재단과 달리 성남미디어센터의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설립 취지와 목표에 비추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과 해온 역할을 돌아보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반추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만들어갈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김평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왜 미디어센터가 필요한가

2015년 현재, 전국 주요 지역에서 30여 곳의 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정부부터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기관들,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까지 미디어센터 설립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룬 성과이다.

미디어센터 설립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05년경부터이다. 그해 처음으로 경남 김해에 미디어센터가 세워졌다. 그로부터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미디어센터는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성남미디어센터는 2010년에 설립을 신청하고 2년 반이 넘는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 12월 27일 개관했다. 서른 곳의 미디어센터 중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막내에 속한다.

성남미디어센터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재확인해야 할 것은 '왜 미디어센터가 필요한가' '미디어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미디어센터는 단순히 지역의 시설이자 건물일 뿐이고 사업은 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상의 뜻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물음에 대해서라면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라는 성남미디어센터의 표어가 아주 간명하게 잘 답하고 있다.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TV, 라디오, 신문 등 흔히 대중매체라 불리는 것들을 먼저 떠올린다. 쌍방향 미디어라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역시 대중매체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먼 곳에서 남이 전해주는 남의 말을 받아서 읽고,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미디어에 대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중 하나이다.

성남미디어센터의 2년 반

그러나 미디어센터가 정의하고 추구하는 미디어는 남의 말을 전해주고 보여주는 중간 전달자가 아니다. 미디어센터는 지역민이 스스로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미디어를 상정한다. 미디어를 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민은 자신과 자신의 지역, 마을을 알게 된다. 나아가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해결방안을 실천하는 주체가 된다. 미디어센터는 이러한 미디어 활동,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 창조와 향유, 보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종 미디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들이 벌이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며, 또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형식의 미디어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 미디어센터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주역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역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환경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디어센터의 지향과 목표는 각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성남미디어센터는 지난 2년 반 남짓한 기간에 먼저 출범한 다른 지역 미디어센터에 견주어 손색없는 각종 사업을 전개해왔다. 연령별로 구성된 시민제작단 운영을 지원하고 성남 각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대상에 맞추어 여러 가지 주제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미디어 실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와 관련해 상영사업은 물론 제작지원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화 동아리 활동 지원,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역민을 미디어 활동의 주역으로

이처럼 활발한 사업을 통해 성남미디어센터는 2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첫째, 성남지역의 미디어 커뮤니티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의 참여 속에 비교적 충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시민제작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역량을 갖춘 제작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상영사업으로 대중적 성격의 영화는 물론 독립·예술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지역의 독특한 영화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대안적 영화 관객층도 일정하게 형성해왔다.

둘째, 그간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남미디어센터 자체의 위상과 성격을 확립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성남미디어센터는 장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 접근권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디어 관련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영화가 있는 미디어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같은 공간을 통해 지역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또한 각종 사진 전시나 공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남미디어센터는 시민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의 조력자이자, 동시에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모습을 갖춰나갔다.

셋째, 다양한 미디어 활동의 주체들을 배양, 형성해온 점 역시 성남미디어센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성남미디어센터의 각종 교육 사업을 통해 미디어를 폭넓게 이해하고 창작, 활용에 있어서 실제 기능을 갖춘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시민제작단 사업을 통해 시민 집단의 창작 역량이 축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마을미디어 활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성남의 문화자본이 성장할 토대가 튼실해진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 이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꾸준히 배양되는 것은 성남미디어센터가 이룩한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

성남미디어센터가 다른 지역 미디어센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점들은 많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디어센터 운영 인력의 전문성, 인력과 예산의 규모, 미디어센터가 이용자와 소통하는 측면 등에서도 긍정적인 틀을 만들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다른 무엇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출범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미디어센터 개관 전에 미리 전문 인력을 채용, 사전 조사와 연구를 시행했다. 이 조사와 연구에 기초해 성남 지역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종 대화 모임 등을 가지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성남미디어센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햇수로 4년차를 맞은 성남미디어센터는 더 큰 도약을 위해 많은 과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남미디어센터의 핵심 존재 이유인 사업의 주체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시민집단을 제대로 형성하는 일이다. 시민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미디어센터는 직원들이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가는 수동적 공간이 되고, 사업과 프로그램은 성과와 지표에 매몰되는 관료적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청년의 힘과 열기가 다른 사업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더 큰 활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남의 자산과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성남미디어센터의 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욱 내실 있게 꾸려가는 작업이다. 성남미디어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내용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두드러진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성남시의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남에는 1,000개 이상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있고 성남문화재단이 지원, 육성하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동아리만 해도 200여 개에 이른다. 이는 성남시의 문화적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과 함께, 더 차원 높은 문화 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남미디어센터는 이러한 요구를 향후의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성남지역의 특성을 성남미디어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노력과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를 한편으로는 융합시키며 한편으로는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새롭게 자리를 잡은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결 프로젝트 등을 센터 차원에서 구체화해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미디어의 의미와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상황에서 테크노밸리와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지역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성남미디어센터를 통해 생산된 미디어 콘텐츠를 더 많이 공유하고 확산할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콘텐츠 공유와 확산은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활동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 경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 케이블이나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협력하는 방안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남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더욱 뜻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2년 반여 동안 성남미디어센터를 만들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성남미디어센터의 더욱 큰 융성과 발전을 기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주요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10년의 발자취

- 아카데미
- 성남미디어센터
- 성남어울리오

2005

- 10 성남아트센터 개관기념 무료특강

2009

- 01 아카데미 학기제 변경 운영
- 02 아카데미 2009년 1학기 수강생 1,000명 돌파

2010

- 03 무료 피아노교실 '칸타빌레' 운영

2011

- 03 성남미디어센터 설립 기본 계획 수립
- 09 미디어센터 건립추진 대화 모임 개최(2회)
- 09 성남어울리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11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 10 성남어울리오 도촌오케스트라 출범

2012

- 02 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미디어센터 공사 실시설계
- 06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공사 본계약 체결
- 07 시범사업 계획 수립 (미디어교육, 상영, 커뮤니티 사업 등)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공사 착공
- 11 미디어센터 운영규정 및 세칙 제정
- 12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공사 준공

  성남미디어센터 개관

- 04 토요 가족프로그램 '스낵데이' 운영

- 07 성남어울리오 수정윈드오케스트라 출범
- 12 아카데미 수강생을 위한 축제 진행

2013

- 01 무료 문화예술교육 '예그리나' 운영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실시
- 05 성남어울리오 가족오케스트라 출범

- 07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센터 설립사업 신청
- 09 성남시 미디어센터사업 선정

- 01 제1회 정회원 교육 및 시설장비 운영 시작 / 영화읽기 모임 구성

- 02 개관 기념 특강, 개관 기념 강좌 개설 / 마을미디어 시범사업 진행 (2개 마을, 4개 미디어)

  독립예술영화관, 담장없는 영화관 시작

- 03 1분기 미디어강좌 개강 / 시민제작단 모집공고

-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시작
- 04 큐브무료영화관 시작 / 시민제작단 1기 발표회
- 05 야외상영회 시작 (<메리다와 마법의 숲>, 율동공원)
- 06 경기도 다양성영화관 'G 시네마' 개관 / 상반기 우수영상물 상영회,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
- 09 시민라디오제작단 W.S.N.B '원더풀성남' 팟캐스트 방송 제작

- 10 제1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 영상콘텐츠공모전 시상식 개최
- 12 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개정

2014

- 03 노인 대상 추억의 영화상영 '청춘시네마' 개시
- 04 지역 SO(System Operator, ABN 아름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열린세상' 방송 송출, 시민제작단 영상콘텐츠 총 10회 방송
- 05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시작
- 10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 영상콘텐츠공모전 시상식 개최
- 01 계절강좌제 (겨울/봄, 여름/가을 학기) 운영
- 03 아카데미 2층 공간 조성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발전전망 연구> 실시

2015

- 03 성남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지원작 선정

  학교문화예술교육 시작 (오리초, 백현초, 대원초)
- 04 2014년 성남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시사회 개최(장편 <파란 입이 달린 얼굴>, 김수정 감독)
- 05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 (시민참여형 페스티벌 - 미디어체험, 가족영화상영)
- 08 중학생 대상 '꿈의 학교 - 뮤지컬교실, 영화제작교실' 개최
- 09 성남형교육 - 교과 연계 교육연극 수업 시작 (낙생초, 보평초, 성남초, 신흥초, 야탑고, 탄천초)
- 10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 (커뮤니티참여형 페스티벌 - 사진·영상공모전, 발표회 등)
- 06 2015년 아카데미 강좌평가 진행
- 07 2015년 2학기 개강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10년의 자취와 성과

1

누적 기록으로 보는 문화예술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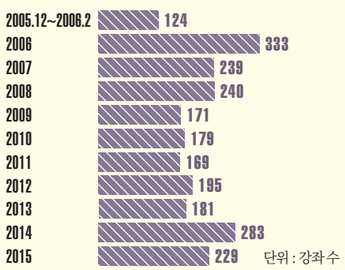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기여

※ 2015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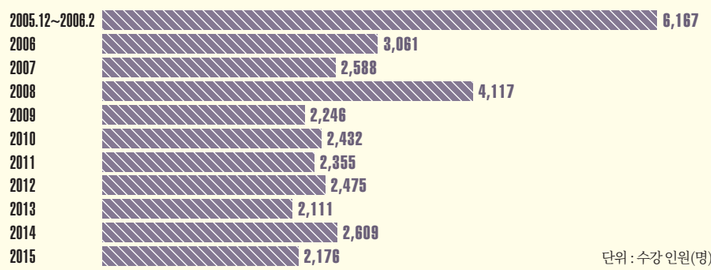
아카데미 역대 총 강좌 수 **2,343** 강좌	아카데미 역대 총 수강 인원 **32,337** 명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역대 총 강좌 수 **435** 강좌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총 수강 인원 **12,006** 명	시민제작단 영상 및 라디오 총 제작 편수 **195** 편

아카데미 연도별 강좌 수



아카데미 연도별 수강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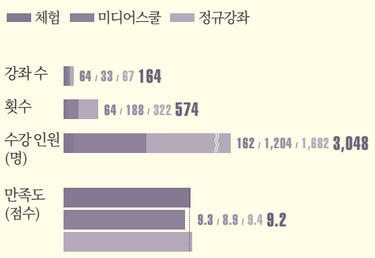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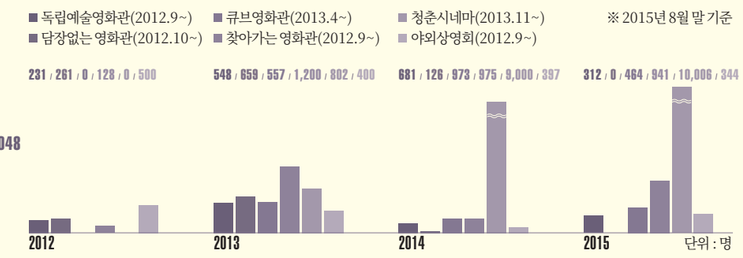
성남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교육 및 향유 기회 확대, 시민에 의한 참여미디어 확산 유도

2015년 미디어교육사업 현황



상영사업 관람객 수



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예술교육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만들기"

문화예술교육은 이제 취미나 교양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창의적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와 성남미디어센터를 통해 바쁘게 달려온 문화사업부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이정표를 세우고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나요?

아카데미를 통해 해마다 1,000~1,200명의 수강생이 배출되고 그간 많은 시민들이 아트센터로 발걸음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단의 역할이 교육을 해주는 역할, 즉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향유자를 연결하고, 공급전문가를 양성해서 시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은 첫째가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는 일, 둘째는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일, 셋째가 전문 인력, 즉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입니다.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향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개관 3년째인 성남미디어센터는 비교적 빨리 정착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요인이 주효했을까요?

미디어센터는 처음부터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라는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하자, 즉 퍼블릭 액세스를 실현하자는 방향이지요. 건립 전에 미디어교육과 정책 등에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공간과 시설, 장비까지 준비할 수 있었어요. 시민제작단 같은 경우 개관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요.

문화사업부의 개별사업들 중 변화하거나 보강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카데미는 지역의 다른 교육기관들과 중복을 줄이고 독창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들, 그리고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립영화제작지원은 재단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연계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경험을 쌓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분야에서 교육청이나 기업 등과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SECTION 3

10년을 바라보는 10개의 시선

개관 1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을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했습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을 함께 만들어온
시민 여러분, 문화예술 애호가와
전문가, 재단 안팎의 구성원들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통해
세계 속에 우뚝 설 생활문화 수도
성남의 밑그림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티네 콘서트와 오래 함께한 관객 김은희

"10년을 함께한 공연인데도 늘 특별합니다"

초로의 부인이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괜히 차를 두고 왔나 잠깐 후회했지만 콘서트홀에 들어서니 그런 생각조차 싹 사라지고 공연을 앞둔 설렘만 남는다. 브런치 도시락과 음료를 받아 들고 빈 의자를 찾아 앉아서는 공연 안내책자를 펼친다. 올해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다섯 번째 만나는 슈베르트. 가곡의 왕으로만 익숙하던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을 들으며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갈수록 커진다.

김은희 씨가 마티네 콘서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6년,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낮 11시에 열리는 클래식 콘서트라니, 주부로서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잠깐 여유를 찾기에 제격인 콘셉트가 처음부터 마음을 사로잡았다. 해설을 통해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도 좋았다. 무엇보다 유명하고 익숙한 음악만이 아니라 색깔 있는 기획으로 새로움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의 매력이다.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연주는 특히 새로운 시도예요. 이런 기획공연을 해주면 비전공자인 저로서는 몰랐던 것들을 공부하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지요."

10년 가까이 마티네 콘서트와 함께하면서 많은 지휘자와 진행자를 만났다. 각각의 개성과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 싶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공연 감상을 쉬고 싶었던 적은 없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즐기게 되는, 마티네 콘서트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는 곳 가까이에 성남아트센터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아트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서울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성남아트센터 유료회원 최다 예매자 오경현

"성남아트센터는 나의 문화적 긍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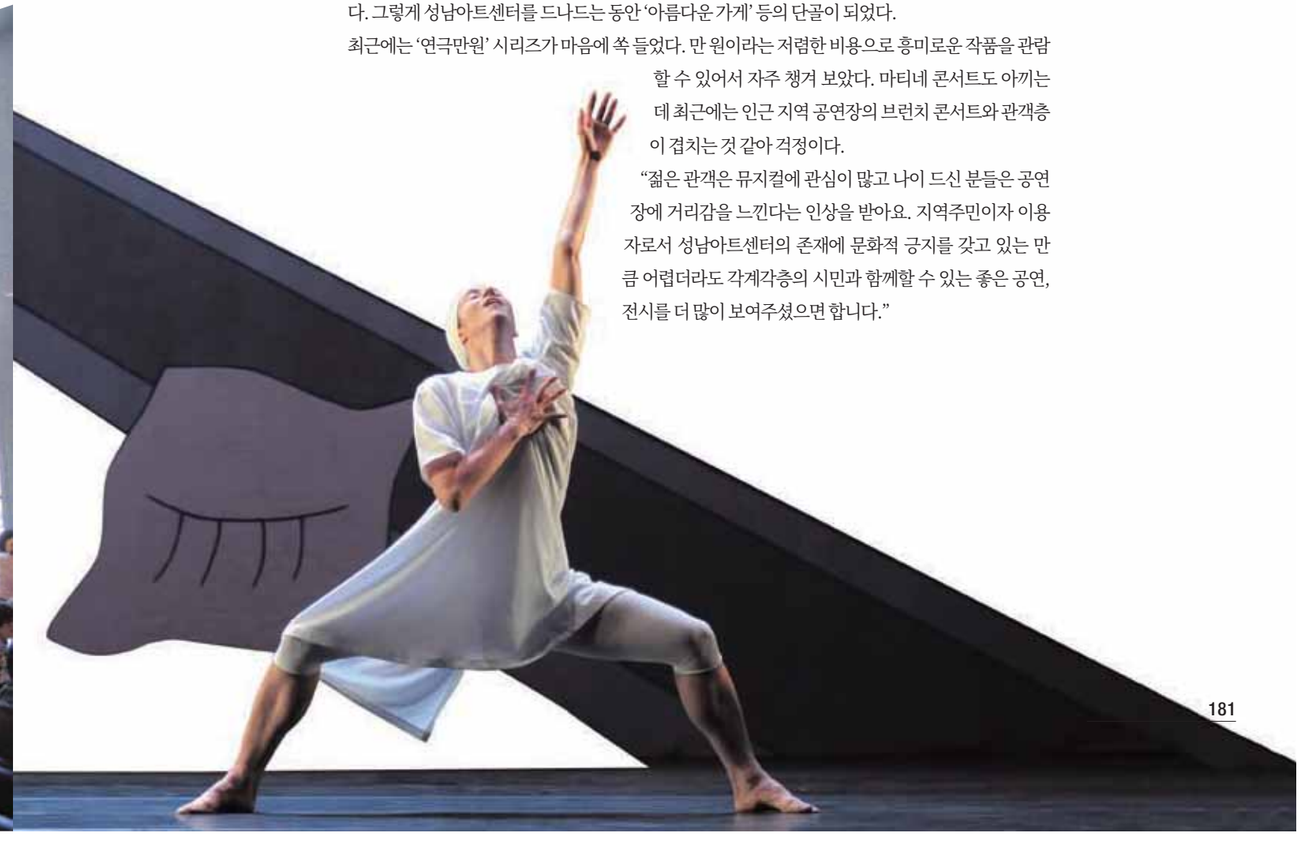
유료회원이란 좋은 공연과 전시가 열릴 때 언제든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성남아트센터의 든든한 동행이다. 오경현 씨는 6년 전 처음 성남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남아트센터 유료회원이자 가장 많은 티켓을 예매한 관객이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만 찾아봐도, 2012년 말부터 2015년 현재까지 꾸준한 예매 기록을 갖고 있다.

"성남에 살기 전에도 공연을 보러 종종 왔었는데 분당으로 이사한 뒤 본격적으로 다니자 싶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이후로는 좋은 공연이 많아서 자주 예매하고 관람했지요."

오경현 씨는 클래식 음악과 무용에 관심이 많다. 2008년 구스타보 두다멜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2010년 마츠 에크가 현대적으로 연출한 리옹 국립오페라발레단의 <지젤>이 특히 인상 깊었다. 초기에 비해 클래식 공연이 줄어든 느낌이라 아쉽다는 그는 좋은 공연이 더 많아져서 유료회원 혜택을 알뜰히 활용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사실 오경현 씨가 유료회원이 된 결정적 계기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이었다. 오페라·무용평론가 유형종의 강의를 즐겨 들었고 지금은 미술강좌를 듣고 있다. 그렇게 성남아트센터를 드나드는 동안 '아름다운 가게' 등의 단골이 되었다.

최근에는 '연극만원' 시리즈가 마음에 쏙 들었다. 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흥미로운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서 자주 챙겨 보았다. 마티네 콘서트도 아끼는데 최근에는 인근 지역 공연장의 브런치 콘서트와 관객층이 겹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젊은 관객은 뮤지컬에 관심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공연장에 거리감을 느낀다는 인상을 받아요. 지역주민이자 이용자로서 성남아트센터의 존재에 문화적 긍지를 갖고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공연, 전시를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미디어센터 실버영상제작단 김윤종

"이참에 영화감독으로 데뷔해볼까요?"

실버영상제작단 모집 공고를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또 열정적으로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그저 무얼 하고 놀까 궁리하다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난감했던 적도 있다.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정기적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의무가 버거울 때도 있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동료 노인들을 독려해 어엿한 작품을 완성하는 감독이 되었다. 2014년 성남미디어센터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황혼의 로맨스를 그린 다큐멘터리 <나는 아직 사랑을 꿈꾼다>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단편영화를 완성해 단독 상영회까지 열었다. 과정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창작한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즐거움까지 알아버렸다. 동료들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까지 다 하고픈 욕심이란 끝이 없다. 단 한 가지 '연기'만 빼고.

"실버영상제작단이 좋은 이유는 많아요. 특히 성남미디어센터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지원체계가 좋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교육을 포함해 영상작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작업하는 것도 좋고, 작업하지 않을 때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즐겁습니다."

김윤종 씨는 환경·도시정보 분야 연구원이었다. 40년 넘게 서류와 씨름하며 살아온 그는 실버영상제작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문화라는 것, 특히 미디어를 만든다는 건 원래의 나와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새롭고 흥분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성남미디어센터에 바라는 것이 있는지 물으니 어려운 편집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고급 편집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 '실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아카데미 어린이 성악 강사 이연정

"꼭 가고 싶은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의 어린이 성악 강좌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다. 아이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처음 태어난 듯 새롭게 자기를 알아간다. 호흡하는 법, 소리 내는 법,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아이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연정 강사는 성남아트센터 개관 당시 초등학생 성악 강좌를 맡았고 3년 전 유아반을 신설했다. 아이들이 여러 동요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뮤지컬 무대에 서면서 내실 있는 강좌로 입소문이 나 아이 교육에 까다로운 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연정 강사는 아이들이 실력을 쌓고 성과를 내는 것, 노래를 통해 표현력이나 창의력을 계발하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상상력을 키우며 즐겁게 노래하는 일은 무척 중요해요. 단, 즐겁게 노래하되 단순히 놀러 오는 곳으로 만들지는 말자고 생각해요. 어리지만 진지하게 수업하고 연습할 수 있어요. 꼭 와야 할 이유가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이연정 강사의 이런 방침은 지역에서 점점 늘어나는 문화예술강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길어야 석 달 과정으로 운영되는 여느 강좌에 비해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길게, 깊게 보면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께서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셨으면 해요. 성남문화재단은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왔고 10년 넘게 강사로 참여해온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부모님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실력에 대해 조급해하는 부모도 있지만 이연정 강사는 조급해하지 않을 생각이다. 꼭 찾아와서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통한다면 성과는 조금 늦더라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아트센터 블로그 기자단 최정호

"시민 눈높이로 파워 블로그를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면 정제된 소스보다 더 눈길이 가고 쉽게 읽히는 페이지가 있다. 보는 사람과 같은 눈높이로, 같은 언어로 작성된 정보들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네티즌과 함께 블로그나 SNS 같은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성남문화재단도 2013년부터 시민을 블로그 기자단으로 위촉해 시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다.

1기부터 지금까지 성남아트센터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최정호 씨는 정보를 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쪽에서도 블로그라는 매체가 가진 특수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블로그 기자단 합류 이전부터 파워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는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 사진작가라서 남들보다 좋은 사진을 찍어 올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블로그 운영의 핵심은 키워드이다.

"블로그에 공연이나 전시를 소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블로그 방문자가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오게 만들고 싶다면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글이면 충분하지요. 이것들을 잘 엮어서 네티즌이 즐겨 찾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키워드가 검색 결과로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기자로서 최정호 씨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시민이 성남아트센터의 좋은 공연과 전시를 보러 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취재는 파크 콘서트나 피크닉 콘서트,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여는 소규모 공연들이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의 열기가 좋다. 예전에는 카메라를 피하던 시민들이 성남아트센터 블로거라는 설명에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그럴 때는 무거운 카메라를 든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가고, 카메라 앞의 시민들보다 더욱 환하게 웃으며 셔터를 누른다.

성남아트센터 자원봉사자 윤희경

"봉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갑니다"

자원봉사라면 흔히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말한다. 윤희경 씨가 '예술사랑봉사회'의 1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무렵 성남아트센터는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느낀다. 애정으로 성남아트센터와 동행해왔고 성남아트센터가 있어서 행복했다. 아마도 그래서 지난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원봉사를 지속해올 수 있었을 것이다.

초기의 봉사활동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공연 안내 등 기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도슨트 봉사 같은 전문적인 일도 했다. 봉사자들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가르쳐주며 함께 학구열을 불태웠다. 전문가 수준의 설명은 아니었을 텐데도 이렇게 훌륭한 도슨트는 처음이라고 손을 잡아주는 관객들도 있었다. 같은 시민 입장에서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관객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려 했던 진심이 통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시회를 찾기 바라는 마음에 지하철을 타면 포스터를 붙이거나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재단에서 봉사자들에게 홍보물을 만들어보겠느냐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 봉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처음 해보는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는 동안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다.

"아트센터 운영에 점점 체계가 잡히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전보다 줄었어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웃음) 당연히 그렇게 발전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일은 전보다 적어도 성남아트센터는 더 자주 찾고 있다. 이제는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놀기도 하고 공연이나 전시를 본다. 윤희경 씨는 봉사의 새로운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우선은 자신과 같은 주부들에게 아트센터를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놀기 좋은 곳이라고 알리는 일에서 출발하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전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10년 전 마음 그대로….

사랑방문화클럽 활동가 정길선

"마을로 들어가면 풍성한 교류가 시작됩니다"

정길선 씨는 1984년부터 성남시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단소와 가야금, 풍물을 지도하고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아마추어 국악인으로 결성한 세경국악단 등을 이끌면서 성남시의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성남문화재단이라는 동지를 만났다. 사랑방문화클럽 초창기부터 팀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고민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이 개별 동호회 활동을 넘어 연대하는 길,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는 길을 생각했다. 이후 운영위원장으로 합류해 사랑방합창단을 만들었고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퍼레이드를 시도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생활예술 활동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위한 것인지, 비전문가가 중심에 설 수 있는지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각 개인이 어떤 자세로 시민과 화합해나가느냐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 역시 전문가이지만 시민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길선 씨는 여러 지역을 찾아가 활동하면서 다양한 반응과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일단 만나기 시작하면 풍성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벤트로 진행되는 문화행사보다 소규모라도 꾸준히 지속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삶 밑바탕으로부터 문화가 숨 쉬는 생활예술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는 바람이다.

"성남문화재단에 바라는 것은 모든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 생활문화지원센터 같은 거점이나 생활문화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곳을 통해 생활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권경희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를 더 선하게 만듭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실 풍경을 바꾸어놓고 있다. 교과서에 빼곡히 적힌 글자나 숫자와 씨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몸을 움직여 사물의 모습과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는 수업이 아이들을 생기 있게 만든다.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권경희 장학사는 학교수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규교사 한 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수업에서 여러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업으로 인식 전환이 생기는 중이에요. 학생을 수업의 중심으로 배려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형교육지원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증된 예술강사를 지원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있고 예술강사도 별도의 인력풀이 있어 선발 과정에 믿음이 갑니다. 문화재단은 특히 문화교육의 방향과 시류를 읽는 감각이 한발 앞서가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꿈의 학교나 교육청 연계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은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작업이고 수업 몇 시간, 공연 감상 몇 회로 교육성과를 말하기는 힘들다. 예산 투입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고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는 점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일 것이다. 권경희 장학사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학생들의 인성 속에서 싹틀 거라고 믿는다.

"성남의 학생들은 좋은 의미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자기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이 성남시의 장기적인 동력이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이 리더가 되고 훌륭한 팔로우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를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마티네 콘서트 지휘자 최수열

"성남아트센터만의 마티네, 늘 새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를 이끌어온 지휘자 최수열의 작업은 어쩌면 선입관에 맞서는 일이었다. 그는 가장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마티네 콘서트에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주도했고 관객을 설득해왔다. 최수열은 아침에 어울리는 곡을 찾기보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든 시대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자 했다. 해마다 큰 주제, 달마다 작은 제목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신선한 조합을 만들어냈다. 그는 2015년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연주에 이르기까지 모험과 도전으로 가득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애써온 성남문화재단과 무대 뒤에서 일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청중의 유연한 반응 덕분에 마티네 콘서트의 색깔을 만들어올 수 있었다고도 했다.

"현대음악극을 무대에 올린 달에는 연주 후 로비로 나가 관객들에게 소감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으니 또 다른 시도도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 해의 모든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시즌권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은 지휘자 최수열에게 무척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는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편안함과 유연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실험과 시도만으로는 저도, 관객도 어느 순간 힘들어질 겁니다. 음악과 무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장치를 통해 관객 여러분께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요. 2013년부터 2년간 함께했던 카이 씨, 올해부터 만나는 김석훈 씨의 진행은 마티네 콘서트를 유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고 자랑거리지요. 무엇보다 거침없이 도전하고 관객과 교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존재는 음악계와 시민에게 무척 소중합니다."

책테마파크와 함께한 일본 조각가 기쿠치 다카시

"성남과 아트센터, 시민 모두가 최고입니다"

30년 넘게 한국을 알았고, 8년 전의 방문을 계기로 성남을 또 다른 고향처럼 여기며 제 2의 성남시민을 자처하는 이가 있다. 일본의 조각가 기쿠치 다카시菊池孝 씨이다. 성남은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많은 친구가 사는 곳이며 문화와 경제가 고르게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도시이다.

기쿠치 다카시 씨가 처음 성남을 찾은 계기는 2007년 책테마파크에서 열린 '한국·일본 현대미술 교류전'이었다. 그는 이 전시회가 열린 공간과 시민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멋지고 개성적인 책테마파크의 디자인과 공원의 아름다운 경치에 압도되었어요. 크진 않아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작가 입장에서 전시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 야외에서 열린 공연에 열정적으로 함께한 청중의 모습, 작가강연회에서 진지하게 강연을 들으며 저조차도 놀랄 만큼 심도 있는 질문을 쏟아내던 시민의 문화 수준에도 감탄했지요."

당시 기쿠치 다카시 씨는 책테마파크 입구의 연못에 목조 대작을 설치했다. 일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과 오사카쇼인여자대학 출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해마다 성남시와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을 감상하거나 백제 시대 문화유적, 자료를 조사한다. 책방을 찾아가 책이나 CD를 구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책테마파크 개관 때 처음 본 율동공원의 번지점프대에 무척 놀랐는데 언젠가 꼭 한 번 도전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항상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사는 일본에도 성남과 같은 아트센터가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남문화재단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종덕 대표이사 2004~2010
성남문화재단, 탄생

"성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요람"

이종덕 전 대표이사는 2004년 12월 1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겸 성남아트센터 사장으로 부임, 6년간 재임하며 창립 초기의 기틀을 다졌다. 당시 성남아트센터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수도권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문화예술행정의 달인'으로 통했던 이 전 대표이사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이 전 대표이사는 서울예술단 이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역임한 '예술행정 CEO 1세대'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중 성남發 화제의 기획공연과 전시, 사랑방문화클럽으로 대표되는 창의적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재단의 성장을 이끌었다.

성남문화재단이 벌써 설립 11주년, 성남아트센터는 오는 10월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종덕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의 탄생부터 6년을 재임하시며 발전의 기틀을 다져주셨는데요, 탄생 당시를 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하실 듯합니다. 처음 재단이 설립될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2004년에 성남 측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남에 문예회관을 짓는데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와서 일해달라"는 얘기였지요. 문화계 공직을 마무리하고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내자는 마음이었는데 갑작스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오랜 세월 몸담았지만 '無'에서 새로운 공연장을 맡는다는 건 제게도 상당히 부담이 컸어요.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당시만 해도 이 터는 황무지 산자락에 불과했지요. 훗날 예술의 온상으로 변화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류 시민회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니까요. 그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눈밭의 소처럼 묵묵히 밭을 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지요.
다만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성남은 예술의 불모지였고, 지역 간 격차도 컸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세 지역 중 분당구는 마치 별도의 시와 같은 분위기였지요. 성남이라는 도시의 정서에 대한 이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융합이 시급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임기 초반에는 지역 정서를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해 힘든 점도 많으셨겠지요?

성남아트센터 개막식이 열린 자리였습니다. 종교계 원로이셨던 고 강원용 목사, 배우 문희와 최은희, 신상옥 감독, 이세중 변호사, 디자이너 앙드레 김, 교육자 정희경, 연극인 최범석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각계 명사를 200여 명 가까이 초청해 성남시라는 브랜드를 알리려 했지요. 그런데 막상 지역인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역을 배제한 채 외부인만 주목받는 자리가 되었다고 오해하신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성남시라는 브랜드를 알리려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지역을 먼저 이해하고, 지역의 인사들과 더 활발히 이야기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지요.
'성남아트센터'라는 지금의 이름이 탄생하는 데도 약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과 의회에서는 아트센터라는 영문 명칭보다는 '성남예술의전당'이나 '성남문예회관'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세계 공연계를 선도하는 유수의 공연장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케네디센터, 링컨센터, 바비컨센터와 같은 곳들이었지요. '성남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면 성남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역시 확 바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성남시 출연 기관이다 보니 시, 또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빼놓을 수 없었겠지요. 당시 재단과 시, 시의회의 관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장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파트너십도 중요합니다. 성남시, 시의회, 유관 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들까지 지역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호흡이 일치해야만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저희 재단의 경우 성남시에서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주고 일정 부분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었지요. 시의회 역시 초반에는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점차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성남이 서울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공연장 운영과 문화재단 활동을 함께 시행하는 국내 최초의 모델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쌍방향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요?

재단 활동을 공연장 경영과 문화정책 분야로 구분, 운영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술국과 문화사업국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문화사업국은 시민과 지역을 위한 문화정책사업, 예술국은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곳이니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성남문화재단에, 또 성남아트센터에 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곳은 도대체 뭘 하는 데야?' 하고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상생하며 더불어 가야 한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민한 부분이 성남아트센터 공간을 활용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화합이었습니다. 우선 성남시에서 활동 중인 1,000개가 넘는 시민클럽을 찾아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조직, 성남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과 네트워크를 이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동호인들과 뜻을 모아 지역 의료기관에서 봉사연주를 비롯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도 실시했지요.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 마인드를 꽃피우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모두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관

전에도 지역 속에서 발로 뛰는 홍보 활동을 여러 색다른 방법으로 실시하셨지요?

현대무용가 이정희 씨와 그 무용단에게 요청해 정자동의 탄천 다리 위에서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알리는 거리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멈춰 설 수 있도록 말이지요. 공연을 지켜보며 성남에 공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플래카드도 게시했어요. 강지원 변호사,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등 사회 명사들과 함께한 <명사와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링> 캠페인을 통해서는 200여 명의 시민과 자전거를 타고, 명사분들의 짤막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지요. 모두 시민 생활 속에 재단과 아트센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웠던 점은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시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생성되면서, 의회에서도 점차 저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성남만의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분께서 격려해주셨다고 봅니다.

1, 2
성남문화재단 출범식, 당시 임시 사무실에서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

3
현대무용가 이정희의 무용단은 정자동 탄천 다리에서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알리는 거리 공연을 펼쳤다

4
탄천에 걸린 <명사와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링> 현수막. 역시 개관 전 시민에게 재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5
성남아트센터 개관식에서 예술계 명사들의 핸드프린팅을 선보이는 고 이대엽 성남시장, 이종덕 전 대표이사

성과도 많았지만, 이 성과를 이룩하시기까지 남모를 부담도 크셨으리라 봅니다. 초기에 가장 큰 압박감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성과로는 어떤 점이 기억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관객 동원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었지요. 탄천페스티벌이나 성남국제무용제도 많은 분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자리, 또 국제적인 화제작을 통해 성남시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였어요.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성남 단독' '한국 초연' '자체 제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국내 여타 공연장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화제작을 잇달아 선보였고, 최고의 작품들을 선보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파우스트>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와 같은 자체 제작 오페라는 물론이고, 성남의 역사적인 상징을 담아 만든 뮤지컬 <남한산성>이 2010년 한국뮤지컬대상 특별상을 수상, 이 상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는 점도 큰 긍지입니다. 특히 개관 5년 만에 540만 관객을 달성했을 때에는 성남시민 5배수가 넘는 관객들이 이곳에서 문화를 향유했다는 점에 감격했지요. 6년 동안 성남을 알리고 단시간 내에 간판 극장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아직까지 뿌듯한 자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대표이사로서, 재임 기간을 자평하신다면 어떠신가요.

예전엔 '예술의전당에 있던 이종덕'이었는데, 성남문화재단을 퇴임한 뒤에는 '성남에서 온 사나이' '성남아트센터 사장을 역임한 이종덕'이라고들 하시더군요. 그 표현이 참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물론 아직도 성남아트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이라고 인정하는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반석에 올린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아쉬움은 재임 기간에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 시설이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공연장이란 꼭 공연을 보기 위해서만 오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들이 몰리는 광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본다면 막대한 예산 부담 없이도 실현 가능하리라 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향후 10년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 로버트 드 니로의 뉴욕대 졸업식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술가가 되려면 돌발적인 일종의 '똘끼', 남에게 없는 기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열정을 가져야 하고, 이런 열정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조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이성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후대 대표이사님들 모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셔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맞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만의 일관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이사 2011~2012
성남문화재단, 지역과 숨쉬는 공간

'문턱 없는 극장, 찾아가는 예술'

안인기 전 대표이사는 철저히 '대중'을 위해 살아온 인물이다. KBS에 몸담았던 수십년, <전국노래자랑><가족오락관><유머1번지> 등 국민 프로그램들이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 대중을 위한,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대중의 취향을 읽어내는 작업이 일상이었던 경력 그대로, 안 전 대표이사는 '대중성'과 '시민친화' 코드를 성남문화재단에도 접목시켰다. 시민과 어우러지는 공연장, 지역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문턱 없는 열린 공연장을 꿈꾸었던 이야기를 들어본다.

KBS 예능국의 프로듀서로 긴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중과 어울리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듯합니다. 재단 대표이사 취임 후 시민친화적인 공연을 진행하시는 데 이런 경력이 영향을 주었겠지요?

그동안 성남아트센터가 선보여온 수준 높은 예술 콘텐츠들은 그 특성을 살려 진행하되, 더욱 많은 시민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풍성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아무래도 그간의 방송국 인맥을 활용해 대중친화적인 출연진들을 더욱 합리적인 개런티로 초청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연극

취임 후 가장 강조하신 점이 "성남아트센터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의지였는데요. 모란시장과 탄천 등 성남 곳곳을 찾아가는 게릴라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속으로 뛰어드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찾아오십시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들고 관객을 찾아가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직된 형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틀을 깨는 자유로운 형태의 공연, 멍석을 깔고 뛰어노는 즐거운 동네 굿판 같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었지요. 성남아트센터 안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 보여드리는 다양한 장르의 틈새 공연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마술이나 비보이 공연, 신나는 비트의 일렉트릭 현악사중주도 지역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한 아이템이었지요.

만원'도 즐거운 코미디 작품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코미디라 해서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심오한 작품과 성격은 다를지라도, 코미디 역시 웃으며 사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지요.

2012년부터 시작된 파크 콘서트와 피크닉 콘서트는 이제 성남을 대표하는 야외 콘서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파크 콘서트와 피크닉 콘서트의 시작을 지켜보시고 본격화시키셨는데요.

파크 콘서트와 피크닉 콘서트는 오랫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이어질 멋진 프로그램이지요. 넓은 야외에 다양한 뮤지션을 초청해서 수많은 시민과 함께 즐긴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남만의 브랜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무대는 정말 천혜의 공간입니다. 공연장의 시설도 훌륭하지만, 자연스러운 천연 구릉을 이루고 있는 넓은 잔디밭은 정말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자연 그대로의 객석이에요. 겨울이 되면 눈썰매도 탈 수 있는, 진정한 파크 콘서트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야외공연장의 하드웨어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더욱 전문적인 무대를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남의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는 2008년 탄천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았던 인연도 있으신데요. 성남에 어울리는 대표축제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축제란 꼭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전문 아이템의 축제는 소규모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다만 성남이 역사가 짧은 도시이다 보니 강력하게 통합된 공통의 주제를 찾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한산성과 같은 특정 유산을 내걸기에는 하남과 광주가 얽혀 있어 조금 명분이 약하다는 취약점도 존재해요. 이곳을 찾아오는 누구나 폭넓게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대중적인 테마를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성남은 서울, 특히 강남과 인접한 만큼 지리적 조건은 최고라고 봐요.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탁월하지요. 모든 면에서 기본 인프라가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게 성남아트센터라는 좋은 공연장도 있지요. 이런 모든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표축제의 탄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남과 성남아트센터에 애정을 지닌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탄천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어떨까요? 서울을 떠올리면 청계천의 이미지가 따라오듯, 성남도 탄천을 활용하면 문화적으로,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또 성남아트센터가 '앞마당이 활짝 열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외 주차장의 벽을 허물고 인도 전체를 하나의 열린 광장처럼 만든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신시가지나 본도심 같은 용어들로 지역을 구분하는 대신 모두가 하나의 시민사회 속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관객을 즐겁게 하려면 일하는 직원들부터 신이 나야 하지요. 잘 노는 직원이 일도 잘 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좀 더 탄력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파격과 개혁이 어색하지 않은 창조적인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해주면 재단의 발전은 저절로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 2013~2014
성남문화재단, 시민과 호흡하는 예술

'극장은 시민의 광장이다'

예술가이자 행정가, 학자이자 교육자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신선희 전 대표이사는 성남문화재단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이자 예술가 출신 수장이다.
서울예술단 이사장 겸 총감독과 국립극장장, 서울예대 석좌초빙교수를 역임한 신 전 대표는 국내 정상의 무대미술가로서의 풍부한 현장 감각, 대학 강단에서 오랫동안 극장사와 세계공연예술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재단 운영에 자연스럽게 접목시켰다.

신선희 대표이사님의 재임 기간을 떠올리면 오페라하우스 2층에 개관한 세계악기전시관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세계악기전시관 개관 이후 진행된 다국적 음악인들의 사계절 음악회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떠올려보면, 이를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그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공연 관람과 무관하게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더불어 교육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에서 제 뜻에 공감해주셔서 도움을 주셨고, 악기 구입 역시 외교 기관은 물론 지역의 악기장님,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의미 깊은 기증으로 동참해주셔서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더 커졌지요.
사실 저는 단순한 전시보다는 기증 악기에 담긴 사연을 직접 얘기하고 연주하며 자연스레 공연으로 이어지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함께 교감하고 흥얼거리며 배움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이 있다면 이 역시 또 하나의 시민예술로 승화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공간을 통해 극장이 전문가의 예술만 올리는 곳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만남의 광장이라는 점을 널리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민 누구나 음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즐기고 만들 수 있는 곳, 자신의 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교감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참 좋겠어요.

재임 기간에 소개된 프랑스 툴루즈 국립극장의 연극 <1,000프랑의 보상>과 같은 작품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할 수 없었던 연극이기도 했고, 개관 이후 선보인 화제작들 중 드문 해외 연극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선정하신 작품이신지요?
개관 초기에 비해 화제작들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때가 있어서 더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현대예술의 프런티어에 선 작품, 서울의 공연장에서 선보이지 않은 앞선 작품을 말이지요. 음악에 대한 취향은 보수적이라 혁신적인 현대음악이 대중적 성공을 거두기 어렵지만, 무용은 컨템퍼러리에 대한 대중의 호응이 높아요. 전라 무용으로 화제가 된 발레 뒤 노르 컴퍼니의 <비극>처럼 요. 연극도 재미를 갖추고 있다면 어렵다는 편견 대신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우수한 해외 연극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연극계 전문가들과 일반 관객 등 폭넓은 관객층의 호평을 받고, 출판사와 협력해 원작 희곡을 소개할 수 있었던 점 등 두루 유익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다만 재임 기간에 장르별 균형을 맞추어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를 보여드린다는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민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예술의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합니다.
스스로 콘텐츠를 창조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술을 뜻해요. 이를 위해서는 극장문화, 극장예술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극장에 상주단체로 자리 잡고 시민과 소통하며 작품을 제작해나간다면 이상적인 발전의 기틀이 되겠지요.

장기적인 극장의 발전을 위해 상주단체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술가는 그 시대의 정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극장은 일단 작품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는 성남아트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제작극장을 지향해야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성남과 성남아트센터의 이름을 건 작품이 많아질수록 국제 교류 가능성도 한층 다양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당장 적자가 났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지 못한다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문화의 발전은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만이 지닌 경쟁력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성남미디어센터를 활용한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설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탁월하지요. 그야말로 시민예술의 본산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도 일종의 극장이라고 생각해요. 아트센터의 공연예술과 미디어센터의 시민예술, 미디어아트를 컬래버레이션한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지요.

개관 10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성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공고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발굴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각 직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편안하게 정착된다면 더욱 이상적이겠지요. 마지막으로 극장은 공연이 없어도 항상 북적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양한 체험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 시민의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정은숙 대표이사 2014.12.1~
성남문화재단, 모두를 위한 문화도시

"시민, 관객, 예술을 위한 공간"

정은숙 대표이사는 30년간 국내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해온 공연예술계의 산 증인이자 국립오페라단 단장,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석좌교수를 역임하며 문화예술계 발전에 힘을 기울인 주인공이다. 특히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재임 당시 이전 대비 사업 규모 4배, 공연 횟수 6배, 자체 수입 4배 확대의 성과를 기록하며 예술행정 전문가로서 인상적인 자취를 남겼다. 예술가로서, 또 예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행정가로서 정은숙 대표가 지금 현재 성남에서 펼쳐가는 비전을 들어보았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새롭게 느끼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공연전시사업으로 대변되는 성남아트센터의 역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라 더욱 책임감이 큽니다. 우선 공연장 운영의 측면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르와 수준 모두 한층 다양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난이도나 예술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 입문자용, 대중예술까지 다양성을 강화하는 거지요. 성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공연장, 이곳의 공연은 믿고 볼 수 있다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다시금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문화를 주도하며 나아가는 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정책사업의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느끼시는지요?

재단 출범 이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특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생활예술 대표 브랜드로 전국에 벤치마킹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러나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모두가 생활 속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 누구나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저희가 시민사회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재단과 손을 잡고 시민예술의 창조자가 된 분들이 그 재능과 즐거움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매개자가 되어주신다면 도시 구석구석에 예술이 흐르는 날이 머지않으리라 봅니다.

이달에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7년 만의 제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극장으로서, 내년에도 성남만의 제작작품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사랑받는 <라 트라비아타>로 대중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내년에는 바그너의 <탄호이저>를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작품, 성남만의 색깔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바그너라는 이름만으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탄호이저>야말로 관객에게 가장 직관적 감동을 안겨주는 음악입니다. 성악가들이 노래하기에는 어렵지만(웃음) 정교하고 치밀한 구조 속에 지극히 낭만적인 선율과 감동적인 울림이 있지요. 타락한 생활 속에서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정성으로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긍정의 힘을 더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설령 작품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순례자의 합창'의 장중한 울림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초기 수준 높은 제작 오페라로 많은 화제를 모은 이후 오랫동안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지역극장으로서 제작 오페라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오페라는 어렵다" "소수만을 위한 예술에 왜 비싼 예산을 들여야 하나?" 모두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관점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극장과 시설이 있다면 그곳에서 선보일 수 있는 모든 장르의 공연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전문공연장에 대중공연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초기에는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다양한 관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된 거지요. 좋은 대중공연과 마찬가지로 좋은 오페라를 알려드릴 책임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산과 기타 문제는 공동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바람직하겠지요. 오페라 제작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는데 단 며칠만 공연하고 없앤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동제작으로 레퍼토리 시스템을 정착하는 작업이 국내 현실에 합리적이고, 관객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청소년과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올해 첫선을 보인 '앙트레 콘서트'는 입문자들이 순수예술 장르를 친근하게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수준과 장르를 담아내며 성남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려고 해요. 앙트레와 별개로 5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주간을 지정해서 한 주 내내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려 합니다. 대중음악 외에도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순수예술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공연을 만드는 저희가 정성을 담는다면 분명 관객이 좋아하실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공연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시는지요?

성남아트센터의 모든 공간은 시민의 장소입니다. 프로그램과 공간 모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요. 공연장뿐 아니라 큐브미술관, 빛의 계단, 춤의 광장 등 아름다운 공간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오셔서 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뿌듯한 마음으로 객석을 찾을 수 있는 공연을 위해 모든 것을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 관객이 중심이 되는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을 기대해주십시오.

공연 및 전시사업 특별 좌담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성남아트센터만의 경쟁력 찾기”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공연과 전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성남아트센터를 문화예술계가 주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왔다. 다가올 10년과 그 이상의 지속 가능한 성남아트센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특별 좌담에서 짚어보았다.

특별 좌담 진행
일시와 장소
2015. 8. 7 성남아트센터 뮤즈홀
참석
김영실(성남예총 회장, 문인화가)
김영호(미술평론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류태형(음악평론가, 前 <객석> 편집장)
심정민(무용평론가,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진행
이상균(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멀리서도 찾아오는 공연과 전시

성남아트센터는 100만 성남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기대와 수도권 아트센터의 불리한 위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출발했다. 개관 10년, 성남아트센터만의 기획이 돋보이는 공연과 전시사업은 문화예술 전문가와 애호가들의 호평을 이끌었고,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문화공간으로 성남아트센터의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균 성남아트센터가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 여러분과 문화예술계의 바람대로 잘 운영되어왔는지, 또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연과 전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셨는데 차례대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먼저 그간 성남아트센터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실 저는 성남시에 오래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 문화예술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성남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생기고 좋은 공연과 전시가 열리면서 우리 성남도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해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경우 접근성이 우수하고 환경도 좋아서 모두가 전시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었고요.

김영호 지난 10년간 잘된 전시를 꼽아보면 극사실주의나 팝아트 관련 전시가 돋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기획전을 하면서 지역 청년작가까지 아우르는 모습, 학술세미나를 여는 진지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로 성남아트센터 미술사업 인지도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류태형 음악계에서는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 문화예술 향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고양 같은 먼 곳에서 찾아오는 관객도 많고요. ‘멀지만 와서 본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공연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균 공연사업은 어떤 면에서 관객이 멀리서도 찾아오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류태형 크게 세 가지로 특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음악입니다. 당대악기로 들려주는 고음악 공연은 음악 애호가들이 환영하는 기획입니다. 다른 곳에서 미처 못 하는 시도를 성남문화재단이 발 빠르게 기획하고 선보였지요. 둘째는 꾸준한 오케스트라 공연인데 아무래도 클

이상균(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래식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획이고요. 더불어 수준 높은 솔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초빙해 무대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멀리서도 찾아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정민 무용계가 처음 성남아트센터에 주목한 계기는 2007년 장크리스토프 마이요의 <라벨르>와 키부츠댄스컴퍼니의 <태양이 닿는 곳에> 등의 국내 초연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후 중국국립발레단의 <홍등>이나 마츠 에크의 <지젤> 등을 거쳐 2013년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고요. 성남아트센터가 무용 공연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예술성과 화제성 높은 작품을 기획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공연으로 무용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니까요. 사실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의 경우 다른 극장이나 페스티벌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르기 힘든데다가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겼을 만한 작품인데 성남아트센터가 선보였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은 무용 공연을 기획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성남시에 오래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 문화예술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성남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생기고 좋은 공연과 전시가 열리면서 우리 성남도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해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성남예총 회장, 문인화가)

류태형 마티네 콘서트나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등 대중성이 강한 프로그램도 성남아트센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비슷한 콘셉트를 가진 프로그램을 여러 공연장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성남아트센터가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정민 사실 비슷한 작품을 다른 공연장에서 선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지켜보니 같은 작품을 가져와도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는 퀄리티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용이라는 공연예술은 공간성이 중요한데, 성남아트센터의 경우 대작의 작품성을 높이는 데 최적의 무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성남아트센터가 먼 곳으로부터 더 많은 관객이 찾아오는 공연장이 되려면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공연으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전에서 화제작을 공연하면 서울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보러 갑니다. 다른 공연장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현재 기획공연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감각과 전략

문화예술계가 주목하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는 성남아트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객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과 전시를 늘려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성남시의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아트센터 운영의 당위성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아트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서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성남아트센터가 무용 공연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예술성과 화제성 높은 작품을 기획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공연으로 무용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니까요. 2013년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는 난해하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여겼을 만한 작품인데 성남아트센터가 선보였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고 봅니다.
심정민(무용평론가,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김영실 예술사업의 수준과 효율에 대한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시민과 유리될 수 없고 그렇다면 시민의 눈높이를 먼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에요. 개관 때부터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선보였지만 성남시 수준에 맞추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술성과 대중성, 지역성과 세계화 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달까요.

김영호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고질적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세계적인 것을 찾지요. 성남아트센터가 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수혜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술가보다는 대중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술가를 소외한 대중 지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체 기획전과 대관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도 있고, 결국 예술가와 대중의 상생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정민 대중성을 지향한다고 해도 성남아트센터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예술적 수준입니다. 해외의 주요 예술극장들을 보면 핵심 사업은 예술성 높은 대작을 내세우고 이와 함께 작은 극장을 활용해서 지역민을 위해 대중적 포용력이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술성 높은 작품을 이해하고 선호하는 관객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차분하게 예술 관람 문화를 끌어올리는 것도 성남아트센터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극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균 기획 방향은 대중, 성남시민을 향하면서 시민의 예술향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심정민 무용 분야를 보면 성남아트센터는 최근 컨템퍼러리 댄스contemporary dance에 집중하면서 일반 대중이 보기에 난해한 공연을 빈번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컨템퍼러리 댄스는 전공자에게도 쉬운 분야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최근의 춤 경향입니다. 여기서 아카데미와의 연계를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페라나 영화처럼 무용도 감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전발레, 현대무용, 컨템퍼러리 댄스 등 무용의 여러 경향을 보고 듣고 느끼면 실제 무용 공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김영실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공연장이 점점 늘고 갈수록 관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 아트센터 운영의 고민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아트센터의 위치가 불리해서 다른 곳에 관객을 뺏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성남이 경기도권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하면 관객을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시를 보면 부끄럽지만 저도 이해하기 힘든 전시들이 있어요. 관객을 위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성남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남아트센터가 구상미술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골고루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수혜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술가보다는 대중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술가를 소외한 대중지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체 기획전과 대관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도 있고, 결국 예술가와 대중의 상생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호(미술평론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관객을 적극 유치하는, 지속 가능한 아트센터 만들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남아트센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타 공연장, 전시공간들과 관객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차별화된 공연과 전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과 기타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아트센터 운영은 무엇으로 가능하며, 관객이 찾아오는 문화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상균 공연과 전시 예산은 과거에 비해 줄었고 클래식 공연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대중성 높은 공연 위주로 진행되기 쉬운 대관사업이나 대중지향적인 공연, 전시를 늘려 수익을 추구하는 문제, 그리고 순수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문화재단의 입장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향후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심정민 대관사업의 질을 높이면서 활성화하려면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적극 후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원받은 예술가는 창작 발표를 위해 관련 문화재단의 공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태형 아트센터와 예술가의 매칭 프로그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상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상주단체나 예술가가 있으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대관해서 공연하고 성남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김영호 아트센터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이 아트센터를 충분히 찾아오고 있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비단 성남아트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게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을 봐도 낮에는 한산하지요. 공연예술은 밤의 예술이고 전시는 주로 낮에 보러 다니게 되니 관건은 관객이 미술관을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낮에 비어 있는 아트센터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공연과 전시를 연계해서 기획한다든지요.

류태형 공연 쪽에서는 마티네 콘서트처럼 비어 있던 시간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오후 서너 시나 한밤중같이 빈 시간대를 활용해 공연장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경영 관점에서 보면 콘텐츠는 30, 나머지 70은 홍보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시민교육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인 대상 아카데미는 부속사업이 많이 생겼지요. 그 영향으로 카페와 식당이 활발해집니다. 어린이 영재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낮 시간 관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댈 것은 아동,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체험을 많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에는 저학년 때부터 1주일에 2회 무료로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학교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심정민 낮 시간에 여성 고객을 끌어당기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우리 어머니들이라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오실 테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장 내부에 여성들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극장(시설)이 일종의 아지트로 활용될 수도 있을 테고요.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김영실 앞으로 성남아트센터 운영에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아트센터를 놀이터처럼 자주 드나들 수 있게, 더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성남문화재단은 우리 작품, 우리 공연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좋은 작품을 성남 무대에만 올리지 말자는 것이지요. 성남시에서도 세계적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 문화예술 향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고양 같은 먼 곳에서 찾아오는 관객도 많고요. '멀지만 와서 본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공연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류태형(음악평론가, 前<객석> 편집장,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김영호 전시사업은 작은 전시 위주로 운영해서는 수익을 내거나 지속 가능한 아트센터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기획이 필요한데 대작은 사실상 자체 예산만으로는 기획하기 힘들어서 기획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업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하지요. 그 대안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에서는 펀드레이징을 시도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후원회 기금을 공연사업이나 전시사업에 빌려오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아트센터는 결국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가 관건이고 다른 아트센터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국사업 특별 좌담

"생활예술 활성화와 기초문화재단의 정체성 강화"

성남문화재단은 그간 문화정책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이끌어왔다. 재단의 10년 역사에 비추어 이 역할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으로서 문화진흥국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특별 좌담을 통해 문화진흥국사업의 지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이다.

특별 좌담 진행
일시와 장소
2015. 7. 29 성남아트센터 미디어센터
참석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병량(단국대학교 교수, 前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조교수)
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진행
김보성(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장기 계획과 뚝심으로 추진한 문화정책사업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문화정책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성과를 살피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좌담회는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김보성 국장은 문화정책분야 핵심사업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를 소개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성남문화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생활예술시대에 필요한 재단의 역할, 성남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고민하며 시작한 이 사업들은 성남시를 문화예술이 숨 쉬는 도시로 변모시켰고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켜봐온 좌담 참석자들 역시 성남문화재단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했는데 그중에서도 사랑방문화클럽은 전국 문화재단이 주목하는 시민 생활예술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보성 흔히 말하는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걸맞은 일을 하는 곳이 문화진흥국인데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끼는 바는 각 사업들이 아쉬움은 있지만 명확한 체계를 갖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재단이 문화진흥국을 통해 시민예술시대에 필요한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담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그동안 애정을 갖고 성남문화재단과 함께하신 분들인 만큼 재단이 해온 일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세훈 저는 성남문화재단의 성과로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할 때 수도권의 아트센터로 성공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잘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로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거둔 성과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수상 실적도 많이 남겼지요. 기초문화재단이 사회에서 주목받기 쉽지 않고 여러 한계를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은 그 한계를 넘어서 기초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국사업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다른 곳들은 어떤 사업을 시도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참여해보니 성남문화재단은 달랐습니다. 5년, 10년씩 길게 보는 정책, 때로는 적절한가 의문도 있었지만 (웃음)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뚝심 있게 추진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보성(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강윤주 사업의 지속성이 주효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시민들이 꾸준히 소통하고 뚝심 있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성남에서 생활예술정책의 성과가 쌓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생활예술정책의 배경에는 지역 특성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였어요. 경제적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생활예술정책이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끌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예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축적했다는 것도 재단이 이룬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방문화클럽이 재단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관주도적이라는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자율성을 더 강화해 이런 선입관을 벗는 것이 생활예술정책의 향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던 제가 보기에 재단의 지원은 적절했어요. 사랑방문화클럽은 각 동호회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지원이었고, 시민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이전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병량(단국대학교 교수, 前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김병량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던 제가 보기에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은 적절했어요. 문화예술 동호회들이 실력을 쌓다 보면 대중 앞에 서고 싶다는 욕구를 갖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기회나 비용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각 동호회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지원이었고, 시민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이전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보성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랑방문화클럽이 개인의 취미 향유라는 사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오해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단순히 개별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축제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사업에 동아리 네트워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요.

강윤주 사랑방사업이 개인의 취미 향유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마을과 연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재단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방문화클럽이 마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길 때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수도의 두 축, 생활예술과 참여미디어

성남시에서 시민에 의한 생활예술이 이야기되고 구현되고 있다는 것은 사랑방문화클럽을 비롯한 성남문화재단의 정책적 성과이다. 그럼에도 사랑방문화클럽이 갈 길은 멀다. 좌담회에서는 개별 클럽들이 자발적으로 더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 속에 깊이 들어가 더 큰 생활예술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 성남미디어센터 설립에 이어 문화진흥국 내 문화예술교육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전망이 이어졌다.

김보성 생활예술이 일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활예술 활성화가 전반적인 문화진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마추어와 전문 영역이 부딪치는 양상도 보이거든요. 일례로 어떤 행사에 공연자를 섭외할 때 프로가 아니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아마추어로 대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강윤주 대체가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현실에서 전업예술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면 전업예술가를 생활예술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업예술가는 생활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배워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하지요. 해외 사례를 보면 공동체 예술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전업예술가를 생활예술전문가로 육성하면 생활예술의 수준 향상과 전파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생활예술과 마을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김병량 제가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델은 몇 개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연합해서 축제를 열었던 일이에요. 사랑방문화클럽이 마을공동체와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었던 모델이지요. 향후 활동도 이런 모델을 더 고민해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성 문화사업부 업무 중에서 최근 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미디어센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경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생활예술에 해당하는 개념이 미디어 분야에서는 참여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성남미디어센터를 통한 참여 미디어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2012년에 미디어센터가 개관했는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재단이 쌓은 경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많이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벌써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디어센터가 미디어 정책의 거점이 되고 그 역할 논의가 문화사업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환 논의와 맞물려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 큽니다.

사랑방사업이 개인의 취미 향유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마을과 연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재단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향후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길 때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강윤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성남문화재단이 주도하길 기다리고 지켜보는 분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로 예술강사

를 어떻게 양성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재단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높은 급여로 예술강사를 고용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예술강사들이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소속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가를 꼭 중앙, 광역 단위에서 교육하거나 육성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김보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논의는 상당히 많은 정책적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요, 지역 인력양성 정책도 우리가 책임지는 형태, 성남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남문화재단은 다른 지자체나 문화예술가가 주목하는 곳이 되었고 재단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더 큰 안목으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이 개별 사업보다는 인력이나 재원, 사업 방식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들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조교수)

다가올 10년, 구조를 만드는 성남문화재단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때 재단이 개별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이 우려스럽게 이야기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사업 때문에 바쁜 직원은 정작 문화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고, 사업에 몰두하는 재단은 시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과의 소통을 놓치기 쉽다는 지적, 이를 경계하면서 재단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다시 말해 성남문화재단은 시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재단에 대한 시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 그 역량을 입증해야 할 때를 맞이한 셈이다.

허경 생활예술공동체를 고민할 때 재단이 다른 행정, 정책영역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에서는 SH공사와 협력해서 예술가를 위한 거주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아트 실현을 유도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재단이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미디어센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보성 확실히 성북구 사례를 보면 거버넌스 체제를 잘 만들었어요. 시의 정책 논의에 공무원,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함께 실행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문화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김병량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생각해보면 지역의 여러 교육기관들과 어떻게 조율하고 역할을 나누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뤄지는 평생교육이나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겠고요.

김세훈 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카데미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주민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성남문화재단의 아카데미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또 공공지원은 경제적 약자를 우선시해야 하는데 실제 공공분야의 아카데미를 보면 중산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순이 있지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생활예술공동체를 고민할 때 재단이 다른 행정, 정책영역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이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미디어센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강윤주 제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려한 일 중에 평생교육센터의 반응이 있었어요. 결국 실무자 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성남문화재단이 쌓아온 신뢰가 있다고 봐요. 재단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더 풍성해져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서로 교육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서 성남에서는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세훈 이제 성남문화재단은 다른 지자체나 문화예술가가 주목하는 곳이 되었고 재단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더 큰 안목으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이 개별 사업보다는 인력이나 재원, 사업 방식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들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단의 인력들이 사업 관련 실무에 매달려서는 힘들겠지요. 그보다는 구조를 바꾸고 그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김보성 재단이 경험과 역사를 쌓을수록 자기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사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촉진제로서 기능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ECTION 4

미래를 위한 상생과 소통

성남문화재단이 기초 단위
문화재단으로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기까지는
후원회와 성남아트센터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의
꾸준한 애정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건실한
운영, 구성원들의 건강한 열정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남시민,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단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요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다.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을 조성하며, 성남아트센터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3년에는 목적사업 지원의 결과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에 세계악기전시관을 설립, 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성남아트센터와 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지원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명칭	가입 기준	평생 회비	예우	비고
은하수	법인·개인	1억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0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연4회) ● 기획공연 구매시 지정좌석 제공 ● 기업콘서트 제작(제작비 기업 부담)	철쭉회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달무리		5천만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4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연3회) ● 기업콘서트 제작(제작비 기업 부담)	
무지개		3천만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0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연2회)	
탄천		1천만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6매 ● 법인 : 월간 <아트뷰> 광고 무상 게재 (연1회)	
철쭉		5백만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4매	
이매	개인	3백만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매	5년간
까치		1백만 원 이상	● 자체제작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매	2년간

* 공통 예우 : 무료주차권(자동패스) 증정

역대 회장

제1대 회장 주돈식/
前 문화체육부장관

제2대 회장 여영동/
前 (주)씨너스 회장

제3대 회장 장형환/
네패스하이테크(주) 대표

후원회 명단(2015. 9. 30. 기준)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명예 CEO
철쭉회원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탄천문화포럼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서양화가,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분당 마음상담연구소 소장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연태/이주숙	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前 문화체육부 장관
김중헌/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예원유치원원장, 갤러리 SOON 대표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탈콘트롤(주) CEO/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원장/문인화가
송자/탁순희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정수진	경기일보 상무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성무/김복기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이종덕/김영주	충무아트홀 사장
이지은/김순건	음악인/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사)한국발레협회 이사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약사
장형환/임경희	네패스하이테크(주) 대표, N 아트스페이스 회장/N갤러리 대표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서양화가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분당지역세무사회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회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허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문기	(주)금화 대표이사
이근우	(주)서울샤프중공업 대표이사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용석	성남FM방송 대표

후원회 연혁

2005		이종덕 성남아트센터 초대사장 중심으로 후원회 창립 준비
2006	**10. 24**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발기인 총 63명) | 초대회장 주돈식/前 문화체육부장관
2007	**12. 13**	2007 후원회 송년의 밤 개최
2008	**08. 02 ~ 10**	후원회 해외 문화투어(해외 음악페스티벌 투어)
	09. 23	2008 정기총회 개최
	10. 22	회원 초청 음악회 개최
2009	**06. 20 ~ 26**	후원회 해외 문화투어(러시아 백야축제)
	09. 16	회원 초청 음악회 개최
2010	**01. 17**	2010 정기총회 개최
	06. 24 ~ 27	후원회 해외 문화투어(일본 나오시마)
	09. 26	후원회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 음악회 개최 | 협찬금 및 티켓 판매 금액(21,067,004원) 전액 후원회 기부
2011	**05. 25**	2011 정기총회 개최 | 제2대 회장 여영동/前 (주)씨너스 회장
2012	**03. 17**	2012 정기총회 개최
2013	**03. 16**	2013 정기총회 개최 | 제3대 회장 장형환/(주)네패스하이테크 대표 성남아트센터 악기전시실 설립에 관한 후원금 기부 승인(목적기부, 2억 원 지원 결의) 악기은행 악기 구입비에 관한 후원금 기부 승인(1천5백만 원 지원 결의)
	09. 27	후원금 모금 바자회 <아름다운 동행> 개최 | 경매 모금액(1천5백만 원) 후원회 기부
2014	**03. 14**	2014 정기총회 개최
	10. 22	후원회 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 Viva! Patron> 개최
2015	**03. 12**	2015 정기총회 개최 | 제4대 회장 안봉혁/(주)유씨티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안봉혁

즐거운 후원, 아름다운 상생을 위하여

안봉혁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유씨티코리아 주식회사, 회장)은 성남에 기반을 둔 반도체 제조기업의 CEO로, 또 지역인사와 문화전문가들의 모임인 탄천문화포럼 100인회의 전임 회장으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기울여온 주인공이다.
2006년 발족 이후 성남아트센터의 발전에 묵묵히 힘을 더하며 '아름다운 상생'을 만들어온 후원회는 안봉혁 회장의 선임과 더불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후원회 사업이사직은 물론 탄천문화포럼 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지역 문화발전에 헌신해오셨는데요. 성남 지역 경제·문화의 두 분야에 해박하신 만큼 후원회에 대한 여러 구상이 있으실 듯합니다.

성남아트센터가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후원회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 확보, 즉 신규 회원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아쉽게도 몇 년간 회원 수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요, 임기 동안 100명 이상의 회원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그 취지를 설명드렸고 많은 회원께서 공감해주셔서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니리라 생각해요. 회원 간의 친목·친교 활성화와 예술인과의 교류, 후원회의 대외 홍보 및 기업 메세나 활동 장려 역시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원 확충과 후원금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후원 기금에 따른 회원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해서 활짝 문을 여는 건 어떨까 해요. 현재 최소 가입 단위가 300만 원인데, 그 아래에 100만 원 회원인 까치회원(2년)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성남 관내 기업들의 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기업도 메세나 활동을 통해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윤리를 실천하고,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재회원에게 성남아트센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예비 후원회원을 위한 성남아트센터 시설 투어도 계획 중입니다. 1+1(후원회원+잠재회원) 콘셉트로, 공연장 백스테이지와 성남미디어센터, 미술관 등의 공간을 둘러보며 성남아트센터와 후원회를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지요.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의 3대 후원회장 장형환(왼쪽)과 안봉혁 신임 후원회장

기획공연 지원, 기업회원의 단체 티켓 구입, 사회공헌 1:1 매칭 등 성남아트센터와 후원회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매년 성남아트센터 기획공연 중 적절한 사업을 선택,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전체 혹은 일부를 후원회 기금(적립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연명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와 함께하는 ○○ 공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게 되지요. 또 후원회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임직원의 단체 티켓 구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기업의 사이트에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홍보하고, 특정 회차를 각 기업이 임직원용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기업은 공연장 로비를 기업 홍보와 마케팅 장소로 활용하며 상생할 수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와 후원회가 힘을 합친 사회공헌사업 1:1 매칭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뜻깊은 일이 되리라 봅니다. 기획공연 일부 좌석에 성남아트센터가 50% 할인을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후원회 기금으로 충당해 관내 소외계층을 초청하게 됩니다. 후원회와 성남아트센터의 공동 사회공헌 사업으로 홍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동안 후원회에서는 자선바자회 '후원회의 밤', 음악회, 해외 문화탐방, 세계악기전시관 개관을 위한 목적기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오는 11월 25일 콘서트홀에서 '후원회의 밤 - Viva Patron 2'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1+1(후원회원+잠재회원) 콘셉트로 예비 후원회원이 동행하고, 임시총회를 겸해 주요 현안도 정리하게 됩니다. 바자회 역시 회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기금 확보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큰 행사인데요, 혹 회원들께 부담을 드릴 수도 있으니 이번 후원회의 밤에서 자발적인 기증품을 모아 자선 경매도 진행, 수익금은 성남아트센터에 전달하려 합니다.

성남아트센터가 국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갖추고 보완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소프트웨어, 즉 내실과 품격을 갖춘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손색없이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관객 중심의 시설이 필요하지요. 해외를 오가며 접한 많은 공연들은 특히 다양한 무대 메커니즘, 관객의 시야각까지 배려하는 구조에 감탄한 적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즐겁게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존재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멀리 바라보고 함께 고민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은숙 대표이사님 이하 성남아트센터의 모든 분과 원활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성남아트센터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과 성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에 대한 문화예술 애호가, 또 문화를 사랑하시는 성남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유료회원제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상생 네트워크

성남아트센터 유료회원제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의 상생相生 네트워크인 회원제를 통해 성남문화재단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잠재고객 확대 및 공연장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탄생했다. 유료회원에게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 예매와 아카데미 강좌 수강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2005년 8월 첫 출범한 회원제는 당시 매화·모란·난초·나리(청소년)의 4등급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관객들이 등급 명칭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회원 명칭과 혜택을 변경했다. 이후 프리미엄·VIP·골드·멤버로 운영하다가 연회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올리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VIP·골드·실버의 세 등급으로 간소화해 진행하고 있다.

VIP

- 연회비 10만 원
- 기획 및 대관공연 10~50% 할인(8매) *일부 대관공연 제외
- 기획전시 50% 할인(8매)
- 아카데미 10% 할인
- 무료주차권 10장 제공
-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제공(1회 1권)
- 오페라글라스 무상 대여(1회 1개)

Gold

- 연회비 5만 원
- 기획 및 대관공연 10~40% 할인(6매) *일부 대관공연 제외
- 기획전시 30% 할인(6매)
- 아카데미 5% 할인
- 무료주차권 5장 제공
-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제공(1회 1권)
- 오페라글라스 무상 대여(1회 1개)

Silver

- 연회비 3만 원
- 기획 및 대관공연 10~40% 할인(4매) *일부 대관공연 제외
- 기획전시 20% 할인(4매)
- 무료주차권 3장 제공

유료회원 공통 혜우

- 좋은 좌석 우선 예매(기획공연에 한함)
- 주요 대관공연 할인 및 초청 이벤트
- 뉴스레터 및 SMS 서비스
- 문화예술 정보지 월간 <아트뷰> 우송

가입 절차

인터넷 가입(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결제
- www.snart.or.kr

방문 가입(신용카드 및 현금)

- 오페라하우스 광장 옆 종합안내소 아이플라자

문의 031-783-8000/8272

월간 <아트뷰> 발간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 문화를 바라보는 감성

성남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문화예술 월간지 <아트뷰>는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한 2005년 10월에 창간, 2015년 9월 현재까지 통권 121호가 발행되었다. 창간 초기부터 단순한 기관 홍보지가 아닌 국내외 문화예술계 전반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주는 문화예술 전문지로의 독자성을 확립, 독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발간 중기부터는 지역민과 지역예술까지 더욱 밀착되게 아우르는 편집을 지향, 기존의 문화예술 정보와 더불어 성남시민들의 생활예술,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현재는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전시·문화정책사업들에 대한 심도 깊은 특집과 관련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외 리포트와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슈를 고루 다루고 있다.

문화기획부 발간 도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기록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는 다양한 자료집과 프로젝트북 발간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연구와 사업을 정리해왔다. 특히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연번	연도	발행일	사업명	자료명	자료형태
1	2005	2005.09.28	정책연구	성남아트센터 개관 기념 심포지움_문화도시 만들기와 성남아트센터의 비전	자료집
2	2006	2006.09	정책연구	2006 성남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3	2006	2006.10	사랑방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 조사	보고서
4	2006	2006.10.17	정책연구	문화도시 성남 창조를 위한 시민토론회_ 문화도시, 성남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자료집
5	2006	2006.10.26	우리동네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워크숍	보고서
6	2006	2006.11.07	정책연구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자료집
7	2006	2006.12	정책연구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8	2006	2006.12	정책연구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
9	2006	2006.12.25	우리동네	2006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프로젝트북
10	2007	2007.01	정책연구	2007 문화정책 대화모임_ 성남문화통화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구조 만들기	자료집
11	2007	2007.02	문화통화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보고서
12	2007	2007.02	정책연구	성남시 박물관 건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연구	보고서
13	2007	2007.02	문화통화	나눔라디오_라디오 방송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 교육 매뉴얼	매뉴얼
14	2007	2007.10	사랑방	2007 사랑방클럽축제 프로그램북	프로그램
15	2007	2007.10	정책연구	2007 하반기 문화정책대화모임_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역할과 활용	자료집
16	2007	2007.10	정책연구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보고서
17	2007	2007.11	우리동네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展	도록
18	2007	2007.12	사랑방	2007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_사랑방, 21세기 다시 태어나다	프로젝트북
19	2008	2008.01	우리동네	2007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 태평4동 '한울신문, 영상뉴스' 프로젝트 꿈꾸는 아이들	프로젝트북
20	2008	2008.02	우리동네	2007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풀장환상	프로젝트북
21	2008	2008.02	우리동네	2007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북
22	2008	2008.02	정책연구	창조시민·창조공간·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연계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23	2008	2008.06.25~ 08.23	정책연구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 모니터링 워크숍	자료집
24	2008	2008.12.17	정책연구	2008 문화정책대화모임_새로운 예술과 지역 커뮤니티 발전	자료집
25	2009	2009.01	우리동네	200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태평동 Art Dream	프로젝트북
26	2009	2009.01	우리동네	200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풀장환상2	프로젝트북
27	2009	2009.01	우리동네	200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북
28	2009	2009.01	우리동네	200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상대원사람들이야기	이야기북
29	2009	2009.01	사랑방	2008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_일상과 예술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30	2009	2009.01	정책연구	성남시민 문화참여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31	2009	2009.02	정책연구	2단계 5개년 창조시민·창조공간·창조도시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보고서
32	2009	2009.02	우리동네	200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藝·社로운 만남_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	프로젝트북
33	2009	2009.09.15	사랑방	세계문화클럽포럼(WCCF)_자발적 예술활동과 문화공동체 활성화	자료집
34	2009	2009.12.02	정책연구	2009 문화정책대화모임 자료집_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조성을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	자료집
35	2009	2009.12.09	문화통화	문화통화 지역사회 연계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36	2010	2010.01	정책연구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37	2010	2010.02	우리동네	200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	프로젝트북
38	2010	2010.02	우리동네	200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풀장환상3	프로젝트북
39	2010	2010.02	우리동네	200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신나는 상대원시장 원다방2	프로젝트북
40	2010	2010.02	우리동네	200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태평동사람들이야기_ 태평동, 세월의 빛깔을 말하다	이야기북
41	2010	2010.02	우리동네	200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은행동사람들이야기_추억이 보이는 그곳	이야기북
42	2010	2010.03	사랑방	2009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_문화와 삶, 사랑방에 빠지다	프로젝트북
43	2010	2010.03	-	2009 커뮤니티 인문학_삶을 바꾸는 예술 : 공동체와 예술	프로젝트북
44	2010	2010.05.25	정책연구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_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자료집
45	2010	2010.10.14	우리동네	2010 마을만들기 포럼_마을만들기, 문제는 주체다! 그 방법론과 대안 찾기	자료집
46	2010	2010.11.18	우리동네	2010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자료집_마을만들기, 우리가 희망이다	자료집
47	2011	2011.02	우리동네	20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2	프로젝트북
48	2011	2011.02	우리동네	20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섬말사랑방	프로젝트북
49	2011	2011.02	우리동네	20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신나는 상대원시장 원다방3	프로젝트북
50	2011	2011.02	우리동네	20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섬말사람들이야기	이야기북
51	2011	2011.02	우리동네	20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수진동사람들이야기	이야기북
52	2011	2011.02	사랑방	2010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_ 사랑방, 문화예술의 새로운 비전이 되다	프로젝트북
53	2011	2011.02.19~20	사랑방	2011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자료집
54	2011	2011.03.23	정책연구	2011 상반기 문화정책대화모임_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단위 문예진흥기금	자료집
55	2011	2011.11.29	정책연구	2011 하반기 문화정책대화모임 연속기획1_ 지역에서의 예술가의 역할	자료집
56	2011	2011.12.8	정책연구	2011 하반기 문화정책대화모임 연속기획2_ 주민생활 공간에서의 문화예술 교육과 주민참여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자료집
57	2012	2012.01	지원사업	201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결과보고서	보고서
58	2012	2012.02	지원사업	201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사례집
59	2012	2012.02	우리동네	201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3	프로젝트북
60	2012	2012.02	우리동네	201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봇들문화사랑방	프로젝트북
61	2012	2012.02	우리동네	201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섬말사랑방2	프로젝트북
62	2012	2012.02	우리동네	201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_봇들사랑방이야기 '봇들, 콘크리트 벽에서 피어난 꽃'	이야기북
63	2012	2012.02	사랑방	2011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_사랑방문화클럽, 물고기 되어 춤추다	프로젝트북
64	2012	2012.02	정책연구	2012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_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젝트북
65	2012	2012.12	정책연구	2012 문화정책대화모임_지역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66	2013	2013.02	사랑방	2012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프로젝트북
67	2013	2013.02	지원사업	201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보고서
68	2013	2013.10	정책연구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성과연구(2013)	보고서
69	2013	2013.12	정책연구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공동체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보고서
70	2013	2013.12	정책연구	2013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71	2013	2013.12	정책연구	2013년 성남문화재단 문화공동체사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72	2013	2013.12	정책연구	2013년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축제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73	2013	2013.12	사랑방	2013년 무지개다리사업 프로젝트북	프로젝트북
74	2013	2013.10	사랑방	2013 전국생활예술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75	2014	2014.02	사랑방	2013년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프로젝트북
76	2014	2014.02	우리동네	201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북 1	프로젝트북
77	2014	2014.02	우리동네	201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북 2	프로젝트북

사회공헌

지역과 호흡하고 이웃과 상생하기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나눔과 봉사 작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자연보호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거리 정화작업, 무료공연 <나눔 모락, 기쁨 모락> 진행, 지역 복지관을 위한 행복나눔 쌀 기증,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전산용품 기증 등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의 과정들이다.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용품을 새롭게 재정비해 지원하는 PC 기증은 불용물품을 활용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성남이주민센터, 대한노인회 성남시 분당구지회, 한국IT복지진흥원에 컴퓨터를 기부해 지역민들의 컴퓨터 활용 교육 지원은 물론,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과 다문화가정 등이 정보화 격차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남 관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단이 운영하는 책테마파크가 '희망 나눔 도서기증식'을 통해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 도서 494권을 기증,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더했다. 무료공연으로 진행되는 재능나눔 <나눔 모락, 기쁨 모락> 공연 관람객들의 기부금을 모아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하는 일, 재단 행사 시 화환 대신 접수된 '행복나눔' 쌀을 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 기증하는 일, 성남시 출연기관 공동으로 진행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헌혈 봉사 및 헌혈증서 기부 같은 활동 역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행보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재단 및 부서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 SNS

시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

성남문화재단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객의 궁금증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특히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고객소통나눔이' 제도를 통해, 시민과 관객에게 더욱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 실천하고 있다. 지역과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시민들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 역시 발로 뛴 기사와 생생한 사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성남문화재단의 소식을 알리는 친근한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 중이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snartc**
트위터 **https://twitter.com/snarts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ngnamart**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nartscenter**

(단위 : 명, 건)/2015. 08. 31 기준

구분	개설일	친구수	업데이트
트위터	2011.12.18	24,082	4,417
페이스북	2012.04.03	2,937	641
블로그	2013.08.05	1,093	312
유튜브	2013.09.08	30,863	139
블로그 기자단(16명)	2013.08.05	8,416	301
고객소통나눔이	2013.09.08	107,608	311,050
네이버 밴드	2015.07.01	106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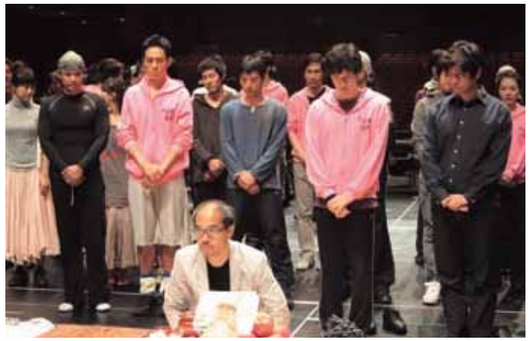
성남아트센터의 10년, 시간 속에 깃든 장면들

성남아트센터 건설 현장. 2000년 5월 1일 시설 공사 착공을 거쳐 2005년 9월 20일 준공되었다. 산자락을 깎는 터잡기 속에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건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성남아트센터는 시민들과의 첫 만남을 시작한다.

2015년 6월,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전까지 성남시민의 문화요람이었던 성남시민회관이 34년 만에 철거되었다. 신축 회관이 문을 여는 그날까지 잠시 작별을 고하며 현판을 떼어내는 순간. 왼쪽부터 이상균 예술국장, 이영주 경영국장, 정은숙 대표이사, 김보성 문화진흥국장.

성남아트센터 개관식의 테이프 커팅 풍경(사진 오른쪽)과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해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해온 예술인들과 문화예술계 명사들의 손도장 동판을 제작하는 모습. 영화·연극·음악·무용·국악 등 각계 예술인들의 흔적이 성남아트센터에서 영원히 관객과 함께 호흡하게 되었다.

성남아트센터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탄천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졌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지원 변호사 등 명사들을 초청해 시민과 함께한 자전거 이벤트. 자전거와 탄천 곳곳에 성남아트센터 탄생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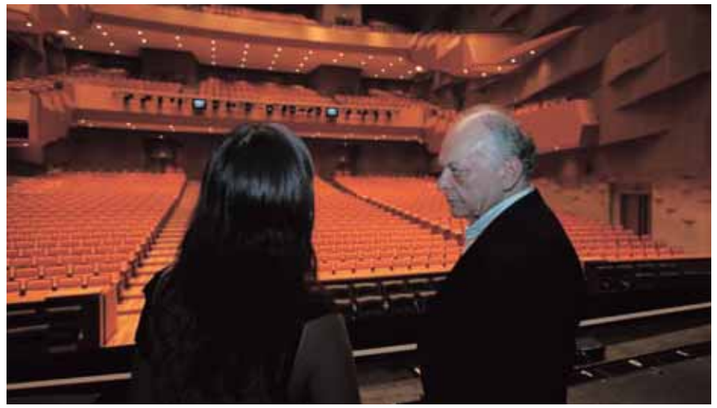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이 선보인 창작 오페라 <남한산성>. 성남의 문화콘텐츠를 무대로 옮기는 작업은 그만큼 방대했고 뜻깊었다. 공연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 현장에 모인 성남문화재단 직원들, 배우와 연출가 등 제작진의 모습.
뮤지컬 <남한산성>의 원작이기도 한 소설 <남한산성>의 김훈 작가는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강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작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남한산성> 무대 스케치 중 '칸의 귀환' 모습과 실제 무대.

무대 뒤 예술가들의 모습은 의외의 친근함과 인간미로 가득하다. 국내 초연작 <Hell>로 성남을 찾은 현대무용의 거장 에미오 그레코가 성남아트센터 빛의 계단에서 유쾌한 포즈를 취했다.

사인회의 풍경도 세월에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2005년 개관 페스티벌 당시 길버트 카플란의 사인회에 길게 늘어선 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관객들의 풍경은 2012년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의 사인회에서는 수많은 휴대전화 카메라 불빛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셀피를 즐기는 힐러리 한은 사인회 인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그 풍경을 사진으로 담느라 더욱 신이 났다.



2010년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을 위해 성남을 찾은 거장 고 로린 마젤. 아끼는 제자 장한나와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대가 없이 재능기부를 남기고 떠났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보는 마에스트로의 모습.

무대예술에서 의상의 중요성은 지나칠 수 없다. 201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의상 제작 현장. 무대 디자인과 의상을 맡은 오윤균 상명대학교 교수의 의상 스케치가 순식간에 현실이 된다.

성남문화재단 사람들

우리 함께,
다가오는 10년을 향하여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이 지나간 10년에 대한 한 마디를 적어보았습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 담아둔 이 이야기들은 개관 10주년의 자축이자 다가올 10년에 대한 각오, 그리고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뿌듯한 마음으로 객석을 찾을 수 있는 공연을 위해 모든 것을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 관객이 중심이 되는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을 기대해주십시오." 정은숙 대표이사

홍보미디어실

10여 년 전 개관식과 공연을 보러 왔던 곳에서 새롭게 둥지를 트고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0년을 직원들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트센터가 되도록 힘차게 근무할 생각입니다. 강기수 실장

수많은 공연과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홍보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공연과 행사에 함께 참여해준 시민이 즐거워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과 힘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더 나은 10년을 준비하며 성남문화재단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성심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경원 차장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막상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느 부분 제가 소속해 있다는 것이 무척 뿌듯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파이팅, 앞으로는 더 파이팅입니다. 신준범 과장

창간 이후 총 120권의 <아트뷰> 중 68권을 만들었습니다. 한 권 한 권 쌓여가는 월간지만큼 재단의 역사도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책임감 역시 더욱 커져감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성남문화재단을 위해, 미력하나마 오늘도 열심히 힘을 더하겠습니다. 남소연 과장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이 되었네요. 성남아트센터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분께서 노력해주셨고, 앞으로 10년은 세계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인권 대리

의욕과 열정이 가득했던 20대에서 여유와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는 지금까지 저도 성남아트센터와 함께 성숙해지는 듯합니다. 성남아트센터의 크고 작은 소식 하나하나를 알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는지보다는 더 많은 이와 행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수많은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새로운 꿈을 가꿔나가렵니다. 정보람 대리

제가 성남아트센터와 함께한 시간은 그 절반에 불과하지만, 많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을 촬영했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10년간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성남아트센터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재우 대리

현재의 성남아트센터가 존재하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아트센터 개관 10년의 역사가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성남아트센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손건영 사원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전시를 보기 위해 찾았던 이곳이 일터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맡은 업무를 다하며 앞으로의 10년을 함께하겠습니다. 이학현 사원

10년이란 시간 속에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성남아트센터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곳 성남아트센터 하늘에는 제각기 다른 빛깔을 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롱함이 하나의 찬연함으로 모인 무지개가 영원히 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김지연 사원

경영국

총무부

성남문화재단은 우리 성남의 자랑이자 자긍심입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재단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이영주 경영국장

자랑스러운 성남아트센터에서 꿈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성남의 문화예술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이곳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성표 부장

10년의 세월 동안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시민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직원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병철 과장

서툴던 신입 직원에서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성장한 10년. 힘차게 달려온 10년만큼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합니다. 조은자 과장

서툴고 낯설었던 지난 10년, 그 속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 성숙한 우리! 지난 10년간 맺은 결실을 동력 삼아 힘차게 비상하는 우리의 멋진 미래를 꿈꿔봅니다. 모은성 대리

성남문화재단과 함께한 7년이 넘는 세월, 그동안 나도 재단에 점 하나는 찍지 않았을까? 앞으로 함께할 10년에는 멋진 선 하나를 그리고 싶다. 성남문화재단 여러분, 지난 10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할 10년 파이팅! 전수진 대리

지난 10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문화재단이 문화구심점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희망하며…. 신창근 대리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함께했음을 감사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이경빈 대리

새로운 시작에 앞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다시 시작하는 앞으로의 10년, 성남문화재단의 도약을 바라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10년도 기대합니다. 박소현 사원

직원과 시민 모두 성남문화재단으로 인해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행복하길…. 김은미 사원

경영기획부

지난 10년 고민했고, 더불어 즐거웠고, 그러나 더 분발하자, 성남문화재단! 고성영 부장

지나온 10년! 함께할 10년, 100년! 성남문화재단 만세! 餐 (입사 4개월) 정종효 차장

20대 후반에 입사하여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늙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앞으로 10년…. 10년 후에도 난 이런 코멘트를 달 수 있을까? 윤일영 과장

성남 문화예술의 꽃 성남문화재단!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시죠! 김동영 과장

청춘을 바친 곳, 이제 영혼을 바치리라! 김준원 대리

지난 1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남아트센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땀과 열정이 묻어 있는 이곳에서 한층 더 발전해가는 성남아트센터를 기원하며…. 권대민 대리

고객지원부

불멸, 행간에 깃들다.
Music is not in the notes, but in the silence between. - *W. A. Mozart* 김용운 부장

성남문화예술의 역사를 품은 성남아트센터에서 지난 10년의 명암을 되새기며, 앞으로 100년을 생각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식 차장

각고의 10년의 기록, 문화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도연 과장

어쩌면 20년 전 성남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관람했던 그 한순간이 10년 동안 성남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된 첫 인연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와 인생의 한 장면을 함께할 누군가를 위해 앞으로의 10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안정미 대리

10년 전 성남아트센터 개관 모습을 떠올려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많은 관객이 좋은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현 사원

20대 청춘을 함께한 성남문화재단. 어느덧 10년이 흘러 내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자랑스러운 삶의 자취로 남았으면 합니다. 정여진 사원

문화예술로 함께한 성남문화재단과 우리,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요. 유지현 사원

10년이라는 발걸음을 함께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현주 사원

오늘이 가는 아쉬움과 내일이 오는 설렘으로 성남아트센터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성남아트센터와 10년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윤경미 사원

안전시설부

성남문화재단의 10년과 함께한 나. 내 인생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직장으로, 평생을 함께해야 할 일터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의 문화예술 10년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김민준 차장

지난 10년간 성남아트센터는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기 위해 객석 리모델링, 편의시설 확충, 미술관 증축 등 많은 시설물 확충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찾고 싶고, 보고 싶고, 기억에 남는 성남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나은 성남아트센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신환 과장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된 해에 사랑스런 딸도 태어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해온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내 소중한 가족과 성남문화재단이 모두 한 그루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영수 과장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열 살을 축하합니다. 임흥순 대리

움츠린 날개를 펴 비상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한중익 대리

예술국

공연기획부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뜻을 전하며 성남아트센터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다져진 기틀 위에 향후 더욱 참신하고 내실 있는 기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남아트센터 안팎의 많은 분과 더불어 많은 것을 포용하고 많은 것을 고쳐 쓰는 활기찬 문화와 예술의 산실을 만들어가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균 예술국장

현재 성남문화재단에 필요한 키워드는 '혁신'이다. '혁신'이란 단어는 필요성 이상으로 큰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가속도가 붙어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혁신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존재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성남문화재단이 변화된 환경에 혁신적으로 대처해 앞으로도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김철주 부장

시민이 더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장동환 차장

10주년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지나치기에 섭섭하고 크게 축하하기에는 머쓱하다.
그래도 성남문화재단 동료들에게 한마디. "모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사 만 2년을 넘긴 시점에서 성남문화재단 과거 10년은 재단의 토대를 만들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미래 10년은 내실을 기하면서도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발굴하고 진취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데 에너지가 집중되었으면 한다. 주미영 차장

10년 전 첫발을 내딛은 그날의 마음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드는 성남문화재단을 기대합니다. 이경재 과장

지금까지 함께해온 소중한 10년,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하게! 권수미 대리

모두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성남문화재단, 10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활기찬 재단을 기대합니다! 김정은 대리

성남시민, 예술인,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이 만들어온 10년의 모든 것이 이제 결실이 되어 서로 나누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합니다. 김영태 대리

성남시민,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성남아트센터의 10년. 앞으로의 10년도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이송희 사원

무대운영부

걷지도 못했는데 어느덧 10년… 희망찬 청춘(앞으로 10년)을 위해 우리 모두 뜁시다. 김인현 부장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도 성남의 랜드마크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연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순엽 차장

항상 처음처럼! "모래밭의 자갈이 되지 말고, 자갈밭의 바위가 되길." 김상균 차장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모두가 있기에 가능했던 시간들. 모두가 함께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 행복과 고난의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해줬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또다시 다가올 10년을 위해 파이팅! 박동경 차장

첫 직장으로 입사해서 벌써 10년!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열심히! 최욱 과장

지난 1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다른 10년을 향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연, 전시, 각종 문화사업으로 성남시민 및 관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성남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건우 과장

성남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성남문화재단 창립 11주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주년이 또 열 곱해 백주년도 더 넘기를 기원합니다. 최영삼 과장

10년이란 시간 속에 성장한 성남문화재단. 앞으로도 성남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연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왕의 과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선도자, 성남시민의 사랑방, 성남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권동우 과장

성남문화재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성남문화재단, 시민 모두가 놀러 오고 싶은 성남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응탁 대리

10주년을 맞이하는 성남문화재단.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시민의 성남문화재단으로 다가서기를 기원합니다. 최재윤 대리

성남아트센터 10주년을 자축하고 추억하며… 10년 동안 성남아트센터에 품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게 소중했던 10년을 회상하며 다시 출발해보자! 김경식 대리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국민 가슴속에 새겨지는 문화재단, 그곳이 바로 성남문화재단! 최병선 대리

성남문화재단 10주년을 자축하며.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시간들, 아쉬움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또다시 다가올 10년은 모두에게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길. 신종만 대리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지금의 성과는 오늘의 10년이 아닌 미래의 10년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실로 고생하셨습니다. 신문수 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화합 속에서 더 나은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나아가길 꿈꿔봅니다. ^^ 김석천 사원

성남문화재단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최경희 사원

전시기획부

지난 10년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 삼아 건강한 미술관 문화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박천남 부장

내가 일하는 곳이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이 되길…. 박동기 차장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요. 서경아 과장

함께한 10년, 좋은 추억이 되길. 윤영주 대리

벌써 10년이라니…. 민재홍 대리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앞으로 10년은 더 웅비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길…. 김한석 사원

문화진흥국

문화기획부

'높은 문화의 힘은 모두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갈파하신 김구 선생님의 안목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

예술이 삶을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더 재미있게 살 궁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영진 부장

우리가 생활 속의 예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예술의 도시 성남을 만드는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합니다. 박지훈 차장

예술인들이 사랑하고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변화와 창작의 산실로 성남문화재단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정민혁 차장

성남문화재단의 10년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상진 과장

성남문화재단 10년의 성과를 향후 100년의 성과로 만들어나가자! 이종필 과장

성남시민 정서 속에 친구처럼 늘 가까이 있는 성남문화재단으로…. 조성란 과장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오희영 대리

성남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현정 사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아름다운 성남문화재단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이해경 사원

문화사업부

생활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웠던 지난 10년! 이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과 공감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10년을 향해! 이상훈 부장

성남아트센터가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 살이 되었네요. 그동안 큰 탈 없이 잘 자라준 것은 많은 사람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10년이 지나 멋진 스무 살 청년이 될 때까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현주 차장

For the next decade. 노상환 차장

지나온 10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갑시다, 힘차게! 송승태 차장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성남아트센터가 앞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큰 희망을 품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정창한 대리

영광된 10년간의 개척, 찬란한 100년의 성남 문화! 정경미 대리

10주년이라니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발전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파이팅! 이주연 사원

10년이 지나도 성남문화재단은 언제나 청춘~. 점점 더 젊어지는 성남문화재단을 기대해주세요! 송인경 사원

성남문화재단 가족들 사랑합니다. 단석동 사원

문화사업부 미디어센터

성남시의 저력, 성남문화재단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꽃보다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지요. 동료와 성남시민을 신뢰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윤혜숙 과장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는 일.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박정식 과장

10년째 연애 중! 으리으리~ 발돋움, 10년의 역사를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김환실 대리

행복한 성남을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 흰머리가 좀 늘긴 했지만 나에겐 즐거웠던 기억이 백만 가지. 백만 성남시민의 기억 속에도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추억이 하나씩은 남아 있겠지요. 앞으로의 10년은 2백만 개의 기억 남기기가 목표~! 김영관 대리

오드리 헵번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불가능(Impossible)은 나는 할 수 있다(I'm possible)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증명해왔던 우리의 가능성들은 성남문화재단의 미래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진 대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요? 요즘은 그 말이 무색하지만 빠르다면 빠른 세월 속에 10년 근속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하지요? 성남시민의 문화행복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년 30년이 남은 지금, 40주년 인사말은 대표이사로서 남기고 싶습니다! ^^ 배차현 사원

이사장	이재명	
대표이사	정은숙	
홍보미디어실	실장	강기수
	차장	민경원
	과장	남소연
	과장	신준범
	대리	전인권
	대리	정보람
	대리	최재우
	사원	손건영
	사원	이학현
	사원	김지연
	사원	이해원
경영국	국장	이영주
총무부	부장	이성표
	과장	민병철
	과장	조은자
	대리	모은성
	대리	전수진
	대리	신창근
	대리	이경빈
	사원	윤수희
	사원	최회신
	사원	박소현
	사원	김은미
경영기획부	부장	고성영
	차장	정종효
	과장	윤일영
	과장	김동영
	대리	김준원
	대리	권대민
	사원	윤주희

고객지원부	부장	김용운
	차장	박영식
	과장	이도연
	대리	안정미
	대리	김효정
	사원	조명현
	사원	정여진
	사원	유지현
	사원	김기현
	사원	권근상
	사원	윤귀복
	사원	김경식
	사원	고기호
	사원	김종애
	사원	박형열
	사원	윤경미
	사원	이건호
	사원	정현주
	사원	박재형
	사원	임석만
	사원	최강섭
안전시설부	차장	김민준
	과장	한신환
	과장	권오태
	과장	김영수
	대리	임흥순
	대리	이제현
	대리	한중익
예술국	국장	이상균
공연기획부	부장	김철주
	차장	김준환
	차장	장동환
	차장	주미영
	과장	조인국
	과장	이경재
	과장	황규삼
	과장	양준열

	대리	김영태
	대리	김정은
	대리	권수미
	사원	강은경
	사원	윤지은
	사원	조승의
	사원	이송희
무대운영부	부장	김인현
	차장	김상균
	차장	권순엽
	차장	이현우
	차장	박동경
	차장	이병국
	과장	최욱
	과장	임건우
	과장	최영삼
	과장	이왕의
	과장	권동우
	대리	김응탁
	대리	최재윤
	대리	김경식
	대리	최병선
	대리	전계근
	대리	신종만
	대리	신문수
	대리	김재득
	사원	송나래
	사원	장호준
	사원	박성권
	사원	김석천
	사원	최경희

전시기획부	부장	박천남
	차장	박동기
	과장	서경아
	대리	윤영주
	대리	민재홍
	사원	방주영
	사원	김한석
	사원	황샘이
	사원	이지아
시민회관운영부	부장	고성영(겸직)
	차장	김준환(겸직)
	사원	박혜영
문화진흥국	국장	김보성
문화기획부	부장	이영진
	차장	박지훈
	차장	정민혁
	과장	유상진
	과장	이종필
	과장	조성란
	대리	오희영
	사원	이현정
	사원	이해경
문화사업부	부장	이상훈
	차장	이현주
	차장	노상환
	차장	송승태
	과장	윤혜숙
	과장	박정식
	대리	정경미
	대리	정창한
	대리	김환실
	대리	김영관
	대리	박은진
	사원	배차현
	사원	이주연
	사원	송인경
	사원	단석동

역대 이사회 명단

[제1대 이사 : 2004.12~2006.11]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대엽	성남시장
상임이사	이종덕	전 예술의전당 사장,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사	방영기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이사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이사	지관근	성남시의회 의원
이사	신부선	도서출판 한지문화 회장
이사	박조신	아름방송 대표이사
이사	주익성	워싱턴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이사	김숙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
감사	김길복	회계사

[제2대 이사 : 2006.12~2008.11]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대엽	성남시장
상임이사	이종덕	전 예술의전당 사장,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사	방영기	전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경기도의회 의원
이사	신부선	도서출판 한지문화 회장
이사	박조신	아름방송 대표이사
이사	이영식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이사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이사	정용석	전 KBS 앵커, FM분당 사장
이사	김상현	성남시의회 의장
이사	장정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
이사	한성심	성남시의회 의원
이사	고흥길	국회의원
감사	김길복	회계사

[제3대 이사 : 2008.12~2010.11]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대엽	성남시장
대표이사	이종덕	전 예술의전당 사장,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사	방영기	전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경기도의회 의원
이사	이영식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이사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이사	정용석	전 KBS 앵커, FM분당 사장
이사	김상현	성남시의회 의장
이사	장정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
이사	한성심	성남시의회 의원
이사	김숙배	전 성남시의회 의원
이사	박수길	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이사	이경화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감사	김길복	회계사

[제4대 이사 : 2010.12~2012.11]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대표이사	안인기	전 KBS 예능국 PD, 전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원장
이사	이영식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이사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이사	정용석	전 KBS 앵커, FM분당 사장
이사	이진휴	한국미협 국제분과위원
이사	조승문	주간신문 아이디위클리 발행인
이사	김병량	단국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이사	임종율	전 만해마을 사무총장, 종교인
이사	박윤희	주민생활협동조합 이사
이사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이사	김성태	전 예총회장
감사	김준석	회계사

[제5대 이사 : 2012.12~2014.11]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대표이사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
이사	이영식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
이사	한춘섭	전 성남문화원장
이사	정용석	전 KBS 앵커, FM분당 사장
이사	이진휴	한국미협 국제분과위원
이사	조승문	주간신문 아이디위클리 발행인
이사	김병량	단국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이사	임종율	전 만해마을 사무총장, 종교인
이사	박윤희	주민생활협동조합이사
이사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이사	임인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지부회장
이사	현기영	소설가
감사	이용규	회계사

[제6대 이사 : 2014.12~2016.11]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대표이사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
이사	김병량	단국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이사	임종율	전 만해마을 사무총장, 종교인
이사	임인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지부회장
이사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이사	현기영	소설가
이사	김보연	화가, 전 성남미협회장
이사	박은숙	의사
이사	장인주	무용평론가
이사	서해성	교수(한신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감사	이용규	회계사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4.6.7. 조례 제1916호
개정 2005.8.1. 조례 제1996호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1호
개정 2009.10.5. 조례 제2365호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6.>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12.16.>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4.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8.1.>
5. 성남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6.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9.10.5.>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0.5.>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0.5.>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5.]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의2(사용료 등)
성남시 시민회관 및 성남아트센터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 변경 시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15.]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4.6.7. 조례제191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8.1. 조례제19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1.15. 조례제217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0.5. 조례제236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2.16. 조례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9. 2.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3. 6. 1.
개정 2013. 10.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근무풍토의 조성

제18조의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직원 상조회에서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대표이사(성남아트센터 사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 [징계]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 [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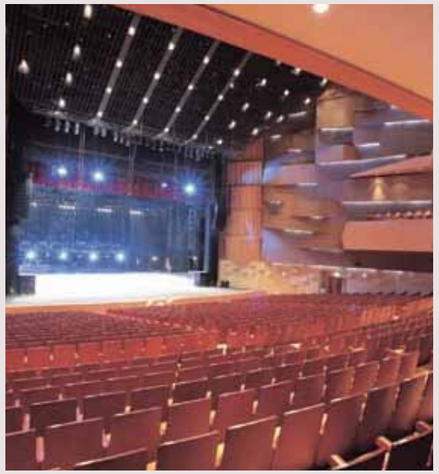
부칙
이 강령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Seongnam Arts Center 10th Anniversary
2005-2015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HITE PAPER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Puts Seongnam on Korea's Cultural Map



Oper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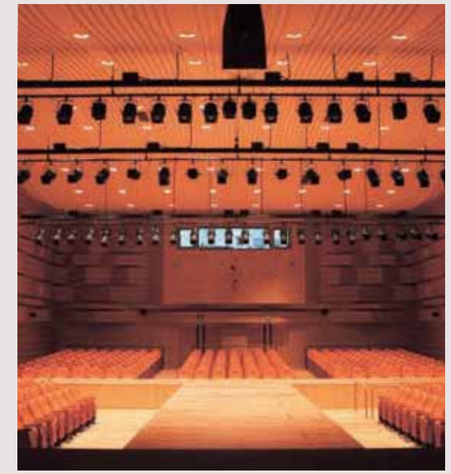
Boasting state-of-the-art stage facilities, the 1,854-seat Opera House is a multi-purpose performance complex designed to accommodate all genres of the performing arts, making it an ideal venue to enjoy a wide variety of performances, including full-scale orchestras, solo performances, opera, ballet, and musical theater. The acoustics of the hall are among the best in Korea; through the use of a sound reinforcement system, the reverberation time can be adjusted from 1.4 to 3 seconds, and the acoustic panels installed on the ceiling above the audience can reduce the reverberation time to as low as 1.2 seconds. The backstage area consists of ten dressing rooms (for VIPs, individuals, and groups), waiting rooms, a conductor's room, and a concertmaster's room, and the third floor houses practice rooms of varying sizes to suit all types of performances.

• 1,854 seats (1,128 on the first floor, 404 on the second floor, 272 on the third floor) • Total floor area: 16,933.58m^2, Main stage: 240m^2 (16×15m), Back stage: 240m^2 (16×15m) •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2nd floor), children's play area, lactation room (1st floor), Gallery808

Concert Hall

Boasting ideal acoustic conditions for classical music and featuring a choir loft, the 994-seat Concert Hall has been a favorite of classical music audiences as well as musicians of all types, from solo instrumentalists to orchestral performers. The arena seating allows audience members to view performances comfortably from any seat. The design of the Concert Hall was optimized for classical music, with a reverberation time of 1.8 seconds, and its subtle, indirect lighting of the audience areas creates the perfect complementary atmosphere. The Hall's exterior glass wall, which was produced using the SPG (Special Project Glazing) system, brings a sense of openness to the beautiful well-lighted lobby space. And seen from above, the Hall building itself is in the shape of a grand piano.

• 994 seats (650 on the first floor and 344 on the second floor) • Total floor area: 10,783.19m^2, Main stage: 257m^2 (23×11.2m) • Dressing rooms, practice rooms, Seongnam City Performing Arts Company office, etc.



Ensemble Theater

The smallest of SNART's three theaters, the Ensemble Theater is a 378-seat performance complex designed for all genres of the performing arts, from plays and music recitals to experimental performances. Even though it is small, the Ensemble Theater is well-equipped with cutting-edge stage technology, such as the ability to extend a T-shaped stage into the audience area and a revolving main stage, making creative and three-dimensional stagecraft possible. Some of the popular interactive performance series held at the Ensemble Theater include the *Soiree Concert, Park Jong-Ho's Opera Glass,* and the *Full House Plays*. The backstage area consists of waiting rooms, dressing rooms, and practice rooms.

• 378 seats (340 when the side stages are used) • Total floor area: 3,964.29m^2, Main stage: 176m^2 (16×11m) • Academy, café, etc.

Cube Art Museum, Gallery808

SNART's exhibition space consists of Gallery808 in the basement of the Opera House (main hall of the old art gallery) and the Cube Art Museum on the second floor of Cube Plaza. Gallery808 is an exhibition hall covering an area of 831 square meters with a 3.3-meter-high ceiling. It is divided into three rooms, allowing for small sectional shows as well as large-scale exhibits, and is equipped with thermo-hygrostat and lighting systems. Launched in August 2010, the Cube Art Museum specializes in exhibitions unique to SNART, such as the *British Modern Painting-Winners of John Moores Painting Awards* exhibition, which was held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gallery. Both galleries put on exhibits by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shows for the promotion of local art, and various educational and interactive programs for children. Open to the public, the galleries offer easy access to world-class art.

• Gallery808: 831m^2 (Exhibition Room 1: 300m^2, Room 2: 300m^2, Room 3: 231m^2); Archive Room: 65m^2 • Cube Art Museum: 759m^2; Storage: 165m^2; Preparation Room: 50m^2; Archive Room: 50m^2

Seongnam Media Center

The Seongnam Media Center in SNART's Cube Plaza was established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yeonggi-do, and Seongnam City and is run by the SNCF. It offers diverse media-related courses that utilize its media facilities, which include a multi-purpose studio, sound studio, media library, editing room, digital education room, and media hall (theater). With "Media that Creates and Shapes Towns" as its vision, the Seongnam Media Center is open to anyon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media.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The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is located in the second-floor lobby of the Opera House. It consists of two exhibition halls–the Asia-Oceania Hall and the Africa, South-North America, and Europe Hall–in addition to a learning center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diverse instruments up close and personal. The museum exhibits a total of 152 string, wind, percussion, and keyboard instruments from 45 nation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hall is a touchscreen monitor that provides visitors information on each instrument's distribution around the world and cultural history as well as short video clips showing how it is played.

Cube Plaza

The Cube Plaza, designed in a unique shape that resembles cubes linked together, is a cultural complex that houses the Seongnam Media Center, Cube Art Museum, Media Hall, Gallery Bandal and a café. Here, visitors can enjoy movies or lectures on media in the Media Hall, which serves as a small theater, check out exhibitions at the Cube Art Museum, or just relax over a cup of coffee or a light meal at the restaurant and café.

Book Theme Park

The Book Theme Park located in Yuldong Park in Bundang-gu, Seongnam, is a unique cultural space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the world of books in a natural environment. Since its completion in November 2005 and opening in January 2006 by the SNCF, the Book Theme Park has featured diverse book-themed events, performances, and displays. The pinwheel sculptures at the entrance to the park are named "The Book of the Wind," and the brown wall titled "Hangeul Book" represents the woodblock-printed *Hunmingeongeum*. Other attractions inside the park include the Book of Time, a maze-like walking trail on a gentle hill decorated with over 200 sculptures, and the Book of Space, a space that looks like a small cozy library.

Outdoor Performance Hall in Jungang Park

The Outdoor Performance Hall in Jungang Park in Bundang-gu is a cultural space integrated with its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It consists of a 480-seat semi-circular seating area, where spectators can enjoy performances even in the rain, and a spacious lawn area that can accommodate up to 11,000 people. With its world-class acoustic and lighting facilities, the Outdoor Performance Hall has served as the venue for the Park Concert and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establishing itself as a major venue for special performances in Korea.

Seongnam Civic Center

The Seongnam Civic Center once stood on the site of the former Seongnam City Hall in Sujeong-gu. For over three decades following its completion in June 1981, the Seongnam Civic Center was as a cultural center for the residents of Sujeong-gu and Jungwon-gu, Seongnam. Covering an area of 5889.3 square meters, the Seongnam Civic Center consisted of four floors, including one basement, a two-story main theater, and a small 288-seat theater. From 2005, when the SNCF started operating the facility on consignment, until June 2015, the Seongnam Civic Center presented various performances, such as classical music concerts for seniors. In June 2015, the building was demolished due to safety issues. The new Seongnam Civic Center, which will be built on the same site and feature six floors, including four basement floors, is slated for completion in early 2018.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Puts Seongnam on Korea's Cultural Map

Seongnam - a City Where Art and Culture Are Intertwined with Residents' Lives

At around 6 p.m. on Saturday, August 29, 2015, almost half of the Jungang Park lawn area in front of Bundang-gu Office in Seongnam City was filled with people waiting for the Park Concert to begin. Eager to secure front row spots, some teenagers had turned up on Thursday wanting to wait in line, and staffers had a hard time persuading them to go home. Thirty minutes before the concert began, the large lawn area in front of the outdoor stage was packed with people. Some had spread out mats and were sharing deep-fried chicken and beer with family members or loved ones, while others were standing with babies in strollers or had their dogs with them. A drone was flying over the park, and a camera team was filming people in the crowd, such as a girl and a silver-haired old lady, and showing them on a gigantic TV screen with witty captions, which added to the festive atmosphere.

Attended by over 12,000 people, the Park Concert featured top K-pop singers and hip-hop musicians, including Beenzino, Dok2, The Quiett, Giriboy, Vasco, and C Jamm.

Jungang Park is not the only park that serves as a venue for cultural and art events in Seongnam. Yuldong Park, for instance, features a book theme park where event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such as the Hangeul Day Festival and World Book Day Festival, are held all year round. Each park in Seongnam is unique and more than just a relaxing public space.

In Seongnam, art and culture are a regular part of the daily lives of Seongnam residents. Concerts sponsored by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NCF), such as the "Village with Art in Every Corner," are held at various local community centers and parks, while performances by the Sarangbang Culture Club are held at subway stations and in Yatap Station Square. Some events are held on a regular basis, while others are organized for special occasions.

The SNCF has strived to bring cultural and art events into the lives of Seongnam's residents with proactive outreach programs. As these efforts have made culture and the arts an integral part of Seongnam, visitors can enjoy such facilities and events all throughout the city.

SNCF - a Leader in Cultural Policy and a Comprehensive Cultural Complex

Launched in December 2004 with support from Seongnam City and the Seongnam City Council, the SNCF is Korea's first organization to oversee both art (performance and exhibition) projects and cultural policy projects. It was established as a cultural complex tasked with managing various projects independently. On October 14, 2005, the SNCF opened the Seongnam Arts Center, which has since taken performing arts in Korea to the next level by presenting quality performances and new-concept performing arts.

SNART created its distinct identity through the strategies of special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and by setting its sights on going global while still appealing to local sensibilities. It has been chosen by many world-famous musicians as the venue for their Korean debuts, including Gilbert Kaplan (conductor), Matthias Goerne (baritone), Anne Sofie von Otter (mezzo soprano), Nigel Kennedy (violin), Christian Thielemann (conductor), and Andrew Manze (violin). It was also at SNART that the Korean-born cellist Han-na Chang made her first appearance as a conductor, garnering much attention in music circles at home and abroad. *Raise the Red Lantern*, a ballet produced by Chinese film director Zhang Yimou, had its Korea premiere at SNART as well, while *Beyond*, a modern dance project by Emio Greco, had its world premiere there. SNART was also the venue for *Faust* (2005, named the best performance by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which was also produced by SNART, *Cinderella* (2005, named the best performance by the Korean daily *Joongang Ilbo*), and *La Belle* (Korea premiere), performed by the Monte Carlo Ballet Company, which received high acclaim.

Having succeeded in creating a world-class venue, the SNCF then focused on its cultural policy project. Thi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highly successful Sarangbang Culture Club, an "art for everybody"

initiative led by local residents. It has been so successful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used this culture club model for its own cultural policy nationwide, further strengthening Seongnam's position as a center of culture in Korea. The Sarangbang Culture Club won the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wards in 2010, was named an outstanding example of "Art for Cause," was one of the ten trends chose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1, and wo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ize at the Local Traditional Cultural Brand Awards in 2012.

The SNCF has seen tangible results from the other projects it has launched too, such as the Seongnam Media Center and the Cultural Community Project, which boast unprecedented achievements in quality and quantity.

Quality Events as the Driving Force

Driven by creative ideas and competent human resources, the SNCF has strived to shift the center of Korea's cultural gravity from Seoul to Seongnam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e numerous headlines devoted to SNART attest to its success: "SNART succeeds in hosting Kaplan's premiere in Korea" (*Seoul Daily*, December 12, 2005); "SNART expected to serve as the egg of Columbus in Korea's performing arts circle" (*Chosun Ilbo*, October 29, 2005); "Kaplan, legendary Mahler expert, takes Korea by storm" (*Yonhap News*, June 29, 2006); "SNART steps into spotlight by hosting a series of premiere concerts in Korea" (*CBS*, No-cut News); and, "The most successful Cinderella ever performed." (*Hankook-Ilbo*, October 28, 2005).

The success of SNART over the last decade is attributable to the success of the programs it has overseen. SNART has elevated its status in the Korean art world by putting on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hat set it apart from others and running diverse and creative cultural projects, all of which have made it a hub of Korean cultural life.

Driven by its innovative programs, SNART has been able to overcome the challenges it faced as a newcomer and successfully secure its spot among Korea's leading performance venues, along with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Sejong Center,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Indeed,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organized by the SNCF in 2007–one year and three months after its launch–reached one million, and the performances held in 2008, including those by the Netherlands Dans Theater in May 2008, drew another million. As of July 31, 2015, over 8.67 million people have visited the Seongnam Civic Center and Book Theme Park to see their various art performances and exhibits.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could well exceed ten million, if adding the number of people who visited other facilities and events related to the SNCF, such as the Seongnam Media Center, the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the Park Concert, and the Picnic Concert, which is ten times more tha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Seongnam.

Thanks to its achievements in presenting a new model for the operation of concert venues and events, SNART was awarde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ize at the National Art Venue Operation Awards held in 2009.

SNCF Changes the Face of Seongnam

Art and culture can change the identity of a city and set it apart in a class of its own. The city of Bayreuth in Germany is a good example. The Bayreuth Festival Theater holds a Wagner music festival for one month every year from July to August. Competition among music aficionados for one of the 55,000 tickets for the Wagner performance is so high that they only have a one in ten chance of getting one. The Wagner Socie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 Korea and Japan, do their best to secure tickets for their members.

Bayreuth is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100,000. However, its cultural impact is enormous. The city's opera house is dedicated solely to operas by Richard Wagner, including the Ring Cycle (*Rheingold, Walküre, Siegfried, and Götterdämmerung*) performed annually and produced every five years, *Parsifal, Tristan und Isolde, Lohengrin, Tannhäuser,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and *Der fliegende Holländer*. Except for performances during a 1976 tour of Japan, the Bayreuth production has never been performed outside of Germany, which explains why millions of musicians and music lovers flock to Bayreuth every summer to enjoy Wagner operas.

Though Bayreuth is a small city, it is a global player, and offers a glimpse into what the SNCF hopes to achieve for Seongnam in the next decade or so. A satellite city neighboring Seoul, Seongnam consists of the three districts of Jungwon-gu, Sujeong-gu, and the new town Bundang-gu. It also merged with Pangyo and part of the new town Wirye. Seongnam is a dynamic city that shares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other resources with Seoul, while retaining its own identity. The challenge Seongnam faces now is preserving and promoting its identity on a global scale.

The SNCF became roughly 24.1 percent financially independent in 2013, up 3.5 percent from 20.6 percent in 2009. It also saw a rapid increase in s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local art and culture from 4.3 percent in 2009 to 7.8 percent in 2013. The SNCF has overcome the challenges of a fledgling cultural complex, and continues to push the boundaries of socially integrated art and culture. This is why it has such a bright future.

Editing Team of the SNCF White Paper

Korean Premieres by the Seongnam Arts Center

Special Performances Highlighting the Power of Content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unveiled a series of special programs in celebration of its launch on October 14, 2005. Under the catchphrase "Korean premieres of world-class perofrmances at SNART," the Center has developed aggressive strategies for promoting its opening festival programs. Under the three keywords "exclusiveness," "Korean premiere," and "production theatre," the Center has accomplished what has never even been attempted by other theaters located in and around the capital city. Confronted with the geographical disadvantage of being situated in close proximity to other major art complexes in Seoul, SNART established a strategy that aimed to attract audiences by distinguishing itself from its competitors.

Numerous international performances, ranging from Mahler's *Symphony No. 2* conducted by Gilbert Kaplan, baritone Matthias Goerne's recital, and *Cinderella* by Les Ballets de Monte Carlo to Diabolo, the acrobatic circus, all made their Korean premieres at SNART. At the time of those performances, SNART attracted the artists and groups that other major theater venues in Seoul could not, taking a giant leap forward and further strengthening its brand power.

Driven by the success of these inaugural programs, SNART went on to expand its presence. In the beginning, it achieved its greatest successes in the field of music. Musicians whose made their Korean debuts in Seongnam include Christian Thielemann and the Munich Philharmonic Orchestra, Roger Norrington and the Stuttgart Radio Symphony Orchestra, the WDR Symphony Orchestra Cologne, Ton Koopman and the Amsterdam Baroque Orchestra, Marc Minkowski and 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 (early music), and three world-class pianists–Arcadi Volodos, Paul Lewis, and Jean-Efflam Bavouzet.

Their Seongnam debut performances were highly acclaimed by concert-goers, and eventually, raised their stature in Korea. Mezzo soprano Anne Sofie von Otter and baritone Matthias Goerne visited Korea again after their successful debut performances at SNART, drawing large audiences their second time as well.

In terms of dance, SNART concentrated on a few select projects, choosing to stage some of the most controversial works of our time, such as William Forsythe's *Heterotopia* and Ballet du Nord's *Tragédie*, and proving its capacity to set trends in the performing arts. In theater, SNART introduced *Mille francs de recompense*, produced by the Theatre du Capitole de Toulouse and based on Victor-Marie Hugo's original plays. This production attracted attention from both theater-goers and academia. While a growing number of performance venues is being established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SNART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its originality thanks to its strong strategic planning capabilities.

Creation of a Special Seongnam Production System Brand

Since its early days, and as a major local cultural organization, the SNCF has shown a series of its own produc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it owns an opera theater. For instance, Richard Strauss' *Ariadne auf Naxos*, which premiered in Korea at SNART, and Gounod's *Faust* reflect SNART's innovative and pioneering attempts to broaden its spectrum and the

opera production system at a national level, rather than adhering to popularity or box-office profits. The premiere performances of *Die Verschworene* and *A Florentine Tragedy*, under the aggressive catchphrase "One Night, Two Operas," were crucial events in that these operas were not introduced as short extracts or gala concerts but revived in their complete forms. *La Traviata*, a SNART production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is ready to be unveiled as a public-friendly opera that embodies Seongnam's originality.

Furthermore, the SNCF has continued to take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new original productions imbued with local characteristics. The musical *Namhansanseong*, based on the original novel by Kim Hun, and the musical drama *The Market with Peonies Come into Bloom*, a story based on Moran Market, a local traditional market in Seongnam, are acknowledged as artistic works that were successfully infused with Seongnam's local identity and originality. Although it was discontinued too soon, the SNCF's Tancheon Festival, named after the wide stream that flows through Seongnam, was also a meaningful effort to revive the local character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Conductor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A Maestra is Born in Seongnam

Child prodigy cellist Han-Na Chang made her debut as a conductor at SNART in 2007, when she took

the podium to lead the youth orchestra at the First Seongnam International Youth Orchestra Festival, organized by SNART to promote music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among youth. At that moment, Chang, who had already established a distinguished career as a "great young cellist," was enthusiastically seeking to broaden her musical perspective through conducting. SNART, which was in the middle of planning a long-term orchestra project for youth music education, recognized Chang's potential early on and boldly supported her development. The product of Han-na Chang's talent and SNART's insightful planning, the *Absolute Classic* series was held every summer for six years from 2009 under the slogan "Music Changes the World." Through this series, Chang, who showed great passion for conducting, successfully changed her musical identity from a child prodigy cellist to a next-generation maestra. With every performance of the *Absolute Classic* series under Han-na Chang's name, her musical horizon extended farther and farther into the world. All these great achievements were possible thanks to SNART's consistent effort to support young musicians as well as Han-na Chang for six years.

Matinee Concert I Soirée Concert

Morning and Night Music Only for You

The French word "matinee" means "morning" in English, while "soiree" means "evening." Held at unusual times, the "Matinee Concert" (11 a.m.) and "Soirée Concert" (9 p.m.) have sought to establish a new culture in performing arts under the catchphrase "Classical music with coffee in the morning, sweet jazz with wine in the evening." The Matinee Concert, which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and was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program of SNART, runs at 11 a.m. on the fourth Thursday of each month. This concert allows audiences to enjoy music with a warm introduction while eating brunch.

Conductor Geum Nan-Sae, music critic Jang Il-Byeom, baritone Kim Dong-Kyu, and popera singer Kai joined this program as commentators, and this year, actor Kim Seok-Hoon has received the baton.

The longevity of SNART's Matinee Concert can be attributed to its inclusion of serious repertoires and top musicians, going against the preconception that morning concerts feature only easy-listening music.

On the other hand, the Soirée Concert was designed for those who want to enjoy their precious Friday nights with friends as well as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attend performances by 8 p.m. because of work. This concert features various popular music, ranging from pop and jazz to world music, and has been led by such competent musicians as Kim Hyeon-Cheol, Jeong Jae-Hyeong, and Lee Jeong. The Soirée Concert has enjoyed a reputation for providing wine along with high-quality performances. Through their use of unconventional concepts, the two concert series have become successfully anchored as concert brands representing SNART, and are excellent examples of successfully established concerts.

Park Concert I Picnic Concert

Nowhere but Seongnam

The "Park Concert," which is held every other week in Seongnam's Jungang Park throughout summer each year, is an innovative open-air concert unprecedented in Korea. Since its launch in May 2012, the Park Concert has received a rapturous response from citizens, as it presented a variety of free public performances, encompassing everything from classical music, pop, and jazz to ballet, in a natural setting within an urban area. Now, it has become a new cultural brand representing Seongnam City as well as SNART. No other concert hall has attempted this kind of free, open-air concert, featuring top musicians and held once every two weeks. Musicians who have performed at the Park Concert include cellist and conductor Han-na Chang and popular singers such as Lee Seung-Hwan, Sistar, Beenzino, Kim Geon-Mo, Deulgukhwa, Kim Chang-Wan, and Choi Baek-Ho. Most of all, the excellent facilities of Jungang Park, including the outdoor stage and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and the big cast of musicians have contributed to the Park Concert's reputation as a major outdoor event in Seongnam.

The "Picnic Concert," the successor to the Park Concert and also a free event, was designed for locals, particularly those living in Sujeong-gu and Jungwon-gu, Seongnam. Held in the city center near their homes, encompassing Eulji University and Shingu University, this open-air concert feels more like a light-hearted picnic and invites musicians of all generations, from those who were popular in the 1970s and 1980s, such as Jeon Yeong-Rok, Gu Chang-Mo, and Choi Seong-Su, to K-pop singers such as Ailee, Hwee Sung, and DJ DOC.

Book Theme Park

The First Book-Themed Space in Korea

Book Theme Park, located in Yuldong Park in Bundang-gu, is a unique space in Korea and the first to be furnished with book-related sculptures and facilities. In a diversion from the typical library concept, this creative venue was designed to stimulate the imagination and promote reading as well as to serve as a venue for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Completed in November 2005 and opened in January 2006 by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Book Theme Park had already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during the early stages of its design due to the long list of prominent figures participating in its development. Painter Lim Ok-Sang (head of the Lim Ok-Sang Art Institute) was in charge of general supervision and sculptures, Seung Hyo-Sang (head of Iroje) wa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Kim In-Su (head of Green Bau) played a key part in landscaping, and poet Kim Jeong-Hwan provided the concept for the park: "Book,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ir vision for the park was to create "a book and a painting, written and drawn on the Earth," to embody "nomadism crossing the border between architecture and art," and to establish "a site of communication for peace and a better life." The design concept of the park was based on the idea that the park would be created like a painting with the Earth as the canvas.

The park structures consist of an exhibition hall, a reading room, and an audiovisual room, surrounded by a path that approaches them (featuring the so-called "Book of Wind"), inscribed with the word "book" in various languages, a maze-like walking trail ("Book of Time") featuring descriptions of the history of books on a wall, an outdoor stage with a description of Cheonsang Yeolcha Bunyajido (constellation map) on the ground, and a pond in the shape of a book and intended for meditation ("Book of Water"). All of these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encourage visitors to think about books and give them a place for some rest and relaxation.

Equipped with such outstanding facilities and a beautiful environment, Book Theme Park has served as the venue for various exhibitions and events related to books and art. For instance, it was the venue for the inaugural installation art exhibition *Art in Library*, in which a great number of artists took part, the modern art exhibition *Walking through Books*, in which various topics of interest are expressed through symbols, and the exhibition of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in Korea and Japan named *Unified in Nature-A Melody of the Forest* (2007) as well as a series of book-related program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Book Art Fair, an invitational book art exhibition, and book-related performances, interactive activities, and other events that stressed the importance of Hangeul and books. Korea's first

International Book Art Fair, which was held to provide a glimpse into the world of books as art collectibles,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08 Korea Tourism, Culture, and Service Awards in the "innovative tourism promotion" category. Now, Book Theme Park is evolving into a place for communication with citizens on culture, art, and the humanities that enriches human life.

Seongnam Media Center

Media for Fun and Easily Accessible by Everyone

The Seongnam Media Center is a space where everybody can enjoy and create media and appreciate the arts. With the vision "Media can create a town, and a town can be changed by media," the Seongnam Media Center is open to anyone interested in learning media and offers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in photography, video, radio, and new media, allowing citizens to create documentaries on their daily lives and local communities, express themselves, and communicate through media. The programs include regular courses that guide students to understand and use media in each genre and at all levels, media courses for children and youths on the weekends and during school vacations, and interactive courses that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media-related jobs, such as a radio DJ, announcer, camera crew, or reporter. The media education courses encompass all generations and demographics, including children, college students, housewives, and senior citizens, allowing them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the media content they create.

The Seongnam Media Center consists of a media library filled with over 1,000 DVDs and books; a media gallery, where media and art come together; and various types of media equipment that are available for rent at affordable prices. In addition, it screens independent films on a regular basis and runs a barrier-free theater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Music as a Window to the World

Opened in November 2013 on the second floor of the SNART Opera House, the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is a space of cultural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that incorporates music, culture, education, and everyday art. Built with KRW 200 million raised by the members of the SNART Patrons Association, the museum displays a variety of musical instruments from various cultures and countries, including Myanmar, the Czech Republic, Vietnam, and Georgia, which were collec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onated by music-loving citizens. Though it is not large, the museum is a rare exhibition space specialized i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of the world.

The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runs an experience center where visitors can play the instruments on display and watch how they are played in short video clips. It also runs the Opera House backstage tour programs and holds regular concerts with commentary and seasonal concerts using the instruments on display. As a new cultural space and experience center in Seongnam, the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opens windows to the world through music.

Sarangbang Culture Club

A National Brand of Art in Everyday Life

In Seongnam, there are over 1,000 voluntary art and culture societies. In support of these societies,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NCF) established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Project, which assists Seongnam's art and culture societies in their efforts to enhance their communication, self-sustainability, and professionalism, thereby empowering themselves to serve as the foundation of Seongnam as a creative art city. Currently, clubs in diverse genres, including music, art, and crafts, are active members of the Sarangbang Culture Club. The SNCF provides them with practice rooms and a system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order to help them enhance their self-sustainability and professionalism, aiming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by building a nationwide network of such societies, promoting club activities as part of daily life, and developing the societies to serve as cultural leaders of Seongnam.

The Sarangbang Culture Club won the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wards in 2010, was named an outstanding example of "Art for Cause," was one of the ten trend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1, and wo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ize at the Local Traditional Culture Brand Awards in 2012. It is now recognized as an exemplary model of "art for cause" and art as part of daily life.

Seongnam Arts Center Academy

High-qual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for Citizens

The Seongnam Arts Center Academy is a continuing education center that offers diverse, high-quality courses on arts and culture for local people. Boasting an extensive list of art, music, dance, and humanities courses for all age groups, such as "Tong (通)," designed to stimulate children's creativity, and "Snack Day," a class for families taught by experts, the Seongnam Arts Center Academ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provider of art education for citizens, creating a new paradigm. With 10 years of experience developing art education programs and unrivaled facilities, the Academy represents the ideal of creative arts education pursued by the SNCF and is the heart of art education in Seongnam.

The courses offered by the Academy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reativity and their taste in art and the humanities. Especially, its semester-based curriculum adds intellectual depth and expertise to the courses. The Academy now offers roughly 100 to 120 courses each semester in four areas, including art theory and the humanities; music, art, and photography; dance; and creative art education for children.

Orchestra: Seongnam and the Joy of Live Performances

Sir Roger Norrington and Daniel Hope

The orchestral performances held over the past decade at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can be summed up by the phrase "hearing the finest-quality sound in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Each year, many international orchestras hold concerts in Korea. SNART, however, differentiates its performances by inviting world-famous orchestras with unique sounds, particularly favoring time-honored European orchestras previously accessible to Korean audiences via recordings only.

Korean Debut of Gilbert Kaplan, the Greatest Mahler Enthusiast of Our Day

SNART's opening concert featured Gilbert Kaplan conducting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d was Kaplan's first performance in Korea. Already a millionaire many times over thanks to his success as an economic analyst and publisher, Kaplan became obsessed with conducting after listening to Mahler's Second Symphony conducted by Leopold Stokowski in 1965. Eventually, he gained legendary status as a Mahler specialist after recording with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Also, he founded the Kaplan Foundation to preserve musical scores, letters, relics, and other materials that belonged to Gustav Mahler. Kaplan has conducted various major orchestras on 100 different occasions in 50 countries, but it has always been the same music: Mahler's *Symphony No.2*.

On the day of his concert with the KBS Symphony Orchestra at the Opera House, Kaplan gave a free concert lecture in which he introduced Mahler's *Symphony No. 2*, *Resurrection*, demonstrating his passion as a true Mahler specialist. Furthermore, SNART's week-long opening was continued with brilliant orchestra concerts, including performances by maestro Kurt Masur and the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the Asia Philharmonic Orchestra, comprising prominent musicians from East Asia and conducted by Myung-whun Chung; and the Budapest Festival Orchestra under Ivan Fischer.

Invitation of Authentic European Sounds

The BBC Symphony Orchestra's concert (2006) provided one of the first looks at the chemistry between the orchestra and Jiri Belohlavek, shortly after his appointment as the new music director. The program included Elgar's *Cello Concerto in E Minor*, one of the representative repertories of the British orchestra, accompanied by Jian Wang (cellist), and Shostakovich's *Symphony No. 5*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er's birth. Both pieces thoroughly displayed the orchestra's unique colors.

Specializing in operas, ballets, and contemporary music, the Monte Carlo Philharmonic Orchestra and Eliahu Inbal were also invited to Seongnam (2007). Their concert was coupled with *La Belle*, a ballet production performed by Les Ballets de Monte-Carlo, making the event that much more sensational. The Munich Philharmonic Orchestra and Christian Thilemann (2007) introduced serious pieces through their program, featuring R. Strauss' *Tod und Verklärung* (Death and Transformation) and Brahms' *Symphony No. 1*. The La Scala Orchestra with Director Myung-whun Chung, Lang Lang, a world-famous Chinese virtuoso pianist (2008), and the Vancouver Symphony Orchestra with violinist Hilary Hahn (2008) have already left their marks on the early history of SNART.

Christian Thilemann

Having last visited Korea 13 years ago, the Czech Philharmonic, the pride of Eastern European classical music, was invited to Korea in 2014 to celebrate the "Year of Czech Music." Indeed, that year was monumental for Czech musicians. The anniversaries of several Czech composers were celebrated in 2014, including the 190th anniversary of Smetana's birth, the 160th anniversary of composer Janacek's birth, and the 100th anniversary of Dvorak's death. In this regard, the Czech Philharmonic's visit to Korea in 2014 was destined to be a sensation. With a program consisting of Smetana's *Moldau* and Dvorak's *Symphony No. 6*, the Czech Philharmonic presented their Korean audience with a charming Bohemian sound, proving their command over their own music.

"The Orignial German Sound": WDR Symphony Orchestra Cologne

The most noteworthy feature of orchestral performances by SNART is the sheer number of eminent German symphony orchestras. The first was the Stuttgart Radio Symphony Orchestra in 2010, led by Sir Roger Norrington. The concert consisted of

Paavo Järvi and Hilary Hahn

Jiří Bělohlávek

Haydn's *Symphony No. 1*, Dvorak's *Symphony No. 7*, and Brahms' *Violin Concerto* and highlighted the solid relationship that Norrington and the Stuttgart orchestra had established over a decade of performing together. The accompaniment by British violinist Daniel Hope was another outstanding feature.

The second German orchestra was the Frankfurt Radio Symphony Orchestra with violinist Hilary Hahn. Conductor Paavo Järvi showed an analytical yet solid interpretation of the music at the time, and returned for more performances in Korea, where his followers continue to grow.

The upcoming German orchestra concert for SNART's 10th anniversary is the WDR Symphony Orchestra Cologne. Scheduled for October, this event will also mark the orchestra's Korean debut. Their visit is already drawing great attention in Korea as the program includes the whole cycle of Brahms' symphonies. It is a rare opportunity for Korean concert-goers in that no international orchestra has ever completed all of Brahms' symphonies on the same stage in Korea before, as well as for the fact that this German program will introduce the original German sound by a German orchestra in the autumn, the best season for listening to Brahms.

Discovering the Next Generation of Conductors

Yannick Nézet-Séguin and Robin Ticciati, two of the young conductors most active today, visited SNART in 2013 and 2014, respectively. Nézet-Séguin and the Rotterdam Philharmonic revealed their high quality, having been relatively underestimated by Korean audiences due to the overwhelming reputation of the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nother big orchestra from the Netherlands.

Robin Ticciati, called the "most promising young conductor in the world," held his first performance in Seongnam with the Scottish Chamber Orchestra, the "foremost cultural ambassadors" of Scotland, and pianist Maria-João Pires. These two concerts highlighted the charisma of the young conductors and presented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the value of these no less skilled orchestras. Both invaluable occasions provided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classical music in the world.

Early Music Concerts and Recitals: More Impressive Live Concerts than Recordings

The Concert Hall, one of the three main theaters in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is the best hall for classical music concerts. A space where even the softest pianissimo can be clearly heard throughout, the Concert Hall is consistently praised in reviews as an excellent venue covering all genres of classical music. Particularly, it is the hall best suited for recitals and performances of authentic music. Compared to modern instruments, period instruments for early music concerts are inevitably more susceptible to the conditions of the performance spac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ir softer volume and difficulties tuning. In this sense, the SNART's Concert Hall contributed as a "hidden player" in the perfect performance of authentic music.

The English Concert

The performance, held in honor of the first anniversary of SNART in 2006 and the first performance of early music at the venue, was given by famous baroque violinist Andrew Manze and his chamber orchestra The English Concert. In fact, early music concerts are rarely given in Korea due to the small audience sizes. However, thanks to the excellent planning of SNART, this concert was a special opportunity to meet the most outstanding baroque music player in the world. As the concert's title "Bach Family: A Musical Dynasty" suggested, Manze's program featured the musical pieces composed by J.S. Bach and his sons.

In 2009, marked by the 200th and 250th anniversaries of Haydn and Handel's deaths, respectively, SNART introduced early music concerts to celebrate both composers with the help of early music specialists the Amsterdam Baroque Orchestra, led by Ton Koopman. An organist, conductor, and musicologist, Koopman and his orchestra held their first concert in Korea at the invitation of SNART. In the concert, they played G.F. Handel's *Water Music Suite No.1* (HWV348), F.J. Haydn's Symphony No. 83 *La Poule* (The Hen), and orchestral suite from Jean-Philippe Rameau's opera *Dardanus*. Koopman showed his sophisticated interpretation of baroque dance music through *Dardanus*, while revealing his breadth of understanding and passion for classical symphonies with Haydn's works.

Violinist Fabio Biondi and his Europa Galante and Ian Bostridge, a world-renowned and famously intelligent British tenor were welcomed by Korean audiences, who enjoyed not only the Baroque music but also the vocal performances. Europa Galante provided a musical "feast" with various Baroque pieces, including Corelli, Vivaldi, and Telemann, while Bostridge performed vocal

repertories from his *Three Baroque Tenors* recording (EMI).

French baroque specialist Marc Minkowski also held his first concert in Korea with his orchestra 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 The concert featured *Une Symphonie Imaginaire*, an arrangement by Minkowski of dance music and orchestral pieces from Rameau's 11 operas and Gluck's score from the ballet *Le Festin de Pierre - Don Juan*. It was a precious opportunity for the Korean audience to hear music that had been performed so rarely in Korea, and allowed them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French baroque music in a colorful and glamorous style. Music critic Lee Joon-hyeong gave the performance high praise in his review: "The audience that day probably intuitively realized why Rameau is called a pioneer of the modern orchestral language and why his music stands for the apex of French baroque music. The sound quality of the Concert Hall, where clear and balanced tones could be heard, was also outstanding."

Giovanni Antonini, recorder player and conductor, and his Italian period music ensemble Il Giardino Armonico ("Harmonious Garden") also made their Korean debut in Seongnam. Just as the ensemble's name implies, the audience that day discovered a beautiful and harmonious landscape expressed by baroque music. In particular, Antonini's solo performance in Telemann's *Recorder Concerto in C major* showed brilliant virtuosic techniques, much like he had shown earlier in this career.

Stars Born in Seongnam

Matthias Goerne (baritone) and Anne Sofie von Otter (mezzo-soprano) are two representative musicians who became superstars in Korea through performances organized by SNART. Both musicians had been relatively unknown to the Korean public before holding their first concerts in Seongnam. They showed their fantastic artistic talents through these concerts, making long-lasting impressions that garnered them many new fans. As the "most popular diva in Northern Europe," Anne Sofie von Otter's biggest strength is her remarkable musicality,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eras and genres. Her first concert in Korea, held in 2006, left little doubt as to the reason she i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mezzo sopranos of our generation. Von Otter returned to SNART two years later for "Anne Sofie von Otter's Christmas Concert" (2008), which featured Christmas songs from her native Sweden and easy-listening winter music.

Baritone Matthias Goerne has a special bond with SNART. Having performed at SNART's opening concert in October 2005, he returned a decade later for this September's 10th Anniversary Concert with beautiful German songs by Schubert.

Called the "bad boy of classical music," controversial violinist Nigel Kennedy gave a concert at the Center with his jazz quintet, overwhelming the audience with his creativity and freedom. As Kennedy's first recital in Korea and a collaboration among jazz musicians, the performance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n Experience of the Most Stunning Virtuosity

"The International Pianist Series" is one of the major classical music projects at SNART. This series drew attention by virtue of its handpicked invitation list, which includes remarkable musical geniuses with huge fan bases and artists who have gain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but have not yet secured their own stage in Korea. Russian "Virtuoso of Steel" Arcadi Volodos (2010); the intellectual pianist Paul Lewis (2011); pianist Marc-Andre Hamelin (2012), famous for his flashy technique covering various difficult pieces; and Jean-Efflam Bavouzet (2013), a pianist who is representative of contemporary French pianism are among those who left big impressions through the series at SNART's Concert Hall.

A Differentiated Production Theater with Potential

Since its opening,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has proven its potential as a production theater through a wide variety of performances. Especially, the Center has contributed to Korean opera history by creating several productions that had rarely been seen in Korea, such as *Faust, Ariadne auf Naxos* (Ariadne on Naxos), and *Die Verschworene* (The Conspirators). These productions propelled the Center into its unrivaled position among opera theater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Center has also made an effort to develop local cultural brands by producing the musical *Namhansanseong*, featuring a story based on local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To celebrate its 10th anniversary, the Seongnam Arts Center will make a new leap forward as a production theater, after a seven year hiatus, with its new opera, *La Traviata*.

<Faust>

Award-winning Seongnam-made Opera

In its opening year, SNART chose to show Gounod's *Faust*. This grand French opera composed of five acts (210-minute running time) was successfully completed under the direction of Lee So-young in a simple yet dramatic way. Top Korean opera singers, including Bayreuth singer Samuel Yoon (base) and tenor Kim Seok-cheol also gave outstanding performances. The production received rave reviews: "*Faust* was a thrill rarely experienced in the performing arts. Rather than relying on only one excellent singer or stage, it captivated the audience throughout the entire performance. It was unforgettable." (*Yonhap News*, opera critic Lee Yong-sook). Moreover, this opera was named the "Domestic Production Opera of the Year" by various media and broadcasting companies.

Following *Faust's* success, the Seongnam Arts Center produced Mozart's *Die Zauberflöete* (The Magic Flute) in 2006 for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composer's birth, and the Korean premiere of R. Strauss' *Ariadne auf Naxos* in 2007. Like *Faust, Ariadne auf Naxos* was also named "Opera of the Year" at the 2007 KBS Performing Arts Awards, proving once again the superior quality of productions by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also produced several small operas for its Ensemble Theater. Under the project called "One Night, Two Operas," Zemlinsky's opera *Eine Florentinische*

Tragoedie (A Florentine Tragedy) and Schubert's humorous drama *Die Verschworene* were staged as one-act operas performed within only one hour each and accompanied by piano instead of a full orchestra, making them much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These pieces, which had originally been composed for small-scale theaters or salon-style performances, were selected to maximize the features of the small stage of the Ensemble Theater.

Namhansanseo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Original Korean Musicals

Based on its long-standing success in the opera, SNART made a foray into the genre of musicals. *Namhansanseong* was a new musical produced in celebration of the Seongnam Arts Center's fourth anniversary and based on Kim Hoon's original novel of the same title. Through this musical, the Center aimed to promote Namhansanseong, an early 17th-century fortress in Seongnam that has been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Expecting to develop Namhansanseong as a new local culture brand as well as a cultural icon, the musical was completed by SNART and Korean musical experts after two years of production. The story of the musical is set in a dark period in Korean history, when King Injo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fled to Namhansanseong Fortress to avoid an invasion by Qing China. Outside its walls, the common people were left to fend for themselves. *Namhansanseong*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al genre to translate the pain and struggles born and heroically overcome by Korean people several centuries ago into a modern language and style. With a production cost of KRW 3 billion and directing that involved spectacular special effects, dynamic music, and dramatic group dances, *Namhansanseong* presented a large-scale blockbuster image quite uncharacteristic of period pieces. As such, its premiere was a resounding success. In 2010, a revised version of the musical was released, featuring changes to the music, lyrics, dances, and characters intended to make the plot more dramatic and easier for the general public to follow.

Turning the Ordinary Lives of Local People into a Cultural Brand

The contemporary operetta production *Market With Peonies Come Into Bloom*, performed in 2011, was the Center's second attempt, after *Namhansanseong*, to create a local cultural brand. The new operetta, designed to raise awareness of SNART's strengths as a center of culture, focuses on Moran Market, the largest traditional "five-day market" in Korea, which has been playing a vital role in the lives of Seongnam citizens for generations. *Market With Peonies Come Into Bloom* fuses the elements of musicals and plays with the features of an operetta, and reveals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of Moran Market, the face of Seongnam.

A New *La Traviata*

SNART has not produced many operas since it was honored with two Opera of the Year awards in 2007, but it will be reviving its production system with Verdi's *La Traviata* in October 2015. Chang Young-a, winner of the Best Director Award at the 2010 Korea Opera Awards, is directing, and Oh Yoon-gyun,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and stage designer, is in charge of stage and costume design. Violetta will be played by sopranos Irina Lungu and Oh Mi-seon; Alfredo will be played by tenors Park Sung-kyu and Chung Ho-yoon, the first Korean singer to join the prominent Wiener Staatsoper (Vienna National Opera); and Giorgio will be played by baritone Yu Dong-jik. While the earlier productions were grand operas on a scale larger than operas usually performed in Korea (e.g. *Faust*), *La Traviata* is relying on its global popularity and the hope that it will move its audiences.

Originality through Dance

The dance performances at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can be summed up in two words: selection and focus. Although they are relatively few in number, all of the dance performances held by the Center are works rich in artistic depth and subjects of intense focus within the arts community. The Les Ballet de Monte-Carlo's *Cinderella* and *La Belle*, the National Ballet of China's *Red Lantern*, William Forsythe's *Heterotopia*, and the Ballet du Nord's *Tragedie* all held their Korean debuts at SNART.

Jean Christophe Maillot and Originality: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s Continues

Held in 2005, SNART's first dance performance was also the first staging of the ballet *Cinderella* in Korea. The production was originally directed by choreographer Jean Christophe Maillot of Les Ballet de Monte-Carlo in Paris in 1999. Although not performed as often as other classical ballets, Maillot's creative and elegant reconstruction of the fairytale has won consistent praise from audiences and critics alike.

The performance of *La Belle* at SNART in 2007 showed the powerful synergy between Maillot and Les Ballet de Monte-Carlo through a modern interpretation of a classic text. Unfortunately, the Korean performance of *Cinderella* had to be done with a recording, but *La Belle* was performed with music by the Monte Carlo Philharmonic Orchestra under the direction of Maestro Eliahu Inbal, achieving perfect synchronization of dance and music.

A performance of choreographer John Cranko's *The Taming of the Shrew* was held in 2006 at SNART for the Center's first anniversary. It marked the Korean debut of ballerina Sue Jin Kang with the Stuttgart Ballet. It was also the first time that Kang, who is famous for her roles in tragedies, performed in a comedy and was a successful and complete transformation for her, as evidenced by the pleasure she took in playing the role.

The National Ballet of China's *Red Lantern* performance in 2008 was the ballet company's first performance in Korea, but even more noteworthy was the attention received for its rather unconventional use of a prized film director for its stewardship—Golden Bear and Golden Lion winner Zhang Yi-mou. At the time, *Red Lantern* performances scheduled to be held in Korea had been cancell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due to the Chinese government's exacting requirements. However, this one was eventually staged through the combined efforts of five Korean organizations, including SNAR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Gyeonggi Arts Center, and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The performance of *Giselle*, the quintessence of romantic ballet, took on an entirely new character at SNART. Choreographer Mats Ek, often called the "renegade of modern dance," and Le Ballet De L'opera De Lyon presented *Giselle* as a mentally-challenged girl who needed to be tied up with rope to be controlled. After being abandoned by Albrecht, the distraught Giselle is admitted to an asylum. The "Dance of the Wilis," which made *Giselle* the precursor to ballet blanc,

Emio Greco <Hell>

<Heterotopia>

received an electroshock-like transformation, induced by asylum patients rolling around the floor dressed in white hospital gowns.

The Legend of Modern Dance Blooms in Seongnam

In April 2009, prominent European modern dance choreographer Emio Greco featured performances of *Hell*, his most famous work (and Korean debut), and *Beyond* (world debut for European-Asian cast) at SNART. The Nederlands Dans Theater (NDT), admired by top dancers all over the world and widely known for its experimental and innovative choreography, perform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at SNART through NDT II, a sub-troupe made up of young dancers between the ages of 17 and 22.

Master choreographer of modern dance William Forsythe and his dance company The Forsythe Company picked the modern dance piece *Heterotopia* as their first Korean performance, and removed all of the seats from the Opera House to make space for two room-like stages. Each performance was held for a maximum of 300 patrons who stood to watch. Dancers went from room to room, contorting their bodies, constantly spitting out dialogue in an incomprehensible language and reciting a strange alphabet. One dancer who sat in front of the piano repeated a goat-like bleating sound for the duration of the performance. This piece, which contained elements of both dance and drama, presented an entirely different realm of inspiration that, in the words of Forsythe, inspired audiences to "see, laugh, and enjoy."

The French Ballet du Nord's *Tragedie* caused a stir in the performing arts community in early 2015. First staged at the Festival D'Avignon in 2012, this piece features a dancing microcosm of humanity with male and female dancers ranging in age from 22 to 51 and of various body types dancing in the nude to symbolize the many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Choreographer Olivier Dubois emphasized that "the fact that not all people are imbued with humanity simply for being human beings is the tragedy of humankind." The first half of the performance featured runway-style walking by the dancers, which changed in the second half to include various types of walking and movements.

Seongnam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rmony between Art and the General Public

The Seongnam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was held annually from 2006 until 2009 and included performances by major domestic and foreign dance companies, experimental performances by young choreographers, and popular performances for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various participatory programs. The festival took place not only at SNART but also in much more casual locations, such as Bundang Jungang Park, Yuldong Park, along the Tancheon, Namhansanseong Fortress, and Moran Market, so as to encourage greater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est. It ended in 2009 but nevertheless remains a highly meaningful event that enhanced the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dance and provided a place for exchange among the global dance community.

Cultivating Future Leaders for Culture and the Arts in Seongnam

Through a wide range of programs that combine education and performances,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NCF) has encouraged greater awareness of culture and the arts among the young, cultivated future concertgoers, and helped redefine Seongnam as a center of culture and the arts. In particular, it has focused on a variety of youth orchestra projects that have helped young people learn to work together with the goal of supplementing the soloist-centered curriculum of music education in Korea.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se projects,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involved an orchestra conducted by cellist Han-na Chang. Having gained considerable experience with youth music education projects through *Absolute Classic*, the SNCF planned "Music Alps in Seongnam" in 2015, a program that promote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rough music education.

Since first opening its doors,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has conducted large projects for youth music education. Of these, the first Seongnam International Youth Orchestra Festival in 2007 was particularly famous as it was Han-na Chang's debut as a conductor. In order to maintain the positive momentum generated by the program, SNART then created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a program that strove to take the Korean classical music community in a new direction under the motto "Music can change society." Jointly operated by cellist-turned-conductor Han-na Chang and SNART, this project was often praised for its attempt to turn Seongnam into a city of music through artistic collaborations. Each year, 100 talented young musicians were selected through auditions and worked together with maestra Han-na Chang to create a unified sound. This emotionally moving process of young people communicating and maturing through music inspired many, and the program was strengthened even further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rin Maazel, Mischa Maisky, and other guest master musicians.

Besides *Absolute Classic*, the SNCF founded the Seongnam Youth Orchestra Festival in 2012. Involving one international and seven domestic orchestras, it was an invaluable occasion for young musicians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When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ended in 2014, after six consecutive years, SNART came up with an even more progressively-minded project to have young people in Seongnam engage with youth from Europe and communicate through orchestral performance. This culture and art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called "Music Alps in Seongnam," was held in cooperation with Seongnam's sister city, Zurich, Switzerland. In the first year, faculty from the Zurich Music Conservatory, including Vice President Seung-Yeun Huh, and the members of the Tonhalle Orchestra, ran the workshops and taught master classes. The concert finale provided profound musical inspiration for Korean youth under the direction of Christian Vasquez, a next-generation conductor and El Sistema graduate. For the "Music Alps in Seongnam" program in 2015, five young people from Zurich visited Korea and participated through a homestay program. Next year, Seongnam teens will visit Zurich to participate in local exchange programs.

Play: Moving Many Hearts from a Small Stage

<The Korean People>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has consistently presented a variety of plays created for its Ensemble Theater, which is designed for small-scale theater productions. In the early years, the Center primarily focused on well-known plays by famous directors and Korean drama companies, such as the Street Theater Troupe and Cotton Troupe. Later on, however, SNART launched the "Full House Plays" series, making it possible for citizens to see hit plays from Seoul's Daehakro theater district in Seongnam for just KRW 10,000 (about the same price as a movie ticket). This people-friendly program was hugely popular with Seongnam residents. In addition, with regular productions of famous foreign plays, such as the Toulouse National Theater's *Mille francs de récompense*, and its introduction of sophisticated dramatic art performances, SNART has moved the hearts of many theatergoers.

Masterpieces by Top Korean Directors

In its first year, SNART staged several traditional Korean theatrical masterpieces. *Ogu: The Format of Death*, with Lee Yoon-taek directing famed actress Kang Bu-ja and the Street Theater Troupe, enjoyed a 15-year run with an unprecedented 97 percent attendance at each performance. A play that reinterprets death through traditional Korean shamanic ritual, it is considered by foreign reviewers to be the most "Korean" of plays and is beloved by Korean audiences (often called the "bewitched play" due to its unconditional popularity). Other Korean theater masterpieces featured on SNART's Ensemble Theater stage in its first year were Director Kim Gwang-bo's *Equus* and Director Oh Tae-seok and the Cotton Troupe's performance of *Romeo and Juliet*, which gave the famous Shakespearean tragedy new life through Korean-flavored humor and levity.

The Center has also featured numerous child-friendly plays. Based on a story by the German children's author Elisabeth Stiemert (*Kinder Krach Und Grosse Ohren*), *Boom boom boom! Grandma's Room* received four awards at the 14th Seoul Children's Play Awards. This play gave actress Park Jeong-ja her acclaimed break-out role in children's theater and provided laughter and entertainment for many families through the combined efforts of the Children's Culture and Art School, Director Han Tae-sook, and the play's star performer, Park Jeong-ja.

Another play that proved SNART's potential in theater production is *the Korean People*, presented in collaboration with Uturi Troupe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This work is based on a play by Michel Vinaver, regarded as one of France's finest playwrights, and wa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War. Co-directed by a French-Korean duo, it was hugely popular in 2006 as it was the first presentation in Korea by a Korean theater company of a story about the Korean War by a French author. Vinaver's participation in a symposium in Korea about the play garnered it even more esteem.

The Center seeks out plays with both artistic value and popular appeal, and has found that magical combination in works such as *Gyeongsuk, Gyeongsuk's Father* (2007), which was the official invited performance for the 6th Miryang Summer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Story of an Old Couple* (2008), which was featured as part of the "Hot Topic Play" series. Both plays are about warm and abiding familial love. *Wuthering Heights* (2008), the dramatic interpretation of Emily Bronte's novel, was held in Seongnam following a successful run in Daehakro. It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audiences for its detailed and spectacular stage effects.

"Full House Plays": The Spirit of Daehangno in Seongnam

SNART's most representative theater program is the "Full House Plays" series, launched in 2011. It is SNART's most successful program for bringing in hit plays from Seoul's Daehangno theater district through an ensemble format. The secret behind its success is the weekday, business-hour show times, affordable festival seating at a flat KRW 10,000 per patron, and the convenience of avoiding Daehangno traffic. Featuring four plays every three months, "Full House Plays" not only features Daehangno box-office smashes and critically acclaimed works, but also promotes local talent, such as through its staging of *The Racing Flower Cart*, a play produced by Seongnam theater company Dongseon to commemorate its 27th anniversary. "Full House Plays" will continue its popular run into 2015 with such outstanding plays as *Hobby Room* and *Judo Boy*.

Victor Hugo as Presented by an Original French Cast

In 2014, the SNCF invited the Toulouse National Theater to perform its original production of *Mille francs de récompense*, the most noteworthy and recent example of the Foundation's "World Classic" series. Acclaimed opera and theater director Laurent Perry masterminded the Korean debut of this production, which was based on a little-known play by world-famous author Victor Hugo. In 1866, four years after completing *Les Miserables*, Hugo wrote *Mille francs de récompense* while in exile at Bailiwick of Guernsey, and devoted particular care toward its staging, refusing countless offers from theater troupes on the grounds that he did not want to "see it performed until there is true freedom." The play is about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living amid intense greed-driven social inequality and humanity's eventual victory over the abuses of mammonism. Ever since its first performance in France in 2010, it has created a sensation throughout Europe. Laurent Perry's modern directing style and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have also received positive reviews.

The stage directing of Perry, who is currently rising ever higher in fame as an opera director, was itself a particularly fresh inspiration for all viewers. His use of extreme light and dark contrasts to create a black-and-white movie effect coupled with unique color schemes for each act and the actors' dance-like movements provided a rich visual feast. The production was accompanied by Yeolhwadang Publishing Company's simultaneous release of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original play. Consequently, *Mille francs de récompense* created a sensation within both the literary and performing arts communities of Korea.

Brand Creation and Citizen-friendly Programs: Something for Everyone, Only in Seongnam

Over the years,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has successfully managed to establish a "Seongnam brand" by developing programs that do not exist at other performance venues or have not been fully utilized. The "Matinee Concert" "Full House Plays" and "Park Concert" are some of the signature programs that immediately come to mind when people think of SNART and have remained popular with audiences for 10 years.

SNART's most recent branding project is set to kick off in 2015. The "Entrée Concert," just as the French for "start" or "enter" implies, is a program designed to enable novice art enthusiasts to enjoy performances more easily and with more fun. To be held three times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the program provides advice on how to better appreciate ballet, classical music, and opera.

The "Matinee Concert" held on the fourth Thursday of each month at 11 a.m., includes brunch and classical music accompanied by insightful commentary and has been one of SNART's signature brand performances for the 10 years since its opening in 2006. Breaking away from the assumption that daytime brunch concerts feature only a light repertoire, the Matinee Concert includes everything from the classics to modern works. Also, accompaniment by world-class musicians adds depth to each performance.

The "Soirée Concert" targets those looking for some special enjoyment on Friday evening and offers the unique pleasure of conversation over snacks and wine in the lobby before a performance. Its combination of music and conversation consistently draws large crowds and excellent musicians, including singers Kim Hyeon-cheol and Jung Jae-hyeong, who serves as MC.

The "Park Concert" has been held at Bundang Jungang Park's outdoor stage every other week each summer since 2012. This outdoor concert gives people a chance to enjoy nature and music r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Hugely popular for its performances of classical music, pop, ballet, and other genres, which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he Park Concert is now not only a signature cultural brand of SNART but of the City of Seongnam as well.

The "Picnic Concert" is a free concert that allows the residents of Seongnam's Sujeong-gu and Jungwon-gu districts to enjoy music closer to home. Utilizing nearby performance spaces, including the soccer fields of Eulji University and Shingu University, this concert series has broad cross-generational appeal and, therefore, is particularly popular with families.

One major player that has been crucial in the hosting of such a variety of programs for Seongnam citizens is the Seongnam Civic Center. Located in Sujeong-gu, it was the city's only space dedicated exclusively to culture until the opening of SNART. The SNCF has re-established the Civic Center as a place to enjoy culture by scheduling a wide range of family-friendly programs. Conductor Geum Nansae's "Music Concert with Commentary" has been presented each year at the Seongnam Civic Center from 2007 to 2014 and is the venue's most beloved program.

A Cornerstone Festival Uniting the Tancheon, Local Culture, and the People

Through the "Tancheon Festival," a culture and art event held along Seongnam's business- and residence-lined Tancheon Stream, the SNCF aimed to create a festival that represented the City of Seongnam. Unlike most local festivals, which are centered around a particular local product or cultural heritage, the Tancheon Festival was based on the idea of creating autonomous cultural content through images symbolic of the city, such as the Tancheon, surrounding nature, citizens, and IT businesses. All citizens enjoyed the integrated culture and arts festival within the harmony created throughout the performance halls and outdoor venues along the Tancheon, in Yuldong Park, in Bundang Office Plaza, and elsewhere. Together with supplementary programs, the Tancheon Festival aimed to absorb the demand for culture that is traditionally centered in Seoul as well as expand the existing consumer base for culture to include citizens and children who had not previously attended events at arts centers.

The first Tancheon Festival, held in 2005, was made up of performances by 10 folk art performing groups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UK-based Luminarium Dance Company's *House of Light Made with Air* and a fringe festival of local art groups. The 2006 Tancheon Festival engaged citizens throughout the city for five days under the theme "Percussion Instruments." Outdoor stages featured world-famous percussion performance troupes and dance parades, while the Seongnam Arts Center (SNART) held performances of *Gondwana*, featured earlier in Australia's Adelaide Festival, and *A Midsummer Night's Dream* by the Barbican Centre in London. That year, a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was held at the Seongnam Citizen's Hall as well. Together with various hands-on programs, such as "Tancheon Citizens' Walk," the festival was joined by an average of 1,500 to 2,000 participants per day. In 2007, the Korean hostage crisis in Afghanistan led to the cancelation of several programs that year in order to support memorial events calling for the safe return of the survivors. In 2008, the fourth festival was based on the theme of "Light" with performances and carnivals put on by the Seongnam City Performing Arts Company and artists affiliated with the Seongnam branch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t and Culture Organizations. The final event of the festival was a fireworks display entitled "The Light and Future of Seongnam."

After four years, the Tancheon Festival was brought to a close. Although the festival failed to establish an identity that inspired large-scale and regular citizen participation, it served as the cornerstone for a cultural festival that represented Seongnam and proved the potential of an urban culture-based festival in the city. It also undoubtedly brought many citizens closer to culture in various ways.

SPECIAL EXHIBITIONS

Fresh Perspectives on Art Trends at Home and Ab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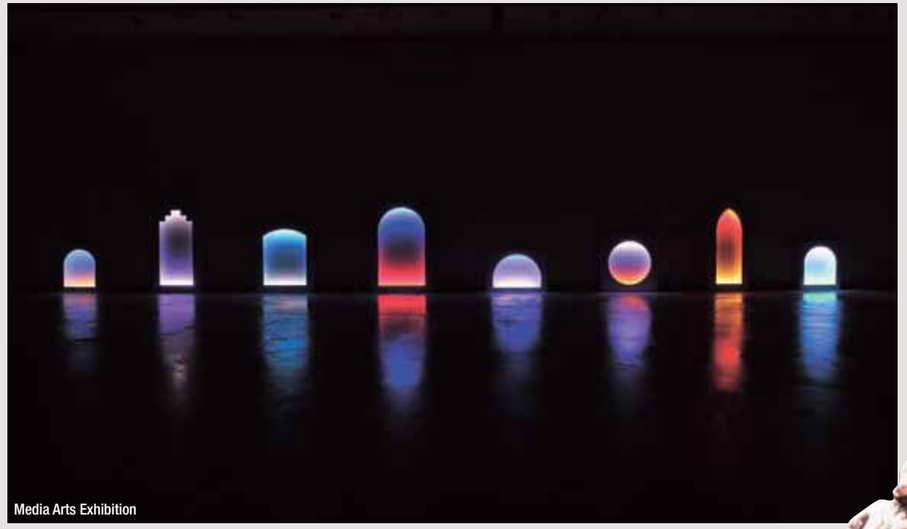
For the last ten years, Seongnam Arts Center (SNART) galleries have introduced local communities to the latest art trends in Korea and abroad by featuring a variety of special exhibitions that consistently strive to make Seoul-centered art accessible on a local level. One series of exhibitions traced the history of modern art in Europe, including Britain, Germany, Spain, and France, and gave new insights into genres such as pop art, media art, and fashion, which have emerged as major topics of interest in art circles in Korea. Also, these galleries have offered people more opportunities to enjoy art in everyday life by holding outdoor exhibitions and other interactive and communicative shows in an effort to expand SNART's unique position in the Seongnam area and beyond.

At first, SNART focused on making a name for itself by featuring outdoor exhibitions of works by Picasso, Rodin, and other famous masters and readily connecting and engaging with Seongnam residents. For example, the open-air *Ocean: Philip Plisson* exhibition, held in the first year, displayed works by the France-based marine photographer outside in Seongnam's Jungang Park and the 17th-century fortress Namhansanseong, northeast of the city. *Sebastiáo Salgado–Essay*, an exhibition of 173 photos that the human rights activist and documentary photographer took during a 24-year-period from 1977, raised awareness about famine, refugees, and labor issues, and SNART earned public recognition for its role as a facilitator of art appreciation through *Art Trip to Europe with Picasso & Rodin* (2006); *The Great Legacy of European Modern Art* (2008), a collection of works by modern European masters, including Picasso, Miro, and Chagall; and *Joan Miro–the Last Passion* (2009), an exhibition of 103 prints by the surrealist artist. SNART set out to highlight its individuality by specializing in modern art in 2010 through the opening of the Cube Art Museum.

Windows to European Contemporary Art

In 2010, SNART opened a second gallery to augment the existing Main Gallery (now named Galley 808). The intent behind the new Cube Art Museum wa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romotion of art galleries in regions outside of Seoul. Its inaugural exhibition, *John Moores Contemporary Painting Prize Show*, displayed modern British paintings by 30 Moores-prize winners, including David Hockney, Peter Doig, and Ian Davenport, leaders of modern art in Britain. The success of this exhibition convinced SNART gallery curators to hold special exhibitions of contemporary European art nearly every year. In 2011, for instance, the *British Royal Academicians* exhibition introduced Royal Academy members Michael Craig Martin, Lisa Milroy, and Anthony Gormley, all not only leaders of art in Britain but also prominent contributors to contemporary art on a global scale.

German Now–from Leipzig followed the *Royal Academicians* exhibition and highlighted the German Leipzig School. The school's legacy reaches back to post World War II East Germany, when its authoritarian socialist government kept out the influence of the art trends sweeping Western Europe. The exhibition provided a look into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modern art within East Germany as recorded by the Leipzig School and was touted as an informative introduction for Koreans to the relatively lesser-known styles of German contemporary art.


Media Arts Exhibition

Spanish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3) was SNART's first exhibition to trace Spanish contemporary art as a whole rather than through solo or themed group shows as is the norm in Korea. It presented a number of prominent Spanish artists, from first-generation masters, such as Picasso, Dali, and Miro, to third-generation, 21st Century trendsetters, such as Antoni Tapies, an Informel artist, and Jaume Pleansa, a sculptor best known for his public art.

Last but not least, *Bonjour La France* (2015) encapsulated the philosophy of French contemporary art by demonstrating how French modern art has thrived through an eclectic display of works portraying French culture and society. The pieces came from 22 established and up-and-coming French artists, including Niki de Saint Phalle, a leading French sculptor, and conceptual artist Sophie Calle (JR), a French photographer who works with residents in underprivileged regions to provide fresh insight into their lives. JR's collaboration with junior high students in Seongnam on the "Inside Out" project on the sidelines of the main exhibition also drew public attention.

Windows to the Latest Art Trends in Korea

SNART special exhibitions bring out current topics of interest in Korean art circles and introduce a variety of works by contemporary Korean artists. For instance, *Contemporary Media Art–Light, City of Color–Spectrum*, held in celebration of SNART's first anniversary, displayed works in diverse genres that use "light" as the medium. At this tri-themed exhibition, local artists brought out the hues coloring Seongnam citizens' everyday lives. Also on display were installations that

Bonjour La France

Ocean: Philip Plisson exhibition

incorporated IT to symbolize Seongnam's status as a city that fosters art and innovation.

Pop n Pop (2008) traced the history and concepts behind Korean pop art and its rapid evolution, while *Hyperrealism Arts* (2009) introduced the meanings and trends driving hyperrealism as well as Korean artists internationally acclaimed for their work in the genre.

Rediscovery of Korean Painting (2011) traced the progression of modern art within Korean painting from the 1950s, in search of new ways to restore its former glory, through a group show combining works by 24 artists, both young and old.

Landscape of Moment (2012) spotlighted photography's place as a genre of modern art by presenting diverse "moments" of time captured by 21 photographers.

Media Arts Exhibition (2014) explored media art through interactive works by leading Korean media artists who utilize digital media that have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This collection of innovative works showed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realm of communication between art works and spectators.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2014) showed the possibility of enjoying fashion through contemporary art and vice versa. Bringing together 11 local artists and seven local fashion designers, the exhibition showed how artists had blurred the line between the two genres by sharing their creative inspiration and motifs with each other.

Art in Everyday Life

SNART galleries have consistently featured diverse outdoor exhibitions and events. The MBC Korea Figurative Sculpture Contest, held in SNART Plaza every year, and the *Art and Park* exhibition, held four times a year right after the opening of each new SNART season, are some of the shows that SNART held with the aim of providing Seongnam residents the opportunity to enjoy art in a natural environment. "The Traveling Art Museum" allowed people to enjoy art in their neighborhoods at participating venues, such as Bundang-gu Office, Namhansanseong Fortress, and Junwon Library, without having to visit galleries or art museums. The "Art Market," held in an open space near SNART, was designed to offer the public and art aficionados an opportunity to enjoy viewing artwork and possibly secure some pieces at affordable prices through auctions. The Seongnam International Book Fair, held in 2007 and 2008 in Yuldong Park's Book Theme section, served as the venue for a display of books as works of art.

SUPPORT FOR LOCAL ARTISTS

Diverse Efforts to Nurture Local Art

Face of Seongnam

SNART galleries continue to support local artists and their art through various projects in order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s galleries run by a local organization. The projects include *Face of Seongnam*, an exhibition designed to support local artists' creativity as they produce works that define the identity of the City of Seongnam, and the Young Artists Exhibition, which offers the winners of the Young Artists Contest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ir own styles while creating pieces for a show.

Face of Seongnam was launched in 2006 as an annual Seongnam-themed exhibition drawn from an open submission process intended to spur the growth of local art through the production of works that cast Seongnam in a fresh light. The exhibition is a rare opportunity to explore Seongnam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and highlight its often obscured diversity.

Past, Present, and Future of Seongnam

"Time of Life, Face of Time" was the theme for the first *Face of Seongnam*, held in 2006. It celebrated the 33rd anniversary of Seongnam's founding and raised awareness by revisiting the city's past, exhibiting its culture, and envisioning its future. Seongnam and its residents are recurring themes of the exhibition with the local community's warmth showing up in faces captured at select spots in and around the city: "Namhansanseong Fortress" (2009), "Moran Market" (2011), and "Tancheon Stream" (2012).

Face of Seongnam 2015, held in June under the theme "Urban Joy + Rock," is noteworthy for expanding the entry requirements beyond Seongnam residents to include artists active in other regions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SNART's founding an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exhibition. It was a meaningful attempt by SNART to gain appeal for *Face of Seongnam* beyond the city limits.

Young Artists Contest

While *Face of Seongnam* is designed to support seasoned local artists, the Young Artists Contest focuses on aspiring artists active in the Seongnam area. This contest aims to give promising artists who are struggling to build careers in art an opportunity to show their work to the world and gain recognition in local art circles. The contest is open to artists active in Seongnam as well as all Seongnam residents and students and graduates of Seongnam colleges. The Grand and First Prize winners are awarded their own Young Artists Solo Exhibition at SNART galleries the following year. SNART also organizes the Young Artists Exhibition for all winners of the Young Artists Contest, and in 2013 held *Young & New* for the winners of all major SNART contests to offer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artists to interact with the public.

CHILDREN'S EDUCATION, INTERACTIVE EXHIBITIONS

How to Engage Children with Art, How to Enjoy Art Galleries

SNART presents various exhibitions intended to stimulate children's creativity and imagination. It is committed to developing their cultural and artistic sensibilities by holding exhibitions in various formats, such as family-friendly interactive exhibitions, children's art contests, and exhibitions with games, education, and art all rolled into one, among other such events.

For instance, *A Story about the EQ of Budding Painters Around the World* (2006) introduced a collection from the Hamada Children's Museum of Art in Japan. Offering spectators a rare opportunity to compare the creativity and imagination of children in different cultures, the exhibition gathered over 500 works by children from around 30 nations all over the world.

In 2009, SNART also held exhibitions with the popular animated characters Hello Kitty and Miffy as themes. *Inside Kitty* was a re-interpretation of Hello Kitty by over 40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As a special event, a senior designer from Sanrio, the Japanese company that created the cute little feline character, attended the exhibition to recount many behind-the-scene stories about the birth of Hello Kitty. *Let's Go to the Museum* aimed to bring children closer to art through the character Miffy within the friendly and relaxing gallery atmosphere. The *Playmobil Art Exhibition* (2015) featured 7.5-centimeter-tall human figures produced by the German-based Brandstätter Group to showcase innovative works created by artists around the world using playmobil toys.

Creativity Generating Interactive Exhibitions

SNART has presented a variety of interactive shows that focus on stimulating children's five senses through the use of light, color, paper, sand, soil, and other materials. The San Francisco Science Festival (2006), a touring exhibit by the California-based science museum Exploratorium, allowed children to learn the principles of natural phenomena through diverse interactive games that mixed science with art.

Play with Colors (2010) was an interactive exhibition inspired by a study that found that exposure to colors can help develop children's sensitivity and creativity. *Bustling Gallery* (2010) incorporated drama, performance, and interactive experiences with the basic elements of art, light, and color as the themes. The works on display were officially licensed replicas of major impressionist paintings in the possession of world-famous museums, and were not kept behind barriers but left open and accessible for children to touch and play with.

Earth, Wood, and Nature on Display

SNART also presented nature-friendly exhibitions for children heavily exposed to plastic toys, smartphones, and computer games. For instance, *Gallery Safari* (2011) transformed the gallery into an African safari with a modern twist so children could enjoy an interactive experience with nature. Other interactive nature-themed exhibits include *Sandbox-Lightbox* (2013), which offered children the chance to draw images by moving sand in an elevated box with an illuminated, translucent bottom and featured three villages decorated with sand and light for inspiration, and the highly educational *Namooya Namooya* (2013) was designed to stimulate children's five senses through nature-related materials.

Bestselling Children's Picture Books on Display

The World of Eric Carle (2012) introduced the picture books of Eric Carle, author of *The Very Hungry Caterpillar,* for the first time in an exhibition format. The mega-hit children's 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55 languages. The exhibition featured a collection of the author's illustrations from his children's books and other art works, offering an opportunity to learn the spectrum of colors and painting styles unique to him. In order to the make it perfect, SNART discussed all facets of the exhibition with the Eric Carle Museum of Picture Book Art, including exhibition-related designs and each supplemental program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exhibition *100 Years of Iconic Images from the Eric Carle Museum of Picture Book Art* made its Korean debut. On display at this exhibition were over 120 works by 28 picture book masters, each of which were a recipient of at least one prestigious international children's picture book award, such as the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and the Caldecott Medal. Popular American writer Mo Willems (author of *Knuffle Bunny*) visited the exhibition to engage in storytelling and book signing events with Korean children as well as a painting demonstration.

Aiming to Shape Seongnam into a City of Creative Lifestyles and Culture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NCF) has carried out diverse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designed to support the artistic endeavors of citizens and steep the city in art and culture.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Project, for instance, was launched to support voluntary art groups in forming networks and promoting art in local communities. The Seongnam Art Support Project helps citizen-led art groups take the lead in promoting local art projects through partnership and cooperation.

Launch of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and Its Cultural Contribution

There are over 1,000 voluntary art clubs active in Seongnam. Members of these clubs share information and hold joint events, such a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lectures, as part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y also hold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Festival every fa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art.

In 2006, the SNCF formulated a plan for five projects designed to make art a part of everyday life and nurture community cultures based on the "Study on the Basic Plan for Shaping Seongnam into a Creative City of the Arts." As a core part of the plan,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a 15-year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three stages–was launched in 2007. The first stage comprised the formation of the First Sarangbang Culture Club Organization Committee after a series of meetings, workshops, and group votes to elect club leaders. The SNCF then started supporting individual clubs that submitted applications and held the first Sarangbang Club Festival.

In 2008, groups of five to six clubs affiliated with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embarked o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ive to six times a year, independently visiting welfare centers, hospitals, parks, villages, and markets. The SNCF expanded the number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by accepting requests for visits from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matching them with willing clubs.

For the second stage, which spanned five years from 2009 to 2013, the SNCF focused on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vitalizing a network among them. The successful expansion of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was evident in the scale of the Sarangbang Culture Club Festival. The first festival was held with over 710 members from 38 clubs, but the second festival drew twice as many participants with 1,271 members from 78 clubs. Except for 2009, when the festival was reduced in scale due to the outbreak of the H1N1 flu virus, it has continued to grow. Held in 2010, the fourth festival drew 1,800 people from 157 clubs.

The second stage of the plan also introduced the Joint Club Project, for each art genre, and the Sarangbang Exhibition Unit,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clubs and the enhancement of networking among them. As a result, at the sixth Sarangbang Culture Club Festival, held in 2012, a sideline festival was held for citizens' clubs nationwide, attracting 19 clubs from 11 region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Uijeongbu, Bucheon, and Iksan. In 2013, the scale was even bigger, with 48 clubs from 18 regions joining the event.

The Sarangbang Culture Club Leading the Restoration of a Sense of Community

The Sarangbang Culture Club's restoration of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art has earned it a national reputation as a model for art in everyday life. In recognition of its achievements,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Project won the Prime Minister's Prize 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wards in 2010. It was also named an outstanding example of "Art for Cause" and chosen as one of the ten top trends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1. In 2012, it wo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ize at the Local Traditional Cultural Brand Awards.

The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Project is an organic and systematic model based on thorough research. Its success lies mainly in its clear citizen-led policy model and organic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which proved that there can be alternatives to top-down public-private relations in Korean society.

Support for Community Art and Human Resources for Project Planning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started with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support system that could bolster art groups and provide human resources for independent projects, allowing art to play a greater role in everyday life. Currently,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consists of three parts: general support for neighborhood art projects, support for shared growth,

Stage	Period	Goal	Core Tasks
Stage 1: Three-year Plan (Formation)	2006~2008	To lay the foundation for a citizen-led network	• Introduce culture clubs and form a network for exchange • Increase opportunities for culture clubs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y activities • Develop a community model for each village type
Stage 2: Five-year Plan (Development)	2009~2013	To vitalize cultural communities	• Revitalize village communities and expand exchange • Enhance the network for the participation of culture clubs in community activities • Establish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munities • Position citizen-based creative arts cities
Stage 3: Seven-year Plan (Maturation)	2014~2020	To fulfill the vision of creating a "city for creative citizens" with a global mindset	• Expand cultural clubs and developmental networks in all local communities • Expand and consolidate network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support for human resources for project planning.

The SNCF promotes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with the clear goal of supporting art as part of th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rather than simply distributing budget funds. The SNCF launched the shared growth support project in 2012, allowing both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organizations to join support groups together. As a result, three projects have received support through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the Sujeongnam-ro Art Project, which continued from 2012 to 2014, the Seongho Market Vitalization Project, which received the highest scores in the 2013 evaluations, and the World Culture Bibim Festival, which received support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2013 to 2015.

In 2013, the SNCF started the art planning human resources support program to enhance the capacity of individu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ctivities of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and help them build their own network. The program involves training everyday art advocates and those already in charge of planning art projects to work as local art planners. It offers various courses in basic literacy education, sensitivity development, and working-level training.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training program consists of problem-solving workshops rather than only lectures, and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performance planning, festival management, and community art–and involves four months of on-site, working-level, and mentoring workshops.

Citizen Monitoring and Professional Consulting

The indirect support system of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includes citizen monitoring and professional consulting. Citizen monitoring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entire support process, from project planning to evaluation. The monitoring group holds a network party once a month to share

their monitoring activities and fill out an evaluation form. Also, experts are invited to the network party to offer helpful tips and information to the monitors. These monitoring activities not only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local problems and art projects but also encourage them to volunteer to work as art advocates.

The professional consulting support system began in 2013 as a consulting service provided by a group of experts serving as project screening committee members. Experts in relevant areas participate in a project from beginning to end as screening committee members and mentors. The project organizers and sponsors can then systematically oversee and promote citizen clubs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similar projects. Moreover, they assist in the planning of future projects.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holds a meeting three times a year to share ideas and discuss diverse issues for further development. In short,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is an integrated art support system in which artists, mediators, and citizens all seamlessly collaborate for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for "Our Town"

The SNCF seeks to restore a sustainable sense of community through the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t supports communities wishing to hold art festivals in which community members enjoy diverse artistic activities and build a sense of

community. At first, the project focused on forging partnerships among community members, artists, and administrators and creating environments suitable for artistic activity. Beginning in 2006, the project launched a three-year plan that targeted, on a trial basis, five types of communal areas–alleys, apartment complexes, industrial parks, traditional open markets, and malls. Following that, a five-year plan, conducted from 2009 to 2013, involved projects that were carried out independently in each community with integrated support. While the first-stage project tackled culturally sparse areas, the five-year plan was undertaken with the community support center dubbed "Sarang Maru" as its focal point. Sarang Maru was organized to build a network among communities for joint action among residents, the SNCF, administrators, and experts.

Support for Community Activities Led by Local Residents

Started in 2014, the project's third stage, a seven-year plan, pursued the self-sustainability of community activities by supporting resident-led community activity programs. In other words, the third stage differs from conventional projects, in whic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led by organizers and artists. Rather, it supports local residents, organizers, and relevant institutions by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and helping communities work towards self-sufficiency and self-sustainability.

The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a success in offering residents of culturally sparse environments the opportunity to achieve communal bonding through art. The second stage of the project extended networks further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by local clubs and spread their network across Seongnam City, while the third stage showed that the Cultural Community Project, as a citizen-led initiative, represents a new alternative model for forming community cohesion based on art, and that there is every indication it can work just as well beyond Seongnam and Gyeonggi-do.

Creat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at Seongnam Arts Center Academy

A hub of creat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the Seognam Arts Center Academy aims to serve as a high-qual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providing the public with access to quality art lectures. It offers art education programs for all Seognam residents that are designed to instill in them greater appreciation for and enjoyment of culture and the arts as well as enhance their creativity. It is a place where anyone living in Seongnam can learn about and gain greater appreciation for culture and the arts. The Academy runs a number of projects, including creat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support for citizens' art creation, and filmmaking.

A Site for Nurturing Creativity and Knowledge of Art

Launched in 2005 with the aim of publicizing the opening of SNART and attracting the public to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he SNART Academy has grown as a culture and art education center and become the flagship of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NCF), offering over 200 courses annually. Since 2011, in keeping with Seongnam City's policy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and the role of the SNCF, the SNART Academy has been creating new paradigms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rather than simply offering art lectures. In addition to courses on practical skills, the Academy offers courses designed to develop creativity and ideal humanity through arts.

Currently, the SNART Academy offers 100 to 120 courses in several genres each semester, focused on art theory, humanities, music, visual arts, photography, dance, and creative arts for children. At first, the Academy ran quarterly term courses, but switched to the semester system in 2009 to provide more in-depth and professional instruction. Since 2011, the Academy has held an annual festival organized entirely by its students and instructors that features students' artistic creations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Enhancement of Seongnam City's Capacity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the hub of creat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moted by the SNCF, the SNART Academy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for the quality of its educational content, operational scale, and its positive impact on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eongnam City. The Academy's initiatives have expanded both the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eongnam as well. So far, over 20,000 Seongnam residents have enrolled in the SNART Academy and learned about art from over 50 instructors supervised by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ject departments and ten staff members.

With the SNART Academy's state-of-the-art facilities, such as its media hall, music rooms, and art rooms, Seongnam City now has ample spaces for quality culture and art education. The Academy has also contributed to culture and art education systems and networks around Seongnam City. It has run over 200 different kinds of art courses annually, perfecting its planning and operation of art programs. Adding to its achievements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it has branched out into establishing public-participation art festivals, such as the year-end music academy festival and art academy exhibits, and forming networks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inside and outside of Seongnam City.

Culture and Art Education that Makes School Fun

Seongnam City is home to over 150 K-12 schools with roughly 115,000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these students enjoyable education in culture and the arts, the SNCF develops and supports policies for creat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areas such as painting, music, and dance, pushing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culture and art education. It also develops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for incorporation into school curricula and nurtures devoted art instructors. Other school art programs developed by the SNCF include outreach programs, school curriculum-related programs, and art cre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The SNCF is also building a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chool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teachers, and the Seongnam Education Support Group.

Learning Communication and Harmony through Orchestral Music

The Seongnam Aulio Orchestra was launched after the SCNF was chosen for the children's orchestra education support project initiated by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1. Formerly known as the "Docheon Orchestra," the Seongnam Aulio Orchestra started with a group of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Docheon-dong, Jungwon-gu, Seongnam. The Orchestra practices twice a week, plays concerts on a regular basis, and performs at local village festivals and other public events as part of its social outreach. In 2014, it performed during the Hi Seoul Festival held at Cheonggyecheon Square, making a name for itself in Seoul. The Seongnam Aulio Orchestra represents a new model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children, combining art with education, welfare, and social work and offering children the opportunity to share their talents with the public. Prior to this children's orchestra, the SNCF had organized the Sujeong-gu Wind Orchestra in 2012 and the Family Orchestra in 2013.

Expressive and Interactive Media Education

With the opening of the Seongnam Media Center in 2012, Seongnam City began providing residents with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helps people come to understand media as a new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utilize it for interactions among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communal use of media and promoting community activities through media, the Seongnam Media Center visits local community groups, such as small libraries, civic organizations, and local children's centers, offering a total of 271 programs on media utilization in everyday life that integrate diverse media and genres for comprehensive learning. Altogether, it ran 1,041 lectures for over 5,328 residents from 2013 to 2014. The media programs include regular programs, media school, interactive programs, and community media education.

Support for Citizens' Art Creation and Film Screening Project

The Seongnam Media Center provides Seongnam residents with diverse media creation activities, such as news and radio content creation and filming. Despite the Center's short history, its Production Group, composed of Seongnam residents, boasts outstanding achievements in its efforts to produce stories about Seongnam using diverse media.

Media Content on Everyday Life Created by Residents

A core project of the Seongnam Media Center, the Production Group was organized to provide citizens with diverse support, including the knowledge, technology, equipmen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making media content. The First Production Group, which consisted of amateur media producers and college reporters, was launched in 2012, before the opening of the Seongnam Media Center. The Radio Production Group and Silver Media Production Group of Seongnam residents were launched the year after.

Since 2013, four media production groups led by citizens–the Film Production Group, Radio Show Production Group, Senior Film Production Group, and College Student Film Production Group–have been

Production Groups and Eligibility

Production Group	Eligibility
Film Production Group	Residents of Seongnam aged 20 years or older who can commit to producing video clips
Senior Film Production Group	Residents of Seongnam aged 60 years or older who can commit to producing video clips
Radio Show Production Group	Residents of Seongnam who completed the Citizen Radio Production Program
College Student Film Production Group	College students who attend colleges or live in the Seongnam area

producing media projects. They produced 31 media and 20 radio shows in 2013 and 32 media and 52 radio shows in 2014, with their productions being aired by local broadcast stations and featured on the Internet and in public presentations.

These productions appealed especially to Seongnam residents as they were created by fellow residents from all walks of life and were based on everyday life in Seongnam. The Production Groups utilize the skills they have learned to relate stories about their communities and communicate with others. They visit every corner of Seongnam with their cameras and microphones, looking for new stories to tell.

Desire for Media Content Creation and Film Contest

A film contest was launched in 2013 as a part of the Seongnam Media Festival. Designed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media content creation, the film contest welcomes anyone interested in creating video clip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eongnam City covering topics such as history, culture, people, and daily life. Over 80 percent of the footage of submitted videos must be shot in Seongnam City, and the videos must have a running time anywhere from 15 seconds to 30 minutes. Any genre is acceptable, such as movie, public interest advertisement, music video, documentary, or animation. The winners are selected by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Support of Professional Filmmakers for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ince 2014, the SNCF has supported the creation of films about Seongnam City and increased local infrastructure for film production and filmmakers wanting to make long or short independent films. However, to be eligible for support, at least 60 percent of a film's footage must be shot in Seongnam City or be focused on the city and its residents. The SNCF selects one full-length and one short film proposal and covers up to 70 percent of these films' total production costs. Of the 28 entries in 2014, the SNCF selected the full-length film titled *The Face with a Blue Mouth* directed by Kim Su-Jeong and the short film titled *The House Where No One Lives* directed by Mun Myeong-Hwan. The former debuted at the Seongnam Media Center on April 17, 2015. In response to enthusiasm and interest in the project among independent filmmakers, the SNCF increased funding in 2015 and chose four films to support from among 71 entries after two rounds of rigorous screenings.

Film Screening Project for the Introduction of Diverse Films

The Seongnam Media Center allows the public to enjoy diverse independent and art films at its multiplex theater facilities and runs the Independent Art Film House event, at which diverse outstanding independent films and art movies produced at home and abroad are screened. The Theater Without Walls was opened in October 2012 to better enable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o gain access to films along with everyone else. The theater also provides Korean subtitles and commentary on each scene for people with hearing and visual disabilities.

Also based at the Seongnam Media Center is the Cube Theater, a free film-screening event organized by the amateur Film Reading Club and the Youth Cinema for seniors, which shows classic films for KRW 1,000. In addition, the Seongnam Media Center holds events for the culturally underprivileged people of Seongnam City, including film screenings in certain neighborhoods and free outdoor film screenings, providing everyone the chance to enjoy culture and the arts.

Ten Years of Performances

2005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by Gilbert Kaplan
Oct. 15 | Opera House

Play <Ogu: The Format of Death>
Oct. 15~16 | Ensemble Theater

Ivan Fischer and the Budapest Festival Orchestra
Oct. 17 | Concert Hall

<Twin Houses> by Company Mossoux-Bonte
Oct. 18 | Ensemble Theater

Kurt Masur, Sarah Chang and the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Oct. 19 | Opera House

Play <Romeo and Juliet>
Oct. 21 | Ensemble Theater

Baritone Matthias Goerne Recital
Oct. 22 | Concert Hall

<Cinderella> by Les Ballets de Monte-Carlo
Oct. 27~29 | Opera House

Family play <Boom boom boom! Grandma's Room>
Oct. 27~30 | Ensemble Theater

Play <Equus>
Nov. 2~3 | Ensemble Theater

Tomasz Stanko Jazz Quartet
Nov. 3 | Concert Hall

Chung Myung-hoon and the Asia Federation Orchestra
Nov. 6 | Opera House

Acrobatic circus <Diavolo>
Nov. 9~13 | Opera House

Opera <Faust>
Nov. 24~27 | Opera House

All That Jazz in Seongnam: Larry Carlton & Bob James
Dec. 20~21 | Concert Hall

2006

Andrew Manze & The English Concert
Feb. 11 | Concert Hall

Anne Sofie von Otter Recital
Apr. 3 | Concert Hall

Matinee Concert
Apr. 20~May 11 | Concert Hall

Musical <Yoduk Story>
Apr. 18~19 | Opera House

Opera <Die Zauberflöte>
Apr. 25~30 | Opera House

<On dance> by La Compagnie Montalvo-Hervieu
June 2~3 | Opera House

Musical <Miss Saigon>
June 28 ~ Aug. 20 | Opera House

Four of a Kind (trombone quartet)
Aug. 4 | Concert Hall

Chung Myung-hoon and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bsolute Beethoven!>
Aug. 23 | Concert Hall

Goran Bregovic and the Wedding & Funeral Band
Aug. 31 | Opera House

The 1st Seongnam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ept. 5~10 | Seongnam Arts Center, Yuldong Park, Tancheon

Pianist Nina Kogan and the Suwon Philharmonic Orchestra
Oct. 10 | Opera House

<The Taming of the Shrew> by the Stuttgart Ballet
Oct. 14~15 | Opera House

BBC Symphony Orchestra
Oct. 21 | Opera House

Diavolo 2
Nov. 16~19 | Opera House

Han-na Chang Cello Recital
Nov. 22 | Opera House

Sergei Trofanov Live in Seoul
Dec. 9 | Concert Hall

<The Nutcracker> by the National Academic Bolshoi Ballet Theatre of the Republic of Belarus
Dec. 21~25 | Opera House

Soirée Concert
Dec. 16

2007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Octet Live in Seoul
Jan. 16 | Concert Hall

Musical <Mamma Mia!>
Jan. 18~Mar. 25 | Opera House

Matinee Concert
Feb. ~Dec. | Concert Hall

Munich Chamber Orchestra
Apr. 1 | Concert Hall

Soirée Concert
Apr. 24~Nov. 27 | Ensemble Theater

Radio France Philharmonic Orchestra
May 4 | Opera House

Nigel Kennedy Quartet Live in Seoul
May 9 | Opera House

The 1st Seongnam International Youth Orchestra Festival
May 22~27 | Concert Hall, Opera House

Evelyn Glennie Concert
May 23 | Opera House

Samuel Youn Recital
June 16 | Concert Hall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June 22 | Concert Hall

The 2nd Seongnam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ept. 6~10 | Opera House, Ensemble Theater, outdoor square

Opera <Ariadne auf Naxos>
Oct. 11~14 | Opera House

<La Belle> by Ballet Russe de Monte Carlo
Oct. 17~18 | Opera House

Monte-Carlo Philharmonic Orchestra
Oct. 19 | Opera House

Christian Thielemann and the Munich Philharmonic Orchestra
Nov. 11 | Opera House

2008
Soirée Concert
Feb. ~Nov. | Ensemble Theater

Matinee Concert
Feb. ~Dec. | Concert Hall

Nederland Dans Theater 2 <MINUS 16> <SLEEPLESS>
May 17~18 | Opera House

The 2nd Seongnam International Youth Orchestra Festival
May 23~June 1 | Opera House, Concert Hall

Small-theater opera: <Eine Florentinische Tragoedie> <Die Verschworene>
June 21~22, June 24~25 | Ensemble Theater

Chung Myung-hoon and the La Scala Orchestra
Sept. 9 | Opera House

Hilary Hahn and the Vancouver Symphony Orchestra
Oct. 11 | Opera House

<Red Lantern> by the National Ballet of China
Oct. 17~19 | Opera House

Han-Na Chang and the London Chamber Orchestra
Nov. 5 | Opera House

Anne Sofie von Otter's Christmas Concert
Dec. 14 | Concert Hall

2009
New Year Concert
Jan. 10 | Opera House

Matinee Concert
Feb. ~Dec. | Concert Hall

Soirée Concert
Feb. ~Dec. | Ensemble Theater

Ton Koopman and the Amsterdam Baroque Orchestra
Mar. 6 | Concert Hall

Emio Greco & Pieter Scholten Project: <Hell> <BEYOND>
Apr. 4~5 | Opera House

The 3rd Seongnam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pr. 25~May 2 | Opera House

Musical <Chicago>
June 5~29 | Opera House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Sept. 11~12 | Concert Hall

Musical <Namhansanseong>
Oct. 9~Nov. 4 | Opera House

2010
Arcadi Volodos Piano Recital
Feb. 27 | Concert Hall

Matinee Concert
Feb. ~Dec. (excluding June) | Concert Hall

Roger Norrington and the Stuttgart Radio Symphony Orchestra
May 6 | Opera House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II>
Aug. 14~16 | Opera House
Aug. 18~21 | Concert Hall
Aug. 25~28 | Outdoor square

Ivan Fischer and the Budapest Festival Orchestra
Oct. 8 | Concert Hall

<Giselle> by Le Ballet De L'opera De Lyon
Oct. 29~30 | Concert Hall

Musical <Aida>
Dec. 14, 2010 ~ Mar. 27, 2011 | Opera House

2011
Matinee Concert
Feb. ~Dec. (excluding July) | Concert Hall

Soirée Concert
Feb. ~Dec. (excluding July) | Ensemble Theater

Park Jong-ho's Opera Glass
Mar.~Dec. (excluding July and August) | Ensemble Theater

<Full House Plays>
Apr. 7~9, June 10~12, Oct. 6~8, Nov. 10~12 | Ensemble Theater

Operetta <Market Where Peonies Bloom>
Apr. 15~17, Apr. 20~24 | Opera House

Paul Lewis Piano Recital
Apr. 23 | Concert Hall

Musical <Mozart!>
May 24~July 3 | Opera House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III>
Aug. 13, Aug. 15, Aug. 20, Aug. 28 | Opera House, Concert Hall, outdoor square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Nov. 3~Dec. 18 | Opera House

Ian Bostridge and Europa Galante
Nov. 6 | Concert Hall

2012
Soirée Concert: <Lee Jung's Soul Stage>
Feb. ~Dec. | Ensemble Theater

Park Jong-ho's <Romantic Days>
Feb. 7, Mar. 13, Apr. 10, May 8, June 12, July 10, Sep. 11, Oct. 16, Nov. 13, Dec. 11 | Ensemble Theater

Marc-Andre Hamelin Piano Recital
Mar. 12 | Concert Hall

Matinee Concert
Mar. ~Dec. | Concert Hall

<Full House Plays>
Apr. 6~8, June 8~10, Oct. 5~7, Nov. 9~11 | Ensemble Theater

Naturally 7
May 11~12 | Opera House

Paavo Järvi and the Frankfurt Radio Symphony Orchestra
June 10 | Opera House

Seongnam Classics Festival <Youth Orchestra Festival>
July 10~14 | Concert Hall, Opera House, outdoor square

Park Concert
July 7, July 21, Aug. 4, Aug. 18 | Bundang Jungang Park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IV>
Aug. 18, Aug. 25, Sep. 01 | Concert Hall, Opera House, outdoor square

<Swan Lake> by the Korean National Ballet
Oct. 19~20 | Opera House

2013
Lee Jaram's Pansori Brecht <Sacheonga>
Feb. 23~24 | Ensemble Theater

Park Jong-ho's <Romantic Days>
Feb. ~Dec. | Ensemble Theater

Marc Minkowski and 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
Mar. 5 | Concert Hall

Musical <Mamma Mia!>
Mar. 8~16 | Opera House

Matinee Concert
Mar. 21~Dec. 19 | Concert Hall

Soirée Concert
Mar. 19~Dec. 20 | Ensemble Theater

<Heterotopia> by the Forsythe Company
Apr. 10~14 | Opera House

<Full House Plays>
Apr. 6~7, June 14~16, Oct. 4~6, Nov. 8~10, Dec. 6~8 | Ensemble Theater

Park Concert
May 5~Aug. 31 | Outdoor square

Seongnam Composition Contest
June 16~June 17 | Concert Hall

Yannick Nézet Séguin and the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June 9 | Concert Hall

King's College Choir
Aug. 8 | Concert Hall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V
Aug. 17, Aug. 24, Aug. 31 | Concert Hall, Opera House, outdoor square

Picnic Concert
Aug. 3, Sept. 7 | Eulji University

Jean-Efflam Bavouzet Piano Recital
Oct. 19 | Concert Hall

2014
Robin Ticcati and the Scottish Chamber Orchestra
Feb. 23 | Concert Hall

Il Giardino Armonico
Mar. 12 | Concert Hall

Matinee Concert
Mar. ~Dec. (held 8 times thus far, 10 times per year) | Concert Hall

Soirée Concert
Mar. 14, May 17, Nov. 22, Nov. 23 | Opera House

<Full House Plays>
Apr. 12~14, Dec. 12~14 | Ensemble Theater

Naturally 7
Apr. 18~19 | Opera House

Children's art theater <The Hungry Caterpillar>
Apr. 22~27 | Opera House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May 27 | Opera House

Picnic Concert
June 21 | Eulji University
Aug. 23 | Shingu University

Han-Na Chang's Absolute Classic VI
Aug. 2, Aug. 9, Aug. 16 | Concert Hall, Opera House, outdoor square

Ballet <Prince Hodong> by the Korean National Ballet
Aug. 29~30 | Opera House

Park Concert
Aug. 9~30 | Bundang Jungang Park

<Mille francs de récompense> by the Toulouse National Theater
Oct. 25~26 | Opera House

2015
New Year Concert
Feb. 6 | Concert Hall

Matinee Concert
Mar.~Dec. (10 times) | Concert Hall

<Full House Plays>
Apr. 17~19, May 29~31, Sep. 18~20, Dec. 11~13 | Ensemble Theater

<Tragédie> by Ballet du nord Company
Apr. 10~11 | Opera House

<Music Animation Machine>
Apr. 22~25 | Ensemble Theater

<Music Alps in Seongnam> orchestra festival
Aug. | Concert Hall

Entrée Concert
Sept. 12 | Opera House

Baritone Matthias Goerne recital
Sept. 19 | Concert Hall

Opera <La Traviata>
Oct. 15~18 | Opera House

WDR Symphony Orchestra Cologne
Oct. 22~23 | Opera House

Park Concert
Bundang Jungang Park

Ten Years of Exhibitions

2005

Ocean: Philip Plisson exhibition
Sept. 13~25 | SBS Atrium
Sept. 18~25 | Namhansanseong Fortress
Sept. 29~Oct. 16 | Bundang Jungang Park

Outdoor sculpture exhibition: Blue
Oct. 1~Nov. 30 | Seongnam Arts Center (outdoor square)

Modern Korean art exhibition: Passion
Oct. 14~Nov. 30 | Main Gallery

Sebastiao Salgado photo exhibition
Nov. 23~Dec. 11 | Main Gallery

2006

A Journey through Europe with Picasso and Rodin
Jan. 5~Mar. 5 | Main Gallery, Annex

Children of the World as Artists: EQ Story
May 5~28 | Main Gallery

2006 German World Cup Painting Exhibition
June 1~30 | Main Gallery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June 30~July 28 | Seongnam Arts Center (outdoor square)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July 10~27 | Main Gallery, Annex
Aug. 15~27 | Tancheon riverside

Modern Media Art "Light" Exhibition
Sept. 30~Oct. 20 | Main Gallery, Annex

San Francisco Exploratorium Exhibition
Dec. 20~Feb. 25 | Main Gallery

2007

Art Market
June 9~Oct. 28 | Seongnam Arts Center (outdoor square)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June 21~July 6 | Main Gallery, Annex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June 29~July 15 | Seongnam Arts Center (outdoor square)

Great Legacies of Modern European Art
Dec. 29~Feb. 28 | Main Gallery, Annex

2008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May 3~25 | Main Gallery, Annex

Mobile Art Museum
May 27~Oct. 18 | Welfare centers for seni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orld of Pop Art: Pop & Pop
July 4~Aug. 28 | Main Gallery, Annex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Sept. 6~29 | Main Gallery, outdoor square

Joan Miro: The Last Passion
Dec. 20~Feb. 22 | Main Gallery, Annex

2009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Mar. 11~24 | Main Gallery, Annex

World of Hyperrealism
July 14~Aug. 27 | Main Gallery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Oct. 17~Nov. 16 | Main Gallery, outdoor square

Let's Go to the Art Museum!
Dec. 12~Feb. 21 | Main Gallery, outdoor square

2010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Mar. 2~28 | Main Gallery

Robot Art and the World of Play
Apr. 21~May 24 | Main Gallery, Annex

Color Playground Exhibition
July 7~Aug. 29 | Main Gallery, Annex

Modern British Art Exhibition: John Moores Contemporary Painting Prize Show
Aug. 6~Oct. 14 | Cube Art Museum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Oct. 8~24 | Main Gallery, outdoor square

2011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Moran Market
Mar. 19~Apr. 3 | Main Gallery

Art Museum Safari
Apr. 5~May 29 | Cube Art Museum

Rising Artist Contest
June 3~15 | Cube Art Museum

Rising Artist Contest (Award-recipient artist exhibition)
June 3~15 | Main Gallery

Science in Classical Paintings
July 1~Aug. 23 | Main Gallery, Annex

Modern British Art Exhibition: Royal Academy of Arts
July 1~Sept. 25 | Cube Art Museum

Modern Korean Art Exhibition: A Rediscovery of Korean Painting
Oct. 5~Dec. 18 | Cube Art Museum

2012

Henri Matisse and the Dancing Saekjonggi
Jan. 1~Mar. 4 | Main Gallery, Annex, Cube Art Museum

Eric Carle: Korea Special Exhibition
Apr. 13~Sept. 2 | Cube Art Museum

Modern German Art Exhibition: GERMAN NOW
July 6~Sept. 2 | Main Gallery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Sept. 11~26 | Cube Art Museum

Modern Korean Art Exhibition: Time Landscapes
Oct. 9~Nov. 25 | Main Gallery

Rising Artist Contest (Award-recipient artist exhibition)
Nov. 15~28 | Main Gallery

Rising Artist Contest
Dec. 6~19 | Cube Art Museum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Dec. 2~9 | Main Gallery 2

2013

YOUNG & NEW Exhibition
Feb. 19~ Mar. 8 | Cube Art Museum

Rising Artist Contest (Award-recipient artist exhibition)
Mar. 19~31 | Cube Art Museum

Alice's Soap Bubble Experience
Apr. 23~June 23 | Cube Art Museum

Seongnam Children's Art Contest
May 5 | Seongnam Arts Center (outdoor square)

Modern Spanish Art Exhibition: Ola Spain!
July 2~Sept. 1 | Cube Art Museum, Main Gallery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Sept. 24~Oct. 5 | Cube Art Museum, outdoor square

Rising Artist Contest
Oct. 18~Nov. 03 | Main Gallery

Park Jina's <With Sand and Light>
Oct. 26~Jan. 26 | Cube Art Museum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Dec. 14~21 | Main Gallery, outdoor square

2014

The Great Discovery of the Picture Book
Feb. 7~June 8 | Cube Art Museum

Media Art: Expansion of the Senses
May 13~July 8 | Main Gallery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June 17~July 3 | Cube Art Museum, outdoor square

Modern Art and Fashion
Aug. 5~Sept. 28 | Cube Art Museum

Rising Artist Contest (Award-recipient artist exhibition)
Sept. 19~28 | Main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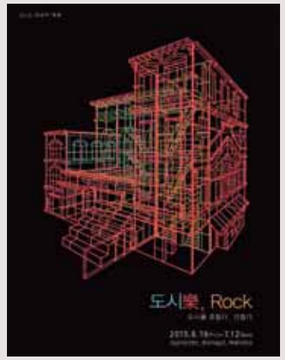
Rising Artist Contest
Oct. 11~22 | Cube Art Museum

Children's Experience Exhibition: Namuya Namuya
Oct. 31~Feb. 1 | Cube Art Museum

MBC Korean Representational Sculpture Exhibition
Dec. 9~16 | Main Gallery, outdoor square

2015

Faces of Seongnam Exhibition
June 19~July 12 | Cube Art Museum



Play Mobile Art Exhibition
July 25~Oct. 11 | Gallery808

Modern European Art <Bonjour La France>
July 29~Oct. 11 | Cube Art Museum

YOUNG & NEW (Award-recipient artist exhibition)
Cube Art Museum

Art Market
Sept. 15~Dec. 27 | Gallery Bandal

- Notification of name change: The name "Main Gallery" has been changed to "Gallery808."-

Ten Years of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Sarangbang Culture Club

2006
Publication of "Current Status and Needs of Seongnam's Sarangbang Culture" and "Study on Methods for Future Development of Sarangbang Culture"

2007
Founding of Club Supporters Group and establishment of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Committee
1st Sarangbang Culture Club Festival held
Beginning of operation of Sarangbang Culture Club Network (e.g. workshops, info sessions, club parties)
Sarangbang Culture Club website launched, contest held for cultural contribution projects (applications submitted by 42 clubs and organizations)

2008
Indirect support provided for cultural contribution project (67 clubs, 7 teams, and 46 events)

2009
World Culture Club Forum held (WCCF) (Korea, Germany, US, Bulgaria, UK, and Japan)
Won Grand Prize in "Presentation Contest for Excellent Cases of Literary Center Operation in Korea"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2010
Non-profit event held for a child cancer patient, featuring festivals of various genres (e.g. attempt at breaking Guinness record with 1,000-person saxophone performance)
Won Grand Prize in "Presentation Contest for Excellent Cases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Prime Minister's Award)

2011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example of "Top 10 Trends of Culture and Art: Now is the Time for 'Kind Ar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Won Grand Prize at "Local and Traditional Cultural Brand Awards"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Began trial run of Rainbow Bridge Project (for the expansion of cultural diversity) (support project f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egan "Art Matching Fun," a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ject for teens (six programs at six training centers)
Hosted the "Sarangbang Concert at noon" in Pangyo Techno Valley (April to December, 14 performances by 28 teams)

2013
Sarangbang Choir launched (support program for Korean Culture & Arts Centers Association, total 195 participants)

2014
8th Sarangbang Culture Club Festival held (won several awards, including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2015
Signed MOU with Seongnam Community Service Center
9th Sarangbang Culture Club Festival held (exhibitions, opening performance, Sarangbang Parade)

The Seongnam Art Support Program

2011
Gyeonggi Cultural Foundation's support programs for local culture and art activities brought under initiative of Seongnam City as "local cooperative Projects"
Support provided for 23 regular programs and six special programs
Citizens' monitoring group launched
Program report presentations begun

2012
Funding increased for Seongnam's support programs for culture and the arts
Coexistence & Cooperation Support Programs begun
Support provided for 12 regular programs and five special programs

2013
Program for cultivation of cultural event planning personnel education begun
Support provided for: 10 regular programs, three Coexistence & Cooperation Support programs, four Creativity and Lifestyle Art programs, and one cultural event planning personnel education program
Support for provision of program judges begun

2014
Support provided for: 10 regular programs, three Coexistence & Cooperation Support programs, and one cultural event planning personnel education program

2015
Support provided for: nine regular programs, two Coexistence & Cooperation Support programs, and one cultural event planning personnel education program

The Cult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for Our Town

2006
"Art comes to Taepyeong-dong" in Taepyeong 4-dong (alley-type)

2007
"Puljanghwansang" at Eunhaeng Jugong Apartments (apartment-type), "Kongdak Kongdak Art Complex" in Sangdaewon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complex-type)

2008
"Wondabang Sarangbang: Fun and Exciting Sangdaewon Market" at Sangdaewon Market (market/shopping center-type)

2009
Sarang Maru (neighborhood support center) begun

2012
KKumneobi Library (neighborhood community art project) established

2013
Village Community support programs launched (Dandae-dong, Pangyo-dong)

2014
Village Community support programs continued (Dandae-dong) and newly launched (Taepyeong-dong, Geumgwan 1-dong, Dochon-dong)

2015
Village Community support programs continued (Taepyeong-dong, Geumgwan 1-dong, Dochon-dong) and newly launched (Seohyeon 1-dong, Geumgwan 2-dong, Sangdaewon-dong)

Cultural Currency

2006
"Study on Cultural Currency model proposal and execution" commenced
"Study on Japanese LETS (Local Exchange Trade System) for introduction of Seongnam Cultural Currency" commenced
Operation of test program "1318 Happy Zone Sharing Radio"

2007
Sarangbang space sharing campaign launched
Membership application and member training begun for Cultural Currency members
Cultural Currency help exchange (education/performances, exhibitions) begun

2013
Operation of Sarangbang Art Hall and Citizens' Sarangbang commenced (Cube Plaza, Citizens' Hall)

Ten Year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jects

Academy

Oct. 2005
Free special lecture in commemoration of opening of Seongnam Arts Center

Jan. 2009
Academy changed to semester system

Mar. 2010
Free piano lesson program ("Cantabile") commenced

Apr. 2012
Saturday family program "Snac Day" launched

June 2012
Festival held for academy students

Jan. 2013
Free culture and art classes ("Yegrina") started
2013 Survey conducted on current statu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eongnam

Jan. 2014
Academy changed to seasonal semester system (winter-spring semester, summer-fall semester)

Mar. 2014
Second floor of academy building renovated
2014 study titled "Mid- to Long-term Developmental Prospect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Seongnam" conducted

June 2015
Evaluation conducted for 2015 academy classes

July 2015
Second semester of 2015 started

Media Center

July 2010
Applied 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establishment of media center

Sep. 2010
Media center project granted approval

Mar. 2011
Basic plans drawn up for Seongnam Media Center

Sep. 2011
Two meetings held to discuss the construction of the media center

Feb. 2012
Advisory committee created for media center establishment, construction plans begun

June 2012
Contract signed for construction of building/facilities and procurement of equipment for media center

July 2012
Plans made for test programs (media education, movie screenings, community programs, etc.)

July 2012
Construction of media center facilities and equipment begun

Nov. 2012
Oper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for media center established

Dec. 2012
Construction of media center facilities and equipment completed

Dec. 2012
Seongnam Media Center opened

Jan. 2013
First membership training and equipment operation begun, movie critique group met

Jan. 2013
Special lecture and classes held to commemorate the opening, test programs for community media begun (two neighborhoods, four types of media)

Feb. 2013
Independent art movie theater and Movie Theater Without Walls opened

Mar. 2013
Media classes for first quarter of 2013 commenced, call sent out for applications for citizen movie producers

Mar. 2013
Saturday Media School commenced

Apr. 2013
Cube Free Movie Theater opened, presentation ceremony held for first class of Citizen Movie Producers

May 2013
Outdoor movie screenings begun (Merida and the Magic Forest at Yuldong Park)

June 2013
G Cinema (movie theater in Gyeonggi-do screening various types of movies) opened, outstanding movies screened, 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movie screening tour held

Sep. 2013
Citizen-led radio production team W.S.N.B (Wonderful Seongnam Podcast) organized

Oct. 2013
First Seongnam Media Festival held, award ceremony held for movie contents contest

Dec. 2013
Detailed operational regulations for media center established

Mar. 2014
The "Oldies-but-Goodies Cinema" program, launched to play classic films for seniors

Apr. 2014
Citizen-produced video clips shown 10 times on citizen-participatory programs aired on local cable system Areum Broadcasting Network

May 2014
Seongnam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project launched

Oct. 2014
Seongnam Media Festival and Video Content Awards Ceremony held

Mar. 2015
School art education program launched

Mar. 2015~Apr. 2015
Call sent out for applications for Seongnam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Program, selection of movie projects to be supported

Apr. 2015
Movie previewed for 2014 Seongnam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Program (*Face with a Blue Mouth*, directed by Kim Su-jeong)

May 2015
Seongnam Media Festival held (citizen-participatory festival, media experience, family movie screening)

Aug. 2015
"Dream School" program launched to offer musical and film-making classe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pt. 2015
Seongnam-style education launched–offering integrated drama and education courses

Oct. 2015
Seongnam Media Festival held (community-style festival, photo/movie contest, presentations, etc.)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성남문화재단 백서

발행인 이재명
편집인 정은숙
발행일 2015. 10. 7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00
홈페이지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10주년 백서 편집팀
기획·진행 김용운 남소연
편집 박동기 윤혜숙 권대민 안정미 정보람 오희영 강은경 윤지은

교열 이지수
디자인·편집 오니트(주)
인쇄 진흥문화